

예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예술인 실태 및 예술인복지 만족도 조사 최종보고서

2018. 12.

제 출 문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귀 재단에서 본 단체에 의뢰한 <예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예술인 실태 및 예술인복지 만족도 조사>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 12

예술인복지정책 수립연구

책임연구	이승욱(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공동연구	송교성(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지식공유실장)
연구보조	정민정(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기획경영실장)
	최예송(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지식공유실 연구원)
	배미래(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지식공유실 연구원)

예술인 실태 및 예술인복지 만족도 ·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책임연구	최동일(주식회사 동남리서치 대표)
공동연구	임미향(주식회사 동남리서치 선임연구원)
연구보조	김연주(주식회사 동남리서치 연구원)
	최영진(주식회사 동남리서치 연구원)

본 보고서는

1. 2018 예술인복지정책 수립연구 결과보고서
2. 2018 부산 예술인 실태 및 복지만족도 조사 보고서
3. 2018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3개 보고서의 합본입니다.

2018

예술인복지정책 수립연구
결과보고서

2018. 12.

목차

제1장 과업개요 및 추진경과

- 1. 과업개요 13
- 2. 연구방법 및 추진경과 17

제2장 예술인복지정책 흐름과 현황

- 1. 예술인복지정책 개요 21
- 2. 예술인복지정책의 현황 33
- 3. 해외 예술인복지정책 사례 54
- 4. 소결 : 예술인복지정책 평가와 전망 61

제3장 부산 예술인복지정책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 1. 부산 예술인복지정책 현황 67
- 2. 2018 부산 예술인실태조사 결과 80
- 3.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95
- 4. 전문가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 103
- 5. 소결 : 부산 예술인복지정책 평가와 전망 108

제4장 부산 예술인복지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 1. 조사결과 종합검토 및 정책수립 방향 113
- 2. 부산 예술인복지정책 비전과 과제 116
- 3. 핵심과제 세부내용 117
- 4. 기반과제 세부내용 169
 -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위상 강화

제5장 정책제언

- 1. 예술인복지정책사업의 연관관계 187
- 2. 예술인복지정책 추진 로드맵 189
- 3. 세부 정책과제 연차별 소요예산(5개년) 191

참고문헌 192

부록 - FGI 결과 195

제1장

과업개요 및 추진경과

제1장 과업개요 및 추진경과

1. 과업개요

1) 연구 배경

○ 예술인 창작환경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관심 증가

- 문화융성, 문화도시, 문화국가 등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예술인들의 창작환경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구본주 조각가, 이진원 인디뮤지션, 최고은 작가 등의 사망 이후 예술인들의 사회적 지위 및 생존권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예술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함
-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1년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소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국가 문화예술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창작자가 존중 받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왔음
-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국정목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부분에 창작환경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을 적시하였음. 이후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문화비전2030 및 새 예술정책」에서도 예술인의 복지는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음

○ 지역 예술인 복지 수요 증가 예상

- 부산의 경우 2013년 「부산광역시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계기로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복지정책 수립,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예술활동증명 등록 대행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7년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부산문화재단)를 설립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과 플랫폼을 조성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음
- 부산의 예술인 복지 정책의 기초적인 기반 조성이 구축됨에 따라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증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점점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민선 7기 부산시의 정책 공약에서도 예술인들의 복지를 고려한 문화분야 공약이 제시되었으며, 최근 수립되고 있는 「부산문화비전 2030」 등에서도 예술인복지가 중요한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음

○ 지역예술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수집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 부산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여건과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부산의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예술인복지 정책 과제를 발굴함. 2015년 조사와 2018년 조사를 비교하여 그동안의 변화된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함
-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책 방향, 최근 발표된 「문화비전 2030」 등 정책변화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문화 분권 강화 등 변화되고 있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함

2) 연구 목적과 필요성

○ 기초자료 확보를 바탕으로 한 부산의 예술인복지 기반 조성

- 2015년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복지정책수립 보고서, 중앙정부 등에서 진행된 여러 예술인 실태조사와 토론회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최근의 부산 예술인들의 실태 파악과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창작여건, 생활실태, 복지수요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객관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예술인복지정책 과제를 발굴함

○ 부산의 예술인복지정책 현황과 지역 창작기반과 특징, 역량 분석

- 단순한 현황조사를 탈피하여, 2015년 수립된 부산 예술인복지정책의 실제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창작환경과 최근의 여건 특성 등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특징과 역량을 분석함

○ 부산의 예술인복지정책수립 및 사회적기여 확산정책 발굴 : 도약기

- 부산 예술인복지정책은 기초적인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음.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는 부산의 예술인복지정책 도약기의 과제로서 문화도시·문화산업·도시재생·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경제, 사회 부문 등 타 분야와 연계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함

○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 피해 사례조사

- 부산 예술인 성폭력 문제 피해 사례 조사를 통하여 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함

3)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7년, 목표연도 2025년, 계획기간 2019~2025년

○ 내용적 범위

- 부산지역 예술인복지 현황 및 실태, 문제점 분석을 통한 사업평가
- 해외 선진도시 예술인 복지 실태 및 국내 타 도시 비교분석
- 우리나라 예술인복지 관련 정책 검토 및 분석
- 부산의 예술인복지정책 수립
- 계획의 집행과 관리 방안 제시

○ 주요 연구 내용

■ 부산 예술인 복지정책 및 관련 정책 점검과 진단

- 예술인복지정책 및 관련 정책 현황 파악
- 지역 고유의 예술인복지정책 비전 재정립

■ 부산의 실정과 상황에 적절한 예술인복지정책 비전 수립

- 지역 특화형 예술인복지정책수립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위상정립 및 정책 강화

- 지원센터의 장기적인 발전방안 마련

■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복지정책의 수립

- 일자리창출, 도시재생, 문화산업 활성화 연계 지점 조성
- 지역 사회공헌 활동과의 연계

2. 연구방법 및 추진경과

1) 연구 방법

○ 예술인실태조사

- 부산지역 예술인의 창작여건, 생활실태, 복지수요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객관적 기초자료를 수집함
- 문학, 미술 등 11개 분야 2,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함
-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우편 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설문조사 진행함

○ 예술인복지정책수립

■ 문헌연구

- 예술인복지정책 관련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 국내외 사례, 지역현황 조사 및 분석, 관련 기관 정책 및 법률 검토 등 정책 수립을 위한 문헌연구를 수행함

■ 그룹별 FGI 실시

-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예술인 및 예술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예술인복지정책수립안에 대한 그룹별 FGI(표적집단면접조사, Focus Group Interview) 및 현장조사를 실시함. 특히 제시된 11개 장르별을 포함하는 인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청년문화, 원로예술, 다원예술 등의 그룹별 조사를 실시하여 입체적이고 풍부한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점검함

■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예술인복지정책은 문화예술분야를 넘어 지역 사회의 경제복지 등 전반에 걸치는 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함. 따라서 예술계 각 분야의 주요 인사를 비롯하여 사회복지, 일자리창출, 콘텐츠개발 등 문화예술 이외의 다양한 분야 전문기관,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통해 정책수립에 반영함

○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 조사목적 : 부산 예술인 성폭력 문제 피해 사례 조사를 통하여 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조사대상 : 부산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예총, 민예총 소속 회원 및 기타 문화예술인) 및 예비 예술인(청년, 대학생 등)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설문 실시(온라인 조사 화면 설계 및 제작)

2) 과업수행 계획 및 추진경과

○ 과업수행 계획 및 진행사항

구 분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5개월) 2018.7.19. ~ 12.1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예술인 실태조사						
· 표본 및 설문내용 확정, 기본계획검토						
· 착수보고회						
· 실태조사 수행, 분석						
· 중간보고회						
2. 예술인복지정책수립						
· 국내외사례, 예술인복지사업 현황 및 실태조사						
· 정책과제 발굴, 세부추진계획 수립						
3. 문화예술계 성폭력 조사						
· 모집단 조사, 표본 추출 방법 제시						
· 실태조사 수행, 분석						
4. 최종보고						
5. 성과품 작성 등						

제2장

예술인복지정책 흐름과 현황

제2장 예술인복지정책 흐름과 현황

1. 예술인복지정책 개요

1) 예술인복지정책의 정의

○ 예술인복지정책 정의

- 예술인복지정책은 예술정책의 일환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복지 정책임
- 「예술인복지법」(2011년 제정)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 예술인 계층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기반 마련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재생산 구조 구축, 직업인으로서 예술인 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성 해결,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불충분성 요인의 극복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음

구 분	내 용
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접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인의 정의 (제2조)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세부 사업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표준계약서의 보급 -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 불공정행위의 금지 -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산업재해보상보험)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p>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사업의 실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 정의 및 세부사업

○ 문화예술정책과의 차이점

-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진흥법을 바탕으로 크게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예술인복지정책은 예술진흥정책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1972년 제정)

-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문화향유 등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와 사회 내의 문화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됨

- 제정목적 (제1조) :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예술의 정의 (제2조) :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 문화진흥정책

-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와 사회 내의 문화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 제반의 영역에 관한 정책으로 문화분야별 지원과 활성화 정책
- 국어정책, 지역민족문화정책, 국제문화정책, 도서관정책, 박물관정책, 국립한글박물관건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등

■ 예술진흥정책

- 사회의 성장기반으로서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예술창작, 유통, 향유를 진흥하는 제반의 영역으로 예술장르별 지원과 활성화 정책
- 문학정책, 공연예술정책, 전통예술정책, 시각예술디자인정책, 문화예술교육정책 등
- 최근까지 예술진흥정책의 주요 흐름은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예술기반시설의 조성, 예술향유권의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왔음. 그러나 예술정책 및 지원제도의 다각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술창작 및 생산의 주체인 예술인 계층의 사회·경제적 소외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이규석 외, 2007). 따라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에 대한 지원으로서 예술인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있음

○ 문화복지 정책과의 차이점

- 일반적으로 ‘문화바우처’,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대표되는 문화복지 관련 정책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등 시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임. 문화기본법은 이러한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

■ 「문화기본법」 (2013년 제정)

- 문화를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중의 하나임을 인식하여 국민의 문화권 및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함
- 제정목적 (제1조) :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의 정의 (제3조) :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
- 문화복지 정책이 저소득층, 노년층 등 문화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문화향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이라면, 예술인복지정책은 일반적인 사회보장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고위험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여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임

○ 유사기관과의 차이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 창작 지원 정책과 문화복지 정책 관련 사업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단체의 예술경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박영정, 2012).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 특성에 기반한 시민문화활동 고취를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법인·기관명	법적형태	설립년도	설립 목적 / 주요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	특수법인	1973 한국 문화예술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 • 주요사업 : 창작지원, 문화복지, 후원 활성화, 교육, 정보제공/디지털아카이빙, 인력지원, 시설운영, 문학나눔 도서보급 등
	특수법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	2005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ARTE)	특수법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개인의 문화예술 향유 능력 및 창의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 • 주요사업 :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사업, 문화예술교육 학술 연구 및 조사,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업무 등

예술경영 지원센터 (KAMS)	공익 재단법인 (문화체육 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유통 활성화와 예술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 • 주요사업 : 공연예술 유통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각예술대중화 및 유통기반 조성사업, 예술의 산업적 기반구축 사업 등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KAWF)	공익 재단법인 (문화체육 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을 통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하는데 공헌하는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 • 주요사업: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역문화진흥원 (RCDA)	재단법인 (문화체육 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2016 생활문화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화가치 창출과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문화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문화적 삶을 누리게 함
	재단법인 (문화체육 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2017 지역문화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문화이모작, 문화가 있는 날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유사기관 비교

○ 지역문화진흥 정책과의 관계

- 지역문화정책은 문화분권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 속 문화적 권리와 고유한 지역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제반의 영역에 관한 정책으로 문화예술분야별 지원과 활성화 정책임

■ 「지역문화진흥법」(2014년 제정)

-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종합적인 지역문화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 시민 생활 속 문화 활동 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다양성 추구, 지역의 고유한 문화원형의 우선적 보존

- 제정목적 (제1조) :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문화의 정의 (제2조)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
- 예술인복지정책은 각 지역문화 형성의 주체가 되는 예술인들의 지역 내 생활, 직업, 창작 환경의 개선과 지원으로 궁극적으로 고유한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지원정책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지역에 특화된 예술인복지정책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원형의 보존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이룰 수 있음

2) 예술인복지정책의 대상범위

○ 예술인복지 지원대상으로서 예술인의 정의

-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이 분야, 장르별로 다양하고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예술인복지 대상자로서 예술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주요한 쟁점 대상임. 현재 문화예술진흥법과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을 통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의 증명을 정의하고 있으며,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을 통해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 관련 지침을 정하고 있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호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정의)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예술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입증할 만한 주요 기준으로는 일반 공중(公衆)에 의한 예술인으로서의 평판, 다른 예술인에 의한 인정, 예술적 직업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의 양(量), 예술 활동에서 얻게 되는 소득의 양(量), 창작한 예술 작품의 질에 대한 평가, 예술 관련 전문단체의 가입 유무, 스스로의 예술인 의식 등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법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지점이 있음. 특히 최근 들어 ‘생활 예술’ 등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비전문가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가치 논의가 활발한 지금(안채린.2018), 활동을 증명할 수 없는 예술인들은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여 예술인 복지 대상자로서 예술인들을 누구로 정의할 것인가는 최근의 주요 쟁점임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절차. 최근 일정 기간의 발표된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술 직업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고 있음
- 예술분야/예술 활동 유형: 문학, 사진, 건축,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총 11개 예술 분야 / 예술 활동 유형: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총 3개의 예술 활동 유형

○ 신청절차(예술활동증명 순서)

: 예술활동증명 방법 확인 > 자료 준비 > 신청(온라인) > 접수 확인 > 심의위원회 검토 > 결과공지

- 예술활동증명 방법 확인 및 자료 준비 (택1)
 - 방법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예술 분야, 직군별 기준)
 - 방법2: 예술활동 수입
 - 방법3: 기준 외 활동 경우(위 2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 가능, 지금까지의 예술활동 기재)
- 신청 및 접수 확인: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 검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결정
- 결과 확인: 약 3~4주 후 문자 및 이메일로 결과 공지

○ 갱신 :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 직업 예술가로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

-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에 따른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시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만료일까지 갱신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음
-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조교는 미적용(갱신 불필요)
- 복수 분야로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유효기간은 3년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 3.>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3.~5. 삭제 <2014. 3.28>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

3) 문화예술분야 특성과 실태

○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특성¹⁾

특성	문제점
노동시장의 이질성	- 복수의 노동시장 참여 - 문화예술과 비문화예술시장에 공존
고용의 유연성 높음	- 프로젝트 중심의 노동시장 - 대체인력의 증가 - 비정규노동 선호
인력의 과잉공급과 경쟁심화	- 열정노동에 의한 인력과잉 - 고용유연성에 의한 과잉공급 - 높은 강도의 지속적인 경쟁구조

1) 참고자료 : 2015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복지정책수립 보고서, 이원재, 2014. 예술인 복지 정책의 현재성과 개선방안. 예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강익희, 2011. 문화예술 인력의 복지 현황과 개선과제, KOCCA 포커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소득불평등 빈곤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덤과 피라미드 구조 - 저임금구조 - 소득없음과 빈곤의 일상화
--------------------	--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특성 및 문제점

-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 결과는 고용 불안정성, 저임금, 체불 등 고용관계의 저하와 사회적 안정만 결핍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음

■ 노동시장의 이질성

- 문화예술 노동시장은 동질적인 시장이 아니며, 다양한 기준으로 분절화되고 예술인들은 복수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타 분야에 비해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나타나면서,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예술적인 일 이외의 다른 유급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두 개의 시장, 즉 내부(문화예술분야)와 외부(비예술적) 시장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음

■ 고용의 유연성

- 후기산업사회에서 특징적인 생산방식으로 유연적 전문화를 거론하고 있지만, 문화예술분야는 장인노동에서 볼 수 있는 기능적 유연성이 후기산업시대 이전부터 발전되어 왔음. 하지만 최근 문화의 산업화에 따른 생산방식의 변화로 인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수량적 유연성이 확대됨. 단일 프로젝트 제작방식의 확산, 브로커 체계의 발전, 문화예술 인력의 대체가능성 증가 등이 수량적 유연성의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한편, 문화예술 인력은 작업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영업이나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형태의 근로형태를 선호함. 문화예술 직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특성이 갖는 매력은 예비인력의 공급을 증가시켜 수량적 유연성을 촉진할 수도 있음

■ 인력의 과잉공급과 경쟁 심화

- 예술적 직업의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직업선택은 개인적인 취향과 선호에 의한 것이 많으며, 예술가들은 생계를 위한 일보다는 예술적 가치와 활동을 중시하고 이에 대해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남.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특징적인 제작방식과 프로젝트 기반의 유연한 조직 특성에 따라 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음
- 소득 불평등의 심화 : 최고에게만 매우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슈퍼스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과정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고용의 불안정성, 한정된 일자리에 대한 노동 공급의 증가로 인한 경쟁의 격화로 저임금 현상이 나타남. 이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나타나는 경제적 빈곤의 문제라 볼 수 있음

○ 문화예술인 실태 (2015 예술인 실태조사)

-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3년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실시된 첫 조사로 2012년까지 3년 주기로 실시되었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와 규모·방법 등에서 전면적인 개편이 있었음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 대상 예술 분야	10개 분야의 문화 예술인 -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음악, 연극, 무용, 대중예술	14개 분야의 예술인 -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조사 모집단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회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 -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
조사 규모	2,000명	5,008명
표본 설계	예술활동 분야별 200명 임의 할당	조사 모집단의 지역별·분야별 분포를 고려한 제곱근비례배분
표본 추출	예술활동 분야별 문화예술인 무작위 추출	14개 분야, 16개 시도별 층화무작위추출법
조사 방법	우편조사	방문면접조사

2012년·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비교

※ 2015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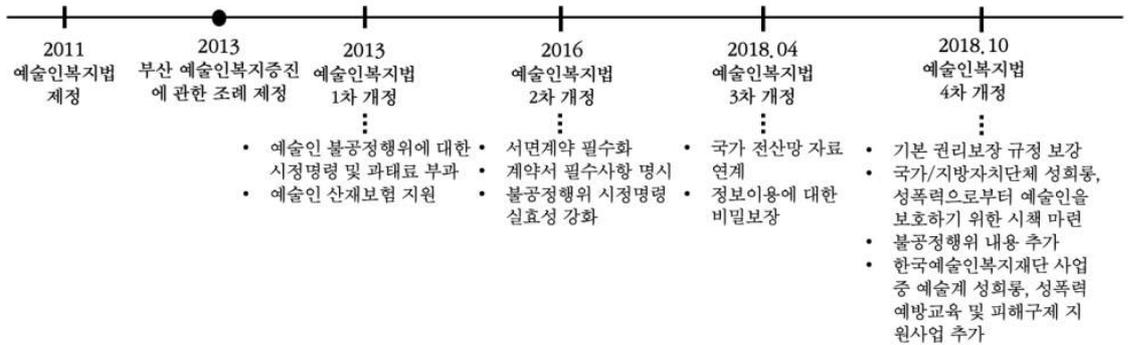
조사내용	조사 결과
<p>1. 예술활동 분야 및 활동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활동 분야별 예술인 분포는 ‘미술’(23.2%), ‘문학’(10.3%), ‘연극’(9.7%), ‘음악’(8.9%) 등의 순임 ○ 예술활동 경력은 ‘10-20년 미만’이 31.3%, ‘10년 미만’ 26.0%, ‘20-30년 미만’ 21.3%, ‘30-40년 미만’ 14.1%, 40년 이상 7.4%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3-5회’가 26.2%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1-2회’가 21.0%, ‘6-10회’ 17.9%, ‘16회 이상’ 13.9%, ‘11-15회’ 4.4%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가 없다’는 응답도 15.0%임 ○ 저작권(저작인접권) 보유에 따른 ‘수입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7.8%임. 예술분야별로는 ‘대중음악’이 6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화’ 55.7%, ‘문학’ 26.1%, ‘영화’ 25.2%, ‘방송’ 22.4% 등의 순임 ○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0.1%임. 예술분야별 외국 예술활동 경험은 ‘미술’(29.6%), ‘무용’(27.6%), ‘공예’(24.7) 분야가 타 예술분야에 비해 많았음 ○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3.1%임. 예술분야별 교육활동 종사 경험은 ‘무용’(52.2%), ‘음악’(43.2%), ‘국악’(42.5%) 분야가 타 예술분야에 비해 많았음
<p>2. 예술인의 개인 창작공간 보유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창작공간 보유 응답은 54.3%로 ‘집안에 창작공간 보유’ 19.4%, ‘집밖 별도 공간에 보유’ 34.9%임 ○ 개인 창작공간의 크기는 ‘평균 17.2평’이며, 소유 형태는 ‘자가’(40.7%), ‘월세’(34.6%), ‘전세’(17.1%), ‘무상임대’(7.6%)순임
<p>3.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가구 총 수입은 ‘중양값 4,000만원’, ‘평균값 4,684만원’임 ○ 지난 1년간 가구 총 수입은 ‘3-4천만원 미만’이 19.2%로 가장 많았음. ‘2천만원 미만’이 약 15%이며, ‘7천만원 이상’도 약 16%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 분야별로는 ‘건축’, ‘방송’의 가구 수입이 가장 많은 편으로 전체 가구 수입의 평균값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른 예술분야에서는 ‘평균 4천만원’이 일반적 수준임
<p>4.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예술활동 수입은 ‘중양값 300만원’, ‘평균값 1,255만원’임 ○ 지난 1년간 예술활동수입이 ‘없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5백만원 미만’(18.9%), ‘1-2천만원 미만(15%), ‘5백-1천만원 미만’(10.1%)등의 순임 ○ 분야별로는 ‘건축’, ‘방송’의 예술활동 수입이 많은 편으로 전체 예술활동 수입평균값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른 예술분야에서는 평균 1천만원 미만이 대부분임

<p>5. 예술활동 종사형태 _전업 예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 예술인 및 ‘겸업’ 예술인 각각 50.0%로 나타남 ○ 전업 예술인의 종사 형태는 ‘프리랜서’가 7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간제/계약직/임시직’ 9.8%, ‘고용주’ 6.5%, ‘정규직’ 6.4% 등의 순임
<p>6. 예술활동 종사형태 _겸업 예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직업 종사 형태는 ‘프리랜서’가 8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간제/계약직/임시직’ 2.3%, ‘고용주’ 1.9%, ‘정규직’ 1.8% 등의 순임 ○ 예술활동 외 직업의 종사형태는 ‘기간제/계약직/임시직’ 27.1%, ‘정규직’ 25.1%, ‘고용주’ 14.3%, ‘파트타임/시간제’ 12.9% 등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임
<p>7. 예술활동 및 비예술활동 직업 투입 비율_겸업 예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직업 투입 시간은 ‘평균 14.3시간’, 예술활동 외 직업 투입시간은 ‘평균 25.6시간’으로 나타나, 예술활동 직업 투입 비율이 36.6%임 ○ 분야별로는 ‘대중음악’(44.5%), ‘공예’(44.3%), ‘미술’(41.5%) 분야의 예술활동 직업 투입 비율이 다른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p>8.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0.7%임. 체결한 계약이 ‘서면계약’인 경우는 25.5%였으며, ‘구두계약’인 경우는 5.2%임 ○ 한편, 분야별로는 ‘영화’, ‘만화’, ‘연극’에서 계약 체결 경험율이 높았음 ○ 계약 체결 경험자 중 ‘부적절·부당한 계약내용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12.2%임. 응답자들이 경험한 부적절·부당한 계약 내용으로는 ‘낮은 임금’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불합리한 업무 규정’ 26.0%, ‘임금 미지급, 체납’ 12.3% 등임 ○ 조사 대상자의 4대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가입률이 95.2%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연금’ 56.8%, ‘산재보험’ 26.0%, ‘고용보험’ 25.1%의 순으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대중음악’, ‘영화’, ‘방송’, ‘만화’ 분야에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률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p>9. 예술정책 및 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 및 생활 만족도 항목에서는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 (긍정 78.8%)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한편, ‘경제적 능력에서는 한계를 느낀다’는 의견도 62.1%(긍정 응답)로 적지 않음

2. 예술인복지정책의 현황

1) 예술인복지정책의 흐름과 현황

○ 「예술인복지법」의 변화과정



■ 「예술인복지법」 제정(2011)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증진 및 예술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제정됨
- 예술인의 정의, 예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

■ 「예술인복지법」 1차 개정(2013)

- 예술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을 통한 공정한 예술창작환경 조성을 하고자 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벌칙권한을 마련함

- 주요내용

-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제4조의2 신설)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제7조2항신설)
-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제6조의2, 제17조제1항제2호 신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및 기부금 접수의 법적 근거 마련(제10조의2제1항 신설)

■ 「예술인복지법」 2차 개정(2016)

-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용역의 경우에 서면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이를 보완하고, 불공정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권한을 강화함

- 주요내용

-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으로 명시(제4조의2)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서면계약을 필수화하고 계약서에 적어야할 사항(계약기간, 갱신,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제4조의3 신설)
-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제6조의2, 제17조제1항제2호 신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및 기부금 접수의 법적 근거 마련(제10조의2제1항 신설)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서면계약을 필수화하고 계약서에 적어야할 사항(계약기간, 갱신,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제4조의3 신설)
-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변경하고, 불공정행위 위반여부 사실관계 조사 권한 확대(제6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불공정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3 신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및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제10조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단, 그 밖의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 국회의원 예술인복지법 개정 대표 발의안 주요내용(2016년~2017년)

- 오신환 의원 대표 발의안(2016.08, 2017.10) : 예술활동증명을 대신할 예술인등록제도 도입, 원로예술인의 생활안정지원 삭제,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통과), 표준계약서 의무화(→통과), 불공정행위의 적용대상을 문화예술용역 기획, 제작, 유통업 종사자로 확대하여 시정명령 불

이행시 관계 중앙행정관,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도록 명시

-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안(2017.17) : 과도한 유통수수료 요구 행위를 불공정행위에 포함, 문체부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법적 근거 포함, 예술인권익위원회를 문체부와 광역시도에 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 「예술인복지법」 3차개정(2018.4)

- 문체부 장관이 예술인 복지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할 때, 예술인의 신청편의를 위하여 서류를 받는 대신 국가 전산망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예술인 또는 가구원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게함(제10조의3 신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에게 예술인 또는 가구원의 관련 자료 요청 및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제15조의3,제15조의4)
 -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목적외 이용할 경우 벌칙(제17조)

■ 국회의원 예술인복지법 개정 대표발의안 주요내용(2018년 상반기)

- 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안(2018.03) :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 명시, 불공정행위에 계약과 다른 조건 및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추가→통과
-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안(2018.03)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의 권익보호 실태조사 실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명시→통과
-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안(2018.08) : 문체부 장관이 서면계약 체결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관련된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함

■ 「예술인복지법」 4차개정(2018.10)

- 문화예술계의 미투운동 등을 통하여 예술인의 직업특성상 인격모독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은폐·축소되는 상황이 드러남. 예술인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이에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책 마련 및 지원사업 추가
- 주요내용
 - 예술인의 존엄성 및 예술활동에 대한 권리보장 명시(제3조제2항,제2항 신설)

- 국가와 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제3항 신설)
-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추가(제6조의2제1항제1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추가(제10호 신설)

■ 국회의원 예술인복지법 개정 대표발의안 주요내용(2018년 하반기)

- 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안(2018.11) :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문체부 장관에게 부여,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시 시정조치
- 문체부, 예술인 복지법에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 추진(2018.11.15.) :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계약 여부를 파악 가능한 권한 필요에 의해 문체부 장관이 서면계약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도 추진

■ 「예술인복지법」 변화의 흐름

- 예술인 복지정책 실효성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사업실행 및 효율성을 위해 조례 개정상 문체부장관의 시정조치 및 권한이 확대되고 있음
- 지원사업도 소폭 늘어나고 있으나 본질적인 예술인의 창작환경 조성, 예술가의 직업적 권익 보장을 초점으로 개정사항들이 진행됨

○ 예술인복지정책의 흐름

-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예술인복지정책이 시행됨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개인의 자율성 보장’의 세부과제로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과 ‘성평등 문화의 실현’을, 또한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의 세부과제로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다음과 같이 각 3가지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였음. 예술인·종사자의 권리 보호, 예술인에 대한 지원체계, 복지지원,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집행

의제	세부과제	세부사업
개인의 자율성보장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종사자 노동권·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확충 • 문화분야 공공기관 및 지원체계 혁신 • 문화예술·체육인 복지지원
	성평등 문화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 성평등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혁신 • 성우호적인 성평등 문화정책 실현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콘텐츠시장 공정 환경 조성 • 공정한 스포츠 문화 형성 • 예술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생태계 조성

문화비전2030 중 예술인복지 관련사항(문화체육관광부, 2018)

- 예술인복지정책의 주요 핵심사항으로 4대 사회보험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2012년에 예술인 범위확장, 예술인 실태조사 의무화, 표준계약서 제정 고시 등을 구체화 했으며, 2015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예술인 가입자 부담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 했음. 2018년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한정애 의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을 발의했음
- 한 편, 최근 미투(#Me Too)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진선미 의원이 문화예술계 미 투 피해방지법으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예술인의 권리 내용에 노동 환경 개선, 성평등 인식 변화가 반영되고 있음
- 이러한 흐름속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문체부의 지원을 약속함.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은 헌법 제22조에 따른 예술가의 권리 보호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표현의 자유' 등 예술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에 관한 사항, 예술인의 권리 침해의 유형 및 형사처벌 조항 등 법제화, 독립적 사무를 수행하는 예술인 권리구제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이 주요 골자임
- 예술인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2018년 기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산은 약 275억 가량으로 배정되어 2015년 205.9억에 비해 상당량 증가함. 특히 2018년 예술인 대상 생활자금을 용자해주는 예술인 복지금고에 배당된 예산이 약 100억 원이 책정되었고(2019년 시행), 2022년까지 1,5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움

사업명	예산(백만원)
전체	27,553
직업역량 강화	8,191
창작역량 강화	13,954
불공정관행 개선	1,065
사회보험 가입	1,000
예술인복지금고 구축 지원	1,000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018 문화체육관광부)

○ **문재인정부 예술인복지정책의 현황**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새문화정책준비단에서 발표한 '문화비전 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의 9대 의제 중 예술인복지 관련 의제 및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음

■ **의제**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제도화)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 가치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민관 협치 강화) 현장과 함께 문화예술 노동환경 지속 개선

-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구성, 운영

예술인복지강화 :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개소,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통해 예술인의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예술인패스제공, 예술인의 창작, 주거연계확산 지원, 예술인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매개자 교육, 심리상담, 의료비, 자녀돌봄센터 운영 등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 실효성제고 : 표준계약서 확대 및 서면계약 의무화
- 신고 용이성 확대 : 예술계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 기반조성 : 콘텐츠시장 공정성 확대를 위한 법 제도 등 기반 마련
- 기준마련 : 공정보수 기준 공시제도 도입 및 저작권 수익 분배 구조 합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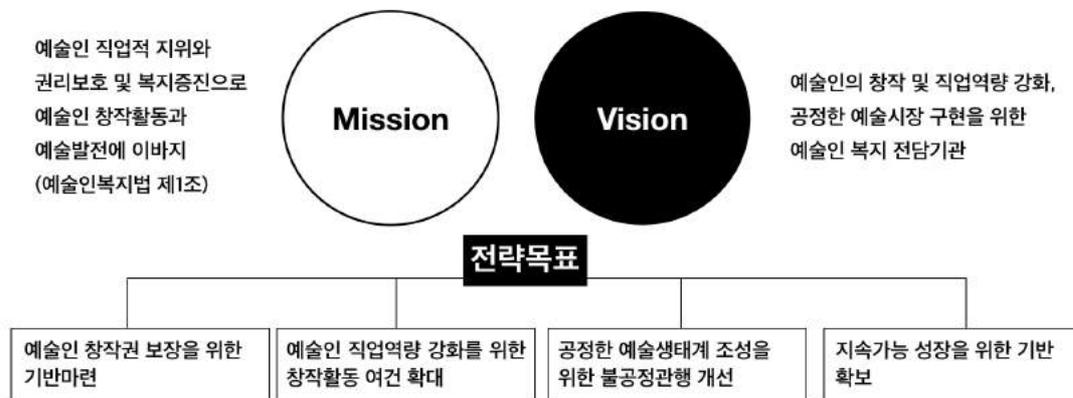
■ 세부과제

사업명	지원내용
비전과 목표 :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	
예술인 직업환경 및 복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예술인 직업환경 및 복지실태 조사강화 ② 예술인 사회적역할 확대를 위한 인문·노동교육 ③ 현장예술인 주도의 교육프로그램지원 ④ 예술인파견사업의 질적개선을 위한 재구조화 ⑤ 예술인 라운드테이블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형예술인고용보험도입추진 ② 산재·사회보험 가입률 향상 및 실효성 제고 ③ (가칭)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통한 접근성 강화
예술인 생활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활자금] 예술인복지금고도입으로 예술인생활지원 ② [문화향유] 문화예술인패스 개편으로 맞춤형혜택제공 ③ [심리상담] 창작활동 스트레스완화 및 창작의욕고취 ④ [자녀돌봄] 경력단절 방지 및 지속적 창작환경 조성 ⑤ [주거] 예술인의 창작·주거연계확산을지원 ⑥ [의료지원] 예술인의료비 부담 경감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 지역분권 및 자율성 제고	<p>예술인 복지정책 지역 협력체계 구축 (협업강화) 주거환경 개선, 공공 직무창출, 임대공간 제공 (가칭)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p> <p>* 복지재단-13개 지역문화재단 간 MOU 체결 및 문체부·지자체·재단 공동워크숍 개최(매년 2월), 정책방향 공유 및 공동사업 추진('19년~)</p> <p>(지역확산) 복지재단 사업 신청대행·불공정관행개선 등 협업('18년~) 및 지역문화재단에 예술인 복지 전담인력 배치('20년~)</p> <p>* 예술인 고용보험·복지금고·창작준비금 등 사업 안내 및 예술활동 증명신청 대행 등</p>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현황과 주요사업²⁾

○ 비전과 목표

- 예술인복지정책은 2012년 이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음. 2017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기준, 재단 예산은 2013년 대비 약 192% 증가한 248억 가량이며,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46,659명임
- 2017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다음과 같이 미션, 비전, 전략사업을 설정하고 있음



○ 재단 현황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 예술활동증명, 복지지원 사업,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등 예술인의 편의를 위하여 201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에 개소.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고충상담 및 문의, 민원 창구 기능을 담당

■ 예술인 법률상담·컨설팅

-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예술 활동 과정에 필요한 법률상담·컨설팅 서비스 지원함. ‘찾아가는 상담 컨설팅’을 월 2회 진행하고 있으며, ‘예술인 법률상담카페’ 및 일자리 박람회와 연계해 무료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서비스 실시중. 2017년 기준, 온라인 상담 컨설팅 177건,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 상담건수 97건 진행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7 연차보고서 참고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복지사업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이자 법적 근거. 2017년 기준 46,659명이 등록. 매해 평균적으로 이전 해보다 만명 이상이 추가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고 있음³⁾

※ 예술활동증명 신청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1,406	2,994	1,139	1,920	742	901	581	92	11,14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705	499	500	971	528	543	1,696	306	46,649

■ **예술인패스(Art Pass)**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로 각종 공연·전시 등 할인혜택을 제공함. 매달 10일,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매달 12일, 27일 재단을 통해서 발급하고 있음. 2017년 기준, 예술인패스 카드 소지자는 총 45,248명으로 전년 대비 36% 성장하였으며, 참여기관은 470개로 9% 증가함

■ **예술인 행복주택**

- 청년예술인이 행복주택 입주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행복주택 신청에 필요한 증빙을 발급받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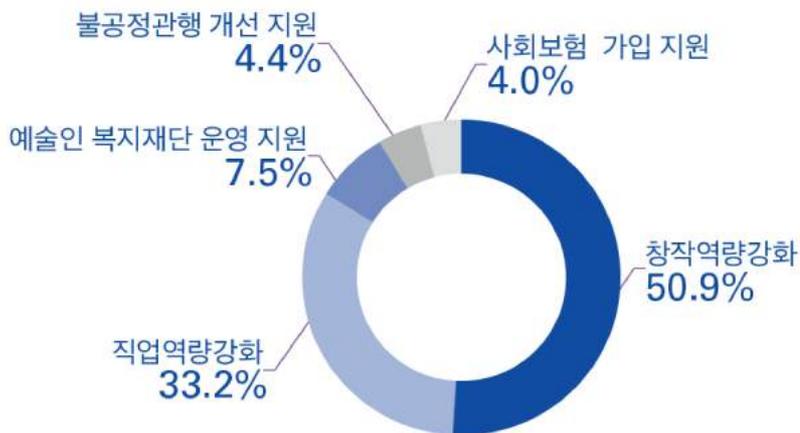
- 「예술인복지법」제6조(예술인의 경력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를 위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PC버전, 모바일웹)을 구축하여 상시 운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연단위 사업이나 상시 사업에 대한 안내와 온라인 신청 접수 등을 지원함

3)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2013년 6,654명, 2014년 13,489명, 2015년 20,526명, 2016년 34,731명, 2017년 46,659명 (201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 주요 사업

분류	사업명
창작역량강화	창작준비금 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직업역량강화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시간제 돌봄 지원
예술환경 개선	예술인 신문고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사회안전망 구축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2017년 사업별 예산편성



■ 창작준비금/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 활동 수입에 대하여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창작활동의 기회가 적은 만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을 지원함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중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75%이내 예술인이자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신청인이 가입자) 또는 150%(신청인이 피부양자) 이내 예술인. 2016~2018년 신청일자 이전까지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원로예술인은 20년 이상 실적 증빙 가능한 예술인에

계 1인 300만원까지 지원

- 2017년 창작준비금은 4,014명,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은 108명이 혜택을 받았음. 현재까지 총 15,228명의 예술인이 창작준비금 지원 혜택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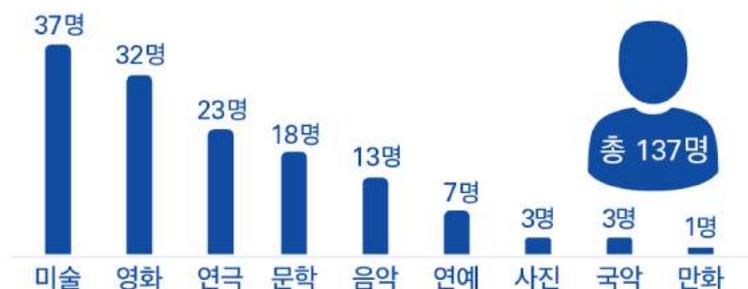
2017년 분야별 창작준비금 수혜자 현황



■ 예술인 의료비 지원

- 2013년부터 5년간 시행된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 상황으로 고통 받는 예술인에게 의료실비를 지원함
-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신청은 중증질환자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수준이 중위순위 80%이하가 기준임. 만 60세 이상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대신 예술경력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약조항을 마련함
- 5년간 총 137명의 중증질환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음

의료비 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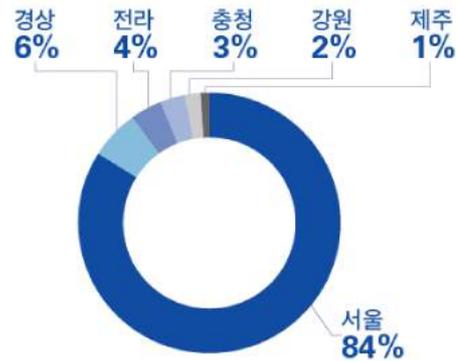
■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 기관 지역과 예술인을 연결하여, 예술인의 활동 영역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적극적 예술인 복지 실현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대상으로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960만원(8개월), 740만원(6개월)/ 참여예술인 720만원(6개월), 600만원(5개월) 2가지 분야로 신청받음
- 2017년 1,000명의 예술인과 287개 기업·기관이 혜택을 받음

2017년 분야별 예술인 파견지원 수혜자 현황



2017년 지역별 예술인 파견지원 현황



■ 예술인 시간제 돌봄 지원

- 예술인 자녀대상으로 시간제 맞춤형 돌봄(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예술인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2016년 반디돌봄센터, 2017년 예술인자녀돌봄센터 2개소가 운영중이며, 24개월~10세의 아이를 돌보아주며, 시간당 500원으로 운영함(식·간식비 별도)
- 2017년 95명이 돌봄센터에 등록하였으며, 총 8,720명 누적 등록자가 있음

■ 예술인 신문고

- 「예술인복지법」의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행정구제와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을 지원함. 소송비용은 분쟁 중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함(기준 중위 125% 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25%이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검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및 전화, 온라인으로 신고상담을 받고 있으며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분쟁을 조정함
- 2017년 165건이 접수되었으며 109건이 종결되었고, 45건 소송지원 완료함

2017년 불공정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

수익배분의 거부·지연·제한 행위	135건
불공정한 계약강요 행위	24건
예술창작 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3건
정보의 부당 이용 및 제공 행위	3건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황

공연예술	3종
방송	8종
영화	4종
출판	7종
저작권	4종
만화	6종

■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 예술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분야별 예술인을 대상으로 '(현업)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실무', '예비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특강' 진행함
- 2017년 현업예술인 대상으로 18회의 강의를 진행하였고, 532명이 교육에 참여함. 16회의 찾아가는 특강을 통해 1,092명 예비예술인이 표준계약서 특강을 수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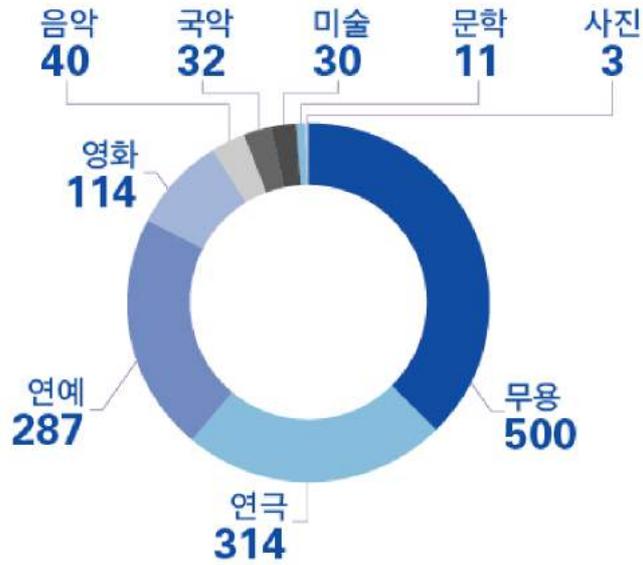
■ 예술인 심리상담

- 예술인을 대상으로 개인 심리상담과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예술인 숲 치유캠프, 예술인 마음 치유 캠프, 지피지기, 자기성장과 치유 등)을 운영함
-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은 2017년 31개(서울 10개, 경기 7개, 부산 1개 등)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까지 총 1,066명의 예술인이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을 받음

■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

- 일반 근로자와 달리 예술 활동 중 재해 위험에 놓여 있음에도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예술인의 등급별 산재보험료 50%를 지원하고(신규가입자 90%지원) 가입대행 등 사무대행 업무 수행함
- 2017년 166명이 산재보험에 신규가입하였으며, 산재보험유지자는 683명. 이때까지 총 1,331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함

분야별 산재보험 누적가입자 현황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

- 예술인과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체결 사용 조건부 지원을 통해 공정한 계약 관행 확산
-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및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료 50%를 지원함
- 2017년 예술인 1,306명과 문화예술사업자(단체) 58개가 지원 받음

○ 주요 사업 지역별 현황(2017년 기준)

(단위: 명)

창작준비금 수혜자 현황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현황		
전체	4,014	비율 (단위:%)	전체	635	비율 (단위:%)
서울	2,073	51.6	서울	378	59.5
인천	152	3.7	인천	22	3.4
대전	81	2.0	대전	8	1.2
대구	87	2.1	대구	10	1.5
부산	200	4.9	부산	13	2.0
광주	55	1.3	광주	11	1.7
울산	22	0.5	울산	6	0.9
제주	25	0.6	제주	6	0.9
세종	8	0.1	세종	2	0.3
강원	45	1.1	강원	13	2.0
경기	890	22.1	경기	145	22.8
경남	96	2.3	경남	3	0.4
경북	55	1.3	경북	5	0.7
전남	39	0.9	전남	1	0.1
전북	87	2.1	전북	10	1.5
충남	60	1.4	충남	0	0
충북	39	0.9	충북	2	0.3

3) 지역별 예술인복지정책 현황

지역명	조례 및 사업명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2017) - 서울예술인플랜 - 2017년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 예술인 공공주택 -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2016) - 예술인 복지지원 창구 개설 - 2018 예술인 복지실태조사 연구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2014) - 창작장려금 지원제(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
전라북도	-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2016) -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 - 예술인 특례보증
경상남도	- 경남예술인통합지원센터

그 외 예술인 복지 조례 제정 지자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여주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2017)

- 5년마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 확충, 예술인 활동기회 확대,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서울예술인 플랜 수립·운영

■ 서울 예술인플랜

- 지자체 최초의 예술인 정책 계획으로 2016년 8월 발표됨. 내용은 2020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해 예술인을 위한 일자리 1만 5천여개를 만들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대표적으로 '최초예술지원'과 '서울청년예술단', 예술인 허브 '예술청' 조성이 진행되고 있음

- '최초예술지원'은 공공지원금 수혜경력이 없는 39세 이하 또는 데뷔 10년 이하 청년예술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 180명에게 약 11억 원 규모를 지원하며, '창작준비형'(200만원), '창작발표형'(500~1,500만원) 중 선택지원 할 수 있음. 예산 지원 뿐만 아니라 발표공간, 통합홍보, 동료 예술인과의 교류 등 다양한 기반지원도 지원받을 수 있음. 현재 2차 진행 중임
- '서울청년예술단'은 35세 이상 예술인으로 구성된 5인 단체를 기준 5천만원을 창작활동에 지원하고, 단체별로 전문 예술가 멘토를 지정해 월 1회 멘토링 활동을 제공함
- '예술청'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술인의 인권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작품을 발표하는 등 예술거점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임. 대학로에 위치한 연면적 약 1,300㎡(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2020년 개장 예정임

■ 2017년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실시

- 서울특별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지자체 최초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 2017년 6월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에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실태조사는 예술인 834명(만화·웹툰 작가 315명, 일러스트 작가 51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와 연계하여 문화예술 정책토론회를 진행,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건의함

■ 예술인 공공주택 (서울시, SH공사)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서울시(혹은 공공주택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이하의 해당자(각 공공주택별 기준 상이)에게 임대보증금 1,100~1,500만원, 월임대료 15~20만원으로 제공.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기간 2년, 소득·자산 및 무주택요건 유지시 재계약 가능
- 예술인 공공주택의 종류는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중구 만리동, 29세대) 문화예술인 마을 2호점(도봉구 쌍문동, 10세대), 예술인 공공주택 18호(성북구 정릉동, 19세대), 연극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성북구 삼선동, 11세대) 강북구 우이동 예술인 주택 예정

■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 운영

- 마포구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이 신설. 9명의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가 예술가나 예술인 단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함. 매주 월요일 오전10시~오후5시 방문상담 진행
- 온라인상담 눈물그만(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사이트) 홈페이지 운영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2016)

- 2년마다 예술인복지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광주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 설립, 문화예술창작 공간 제공 및 지원, 필요시 예술인 근로실태 조사 실시,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 진행 등

■ 예술인 복지지원 창구 개설

- 광주광역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복지지원 창구 개설. 예술활동증명 및 창작지원금 안내, 예술인 패스카드 발급 업무 대행 등. 6월~7월 한달 간 예술활동증명 106건 등록

■ 2018 예술인복지실태조사 연구

- 2018년 8월부터 시행중. 400명의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시행, 20명 FGI 실시, 12월 과업종료 예정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2014)

- 3년마다 예술인 복지 지원 계획 수립,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창작공간 제공, 예술인복지 관련 사업 추진 등

■ 창작장려금 지원제(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

-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중
-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으로 1인 300만원, 2년 1회 지원함. 현재 2018년 4차 161명이 선정됨-지원금: 1인 300만원(2년 1회)
- 지원금: 1인 300만원(2년 1회)

○ 전라북도

■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2016)

- 5개년 단위의 증진계획 수립 및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보장, 창작여건 개선 등

■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

- 예술인 활동 증명, 창작지원금 신청 대행, 예술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지원, 예술인 복지포럼단, 신진작가 전시프로젝트, 전문 상담컨설팅데이 운영

■ 예술인 특례보증(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

- 2016년 9월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는 5개년 단위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보장, 창작여건 개선이 중심으로 그 중 '예술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핵심임. 예술인활동증명 발급자 가운데 창작자와 실연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지 3개월이 경과된 예술인이 지원 대상으로 작업실 임대료, 공연준비금 등 창작 활동 관련 비용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임. 2017년 2건(3,500만원), 2018년 3건(7,000만원)으로 진행되고 있음

○ 경상남도

■ 경남예술인통합지원센터 '문화대장간 풀무' 개소 외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창원시 팔룡동 제3아파트 공장 안 '문화대장간 풀무' 개소. 센터 내 도내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각종 민원 상담과 보조금 업무 지원(e-나라도움, NCAS)

■ 2019년 예술인 복지 관련 예정 사업

-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남예술인 복지센터 운영(3억원), 예술인 대상 무담보 소액 대출 '예술인 그라민 금고' 설치(3,000만원), 창작공간 지원조례 제정, 예술인실태조사(5,500만원)가 2019년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분야에 예산이 편성됨

4) 민간의 예술인복지정책 현황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서울, 2005)

- 영화영상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복지 증진, 영화현장의 성평등 실현 및 성차별 폐지, 근로기준법 준수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생활권 확립을 위해 설립
- 노조활동 : 연 2회 조합원 대상 성평등 및 근로기준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월 개봉영화 통계 및 영화제작사 근로계약·4대보험 가입현황 공개, 현장의 임금체불 및 각종 부당행위 신고와 문제해결을 위한 '영화인 신문고' 운영과 캠페인 진행 등
- 연대활동 : 영화산업 뿐만 아니라 문화계 전반적인 사회 쟁점에 대해 기자회견 및 성명서, 토론회, 대책위원회 연대활동(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 기타 : 조합원을 위한 영화현장 커피배달, 팟캐스트 '애청'과 월간 영화노조 제작

○ 재단법인 한국연극인복지재단(서울, 2005)

- 기초예술가로 연극인들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연극을 포기하지 않고 예술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고 삶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극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 의료비지원 : 매년 무료건강검진 지원, 긴급히 의료비를 필요로 하는 연극인들을 위한 직접 의료비지원(SOS.S.S 기금지원), 병원 협력을 통한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일자리지원 : 일자리 사업으로 문화소외계층에게 관람, 체험, 청취 등 다양한 형태의 연극을 공연 또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연극', 새터민 아동,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적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도담도담연극교실', 연극인들의 직업경로를 다양화하는 '연극인놀이강사' 사업 등을 운영
- 역량강화지원 : 직업연극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용한 생활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인문학 강좌 운영, 삼성문화재단의 후원을 바탕으로 연극인들의 활동영역 확장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재교육 전문 아카데미, 연극인 기획 교육프로그램 연극워크숍 운영
- 보육지원 : 공연예술인이 안정적인 직업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 및 지원하기 위해 공연예술인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돌봄센터 '반디돌봄센터' 운영
- 원로연극인자립지원 : 60세 이상 원로연극인이 지역사회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배우의 집에서 작품을 공연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옆집에 배우가 산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로연극인의 자립을 지원함
- 정서지원 : 연극인의 심리치유, 창작역량 및 직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상담소, 상호상담가 양성과정 진행
- 무료법률상담 :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변호사 그룹의 재능기부로 무료법률상담 진행

○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서울, 2007)

- 기초예술, 순수예술로서의 무용의 기본 요소인 인적자원, 즉, 무대에서 춤을 추는 무용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용예술인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 창작활동 개선을 위한 선진적 지원제도 구축등의 사업을 진행
- 상해치료비지원 : 무용예술인이 순수 예술 무용 공연과 관련한 연습 또는 공연 중에 상해를 당했을 경우 진료,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수준과 경력 등을 근거로 지원금액이 결정됨
- 상해예방 : 무용예술인의 부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순수예술 무용공연 또는 연습 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소속 재활트레이너에게 운동치료 및 상해 예방 처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원. 무용단의 연습 공간 현황과 연습일정 등의 창작환경을 고려하여 트레이너가 직접 무용단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해예방 지원과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운동처치실로 무용예술인이 직접 방문하는 상해예방 지원으로 세분화 되어있음
- 댄서스잡마켓 : 순수 예술 무용 공연을 앞둔 무용단과 공연 출연을 희망하는 무용수를 연계해 무용수들이 역량 있는 무용단과 작업 기회 제공. 공개 오디션, 출연이 결정된 무용단의 무용수 출연료 일부 지원
- 직업전환 : 상해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무용을 직업으로서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은퇴를 할 수 밖에 없는 무용예술인이 무용 외의 직업을 선택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그 외 : 재활트레이너 양성과정, 공연기획자 양성과정, 무용인 글쓰기 강좌,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 서울사이버대학-대학원 진학 지원, 직업전환 컨설팅 운영, 무용인한마음 축제, 심포지원 개최

3. 해외 예술인복지정책 사례4)

유형	국가	주요 내용
일반 사회보험제도 적용	프랑스,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인 예술인에게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회보험제도에 편입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부여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에만 적용) • 예술 활동을 통한 총 소득규모를 기준으로 함 • 재정충당 : 프랑스는 노사 분담원칙 / 독일은 노사정 3자간 분담원칙 (본인 50%, 사용자 30%, 연방 20%)
비정규직 공연 예술인 적용	프랑스,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앙페르미팡 : 비연속적 비정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스태프는 10개월 간 507시간, 배우·연기자는 10.5개월 간 507시간). 최대 8개월간 실업급여 • 이탈리아 공연영상예술 비정규직 사회제도는 실업보험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일반 포괄적 제공. ENPALS의 인증서를 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예술인계층의 사회부조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예술인 계층을 위한 사회부조제도로써 최저생활 보장제도 운영 • 룩셈부르크는 2004년부터 시행. 문화사회기금에서 충당.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이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 • 네덜란드는 최저생활보장제도(WIK)를 미술가 작가 공연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급여의 70%를 지원. 10년 동안 최대 4년간 지급. 예술 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배려이므로 예술 활동을 통한 연차별 소득증가가 입증되어야 함
예술인 연금제도 운영	아일랜드, 독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일랜드·독일은 예술위원회 산하 Aosdana에 의해 30세 이상 예술인 중 회원에 한해 예술인 연금제도를 운영 • 독일은 장르별 분야별로 연금제도를 운영 • 일본은 사단법인 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에서 무대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능인연금공제제도 운영 • 아일랜드, 독일은 공적지원, 일본은 자발적 사적연금

4) 참고자료 : 2015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복지정책수립 보고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주요 국가 예술인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강익희. 2011. 문화예술 인력의 복지현황과 개선과제. KOCCA 포커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이규석 외. 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문화관광부. 한석진, 「공연예술인을 위한 해외복지제도 조사」, 『한국무용학회지』vol.17, 57-66p, 2017 참고

1) 프랑스

○ 사회보장제도의 예술인 정의

- '문학, 연극, 음악,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8개 장르의 예술작품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규석 외, 2007)
- 프랑스의 경우 예술인을 노동자 일반사회보장제도에 적용시키며, 특히 비정규직 예술인의 경제적 보장과 직업안정을 예술인 복지정책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종사지위에 따라 피고용자/자영업자로 구분. 종사지위가 임금노동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예술가들은 임금노동자 들을 위한 일반 사회보험제도에 편입시키며, 저작료를 받는 예술인은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노동자 일반제도에 편입되는 법률적 지위를 부여

○ 정부기관 - 앙테르미땅 (Intermittent du spectacle)

- 공연영상 분야 비정규직 예술인의 실업 시 사회보장을 위한 실업보험 제도로 1969년 공연영상분야 예술인의 실업보험제도로 프로젝트 성격이 강한 공연영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함. 실업보험료는 임금총액의 10.8%에서 7.0%를 고용주가 3.8%를 근로자가 부담하면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약 65:35의 비율로 부담함. 비정규직 예술인에게 연금 및 건강보험의 형태로 전달됨
- 가입대상 및 자격: 공연영상예술 분야에서 종사하는 단속적 기간제로 일하는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함.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근로기간과 수급기간을 초과해야 함. 스태프의 경우 10개월간 최소 507시간 이상, 실연예술가(배우,연주자 등)의 경우 10.5개월 동안 최소 507시간 이상(8시간 주 5일 근무로 계산할 경우 약 3개월에 해당) 근로할 경우 8개월간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자유계약직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전업 예술가들도 대상이 됨

○ 프랑스 작가사회보장협회 (Association for the Social Security Management of the Authors, AGESSA)

- 1975년 예술저작들의 창조적 활동을 배려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된 정부공인 비영리단체로 문학, 드라마, 음악, 무용, 시청각 예술, 사진분야에서 저작권을 받고 있는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활동으로 획득한 수입에 대한 사회보장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건강보험, 양육보험, 노후보험이 포함됨
- 가입대상 및 조건: 프랑스에 거주하는 납세자이어야 하며 지적 창작물을 생산하고 저작료를 받는 사람. 가입하려면 예술활동에 의한 전년 총 소득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900배

(2007년 기준 7,335유로 이상, 한화로 약9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 소득이 이것보다 낮은 경우, 예외적으로 자신의 예술활동 전문성을 증명하여 제출하면 위원회에 의해 심사 후 가입가능

○ 상호부조 - 씨떼크레아씨옹 (Cité Création)

- 1978년 프랑스 남부 리옹에서 설립된 전문 벽화창작 노동자협동조합
- 전문성과 예술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벽화를 그리는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로 구성됨
-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벽화창작 노동자협동조합

2) 독일

○ 예술가사회보험제도

- 독일은 예술가사회보험제도를 바탕으로 예술인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입 대상자는 문화예술활동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으로 정의함
- 예술가 : 음악, 공연예술 및 미술을 창작 및 영위하거나, 또는 이를 가르치는 자
- 언론출판 : 작가, 언론인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출판업에 종사하거나 언론출판학을 가르치는 자

○ 예술가사회보험제도 (Kunstlersozialversicherung: KSV)

- 1983년 시행되고 있는 공적재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예술인 연금제도.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자영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는 예술가들의 사회보험 가입의 의무화, 보험금 일부에 대한 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보험금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50%를 부담, 국가가 20%, 저작권 사용자가 30%를 부담함. 이 법을 통해 예술가가 보장받는 것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요양보험 서비스이며 산재보험과 실업급여는 제공하지 않음. 연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월별 보험료는 월간 수입이 아니라 예상되는 연간 총 소득 수준을 기준점으로 삼음. 연간수입의 19.1%에 해당되는 연금보험, 13.6%로 해당되는 의료보험, 1.7%로 해당되는 간호보험금 중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함.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제외한 연금과 건강보험만을 보장하고 있지만, 납부한 보험료가 적음에 따라 연금 수령액도 적은 예술인의 직업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리스터(Riester) 연금(저소득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 및 뤼롭(Rurup) 연금(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을 통해 연금의 기본수당과 자녀수당을 보장함. 예술가사회보험을 통한 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정책을 통해 독일의 예술인 복지는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음

- 가입대상 및 조건 : 예술가사회보험법 가입대상은 문화예술활동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예술가(음악, 공연예술 및 미술을 창작 및 영위하거나 또는 이를 가르치는 자)로 규정. 가입신청자는 예술활동을 통해 취미활동이 아닌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2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즉 자유계약직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전업예술가이어야 하며 이들 외 정규직과 비정규직 예술가들은 임금근로자들을 위한 일반 사회보험제도에 편입됨. 예술활동이 일시적이지 않아야 하며 만약 행정적인 문제로 임시의 형태를 띤다면 그 기간은 최소 2개월까지만 인정. 예술인 사회보험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통한 연간 총소득규모기준(2009년 기준 3,900유로 이상, 한화 약 660만원 이상)에 상응해야 함. 6년간 2회까지는 이 소득기준을 넘지 못해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3) 미국

- 미국은 예술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예술인의 정의 및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사적 지원의 형태인 개별 노동조합 등에서의 가입 기준 및 조건으로 예술인의 자격을 유추할 수 있음

○ 정부기관 - 미국연방예술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 미국의 복지정책은 자유주의 기초 및 시장 원리에 충실한 편으로, 정부는 최소한으로 개입하며,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 보험제도 및 근로장려세제 등의 몇 가지 정책을 통해 확인 가능함
- 이러한 정책 기초는 예술인 복지에도 예외 사항을 두지 않음. 문화부가 존재 하지 않는 미국은 공적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미국연방예술기금(NEA)이 관장하며,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보험, 연금 등은 예술가들과 고용주들 사이의 사적 지원으로 이뤄짐
- NEA는 미국 문화의 진흥을 위한 공적 기금으로서, 미국 내 예술가들의 재능과 창의력을 지원하고 미국인들의 예술적 창조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NEA의 직접적인 보조금은 지역 사회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예술 단체들 중 선별적으로 지원됨

○ 노동조합 - 직종별 노동조합

- 유래 : 정부 차원의 예술인 지원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세 유럽의 동업자 조합이었던 길드(Guild) 형태로 산별노동조합 구성. 즉 자신이 속해있는 직업 분류(업종)에 기초

하여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는 길드 및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노사가 만들어 낸 기금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보험, 사회서비스를 제공. 각 길드는 자격요건을 갖춘 예술인들에게 건강보험 및 연금 혜택을 제공하며, 직종별 특징에 따른 각종 보험 등도 제공함
- 결론적으로, 미국의 예술인 복지정책은 미국 사회의 복지 정책의 큰 흐름인 사적 지원(고용주)을 통해 커버되고 있으며, 실제로 활동하며 예술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건강보험 및 연금 등에 가입하여야 함

■ 미국음악인총동맹 (AFM: 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s)

- AFM은 미국과 캐나다 전문 뮤지션들의 노동조합으로 전문 음악인들을 대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조직으로 공정 계약 협상, 음반 저작권 보호, 건강 보험과 연금 혜택, 입법 로비 등 문화산업 전반에서 전문 음악인들의 산업적 지위의 향상에 헌신
- 악기 관련 전문 장비 보험 : 악기와 음악 장비에 의존하는 전문 뮤지션들에게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데 이는 직업의 특수성에 기인. 장비 도난이나 손상 등의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 미국작가조합 (WGA: Writers Guild of America)

- WGA는 미국 내에서 영화, 방송, 뉴미디어 등에 종사하는 작가군을 대표하는 조합으로 작가료 협상을 주로 진행
- 신용 보증 : 작가들이 창작한 장편영화, 텔레비전, 뉴미디어 프로그램들의 보증의 책임이 있음
- 재방송료 : 영화나 텔레비전, 뉴미디어 프로그램의 재방료 지급 관련 모니터링, 수집, 분배 작업 등을 함, 연중 작가길드는 세미나, 패널 토론, 특정 이벤트 행사 등 교육프로그램 개최, 법적, 해외 협약, 홍보 등을 진행하며, WGAe와 협력 및 제작자-작가 길드 연금 및 건강 보험(PWGP: Producer-Writer Guild Pension and Health Plans)을 운영하고 있음

4) 일본

- 일본의 예술인들은 임금노동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자영업자로 일반적인 사회보장체계에서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제외되어 있음
- 예술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상, 장애, 사망 등의 재해와 실업에 대한 보장으로부터 취약하며 전반적인 사회보장 체계로부터 소외되어있는 상태
-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2장 16조(예술가 양성 및 확보)에 따르면 문화 예술에 대

한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 전통 예술의 전승자,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문화 예술 활동의 기획을 실시하는 사람, 문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 기타문화 예술을 담당하는 자를 예술인으로 정의. 이어서 제 3장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르면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연극, 무용, 기타예술, 미디어예술, 전통예술, 생활문화예술이 예술의 범주에 포함됨

○ 민간기구

■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 (日本芸能 \實演家團體協議會, 예단협)

- 일본의 예술인 복지 정책은 국가차원의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사회복지 체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부조형태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음, 일본의 예술인 복지 정책은 경제적인 보장으로서 실업, 노령, 이혼과 같은 외압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에 초점을 맞춤
- 실연가 저작권접권센터사업: 실제 예술가의 권리 옹호와 확대를 위한 운동으로 일본 문화청 장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며 예술가의 저작 인접권 및 보상 청구권 처리에 관한 업무를 진행
- 예술인복지사업 : 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예술가, 스태프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 예술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연금제도를 운영

5) 룩셈부르크

○ 특별재정지원제도 (Artiste professionnel indépendant et intermittent du spectacle)

-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자영업 예술인과 비정규직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기간동안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방정부의 문화예술 사회보장기금(Cultural Social Fund)에서 충당하고 있음
- 가입대상 및 조건 : 최소 3년간 전문 활동과 소득수준 입증

6) 네덜란드

○ 예술인 최저생활보장제도 (Wet Inkomensvoorziening Kunstenaars, WIK)

- 미술가, 작가, 공연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생계유지 위협으로 예술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예술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설립. 2004년부터 운영된 예술인 최저생활수당은 지역별 사회보장금고에서 지급 중이며, 최저임금의 70%수준임. 이 수당은 10년의 기간동안 최대 4년간 지급받을 수 있음
- 가입대상 및 조건 : 예술인 최저생활수당을 계속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급년도를 기준으로 예술활동 관련 소득이 연차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수혜대상 자격조건은 지원 전 1년간 자신의 예술활동과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이 1200유로(한화로 약 150만원) 정도 있음을 입증해야 함.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이 최저임금의 125%가 되면 지급받지 못함

4. 소결 : 예술인복지정책 평가와 전망

1) 예술인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시도

- 예술인복지법 제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출범이후 드러난 여러 문제들에 그동안 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제도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생활지원 강화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등 예술인이 안정된 환경에서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시도. 특히 사회보장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함

○ 구제에서 권리로의 전환

- 가난한 예술인들을 구제한다는 정책에서 예술가의 창작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의미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특히 파견지원사업 등 직업적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이 사회의 혁신 등 예술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함

○ 직업환경으로서 예술생태계 개선

- 불법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보다 나은 문화예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이는 특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복지사업의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음

2) 예술인복지 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

○ 예산의 증액, 사업의 확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3년 129억에서 2015년 203억, 2017년 248억으로 약 192%가 증가하였으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도 2017년 기준 46,659명에 이르는 등 예술인복지 사업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음

○ 현장의 목소리 반영

- 또한 지속적으로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예술인복지 사업을 개선, 확대해 나아가고 있으며 문재인정부에서도 중요한 국정과제로 포함되는 등 향후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핵심적인 정책사업으로 나아갈 것으로 판단됨
- 예술인복지법이 예술인의 실질적인 노동-창작의 특수한 권리에 대한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예술인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노동-창작 권리를 위한 많은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음. 예술가의 창작지원 환경의 위기와 표현의자유 침해, 사례비 인정, 문화예술 분야 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체계, 예술인의 실업급여제도의 실질적 도입,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위기, 예술 강사들의 처우개선 등 많은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음(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 이동연. 2017:9). 이러한 현안을 바탕으로 최근 고용보험 가입 추진과 지원,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을 통해 노동 환경개선, 성평등 인식 변화가 예술인복지정책에 반영되고 있음

3) 예술인복지정책의 한계와 쟁점들

○ 보편적 예술인복지정책의 지원, 독자적 영역의 개척 필요

- 해외 사례에서 보여지듯 시민으로서 예술인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보험의 적용과 예술인 실업급여 지급, 연금지급 등에 대한 실현이 필요함.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복지를 위한 핵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 기능 역할에서 벗어나 예술복지금고 운영 등 실질 주체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며, 기업 등 민간의 후원을 바탕으로 재정의 독립성 또한 이끌어내야 함. “정부-예술인”의 단선적인 관계가 아닌 “정부-기업”, “정부-기업-예술인”, “기업-예술인” 등의 다층적인 관계망 속에서 예술노동의 구조적 문제는 물론 재원 확보 방안도 동시에 모색해야 함
- 국내, 해외 각각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은 예술인복지를 담당하는 추진체계는 개별 사업 추진 주체로서 하위 구조가 아닌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정책의 지원기

관으로 위상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다양한 지원형태의 사업보다는 복지 환경 조성 및 창작환경 구조 개선 등의 본질적인 사업에 집중해야 함

○ 예술인복지정책의 지역분권 필요

- 중앙정부의 예술인복지정책과 사업들에 주로 서울, 경기 권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면서 지역 사회에 밀착되어 다가오지 못하는 점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 있음. 이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지역 협력체계 구축이 2018년 문체부의 주요 과제로 제안되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주로 예술활동증명 등 대행 사업에 불과하며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복지정책의 지역분권과 자율성이 확보되는 데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제3장

부산 예술인복지정책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제3장

부산 예술인복지정책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1. 부산 예술인복지정책 현황

1) 부산 예술인복지정책의 흐름

○ 부산시 예술인복지 정책 현황

- 최근 기초적인 예술인의 사회안정복지망과 복지지원의 필요가 증대하는 상황 속에서 부산의 경우 2013년 「부산광역시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이후 2015년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복지정책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예술인활동증명대행 시범사업, 2017년 전국 최초로 부산문화재단 내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함
- 부산시 문화관광국은 2017년 예술인일자리박람회 개최(6월), 창작공간(반딧불이 2호점) 개설, 예술인활동증명 대행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정책 과제로 '예술하기 좋은 창작환경 조성'을 수립,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부산문화재단 내, 400백만원) - 예술인활동증명 대행, 창작공간 반딧불이 조성, 예술인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 등>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민선 7기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 중 예술인복지 관련 내용

1. 부산 예술인의 집 설립

- 목표
 - 예술인 창작 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최저생활 보장
- 필요성
 - ‘최고은’작가 자살과 같은 예술인의 생활 문제 상담 및 해결 전문기관 부재
 - 예술인들이 행정적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증명할 수 없어 국가지원 복지정책 혜택에서 배제
 - 예술인은 그룹보다 단독으로 창작활동하고 특정 장르에서 타인과 접촉이 드뭄
 - 예술인 특성상 도제식 교육에 따른 성폭력 예방 및 창작활동후 심리적 안정
- 세부내용
 - 예술인의 집 센터 조성·접근성과 입지성 고려 선정
 - 예술인 법률 및 생활고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자활 프로그램 등 운영
 - 1년 정도 의식주 해결 및 창작활동이 가능한 예술 레지던시 공간 제공
※반딧불이(빈집 활용 예술창작공간 및 거주) 활용
- 추진계획
 - 18년 하반기: 19년도 예산 반영 사전절차 이행
 - 19년 상반기: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내 부산예술인상담센터 운영
 - 19년 하반기: 부산예술인의 집 시범 운영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80	-	20	20	20	20
시비	80	-	20	20	20	20

- 관련 법령(조례) 및 제도 개선 사항
 - 「예술인복지법」,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 원도심 빈집 활용한 청년들의 마을 놀이터 조성

- 목표
 - 도심 공동화로 인해 급증하는 빈집 활용을 통한 환경개선 및 범죄 유발 방지
 -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으로 노후화, 공동화 되어있는 공간 활력 부여
 - 창작공간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민과 예술인의 소통하는 핫 플레이스 공간 조성
- 필요성
 -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의 부재로 인한 창작활동의 제약 발생

- 창작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예술인 및 지역적 관심도 증대

○ 세부내용

-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의 빈집 및 유휴공간을 발굴·확보하여 (청년)예술인의 창작공간 및 시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활용
- 창작공간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청년)예술인과 시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진행
- 빈집 단계적 활용 [1단계: HAPS(공공지원방식), 2단계: 하우스할텐형(민간주도방식)]
 - * HAPS는 일본의 예술 큐레이터 출신의 활동가 엔도 미즈키가 예술인 주거 및 창작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교토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단체
 - * 하우스할텐(HausHalten)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지역적 문제가 되었던 독일의 린덴아우어(Lindenauer)지구의 역사적 건축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

○ 추진계획

- 유휴공간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을 발굴하여 창작공간의 집적화 추진
- 집중된 창작공간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브랜드화 추진(ex.분야별 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50	1.3	8.7	10	15	15
시비	50	1.3	8.7	10	15	15

○ 관련 법령(조례) 및 제도 개선 사항

- 「청년기본조례」
- 「예술인복지법」, 「부산광역시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3. 예술인 공동창작터 조성 (유라시아 컬처 플랫폼 조성 공약 중)

- 지역 작가, 예술가, 창작자 등이 입주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입주 작가들의 작업 프로젝트 기획, 공모 및 육성, 지원
- 창출된 예술성과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확보 및 보장 등 행정적 지원

[노동분야]

1. 부산형 생활임금제 확대 추진

○ 목표

- 적용범위 확대(공공기관→시 위탁 사무 직접채용 근로자→위·수탁 기관·민간)

○ 필요성

-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생활 임금 책정은 물론 즉시 실행과 민간영역 확대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생활임금제란?

-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함

2. 노동복지 구현을 위한 권역별 노동복지센터 운영

○ 목표

- 노동상담소 기능, 강화, 확대→노동복지센터 시범실시→권역별 노동복지센터 운영

○ 필요성

- 노동권의 보호 체계 강화와 사각지대 취약 근로자(중·소·영세,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 등)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 세부내용

- 현재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의 기능 강화 및 신규 노동복지센터 개소
- 중소영세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특수형태 근로자(퀵서비스, 대리기사, 여성근로자 등) 노동자 쉼터 운영

○ 부산문화재단의 예술인복지 관련 사업 현황

- 2009년 부산문화재단 설립 이후, 부산의 문화예술인 지원 정책은 대부분 부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음. 2016년부터 예술인복지업무를 시행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과 연계하여, 예술활동증명 대행서비스와 홍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음
- 201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 누적예술인은 2,994명임. 예술인법률상담 7회, 휴-안심프로그램,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 사업 등을 진행함
- 또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지원 정책을 통하여, 넓은 의미에서 지역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나가고 있음. 문학, 미술, 사진, 영상, 음악, 연극, 무용, 전통, 국악 9개 분야를 기초예술지원영역으로 설정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음(약 42억)
- 특히 기획특화지원영역으로서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사업, 창작공간활성화지원, 거리예술 지원과 함께 청년문화집중지원, 부산 원로예술인 창작지원,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 등 정책 지원 대상을 세대, 공간 등으로 세분화하고, 예술인 지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있음

2) 2015년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복지정책 수립 결과

○ 2015년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 결과

-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 결과 : 11개 분야 2,054명 조사
- 부산지역 예술인 특성 : 평균 활동 기간은 10년, 전업 예술인은 54.7%로, 고용 형태는 프리랜서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예술활동을 통한 연간 평균 수입은 500만 원 이하가 72.8%로 나타나 부산지역 예술인들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은 67.2%가 없다고 응답함
- 예술활동 관련 : 예술활동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생활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남. 부산지역 예술인들의 국민연금(공적연금) 미가입 비율은 29.8%, 건강보험은 5.9%, 고용보험은 70.1%, 산재보험은 70.4%로 나타나는 등 전국 대비 미가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기 위한 필요 요소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이 46.6%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필요 복지정책 : 부산지역 예술인을 위한 필요 복지정책으로 1순위로 예술인실태조사 및 복지지원정책 조사·연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제도가 2,3위로 나타남
- 예술인복지법 사업 중요도 : 취약예술인 지원, 사회보장 확대, 직업역량 강화, 창작준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직접적 지원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반면 행정적 지원과 관련된 자녀 보육 지원, 상담컨설팅 지원,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예술환경 개선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남. 부산지역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증명 인지도는 27.9%로 다소 낮은 인지도를 보임

○ 2015년 부산 예술인복지정책 수립 주요 내용

-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비전은 ‘예술인들이 살기 좋은 문화도시 부산’으로 설정함
- 정책목표 첫 번째는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추구함
- 두 번째는 ‘예술인 직업권익 신장’으로써 예술 작업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 및 환경 개선, 권익 신장을 목표로 함
- 세 번째는 ‘예술인 생활 활력’으로써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정책목표	세부과제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5개 사업)	①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② 예술인 4대보험 가입 지원 ③ 예술인행복설계사 운영 ④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⑤ 예술인 라운드테이블
예술인 직업권익 신장 (7개 사업)	① 표준계약서 정착 ② 청년예술가 인턴 지원 ③ 마을예술가 양성 지원 ④ 예술인파견지원 참여기관 매칭 지원 ⑤ 청년예술가 일자리 박람회 ⑥ 빈집을 창작공간으로, '반딧불이'사업 추진 ⑦ 예술인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예술인 생활 활력 증진 (5개 사업)	① 예술인자녀보육 지원 ② 예술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③ 예술인 휴 프로그램 운영 ④ 예술인법률자문단 운영 ⑤ 부산예술인 기념사업 추진

2015년 부산 예술인복지정책 수립 주요 내용

3)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현황

○ 센터 운영 개요 (2018년 기준)

- 부서 : (재)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 사업명 : 2018년도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18.1.~12.
- 사업비 : 1,004,400천원(시비 1,004,400천원)

단 체 명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자 : 유종목)		
사 업 명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	2018. 1. ~ 2018. 12.	사업장소	(재)부산문화재단
사 업 비 (계획액)	총 1,004,400천원	보 조 금	1,004,400천원 (100%)
		자 부 담	0천원 (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 부산예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 공간화 및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예술인 만족도 제고 및 업무의 전문성 제고 확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홍보 및 매개 역할 수행 및 자체사업 발굴 		
사 업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 예술인복지코디네이터 운영 ○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및 파견지원사업 ○ 반딧불이(빈집활용)사업 ○ 휴 - 안심프로그램 운영 ○ 예술인 법률 상담 및 신문고 운영 ○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운영 ○ 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복지 만족도 조사 		

○ 사업추진 실적

계획		실적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실적(상반기)	
연중	예술인 복지지원 센터운영	예술인복지 지원센터운영 및 사업홍보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공간 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홍보 및 지역예술인 예술인 복지지원 매개 역할 수행 - 센터 내방객: 총 239명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법률 등 전문가자문을 통해 지역예술인 권익신장 기여 - 예술창작과 관련한 전문적 컨설팅, 문제 해결로 안정적창작환경 조성 지원 ○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데이 격월 운영 (총 2회, 7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교육 참여자 74명 - 법률상담 참여자 32명
연중	예술인복지 코디네이터 운영	지역예술인 찾아가는 홍보서비스 및 예술인일자리 파견지원사업 퍼실리테이터 업무수행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복지코디네이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증명 대행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신청 대행 - 지역예술인 대상 예술인 복지정책, 사업홍보 - 찾아가는 1:1 홍보설명회 서비스 개최 ○ 사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홍보서비스 총 7회, 500명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총 3,361명(18' 367명) - 예술인패스 완료자 총 2,450명(18' 336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 총 314명 (18' 114명)

2월 ~ 12월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파견지원 사업)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5월 ~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파견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 예술인의 참여 공간 마련 - 파견지원 사업 지원 예술인에게 취업정보를 제공, 기업들에게는 기업홍보와 아울러 인재채용의 기회제공 - 참가인원 총 3,000명, 참여기업·기관 35곳, 참여예술인 총 122명, 사전접수 63명, 현장접수 15명, 예비예술인 44명
		참여기업·기관 및 예술인 협업프로젝트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로 조직 내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에 예술인을 파견하여 매칭 된 기업(기관)과 예술적 협업 및 프로젝트 진행 - 참여기업·기관 총 35곳(국립부산과학관 외 34곳), 참여예술인 총 40명(시각 30명, 공연 4명, 음악 6명)
1월 ~ 12월	반딧불이 (빈집 활용) 사업	유휴공간 확보 및 입주예술가 선정	3월 ~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딧불이(빈집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유휴공간을 발굴·확보하여 예술인의 창작 공간 및 시민문화 향유공간으로 개보수 후 문화예술 공간 조성 ○ 사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총 7곳 (영도1, 감만2, 감천동 3,4,5, 연지동 6,7호점) - 입주작가 총 55명
7월 ~ 10월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가칭) 운영	(사)부산 성폭력상담소 위탁 운영	7월 ~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계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상시 접수) - 성폭력 성희롱 근절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7월 ~	예술인 실태 및 예술인복 지 만족도 조사	(용역)플랜비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창작여건 및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한 객관적 기초자료 확보 - 부산예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 사업추진성과(상반기)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대상	부산지역 예술인
사업기간	2018.1. ~ 12.
사업비	818,000,000원(시비 818,000,000원)
구성	총 2명(예술지원팀장, 사업계약직 1명), 감만창의문화촌 1층(면적 138㎡) 거점공간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 부산예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 공간화 및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예술인 만족도 제고 및 업무의 전문성 제고 확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홍보 및 매개 역할 수행 및 자체사업 발굴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추진실적 :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참여기업·기관 모집 및 선정(2 ~ 3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반기창작준비지원금 신청 대행(3. 5. ~ 3. 23.) -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데이 1회차 운영(3. 23.) -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 모집 및 선정(3 ~ 4월) - 반딧불이(빈집활용) 시민향유 프로그램 운영(총 5회) -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예술인 잡스-강제휴무> 개최 (4. 28. 영화의전당) -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참여기업·기관 및 예술인 매칭 실시(5월) -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5. 17.) - 반딧불이(빈집활용) 사업 상반기 입주예술가 모집(5. 11. ~ 5. 30.) - 반딧불이(빈집활용) 사업 상반기 입주예술가 선정 및 계약 체결(6월) -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데이 2회차 운영(6. 29.)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참여기업·기관 및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계 - 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복지 만족도 조사 용역 공모실시(6월)

■ 예술인 복지코디네이터 운영

사업기간	2018.1. ~ 12.
사업비	52,000,000원(시비 52,000,000원)
구성	총 4명(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p>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예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 공간화 및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예술인 만족도 제고 및 업무의 전문성 제고 확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홍보 및 매개 역할 수행 및 자체사업 발굴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증명 홍보 및 신청대행 서비스 : 2018년 부산지역 예술활동증명 누적등록자수 총 3,361명(전년대비 367명 증가) - 예술인패스 대행 서비스 : 2018년도 예술인 패스 발급자수 총 2,450명(전년대비 336명 증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대행 : 총 114명 선정(342,000천원 국비유치 효과 발생) ※ 2017년 200명 선정, 2018년 상반기 114명 선정 - 찾아가는 홍보설명회 : 부산지역 예술인 565명 대상 총 54회 실시 -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퍼실리테이터 활동 : 매월 모니터링 실시(40명 예술인, 35개 기업·기관 대상)

■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파견지원사업

사업기간	2018.1. ~ 12.
사업비	400,000,000원(사비 400,000,000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예술인 잡스-강제휴무>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의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으로써 지역예술인의 활동 무대를 기업(기관)으로 확장하고, 예술인에게 새로운 서브잡(Sub-Job)을 연계하는 행사운영. 2018년의 경우 4월 28일 행사 개최 -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 예술로 조직내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에 예술인을 파견하여 매칭된 기업(기관)과 예술적 협업 및 프로젝트 진행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 예술인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파견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 예술인의 참여 공간 마련, 파견지원사업 지원 예술인에게 취업정보를 제공, 기업들에게는 기업홍보와 아울러 인재채용의 기회제공, 참가인원 총 3,000명, 참여기업·기관 35곳, 참여예술인 총 122명, 사전접수 63명, 현장접수 15명, 예비예술인 44명 -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 예술로 조직 내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에 예술인을 파견하여 매칭된 기업(기관)과 예술적협업 및 프로젝트 진행. 참여기업·기관 총 35곳(국립부산과학관 외 34곳)으로 국립부산과학관, 국립부산국악원, 부산시립미술관, 신세계조선호텔 부산(※), 조광페인트(※) 등 총 35개 기업에 40명의 예술가가 파견됨. 장르는 미술이 20개로 가장 많고, 36명이 사전접수로, 4명이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현장인터뷰로 파견됨

■ 반딧불이(빈집활용) 사업

사업기간	2018.1. ~ 12.
사업비	130,000,000원(시비 130,000,000)
참여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부산지역 예술인 및 차상위계층 예술인
사업내용	- 지역의 유휴공간을 발굴·확보하여 예술인의 창작공간 및 시민 문화 향유 공간으로 개보수 후 입주예술가가 상주해 창작활동과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공간현황	총 7개 장소 - 영도구 1개소, 남구 1개소, 사하구 3개소, 부산진구 2개소로 아동문학, 연극, 시각, 문학, 영상 등 다양한 예술분야가 입주함

구분	주요내용(시민향유 프로그램)
반딧불이 1호점	• 캘리그래피 캔버스 액자만들기(30명), 벽화작업(30명), 스냅백 만들기(20명)
반딧불이 2호점	• 비밀기지 만들기 프로젝트1·2차(70명)
반딧불이 3호점	• 동시 낭독콘서트(40명), 나의 인생 이모작이미지 만들기(30명), 동시인 토크콘서트(30명)
반딧불이 4호점	• 안방극장 극작품 만들기(15명), 몸으로 이해하는 연극(15명)
반딧불이 5호점	• 감사인사 전하기(60명), 지역 어르신과 석고방향제 만들기(30명)
반딧불이 6호점	• 독서 세미나(60명)
반딧불이 7호점	• 주성치의 코미디영화 관람(30명)

■ 휴-안심프로그램 운영(하반기 진행)

사업기간	2018.9. ~ 12.
사업비	10,000,000원(시비 10,000,000원)
사업장소	감만창의문화촌 및 부산, 경남지역 일대
참여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부산지역 예술인 중 창작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사업내용	- 예술인 힐링캠프 : 문화예술 공간 투어 및 숲 속 산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예술인의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 나를 찾는 시간 : 자아발견 프로그램인 수지에니어그램을 통해 예술인 자아성찰 계기 마련

■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 운영

사업기간	2018.9. ~ 12.
사업비	6,000,000원(시비 6,000,000원)
사업장소	부산문화재단 내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참여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작권, 계약 등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지역예술인, 단체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데이' 운영을 통해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교육과 계약 컨설팅 - 예술활동 중 불공정피해 예방과 예술인이 취할 수 있는 권리, 의무, 요건에 대한 강의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 저작권, 법률상담 각 3회차 진행
사업실적	<p>총 106명(저작권 교육 54명, 법률상담 20명) 프로그램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 저작권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부산지방변호사회 협조 법률상담 컨설팅, 시각 및 영상 콘텐츠 관련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기업·기관, 예술인 대상 저작권 교육 진행 등

■ 기타

-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조광페인트와의 협약을 통한 지역예술인 예술인복지 지원체계 강화
- 부산지역 의료기관(동아대학교병원 외 20곳)협약을 통한 지역예술인 의료비 지원 실시
- 부산 문화예술인 성폭력 대응센터(가칭) 운영
- 예술인 실태 및 예술인복지 만족도 조사

2. 2018 부산 예술인실태조사 결과

1) 조사 개괄

○ 조사 목적

- 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인의 직업·생활 및 복지 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기적인 조사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2(실태조사)에 근거하며,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본 조사는 부산에 거주하거나 부산을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예술인의 창작여건, 생활실태, 복지수요 등을 파악하여 향후 부산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됨

○ 조사 추진 경과

일정	추진 내용
'18. 08. 17 ~ 08. 31	· 설문지 내용 검토 및 확정
'18. 08. 20 ~ 09. 05	· 조사대상 명부 확보
'18. 09. 06 ~ 09. 10	· 온라인 조사 화면 제작
'18. 09. 11 ~ 10. 31	· 조사 실시
'18. 11. 01 ~ 11. 09	· 데이터 처리 및 통계분석
'18. 11. 10 ~ 11. 30	· 보고서 작성

○ 조사 설계

구분	세부항목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및 우편 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예술 분야(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중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부산을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예술인 · 조사대상 명부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제공하거나 유관 기관 협조를 통하여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18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예술인 명단 - 2016-18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행 완료자 명단 - 부산예총 및 민예총 회원 명부 																																																																										
표본 수	2,000명																																																																										
표본 추출	<p>· 모집단의 상세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워 11개 예술 분야별 모집단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었음</p> <p>이에 따라 예술 분야별 규모에 비례하여 목표 표본 수를 사전에 할당하지는 못하였으며, 확보된 명부의 비율을 최대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를 진행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분야</th> <th colspan="2">조사대상 명부</th> <th colspan="2">유효 표본</th> </tr> <tr> <th>명</th> <th>%</th> <th>명</th> <th>%</th> </tr> </thead> <tbody> <tr> <td>문학</td> <td>749</td> <td>12.2</td> <td>381</td> <td>19.1</td> </tr> <tr> <td>미술</td> <td>2,745</td> <td>44.5</td> <td>695</td> <td>34.8</td> </tr> <tr> <td>음악</td> <td>970</td> <td>15.7</td> <td>393</td> <td>19.7</td> </tr> <tr> <td>무용</td> <td>363</td> <td>5.9</td> <td>104</td> <td>5.2</td> </tr> <tr> <td>연극</td> <td>250</td> <td>4.1</td> <td>132</td> <td>6.6</td> </tr> <tr> <td>영화</td> <td>130</td> <td>2.1</td> <td>52</td> <td>2.6</td> </tr> <tr> <td>연예</td> <td>112</td> <td>1.8</td> <td>28</td> <td>1.4</td> </tr> <tr> <td>국악</td> <td>370</td> <td>6.0</td> <td>133</td> <td>6.7</td> </tr> <tr> <td>사진</td> <td>37</td> <td>0.6</td> <td>47</td> <td>2.4</td> </tr> <tr> <td>건축</td> <td>215</td> <td>3.5</td> <td>25</td> <td>1.3</td> </tr> <tr> <td>만화</td> <td>4</td> <td>0.1</td> <td>10</td> <td>0.5</td> </tr> <tr> <td>미분류</td> <td>219</td> <td>3.6</td> <td>-</td> <td>-</td> </tr> <tr> <td>계</td> <td>6,164</td> <td>100.0</td> <td>2,000</td> <td>100.0</td> </tr> </tbody> </table>	분야	조사대상 명부		유효 표본		명	%	명	%	문학	749	12.2	381	19.1	미술	2,745	44.5	695	34.8	음악	970	15.7	393	19.7	무용	363	5.9	104	5.2	연극	250	4.1	132	6.6	영화	130	2.1	52	2.6	연예	112	1.8	28	1.4	국악	370	6.0	133	6.7	사진	37	0.6	47	2.4	건축	215	3.5	25	1.3	만화	4	0.1	10	0.5	미분류	219	3.6	-	-	계	6,164	100.0	2,000	100.0
분야	조사대상 명부		유효 표본																																																																								
	명	%	명	%																																																																							
문학	749	12.2	381	19.1																																																																							
미술	2,745	44.5	695	34.8																																																																							
음악	970	15.7	393	19.7																																																																							
무용	363	5.9	104	5.2																																																																							
연극	250	4.1	132	6.6																																																																							
영화	130	2.1	52	2.6																																																																							
연예	112	1.8	28	1.4																																																																							
국악	370	6.0	133	6.7																																																																							
사진	37	0.6	47	2.4																																																																							
건축	215	3.5	25	1.3																																																																							
만화	4	0.1	10	0.5																																																																							
미분류	219	3.6	-	-																																																																							
계	6,164	100.0	2,000	100.0																																																																							
조사 기간	· 2018년 9월 11일 ~ 10월 31일																																																																										

○ 조사 내용

구분	세부항목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결혼상태, 주거형태, 거주 지역
예술활동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분야 · 주 활동분야 첫 활동(데뷔) 방식 · 주 예술 분야 활동 기간 · 주 활동분야 활동 유형 · 지난 3년 간 예술활동 발표 횟수
고용형태 및 근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 예술인 여부 및 고용형태 · 최근 3년 간 예술활동 주 수입원 및 연간 평균 수입 · 연간 수입액 중 예술활동 수입액 비중 · 예술활동 시 계약 체결 경험 유무 · 예술활동 시 체결 계약 형태 · 예술활동 시 체결 계약의 이행 정도 · 예술활동 시 체결 계약의 분쟁 발생 유형 · 불공정 계약 강요당한 경험 유무
생활 및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보험 가입 유형 · 4대보험 미가입 이유 · 4대보험 납부액 일부 지원 시 가입 의향 · 업무상 재해 발생 정도 및 재해 보상 여부 · 실업급여 수혜 경험 및 횟수, 금액 · 예술활동 과정에서 업무상 상해 경험 유무 · 노후생활 대비 여부 및 방법
예술 정책 및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만족도 · 예술창작을 위한 필요 요소 ·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기 위해 중요한 점 ·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점 ·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부산시 중점 정책 · 부산 예술인 관련 중요 복지 정책 · 예술인복지법 사업 중요도 · 부산에서의 예술활동 이유 · 예술활동증명 인지도 및 인지 경로 · 예술활동증명 신청 완료 여부

2) 조사 결과

○ 응답자 특성

- 응답 예술인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자 46.3%, 여자 53.8%임
- 전체 응답 예술인의 연령대별 비율은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는 가운데,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 예술인의 평균 연령은 49.6세임
- 주거형태별로는 자가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증금 있는 월세 18.0%, 전세 12.9%, 보증금 없는 월세 1.8%, 무상(관사/사택 등) 1.7%의 순으로 나타남
30대 이하의 젊은 예술인과 연극과 영화 분야 예술인은 주거형태가 자가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전세나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대와 예술 분야별로 주거형태의 특징이 드러나는 편임

		빈도(명)	비율(%)
전체		2,000	100.0
성별	남자	925	46.3
	여자	1,075	53.8
연령	20대	205	10.3
	30대	374	18.7
	40대	398	19.9
	50대	467	23.4
	60대	361	18.1
	70대 이상	195	9.8
	[평균 : 49.6세]		
결혼 상태	기혼	1,257	62.9
	미혼	545	27.3
	기타	198	9.9
거주 형태	자가	1,206	60.3
	전세	258	12.9
	보증금 있는 월세	359	18.0
	보증금 없는 월세	36	1.8
	무상(관사/사택 등)	33	1.7
	기타	108	5.4
거주지	부산	1,826	91.3
	부산 외 지역	174	8.7

○ 예술활동 분야

- 전체 응답자의 예술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술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악 19.7%, 문학 19.1%, 국악 6.7%, 연극 6.6%, 무용 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0대 이하는 음악과 연극, 60대 이상은 문학과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수 (명)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전체		2,000	19.1	34.8	19.7	5.2	6.6	2.6	1.4	6.7	2.4	1.3	0.5
성별	남자	925	17.2	33.6	21.8	2.2	7.6	3.2	1.7	5.9	4.0	2.3	0.4
	여자	1,075	20.7	35.7	17.8	7.8	5.8	2.0	1.1	7.3	0.9	0.4	0.6
연령	30대 이하	579	4.3	30.2	25.2	9.0	12.8	6.0	0.9	8.3	2.1	0.2	1.0
	40~50대	865	15.8	35.7	23.4	5.0	6.2	1.5	1.0	7.2	1.8	1.8	0.5
	60대 이상	556	39.4	37.9	8.1	1.6	0.7	0.7	2.5	4.1	3.4	1.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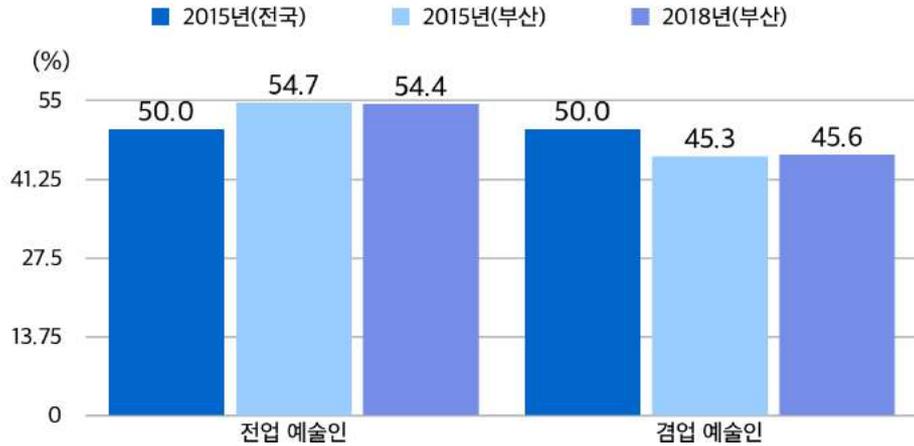
- 예술활동 분야 첫 활동(데뷔) 방식으로는 단체입단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모 28.2%, 개인추천 25.8%, 취업 6.4% 등의 순임
단체입단과 공모, 개인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술활동 분야에 첫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 주 활동 분야 활동 기간을 살펴보면, 5년 미만 14.2%, 5년~10년 미만 21.2%, 10년~15년 미만 16.5%, 15년~20년 미만 14.4%, 20년~30년 미만 18.0%, 30년 이상 15.9%로 응답됨
예술 분야 활동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51.8%, 15년 이상 48.2%로 기간별로 고른 분포를 보임
- 응답 예술인 10명 중 6명 정도는 창작/발표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3년 간 예술활동 평균 발표 횟수는 14.9회인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악 분야 예술인은 평균 20.1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악 19.1회, 연예 16.6회, 연극 15.2회, 문학 15.1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회)	전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발표 횟수	14.9	15.1	13.8	19.1	10.0	15.2	4.1	16.6	20.1	8.8	6.4	4.1

○ 고용형태 및 근로 환경

[고용형태]

- 전체 응답자의 54.4%가 전업 예술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겸업 예술인이 45.7%로 나타남
2015년 응답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며,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전국 평균에 비해 전업 예술인의 비율이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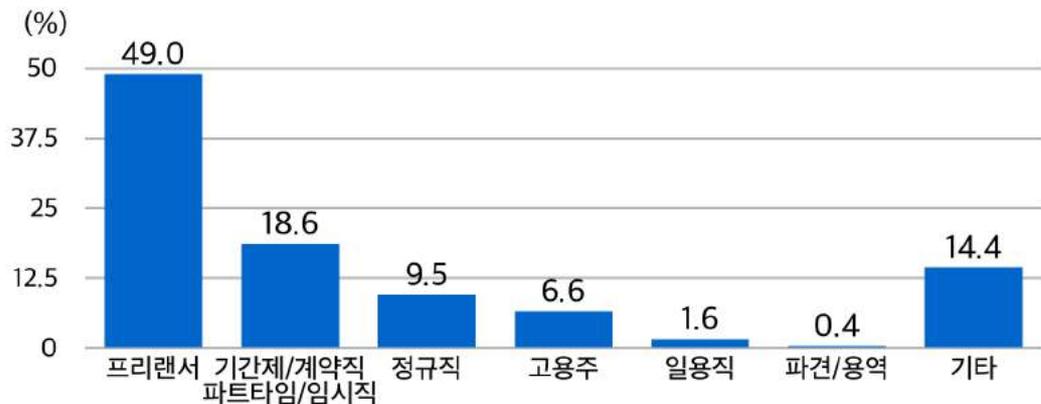


- 예술 분야별로는 음악과 무용, 연극, 연예, 국악 분야는 전업 예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문학과 영화, 사진 분야는 예술활동 외 다른 일자리를 겸업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편임

(%)	전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전업 예술인	54.4	47.0	52.2	60.3	61.5	62.1	19.2	60.7	72.9	40.4	56.0	50.0
겸업 예술인	45.7	53.0	47.8	39.7	38.5	37.9	80.8	39.3	27.1	59.6	44.0	50.0

- 전업 예술인 2명 중 1명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정규직 비율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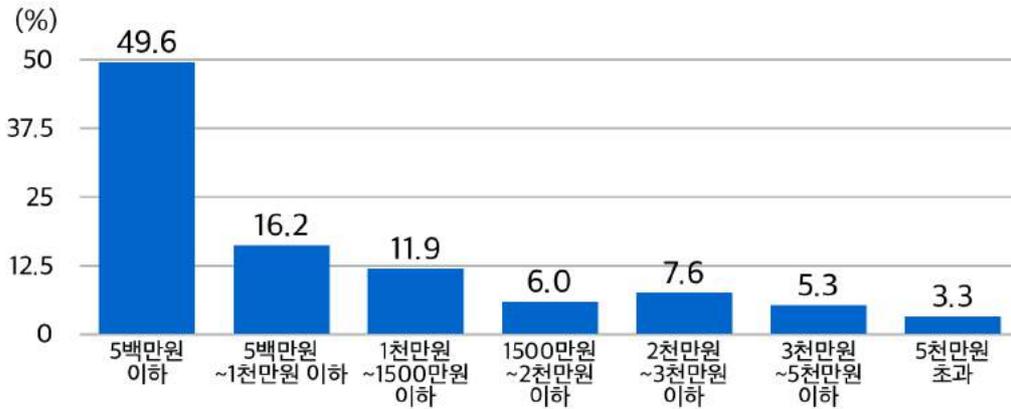
[응답자 수 : 1,087명, 보기 제시]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 최근 3년 간 예술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급여가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출연료 16.7%, 원고료 11.3%, 저작권 수입 2.7%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전체 응답자의 29.8%가 최근 3년 간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없다고 응답함
- 최근 3년 간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는 예술인의 65.8%는 연간 평균 수입이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8.7%에 불과함.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과 사진 분야는 5백만원 이하, 건축 분야는 5천만원 초과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수 : 1,404명, 보기 제시]



- 연간 수입액 중 예술활동 수입액 평균 비중은 41.6%임
예술 분야별로는 만화가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악 60.9%, 건축 57.0%, 연극 55.2%, 무용 52.2% 등의 순임

(%)	전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예술활동 수입액 비중	41.6	15.6	42.9	44.7	52.2	55.2	34.5	51.0	60.9	41.5	57.0	78.0

[계약 체결 관련]

- 전체 응답자의 47.4%가 예술활동 시 계약 체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계약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구두 계약 12.4%, 서면 계약 87.6%로 나타남
-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7.3%가 계약은 성실하게 잘 이행이 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계약 분쟁 발생 유형으로는 대금 미수령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금 지급 지연이 26.9%로 그 뒤를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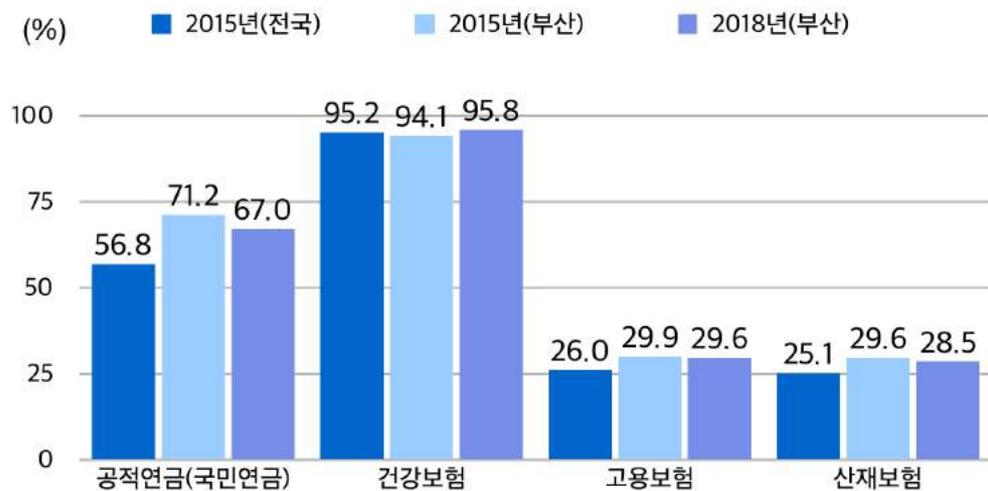
-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 응답자의 24.1%가 유형 혹은 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예술 분야별로는 연극, 건축의 예술인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불공정 계약 강요당한 경험 비율	24.1	24.1	24.4	26.0	28.2	31.3	15.6	5.9	15.1	28.6	37.5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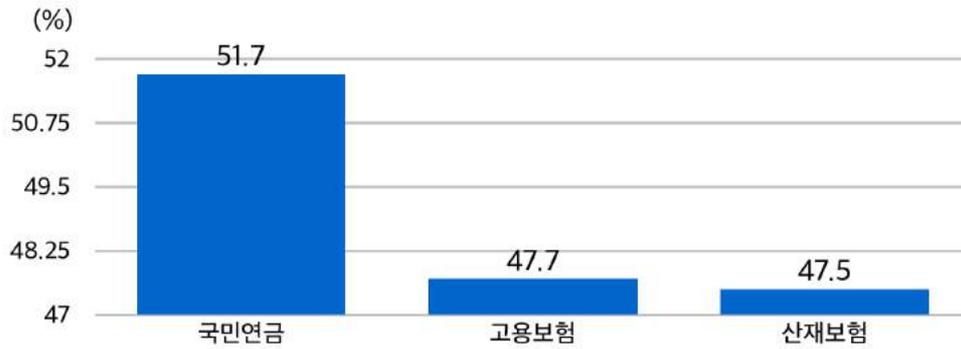
○ 생활 및 복지

[4대보험 관련]

- 4대보험의 가입율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9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67.0%, 고용보험 29.6%, 산재보험 28.5%의 순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율은 2015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연금(국민연금) 가입율은 감소, 건강보험 가입율은 증가함
-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전국 기준 가입률과 비교하면, 부산지역의 4대보험 가입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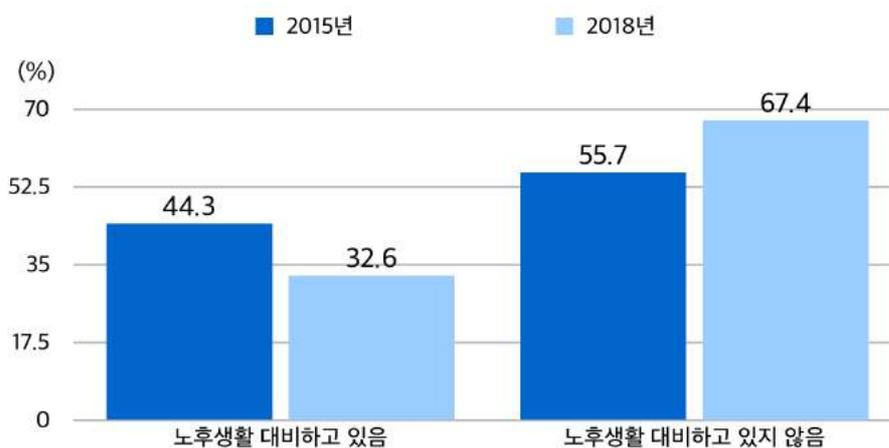
- 4대보험 미가입 이유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해당자가 아니어서 54.3%, 연금액 납부가 부담이 되어서 32.6%로 응답하였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장이 없어서가 각각 54.0%, 47.2%로 응답됨
- 납부액 일부 지원 시 4대보험 가입 의향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51.7%, 고용보험 47.7%, 산재보험 47.5%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4대보험 미가입자 2명 중 1명은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15.4%가 업무상 재해 발생하는 편이라고 응답함
- 실업급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 비율은 17.4%로 2015년 전국 평균 경험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수혜 횟수는 3.2회, 수혜금액은 평균 91만원으로 2015년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임

	실업급여 수혜 경험율 (%)	실업급여 수혜 횟수(회)	실업급여 수혜금액(만원)
2018년(부산)	17.4	3.2	91
2015년(전국)	7.2	1.5	87

[노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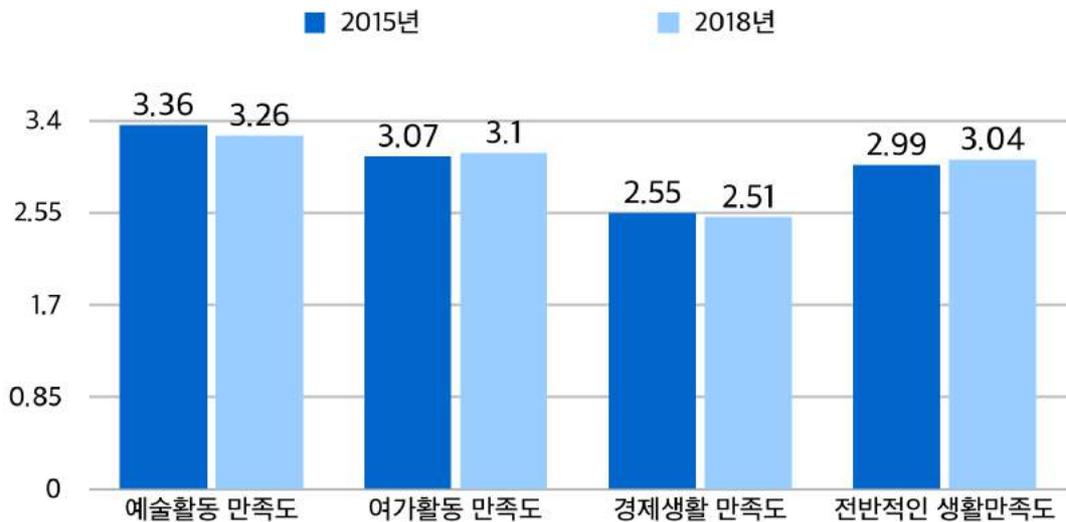
- 전체 응답자의 32.6%가 노후생활을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15년 (44.3%) 대비 노후생활 대비를 하고 있는 응답 비율이 낮아짐
- 노후생활 대비 방법을 살펴보면, 저축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연금 가입 22.7%, 특수직역연금 가입 19.0%, 민간 연금보험 가입 12.7%, 예술활동 외 수익사업 8.3%, 부동산 투자 6.1%, 주식/펀드 4.8%의 순으로 나타남

○ 예술 정책 및 만족도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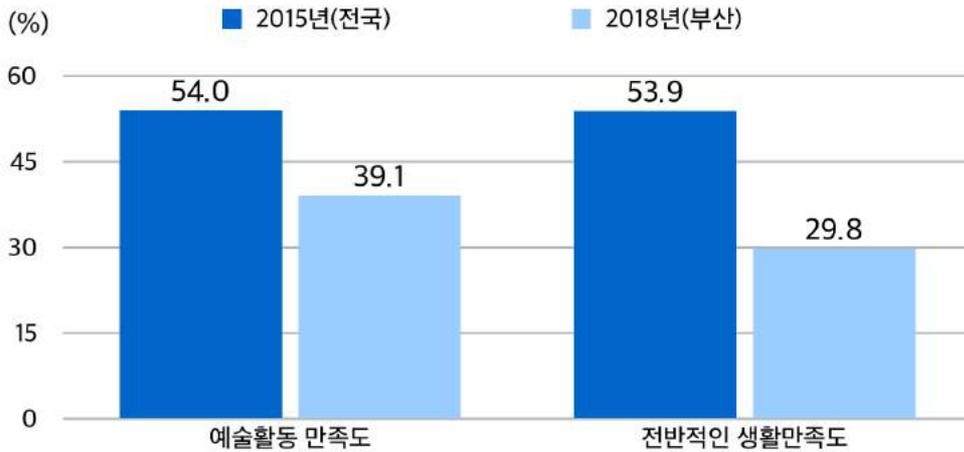
- 생활 만족도를 5점 평균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술활동 만족도가 3.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가활동 만족도 3.10점,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3.04점, 경제생활 만족도 2.51점으로 나타남
예술활동과 여가활동, 전반적 생활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비율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생활은 불만족 응답 비율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남
- 2015년 결과 대비, 예술활동 및 경제생활 만족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여가활동과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소폭 상승함

(점)



-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전국 기준 결과 대비 예술활동과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매우 낮음

[긍정응답비율 기준]



- 예술 분야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무용과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예술활동에 만족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문학과 건축, 만화 분야 예술인은 여가활동과 경제생활, 전반적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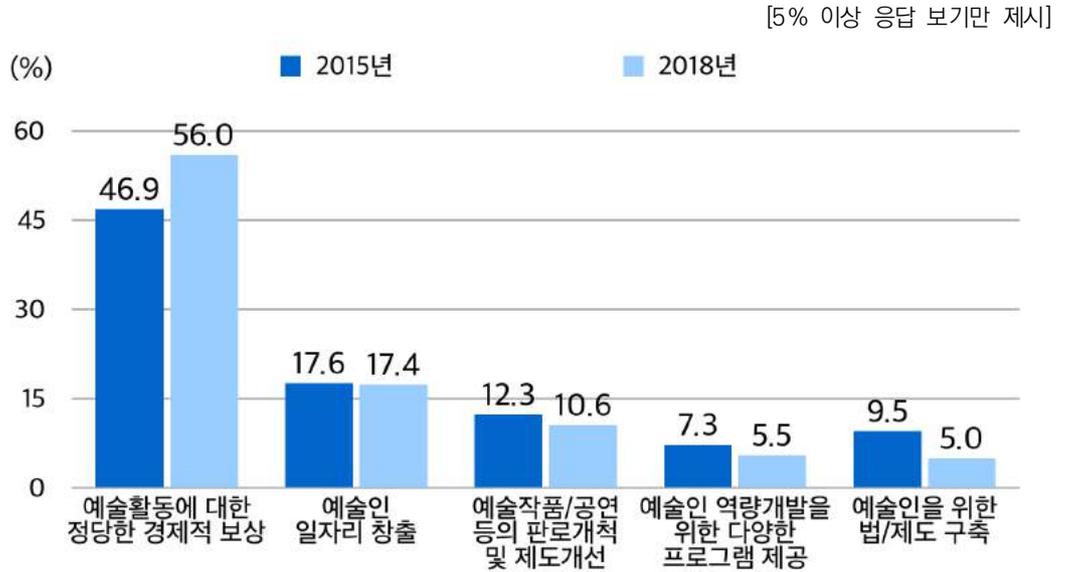
[긍정응답비율 기준, 단위 : %]

	만족도 평가			
	예술활동	여가활동	경제생활	전반적 생활
전체	39.1	33.0	13.6	29.8
문학	36.7	40.7	19.4	34.9
미술	39.1	31.2	11.2	27.6
음악	34.4	29.5	13.5	27.0
무용	45.2	33.7	15.4	36.5
연극	50.8	28.0	5.3	28.0
영화	28.8	28.8	11.5	26.9
연예	32.1	25.0	7.1	17.9
국악	45.1	36.8	15.8	33.1
사진	48.9	42.6	12.8	25.5
건축	48.0	20.0	24.0	36.0
만화	20.0	40.0	2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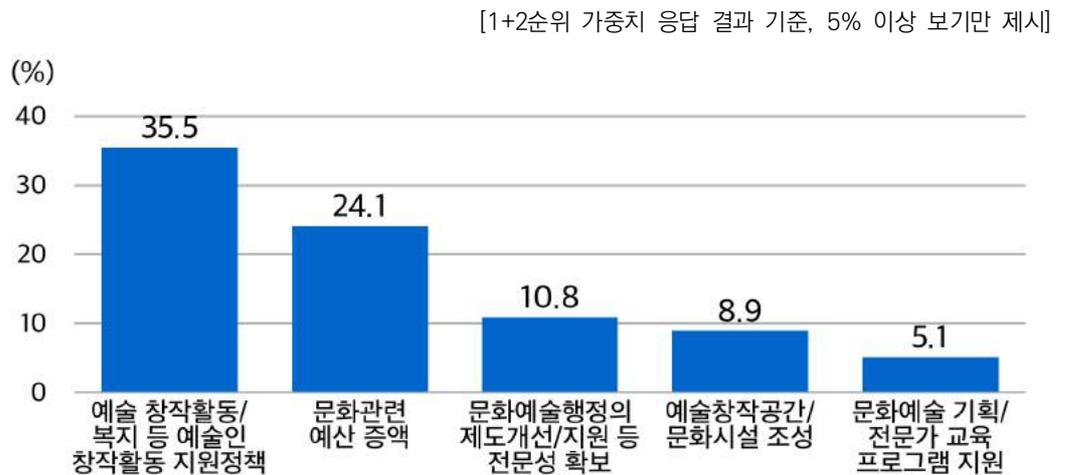
- 예술창작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살펴보면, 경제적 보상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인 자신의 의지/역량 24.6%, 정책적/재정적 지원 2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훌륭한 예술창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경제적 보상과 예술인 자신의 의지/역량, 정책적/재정적 지원 3가지 요소에 대해서 고른 비율로 응답됨

[예술 정책]

-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 (56.0%)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결과 대비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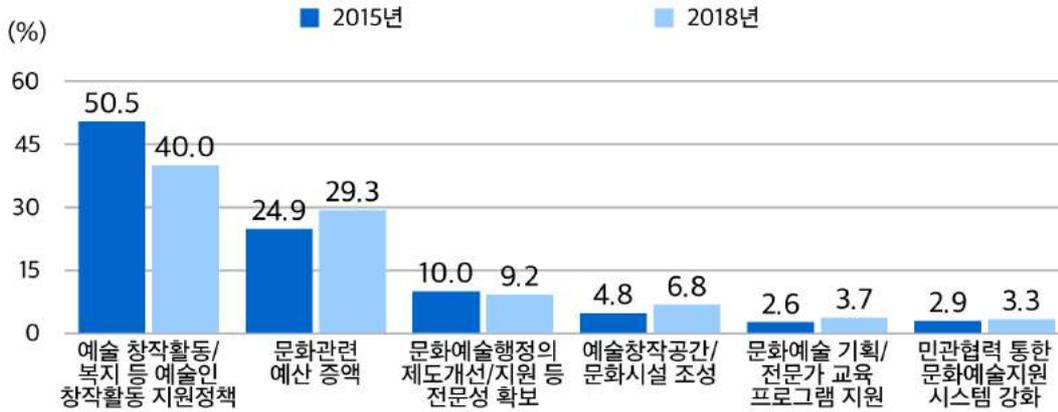


-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중점 정책을 1+2순위 가중치를 적용한 중복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술창작활동/복지 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정책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화관련 예산 증액 24.1%, 문화예술행정의 제도개선/지원 등 전문성 확보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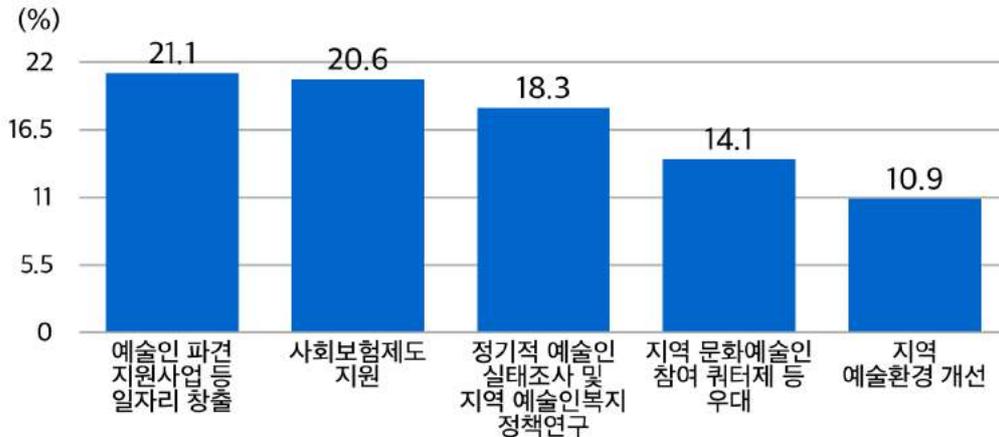
- 1순위 응답 기준으로 2015년 결과와 비교해보면, 예술창작활동/복지 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는 줄어든 반면, 문화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정책 수요는 늘어남

[1순위 응답 결과 기준, 3% 이상 응답 보기만 제시]



- 부산 예술인 관련 중요 복지 정책을 1+2순위 가중치를 적용한 중복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이 2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보험제도 지원 20.6%, 정기적 예술인 실태조사 및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 연구 18.3%, 지역문화예술인 참여 쿼터제 등 우대 14.1%, 지역 예술 환경 개선 10.9% 등의 순으로 응답됨

[1+2순위 가중치 응답 결과 기준, 10% 이상 보기만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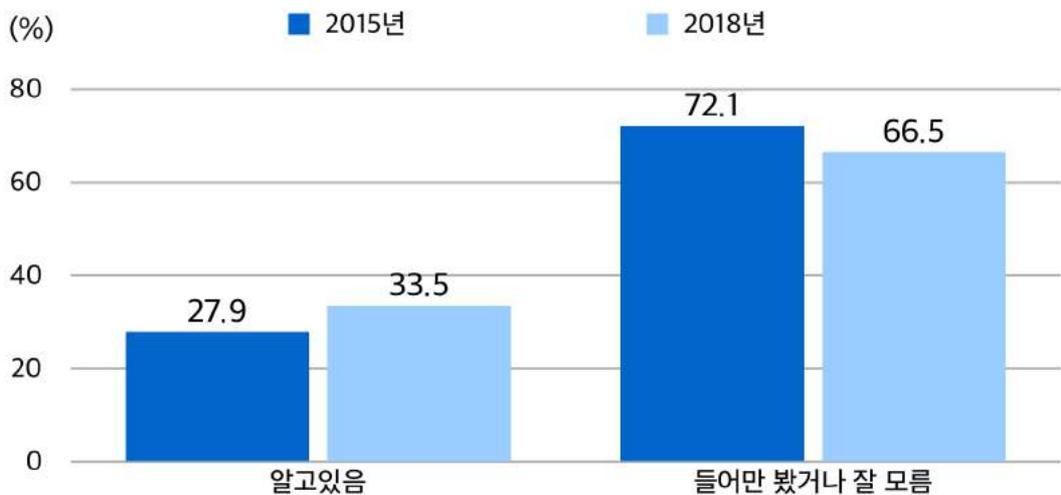


- 예술인복지법 관련 사업의 중요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창작 준비 기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4.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인 계층 지원 4.29점, 예술인 일자리 연계/직업전환 지원 등 일자리 지원 4.2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5년 대비 지역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인 계층 지원에 대한 중요도는 가장 큰 폭으로 낮아진 반면,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에 대한 중요도는 가장 큰 폭으로 높아졌으나 큰 차이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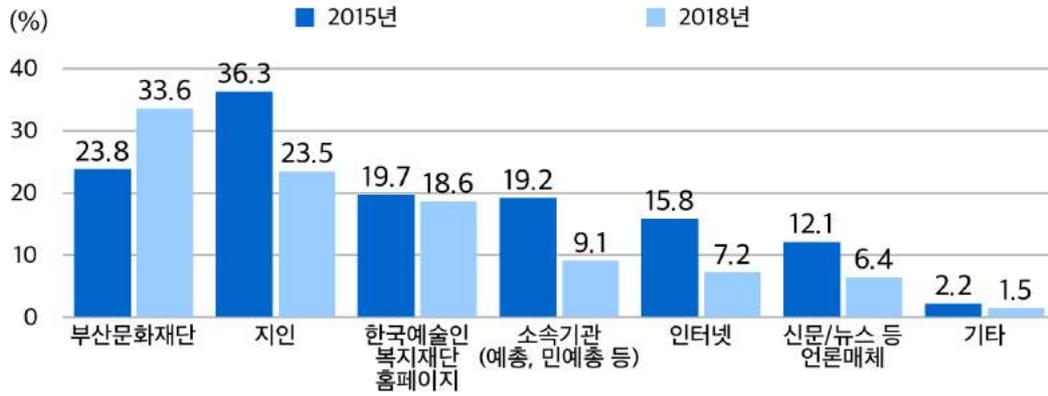
[5점 척도 평균 기준, 단위 : 점]

	중요도 평가		
	2015년	2018년	GAP
1) 지역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인 계층 지원	4.41	4.29	▼0.12
2) 예술인 자녀 보육 지원	3.76	3.74	▼0.02
3) 예술인의 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4.12	4.08	▼0.04
4)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지원	4.03	3.95	▼0.08
5) 창작 준비 기간에 대한 경제적 지원	4.27	4.30	△0.03
6) 예술인 일자리 연계/직업전환 지원 등 일자리 지원	4.21	4.25	△0.04
7) 계약/저작권/법률/노무/세무회계 등 컨설팅 지원	3.82	3.87	△0.05
8)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3.72	3.82	△0.10
9) 예술인 심리상담/신문고 등 예술활동 개선	3.76	3.82	△0.06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잘 알고 있다 33.5%, 들어만 봤다 34.7%, 잘 모른다 31.8%로 응답되었으며, 예술활동증명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 비율은 2015년 대비 상승함



- 예술활동증명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부산문화재단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인 23.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1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5년 대비 부산문화재단을 통해서 예술활동증명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함
- 전체 응답자의 39.8%가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 완료했다고 응답함

3.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괄

○ 조사목적

- 본 조사는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피해 사례 조사를 통하여 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됨

○ 조사 추진 경과

일정	추진 내용
'18. 08. 17 ~ 08. 31	· 설문지 내용 검토 및 확정 (* 성폭력 상담소 자문 및 회의 진행)
'18. 08. 20 ~ 09. 05	· 조사대상 명부 확보
'18. 09. 06 ~ 09. 10	· 온라인 조사 화면 제작
'18. 09. 11 ~ 11. 19	· 조사 실시
'18. 11. 20 ~ 11. 25	· 데이터 처리 및 통계분석
'18. 11. 26 ~ 11. 30	· 보고서 작성

○ 조사 설계

항목	내용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부산을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예술인 및 예비 예술인 - 예술인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부산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을 기본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예술인 외에 상대적으로 성폭력에 취약한 예비 예술인(청년, 대학생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함

	<p>- 예비 예술인의 경우 부산지역 소재 주요 예술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 협조 요청하였으며,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예술대학 개별 학과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SMS를 활용하여 조사 참여를 유도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학</th> <th>학과</th> </tr> </thead> <tbody> <tr> <td>부산대학교</td> <td>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 무용학과, 미술학과, 미술학과, 조형학과, 디자인학과, 예술문화영상학과</td> </tr> <tr> <td>동아대학교</td> <td>미술학과, 음악학과</td> </tr> <tr> <td>경성대학교</td> <td>음악학부, 연극영화학부, 영상애니메이션학부, 미술학과, 공예디자인학과, 무용학과</td> </tr> <tr> <td>동의대학교</td> <td>음악학과, 디자인조형학과</td> </tr> <tr> <td>신라대학교</td> <td>창조공연예술학부(음악전공), 창조공연예술학부(무용전공)</td> </tr> </tbody> </table>	대학	학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 무용학과, 미술학과, 미술학과, 조형학과, 디자인학과, 예술문화영상학과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음악학과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연극영화학부, 영상애니메이션학부, 미술학과, 공예디자인학과, 무용학과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디자인조형학과	신라대학교	창조공연예술학부(음악전공), 창조공연예술학부(무용전공)
대학	학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 무용학과, 미술학과, 미술학과, 조형학과, 디자인학과, 예술문화영상학과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음악학과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연극영화학부, 영상애니메이션학부, 미술학과, 공예디자인학과, 무용학과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디자인조형학과												
신라대학교	창조공연예술학부(음악전공), 창조공연예술학부(무용전공)												
표본 수	· 2,000명 ⁵⁾												
조사 기간	· 2018년 9월 11일 ~ 11월 19일												

○ 조사 내용

구분	세부항목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예술 분야
문화예술계 성폭력 및 성평등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폭력 심각도 ·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 · 문화예술계 내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성차별 경험 · 문화예술계 성평등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 · 문화예술계에서 직접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직위 ·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대응 방법 · 성희롱/성폭력 경험 후 대응 어려운 이유

5) 조사 참여인원은 총 2천명이며, 문항별 결측값이 있어 각 문항별 응답 표본 수는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가장 힘든 부분 · 문화예술계 활동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 목격 내용 · 성희롱/성폭력 목격 사건 가해자 직위 · 목격 성희롱/성폭력 피해 해결 결과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방안 ·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운영 시 필요사항

2) 조사 결과

○ 응답자 특성

		빈도(명)	비율(%)
성별 [N=1,723]	남자	628	36.4
	여자	1,074	62.3
	기타	21	1.2
연령 [N=1,723]	10대	3	0.2
	20대	488	28.3
	30대	321	18.6
	40대	286	16.6
	50대	327	19.0
	60대	217	12.6
	70대 이상	81	4.7
예술 분야 [N=1,723]	문학	220	12.8
	미술	593	34.4
	음악	380	22.1
	무용	98	5.7
	연극	111	6.4
	영화	69	4.0
	연예	15	0.9
	국악	125	7.3
	사진	26	1.5
	건축	12	0.7
	만화	25	1.5
기타	49	2.8	

- 전체 응답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자 36.4%, 여자 62.3%임
- 연령대별로는 10대 0.2%, 20대 28.3%, 30대 18.6%, 40대 16.6%, 50대 19.0%, 60대 12.6%, 70대 이상 4.7%로 나타남
- 예술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술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악 22.1%, 문학 12.8%, 국악 7.3%, 연극 6.4%, 무용 5.7% 등의 순임

○ 문화예술계 성폭력 및 성평등에 대한 인식

- 술 따르기/옆에 앉히기와 같은 회식자리 접대 요구(74.1%)나 술자리/식사 등 사적 만남 요구(60.3%) 항목에 대해서는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응답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임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

- 강간/강간 미수(92.2%)
- 폭력/협박 동반한 강제추행(92.1%)
- 성적인 정보 공유/유포행위(91.8%)
- 위계를 이용한 성행위/연인관계 요구(91.6%)
- 예술활동을 빙자한 성적인 사진 촬영/소지/유포(90.6%)
- 예술작업을 빌미로 신체접촉/노출 요구(89.1%)
- 성적농담/외모지적/여성혐오적 발언(88.7%)
- 술 따르기/옆에 앉히기와 같은 회식자리 접대 요구(74.1%)
- 술자리/식사 등 사적 만남 요구(60.3%)

- 전체 응답자의 33.3%가 부산지역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20.1%)보다 높게 나타남.
- 남자는 여자에 비해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이하는 타 연령대에 비해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 이상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수 (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은 편 이다	보통이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3분류			5점 척 도 평균
						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	심각한 편	
2,000	3.3%	16.8%	46.7%	26.4%	6.9%	20.1%	46.7%	33.3%	3.17점

- 예술계 내 불균형적인 권력관계로 인해 문화예술계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비율 (36.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특유의 분위기도 큰 비중(31.4%)을 차지한다고 인식함
성희롱/성폭력의 주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30대 이하 예술인은 권력관계로 인식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로 인식하고 있어 세대별로 원인에 대한 입장 차가 존재함
- 전체 응답자의 71.0%가 성차별 발생 시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인식함
성차별 경험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3.7%가 예술활동에서 특정한 성별에 대한 혐오와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차별에 대해서 문제제기 시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43.4%로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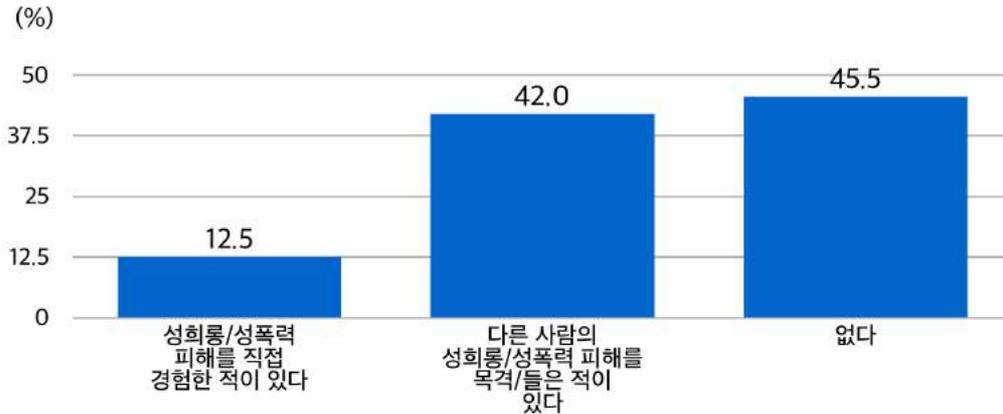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성차별 경험 (그렇다 비율)	
성평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 발생 시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71.0%) · 예술가의 성별이 예술활동 및 작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52.0%)
성차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에서 특정한 성별에 대한 혐오와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43.7%) · 성차별에 대해서 문제제기 시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43.4%) · 예술활동 중 성차별로 인해서 소외당한 경험이 있다(26.0%) · 성정체성을 밝혔을 때 예술계에서 아웃팅/불이익/소문/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8%)

-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 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받은 적이 없다 68.9%,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 15.7%, 최근 1년 내 받은 적이 있다 15.3%로 나타남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의 경우, 받은 적이 없다 61.3%,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 18.8%, 최근 1년 내 받은 적이 있다 20.0%로 응답됨

○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경험

- 전체 응답자 10명 중 1명 정도는 성희롱/성폭력 직접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장면을 목격하였거나 그런 사실을 전해들은 적이 있는 응답 비율은 4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임

[응답자 수 : 1,803명, 보기 제시]



[성희롱/성폭력 직접 피해 경험]

- 무용 분야 예술인은 타 분야에 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며, 30~40대와 연극/영화 분야 예술인은 다른 사람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남자와 50대 이상, 문학과 국악 분야 예술인은 성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문화예술계 내 직접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은 주로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와 음담패설, 성적 농담 등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인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직위는 주로 피해자와의 권력관계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대면 가능성이 높은 교수/강사/교사 및 선배예술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에 대응방법으로는 가족/지인 혹은 문화예술계 내 친밀한 사람 등 제3자에게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비율도 높게 나타남
한편, 외부 기관 및 언론/SNS 등 대외적인 창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임

성희롱/성폭력 직접 피해 경험			
피해 유형		가해자 직위	피해 후 대응방법
1순위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평가/지적(27.0%)	대학교수/강사/교사 등 가르치는 사람(34.2%)	가족/지인에게 개인적으로 호소(34.1%)
2순위	음담패설/성적 농담(23.9%)	선배예술가(30.3%)	대응하지 않았다(22.9%)
3순위	가슴/엉덩이 등 신체 부위 만지는 행위(13.6%)	기획자/감독(11.5%)	문화예술계에 친밀한 사람 에게 개인적으로 호소(19.7%)

-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희롱/성폭력 이후 힘든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비난/소문/신상/피해사실의 유포가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계 내 동료와의 관계 악화/소외 14.3%, 작품활동 의욕 상실/작가적 자존감 훼손/예술활동 중단 13.4%, 문화예술계 활동에서 배제/불이익 13.2% 등의 순으로 응답됨

[성희롱/성폭력 목격 경험]

- 성희롱/성폭력 피해 목격 내용은 직접 피해 경험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성희롱 유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성희롱/성폭력 목격 사건 가해자의 직위는 교수/강사/교사 및 선배 예술가 등 직접 피해자의 가해자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편임
- 목격 성희롱/성폭력 피해 해결 결과는 피해자가 참고 넘어가거나 조치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임

성희롱/성폭력 목격 경험			
피해 유형		가해자 직위	사건 해결 결과
1순위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평가/지적(25.1%)	대학교수/강사/교사 등 가르치는 사람(35.6%)	피해자가 참고 넘어감 (40.4%)
2순위	음담패설/성적 농담(23.6%)	선배예술가(27.4%)	조치결과는 알지 못함 (24.4%)
3순위	가슴/엉덩이 등 신체 부위 만지는 행위(14.2%)	기획자/감독(15.0%)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요구(12.9%)

○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방안

-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예술계 내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 강화가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인 인식변화 캠페인 19.8%, 예술계 성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 17.2% 등의 순으로 응답됨
-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운영 시 필요한 사항으로는 예술계 지원사업/혜택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강화가 4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법적지원/의료지원/상담지원 23.3%, 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1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징계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폭력 대응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함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방안	성폭력 대응센터 운영 필요사항
1순위	예술계 내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 강화 (26.7%)	예술계 지원사업/혜택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강화(41.2%)
2순위	예술인 인식변화 캠페인(19.8%)	법적지원/의료지원/상담지원(23.3%)
3순위	예술계 성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 (17.2%)	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15.1%)

4. 전문가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

1) 조사개괄

○ 조사목적

-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예술인 및 예술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예술인복지정책에 대한 그룹별 FGI(표적집단면접조사, Focus Group Interview) 및 현장조사를 실시함. 실태 조사의 11개 장르별을 포함하는 인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등의 그룹별 조사를 실시하여 입체적이고 풍부한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점검함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8. 10. ~ 2018. 12.
- 조사내용 : 부산 예술인 복지 정책 현황 및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관련 의견 청취
- 조사대상 : 정책 대상자(예술인 파견지원 등)를 포함하여 장르, 연령, 분야별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및 기획자
- 회차별 3~4명 진행, 총 8차 진행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종사자 포함) 및 현장조사를 포함하여 33명 인터뷰를 진행함

○ 그룹인터뷰(FGI)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

회차		분야
1차	10.11. 목	무용, 음악, 기획, 미술
2차	10.12. 금	음악, 문학, 무용
3차	10.18. 목	영상, 문학, 다원
4차	10.19. 금	연극, 다원, 청년
5차	10.26. 금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6차	12.05 수	영화, 미술, 국악, 음악
7차	12.06 목	클래식, 미술, 문학, 연극
8차	12.07 금	무용, 문학, 공연, 다원

2) 주요 인터뷰 결과⁶⁾

○ 예술인, 예술인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 예술인복지정책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회적 공감의 필요성

- “과연 예술인이 지원, 보호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술인 안에서도 논의가 이뤄지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합의,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예술인복지정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

- “현재 예술인복지정책이 예술인복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느껴지긴 한다. 직접적인 체감은 없지만 이런 게 시작이 되었구나 느낌이 든다. 예술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도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구나 싶다.”
- “예술가복지라는 개념이 예술가에게 창작활동의 시간을 확보를 해주고, 보장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사업형식들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지원사업과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한다. 예술가의 노동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 크다.”
- “예술인복지정책의 수혜기준이 모호하다. 같은 상황의 예술가들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런 선정과정의 모호성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가에게 신뢰도가 낮다.”
- “한국형 예술인복지사업의 시작이 사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구성되다 보니 너무나도 많고 다양한 요청들이 있고 그에 대응하다보니 사업들이 난발되고 있지 않나 싶다. 선택과 집중의 단계가 필요하다.”

■ 서울 중심의 예술인복지정책에 대한 비판

- “예술인복지정책이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서울에서는 혜택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만, 부산, 지역에서는 혜택이 거의 없다.”
- “예술활동증명 조건이 실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산은 실적을 낼 수 있는 활동이 한정적이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증명받기 까다롭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대한 비판적 의견

- “청년예술인들이 창작준비금 등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청년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으면 한다.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 등의 예술가들의 경우 진입에 어려움이 많다.”
-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이 참가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나 장기적인 복지라기 보다 단기적인 지원정책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 “예술인패스를 쓰는 예술인들이 없다. 실제 공연, 전시회는 예술가 지인에게 초대받

6) 인터뷰 결과는 부록 - FGI 결과 참고

- 는 것이 금액적으로 더 저렴하다. 단순 할인제도 외에 바우처 기능을 첨가해 예술가가 필요한 책, 재료 사는 등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인패스 할인에 대해 부산이 할인적용이 작은 이유는 무료입장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인패스를 특화시킨다면 기존할인에 중복할인을 해준다던가, 할인을 높여주던가 현실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어야한다.”
 - “4대보험은 들고 싶었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지원제도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 관한 의견

■ 센터에 대한 의견 : 홍보문제, 인력부족

- “주변 많은 문화단체, 예술가들이 부산에서 이뤄지는 예술인복지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다.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과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사업 구분이 모호하다.”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 센터장이 없는 것이 말이 안된다.”
- “사업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담당 전문인력이 부재한 것이다. 소통의 과정이 아쉬웠으며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내 직원분들의 업무강도가 너무 높으며, 피로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정규인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 센터 사업의 성과와 한계

<굿모닝 예술인 - 부산 예술인파견지원사업>

- “파견예술인지원사업 자체는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예술인과 매칭을 계기로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스터디를 하는 식의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기존과 다르게 시도하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
- “굿모닝 예술파견지원 사업 중 기업이 원하는 분야와 비인기분야가 있는 것 같다. 장르별로 특성에 따라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는 분야가 있어서 그런데 비인기분야로서 상처 아닌 상처를 받긴 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파견사업은 퍼실리테이터가 있으나, 부산의 경우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직원이 코디를 겸하여 일의 강도도 너무 높고, 집중도도 떨어진다. 파견사업의 경우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이 크기 때문에 부산의 경우에도 중간 매개자의 역할이 커졌으면 좋겠다.”

<반딧불이 - 예술가 입주 및 창작공간 활용>

- “현재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반딧불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 참여단체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 “빈집 지원도 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하면 더 좋은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설에 대해 미비하긴 하나,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큰 편이다.”

■ 센터의 향후 발전방안 : 역할 강화 필요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 예술을 위해 전반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이 진행해야한다. 예술가가 아니라 역량강화 및 복지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내에 별도의 예술인권익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 예술인 스스로 이야기가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으며, 그 단체의 존재만으로도 예술인과 사회가 체감하는 것이 다를 것이다.”

○ 예술인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

■ 복지정책의 인식 개선

- “예술인복지정책이 구제가 아닌 권리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복지의 개념이나 왜 예술가들이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와야하는지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한다.”
- “예술인이 어떤 노동을 제공하고 활동하고 있는지, 예술의 가치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 예술활동의 세분화와 확대

- “아직까지도 진화하는 과정으로 각 장르별 특성에 따른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 세분화를 위한 기초예술조사가 필요하다.”
- “예술인 안의 층위가 나누어져야한다. 예술의 형태, 층위, 연령대 만큼 정책도 다양화되어야 한다.”
- “예술영역에서 기획자의 역할도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창작환경, 직업환경 개선

- “예술인복지정책이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환경조성이 더 우선시 되어야한다.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원받지 않아도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한다.”
- 창작활동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주었으면 한다. 창작비용 지원보다 실제 예술가가 예술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현장지원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예술인복지라고 생각한다.
- “복지라는 것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

서 노동환경에 대한 지원이나 권익보호, 법률이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에서 강조되었으면 좋겠다.”

■ 부산예술인복지정책수립의 주안점 : 지역상생

- “예술가가 몸담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일반시민들이 예술가들을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기업과 예술가가 만나는 접점을 넓혀가고, 이런 접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지역예술인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고 알려주는 시스템이나, 언제든지 예술가와 지역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예술가가 동네에 함께 있을 때 동네가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
- “중앙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이 필요한 의제를 발굴해내고 지역예술인과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 “요즘 부산에 재생사업이나 마을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예술가들이 많이 매칭되었으면 좋겠다.”
- “부산에 유희공간이 많은데 유희공간 활성화에 대해 예술가에게 공간제공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감만창의문화촌처럼 예술가들이 편하게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을에 많이 생기고, 예술가가 마을에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5. 소결 : 부산 예술인복지정책 평가와 전망

1) 성과

○ 예술인복지의 기반 마련

- 부산광역시 예술인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목표로 하는 예술인복지정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의 복지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실태조사와 정책수립,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하여 예술인복지의 기본 토대를 조성해왔음
- 특히 2016년부터 예술활동증명 대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약 3,000여명에 가까운 예술인들이 증명을 마쳤고, 2018년 기준 10억원 가량의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예술인복지 정책에 대응해 왔음
- 또한 센터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예술인복지정책과도 연계점을 마련하고, 굿모닝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반딧불이 사업 등 지역의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발굴 및 지원의 초석을 마련하였음

○ 현장 실태의 파악과 정책 반영

- 부산지역 예술인 2,000명으로 대상으로 2015년, 2018년 2차례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 예술인의 실태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보를 마련하였음. 이를 통하여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과 사업의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선 7기 문화예술분야 정책, 부산문화 2030 비전, 부산문화재단 2030비전 등의 정책비전과 전략에 예술인복지 영역을 주요한 과제로 도출할 수 있었음. 향후 중앙정부 예술인복지정책의 지역 분권 실현 가능성을 높였음

2) 한계와 전망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기능 및 위상강화 필요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선도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지원정책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마련되었으나 재원과 인력의 부족,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으로 인하여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향후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지역 예술인복지정책을 총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및 위상강화가 필요함

-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연계와 함께,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독자적인 지원체계 마련 등 부산 예술인복지정책의 전략이 필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영역의 적절한 체계 마련과 개선이 필요함

○ 지역 예술인-사회와의 연계 강화

- 현재까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의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부에서도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민간영역과 예술인의 연계를 강화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에 대한 복지가 지역 활력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함

○ 예술인의 실태를 반영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부산 예술인들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사업의 실행이 필요함. 특히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장 체계로의 편입 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독자적인 자체 사업을 바탕으로 부산예술인복지정책의 고유한 영역을 개척하고, 부산의 예술인들이 창작하기 좋은 환경으로 지역문화예술생태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함

제4장

부산 예술인복지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제4장 부산 예술인복지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1. 조사결과 종합검토 및 정책수립 방향

1)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

○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의 수립

- 2015년, 2018년 2차례의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와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음. 총론적으로 예술인들은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복지 등에 대한 지원, 문화관련 예산 증액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예술인들의 정책적 지원 확대 요구는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예술진흥정책과 예술가들의 생활 보장 및 직업적 권익 신장에 초점을 맞춘 예술인 복지정책으로 나뉘볼 수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후자인 예술인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적 방향과 계획을 제안함
- 부산의 예술인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제도 지원, 정기적 예술인 실태조사 및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 연구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이러한 예술인들의 실태조사 응답결과와 인터뷰, 현장조사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예술인복지정책 과제를 발굴함

○ 정책의 발전적 계승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강화와 성과의 확대

- 2015년 예술인복지정책은 <예술인들이 살기 좋은 문화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예술인 사회 안전망 강화, 예술인 직업권의 신장, 예술인 생활활력 증진의 3개 주요 목표를 바탕으로 17개의 사업이 제안되었음. 대부분 정책사업이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행이 되면서 한계도 보이고 있으나,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의 정책 비전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성과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함

2) 부산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직업환경의 개선

○ 부산 예술인의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 최근 변화되고 있는 예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예술인의 생활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노력함. 실태조사에 나타나듯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수성을 볼 때 대부분 정규직과 같은 안정적인 고용상태인 경우가 많지 않고,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가 많음.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건강, 의료, 고용, 산재 등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에서조차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러한 예술인들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지원하며, 동시에 건강보험 지원 등 지역의 독자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

○ 예술인이 체감하는 예술인복지정책

-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직업으로서의 지속성에 대해 불안감과 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나 박탈감을 가지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예술인들이 살아가고, 활동하고 있는 삶의 현장 가까이에서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연계하고 매개하는 방식이 필요함
- 지역 예술인의 생활환경 개선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업적인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함. 또한 직업으로서 예술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

3) 예술인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복지정책의 수립

○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토대 구축

- 궁극적으로 예술인복지정책은 지역사회 발전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의 문화 예술 생태계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예술인, 단체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지원 형태로 나아가야 함. 또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증대하여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인식을 확대해 나아가야 함

○ 예술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역 상생

-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 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의 기본적인 복지정책 목적을 바탕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문화 활성화와 연계 가능하도록 해야 함. 특히 최근 문화적 도시재생, 커뮤니티·마을만들기(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분야의 민간예술인/단체 참여 모델 도입 등 문화예술 관련 정책과 경제·복지·도시재생·일자리 창출 등 타 분야 정책과의 연계점이 마련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예술인복지정책이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하도록 지원함

4) 선도적인 지역 예술인복지정책의 실현

○ 부산예술인 복지정책의 도약기 비전 제시

- 부산은 지역예술인복지정책을 선제적으로 이슈화하고 사례를 만들어왔으나 부산의 예술인들은 지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지원을 받는 예술인이 적어 실제 체감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정부의 예술인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 사항과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한 부산 예술인복지정책의 도약기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위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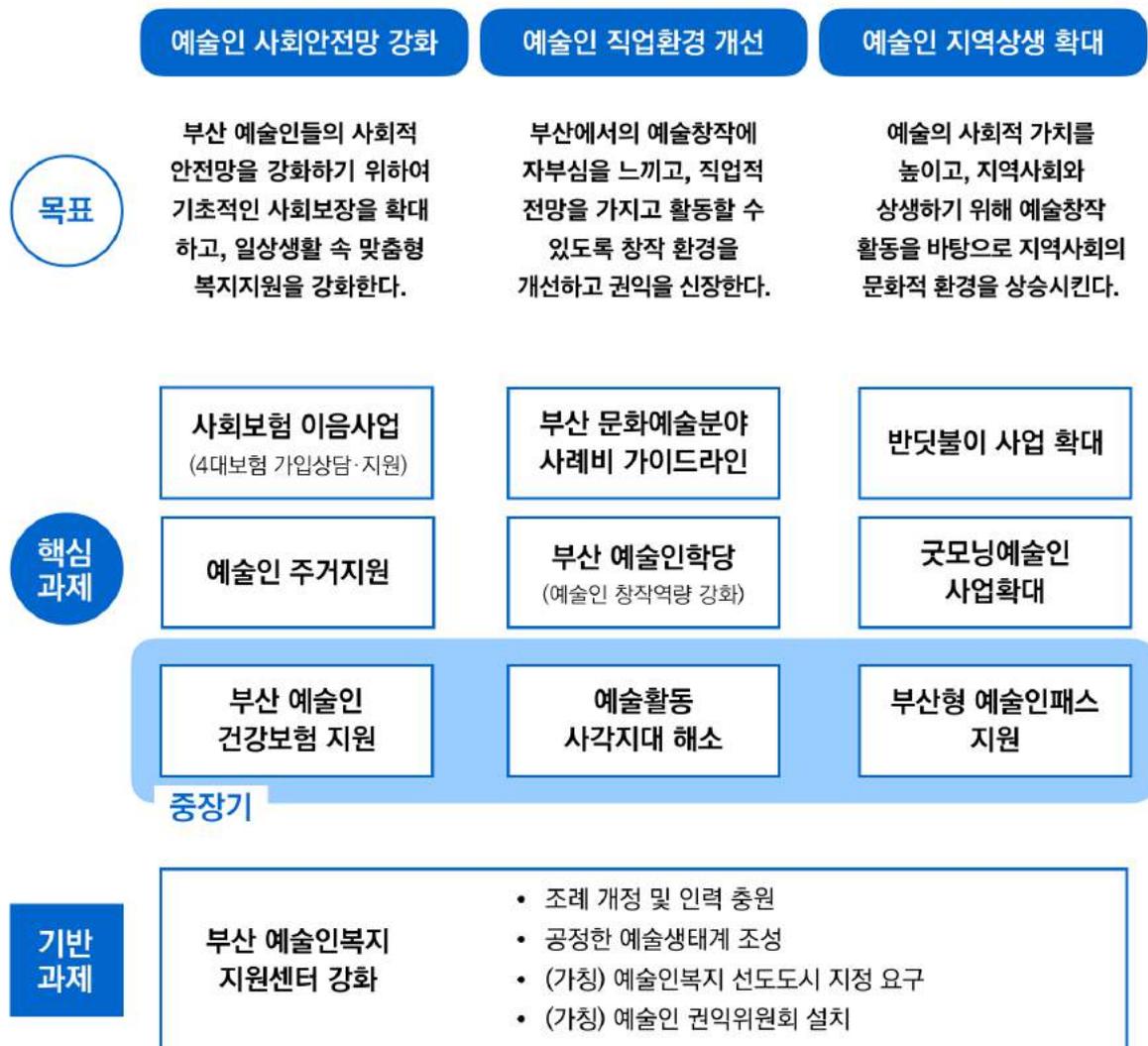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그동안 예술활동증명 지원을 통하여 기초적인 부산예술인복지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왔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활동을 제대로 펼쳐내기가 어려웠음. 현재 부산문화재단 내 설치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 강화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정책 및 지역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선도적인 예술인복지정책을 실현해 나아가감

2. 부산 예술인복지정책 비전과 과제

1) 비전 : 예술인이 살기 좋은 부산, 예술인 복지를 선도하는 부산

- 부산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권리보호와 예술의 가치의 증대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예술인복지정책의 전략과 과제를 제시함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적 환경 개선과 권익을 신장함. 또한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 누구나 활동하기 좋은 건강한 지역문화예술생태계를 구축함

2) 정책목표와 과제



3. 핵심과제 세부내용

1)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부산 예술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일상생활 속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 정책배경

■ 사회보험 개요



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로 나뉘어 있음

■ 예술인 4대 사회보험 지원 필요성

-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로서 실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되는 안정된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편재되어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놓이게 됨. 또한 사업장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 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임.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고용형태 및 종사지위에 있어 비정규 일용직이거나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현행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다수의 예술인들이 직업적 환경 특성상 불규칙한 수입, 빈번한 실업상태 등으로 일상생활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용보험(실업급여),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 및 후유증에 대비한 산재보험, 불안정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 가입 등이 필요한 상황임
-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지고, 산재보험은 예술인들 스스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편임. 국민연금은 상대적인 비용부담이 커 예술인들의 가입률이 저조함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직장	지역	임의	직장	지역
가입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직장	지역	임의	직장	지역
가입방식	강제	임의	강제	임의	강제	임의 *소득있을시 강제		강제	
가입대상 예술인	근로계약 예술인	프리랜서 예술인	근로계약 예술인	도입예정 *개정안 발의	근로계약 예술인	프리랜서 예술인	예술인		
보험료 납부	사업주 100%	예술인 100%	사업주 50% 예술인 50%	예술인 100%	사업주 50% 예술인 50%	예술인 100%	사업주 50% 예술인 50%	예술인 100%	

예술인 4대보험 현황

출처 :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현황 및 과제
(2017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 현재 시행 중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 지원내용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해 또는 사망 등 산업재해를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 직업안정을 위한 사회보장보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진료비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가입 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근로계약 없이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관련 표준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단체 소속 혹은 프리랜서) 예술인을 고용한 회사·단체		*건강보험료 직접 지원내용 없음 (대체)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	보험료 50% 지원	보험료 50% 지원		1인 최대 500만원(항목별 상이)
	1등급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신규가입자에게 첫 6개월 간 보험료 90% 지원 (본인 부담금 1,980원), 이후 50% 지원(본인부담금 9,850)	· 프리랜서 예술인 지원은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하며 저작권, 출판 등 장기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 가입 /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도 지원 가능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를 지원
가입 제한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도 가능하나 보수를 목적으로 한 예술활동 계약서 필요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도 가능하나 보수를 목적으로 한 예술활동 계약서 필요 · 월소득 334만원 이상 지원보류 (사업종료 1개월 전에 해당 신청 건의 지원 여부 결정) · 공공기관·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예술인,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소속예술인 미지원 · 계약 당사자가 문화예술사업자가 아닌 경우 미지원, 타 사회보험료 중복참여 불가 · 지원금 상한액 :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지원금 상한액 월소득 1,573,770원(2018 최저임금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지원금 상한액 기준소득월액 910,000원)		· 예술활동증명 완료 필수(만 60세 이상의 경우 예술경력 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한 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2회 연속 선정·지원 시 지원불가 · 기 결제된 의료비, 각종 단순 검사비 및 일회적 질병 등 소액진료비 지원불가

■ 2018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 공적연금 가입 유형

응답자수 2,000명



- 공적연금 가입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된 국민연금이 32.2%로 가장 가입 비율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가입자 16.0%, 공무원연금 10.6%, 사학연금 5.4%, 사업장과 지역가입자가 아닌 임의가입자 2.2%, 기타 지역연금 0.5%, 군인연금 0.2%의 순으로 응답됨. 한편, 공적연금 미가입 비율은 33.0%로 나타남
-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는 해당자가 아니라서 54.3%, 연금액 납부가 부담이 되어서 32.6%, 잘 몰라서 13.1%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51.7%가 국민연금 납부액 일부 지원 시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2018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 건강보험 가입 유형

응답자수 2,000명



- 건강보험 가입 유형으로는 지역 가입자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업장 가입자 29.0%, 사업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13.9%, 지역 가입자의 피부양자 12.2%, 의료급여 대상자 3.4%의 순임.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95.8%로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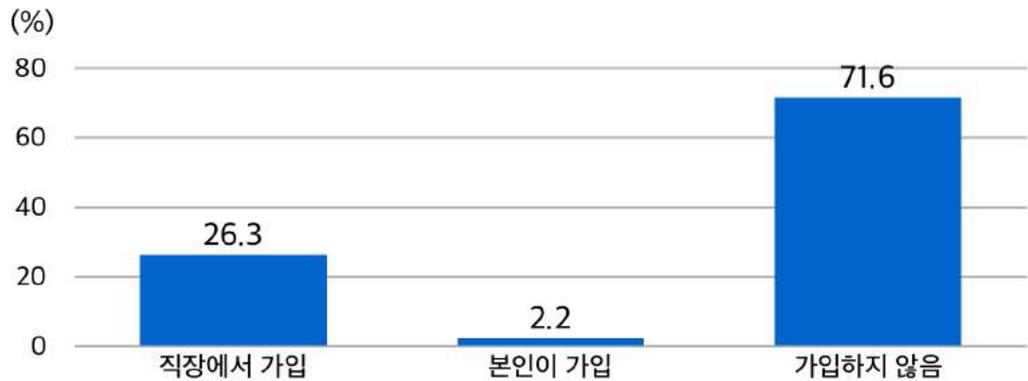
■ 2018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전체 응답자의 29.6%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했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70.5%임
-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로는 직장이 없어서가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12.4%, 잘 몰라서 9.8%, 납부액이 부담이 되어서 7.7%, 고용주가 가입해주지 않아서 4.8%의 순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47.7%가 고용보험 납부액 일부 지원 시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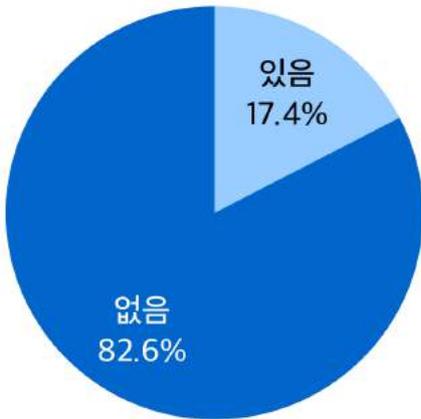
■ 2018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산재보험 가입 여부

응답자수 2,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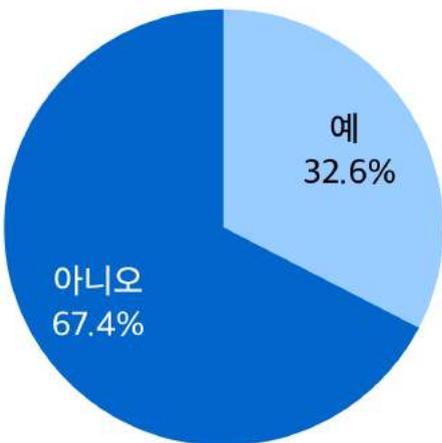
-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직장에서 가입 26.3%, 본인이 가입 2.2%, 가입하지 않음 71.6%로 응답됨
-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로는 직장이 없어서가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16.1%, 잘 몰라서 15.1%, 납부액이 부담이 되어서 9.5%, 고용주가 가입해주지 않아서 5.1%의 순으로 응답됨
-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47.5%가 산재보험 납부액 일부 지원 시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2018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 실업급여 수혜 경험



- 전체 응답자의 17.4%가 실업급여 수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혜횟수 1회 40.3%, 2회 13.8%, 3회 16.4%, 4회 4.9%, 5회 3.7%, 6회 이상 20.7%로 응답되며, 평균 실업급여 수혜횟수는 3.24회임
-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혜금액을 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50만원 미만 13.5%, 50만원~100만원 미만 42.4%, 100만원~150만원 미만 34.6%, 150만원~200만원 미만 5.2%, 200만원 이상 4.3%로 응답됨. 평균 실업급여 수혜금액은 월 평균 91.2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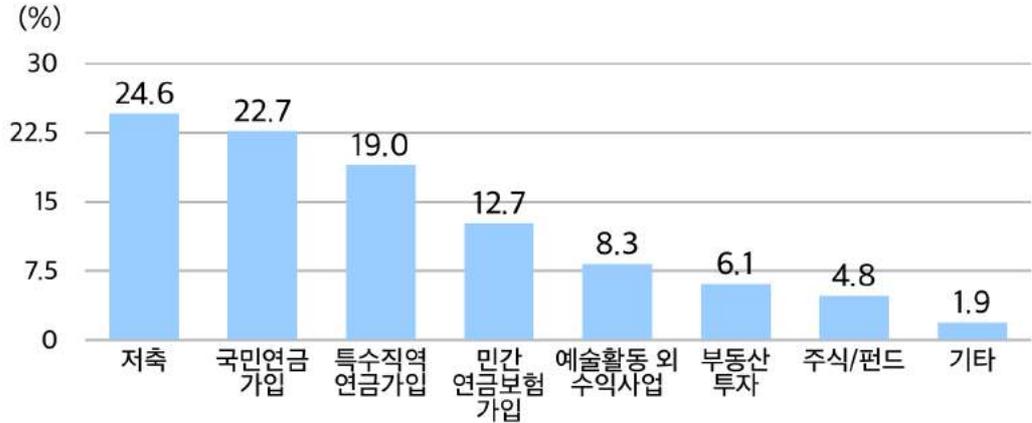
■ 2018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 노후생활 대비 여부



- 전체 응답자의 32.6%가 노후생활을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함
- 한편, 30대 이하와 연극/영화/사진 분야, 전월세 거주하거나 미혼인 경우 노후생활을 위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18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 노후생활 대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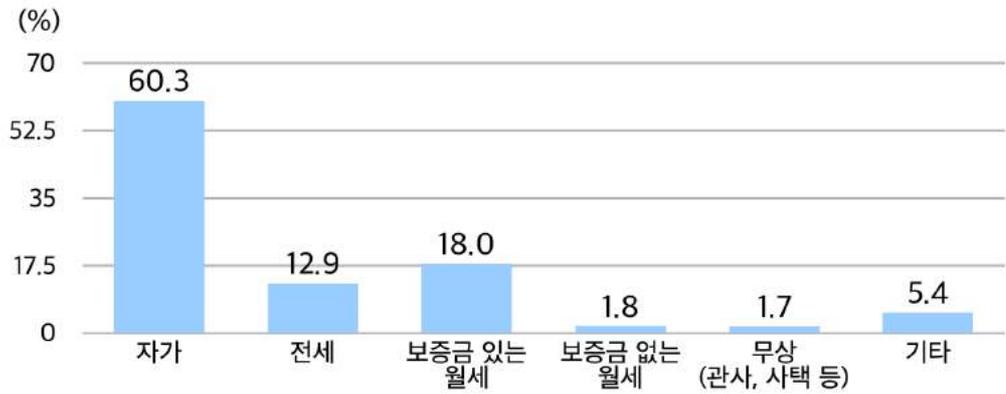
[응답자 수 : 654명, 보기 제시, 중복응답]



- 노후생활 대비 방법을 살펴보면, 저축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연금 가입 22.7%, 특수직역연금 가입 19.0%, 민간 연금보험 가입 12.7%, 예술활동 외 수익사업 8.3%, 부동산 투자 6.1%, 주식/펀드 4.8%의 순으로 나타남

■ 2018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 주거형태

응답자수 2,000명



- 주거형태별로는 자가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증금 있는 월세 18.0%, 전세 12.9%, 보증금 없는 월세 1.8%, 무상(관사/사택 등) 1.7%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30대 이하의 젊은 예술인과 연극과 영화 분야 예술인은 주거형태가 자가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전세나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대와 예술 분야별로 주거형태의 특징이 드러나는 편임

○ 문제점 및 주요과제

■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도 가입 가능하도록 특례로 제시되어 있는 등 실제적으로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에게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음
-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주로 근로계약 시 가입하게 되는 사회보험의 경우, 프리랜서 및 사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혜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가입 시 요구되는 표준계약서의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표준계약서 정착과 연계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 지원 한계

①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및 유지 현황'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의 경우 가입자 수가 2017년 기준 664명, 누적 1310명으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며,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며 밝힌 가입 예상 인원은 5만7천700여 명으로 예상 추정치의 1.1%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임의가입으로 인한 제도 가입의 번거로움, 프로젝트성 업무에 따른 산재보험 항시 가입 유인 낮음 등으로 분석됨

②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 국민연금)

- 고용보험의 경우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기준을 적용하여 현재 월 192만원 이상의 수입을 실업 전 36개월 내 12개월 이상 유지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령 금액 또한 근로자보다 적어 실효성이 떨어짐
- 국민연금의 경우 고용보험과 함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지만, 가입의 번거로움과 함께 다른 보험에 비해 비교적 높은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임

※ 최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2018년 특수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제도 의결안을 심의·의결하여 실직 전 24개월 내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시 최대 8개월 동안 월 평균 보수액의 50% 수준의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2019년 하반기 내 시행할 예정

③ 예술인 건강보험료 지원체계의 부재

-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부재한 상태이며,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이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음
- 건강보험의 경우 강제 적용이기 때문에 타 사회보험에 비해 가입률이 높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그러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지역가입자로 높은 보험료를납부하게 되어 개인 부담이 높은 편임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가입으로 인한 제도가입의 번거로움 • 프로젝트성 업무에 따른 산재보험 항시 가입유인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랜서 예술인 지원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기준을 적용해 실효성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가입으로 인한 제도가입의 번거로움 • 높은 보험료의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없음

■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

- 4대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예술인 단체(사업주)의 부담이 상당하여 가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사업 내 기타 요건으로 지원에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들을 포함하기 위해 예비예술인 등 예술인을 정의하는 해석범위 및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보험료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으로 프리랜서 예술가들의 개인부담이 높은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 정책이 부재한 상황임

■ 예술인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 부족

- 예술인 복지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은 창작역량강화, 직업역량강화, 예술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등으로 실제적인 삶의 의식주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 예술인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청년예술인과 주거빈곤 상황에 놓인 예술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함

○ 정책개요 및 추진방향

(1) 추진과제 1-1 : 사회보험 이음사업 (4대보험 가입 상담·지원)

[주요내용]

-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 예술인들이 4대 사회보험의 가입률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비중이 상당히 낮으나, 보험료 일부 지원 시 가입의사가 높음. 반면 현재 중앙정부의 사회보험 지원정책을 통한 사회보장 이점들이 높은 편임에도 이러한 혜택들에 대하여 예술인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4대 사회보험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경향이 있음
- 중앙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입조건, 충족조건이나 예술인들의 현실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추진(2018.7.), 고용노동부 특수근로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추진안 발의(2018.11.07.)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에 발맞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지역 예술인 및 단체에 널리 알리고 상담, 홍보 및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나감. 개별 사례에 맞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치들을 보여주는 창구 마련 등 홍보 방법의 다각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체감이 가능하도록 함.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지원 시 필수서류인 표준계약서의 정착을 도모함

[세부방안]

■ 기간

- 2019년 ~ 계속

■ 대상

- 분야별·장르별 부산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

■ 방법

① 표준계약서 정착 및 확산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시 필수서류인 예술활동 표준계약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예술활동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함

② 온라인 사회보험료 혜택 계산기 도입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 시 본인부담금과 수령액에 대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회보험 혜택계산기를 프로그램화함. 예술인들이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보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을 유도함
- 특히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효성, 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예술인의 불규칙한 소득 문제와 노후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③ 찾아가는 홍보

- 부산의 주요 문화단체 및 시설, 각종 문화예술 사업설명회 등에 직접 찾아가 중앙정부의 사회보험 지원정책 외 예술인 지원정책들을 홍보함

※ 예술인 고용보험과 엔테르미땅 비교

구분		(한국)예술인 고용보험	(프랑스) 엔테르미땅
가입 대상	예술분야	전 예술분야, 직종	공연, 영화, 방송분야
	계약형태	프리랜서 예술인	단기 근로계약 체결 예술인
보험료	납부	전액 예술인 부담	사업주, 예술인 부담
	보험료율	예술인 2%	사업주 9.0~13.8%, 예술인 4.8%
수급기간		90일~180일	최대 243일
비교	장점	① 저렴한 보험료 대비 높은 실업급여 ② 예술장르, 직종 관계없이 가입 가능	① 의무가입으로 높은 실효성 ② 사업주 보험료 분담
	단점	① 선택적 가입으로 가입률 저조 우려 ② 예술인 보험료 전액 부담, 사업주 부담분이 없음	① 사업주와 예술인 모두 높은 보험료 부담 ② 일정 분야 외 예술인 가입 제한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평균 보험료 최소 18만원 부담, 실업급여 231만원 수급(약 12.5배) *보험료 50% 지원 시	평균 보험료 최소 88만원 부담, 실업급여 927만원 수급(약 10.5배)

출처 :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현황 및 과제 (2017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사업비]

■ 예산(연간)

- 2019년 40백만원, 이후 단계별 축소
- 연차별 정착에 따라 홍보비 축소, 최초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이후 관리비 외 비용축소

■ 산출내역

- 표준계약서 정착 및 확산 홍보 : 10백만원
- 온라인 사회보험료 혜택 계산기 시스템 구축비 : 15백만원
- 사회보험 지원정책 찾아가는 홍보 : 15백만원

[사업추진주체]

- 표준계약서 정착 및 확산 홍보 : 부산광역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 온라인 사회보험료 혜택 계산기 시스템 구축비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 사회보험 지원정책 찾아가는 홍보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협력 : 근로복지공단)

[새 예술정책(2018~2022)]

■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추진

- (방향) 단속적,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예술인 특성을 반영한 고용보험을 도입, 생활안정 및 지속가능한 창작활동 기반 구축
- (추진방식) 문체부-고용노동부-예술계 협의체 구성·운영('17년~)
- (일정) 프리랜서 형태의 용역계약을 주로 체결하는 예술인에게 적합한 제도설계 및 법안 국회 제출
- (가입지원)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단' 설치 및 보험가입 사무대행·실업급여 안내 등 지원창구 운영, 고용보험 온라인 가입시스템 구축
- (홍보) 협·단체, 지역문화재단과 협업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매뉴얼 제작 등

■ 산재사회보험 가입률 향상 및 실효성 제고

- (산재보험) 예술인 산재보험 실효성을 향상 위한 제도·서비스 개선
- (제도) ▲현) 보험가입 신청일 현재 유효한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제출 → ▲개선)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체결한 계약서 등 요건완화 검토 추진

* 근로복지공단「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개정사항, 관계기관 협의 추진 ('18년~)

- (서비스) 현행 우편·이메일 외에 '온라인 신청' 도입('19년)
- (사회보험료 지원) 현행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신규가입 촉진) ▲현행) 표준계약을 사용한 예술인·사업주에게 보험료 50% 지원
→ ▲개선) 신규가입자 60%, 기존 40%
- (형평성 고려) 저작권·출판 계약 지원기한 설정(최대 24개월 등)

■ (가칭)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통한 접근성 강화

- (내용)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직업교육, 사회보장 제도(복지부·지자체 등) 안내 및 신청서 비스를 원스톱 지원('20년~, 방문·온라인상담 병행/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
- (사회보험·교육) 예술인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사무 대행 및 실업 예술인 대상 재취업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설·운영
- (예술금융) 신용도가 낮은 예술인 대상 예술인 복지금고 이용을 위한 세부 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 일반 서민금융 이용 안내 등
- (권리구제) 경력단절·여성 예술인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 복지상담 및 예술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상담센터를 통한 임금체불 등 피해 구제
- (운영) 사회보험·금융 센터, 교육센터, 권리 종합지원실, 문화복지공간, 창작공간 등 구성

[공무원연금]

- 홈페이지 위주로 연금사업, 후생복지시설, 제후복지서비스, 연금관련 각종 서식, 월간공무원연금 잡지, 연금상담 콜센터, 채팅상담, 관련 포럼개최 등 운영·진행되고 있음
- 홈페이지 외 인터넷/SNS 홍보는 네이버 공식블로그(연금플러스),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부산지부)로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관을 운영하여 영상으로 공무원연금 상품과 혜택, 공무원연금공단 주요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그 외 홍보브로서, 인포그래픽을 홈페이지에 제시하여 주제별 가입자 Q&A와 혜택을 전달하고 있음

[한국교직원공제회]

- 보험 홈페이지에 맞춤형상품 찾기와 교직원 특화상품이라는 명사와 보험종류가 나열되어 있음

- 교직원이 쉽게 걸리는 직업병(하지정맥, 성대결절 등)과 공제 혜택, 가입시 보 장내용 등이 보기 쉬운 일러스트로 제시되어 있음
- 보험료 계산기가 배치되어 있어 조건별(성별, 상품별, 납입기간, 납입방법)로 손쉽게 월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음
- 공식블로그 운영은 공제회 보험에 가입한 교직원들이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 실제 보험 수혜를 입은 경험담을 보기 편하게 편집하여 게시하여 자연스럽게 보 험가입을 유도함
- 매해 분기별로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 관련 게시글을 올려 보험과 관련된 사 항들을 꾸준히 노출함

[사학연금]

- 홈페이지에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재직 연수에 따른 연금서비스)와 해당 직업 (교직원, 수급자, 담당자)에 따른 세부홈페이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가입자, 방문자의 상태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홈페이지에 온라인상담과 콜센터, 제도 자료실과 해당 교직원복지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아울러 모바일앱을 제공하여 연금지급 내역과 제휴복지, 웹진 등을 모바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음

※ **현행 4대보험 적용요율 비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근로자	기준소득 월액*4.5%	기준소득월액*0.65%		근로자 부담 없음	건강보험료 기준소득월액*3.1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3.69%
사업주	기준소득 월액*4.5%	실업급여	기준소득월액*0.65%	기준소득 월액 *0.91% (예술전문 서비스업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소득월액*3.1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3.69%
		고용안정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0.45%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지자체 *0.85%					

합계	기준소득월액*9%	기준소득월액*1.55% (150인 미만 기준)	기준소득월액*0.91% (예술전문서비스업 기준)	기준소득월액*13.62%
-----------	-----------	------------------------------	-------------------------------	---------------

[프리랜서 예술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9%	기준보수액*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 ※1~7등급의 기준보수 적용	실연예술분야 기준보수액*11.5 창작예술분야 기준보수액*8.5 ※1~12등급의 기준보수 적용	건강보험료 (소득/재산/자동차 3개 합산 점수)*(당해연도 기본 보험금 단가)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7.38% ※2018년 기본 보험금 단가 183.30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준

등급	기준보수	월 보험료(2.25%)	월 급여액
1등급	1,540,000원	34,650원	770,000원
2등급	1,730,000원	38,920원	865,000원
3등급	1,920,000원	43,200원	960,000원
4등급	2,110,000원	47,470원	1,055,000원
5등급	2,310,000원	51,970원	1,155,000원
6등급	2,500,000원	56,250원	1,250,000원
7등급	2,690,000원	60,520원	1,345,000원

(2) 추진과제 1-2 : 예술인 주거지원

[주요내용]

- 예술인은 직업적 환경 특성상 불규칙한 수입으로 일상생활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위기를 느끼는 경우가 많음.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심리상담>을 비롯하여 <예술인복지금> 운영 예정 등 예술인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의 예술인들의 참여가 많고, 지역의 예술인들은 혜택 수여가 어렵고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부산의 예술인들은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특히 창작공간과 별개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 30대 이하의 젊은 예술인과 연극과 영화 분야 예술인은 전세나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거비 지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음.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주거 지원 정책과 연계한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음
- 아울러 부산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임대아파트 등 공공주거지에 예술인 쿼터제, 가산점 제도 등을 시행하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지원받은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음

[세부방안]

■ 기간

- 2019년 ~ 계속

■ 대상

- 분야별 장르별 부산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

■ 방법

① 예술인 월세 지원

- 부산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 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부산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중 일정 조건의(예 : 주거형태가 월세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무주택자 세대주 등) 예술인에게 매 월 10만원 정도의 월세를 지원함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젊은 예술인의 경우, 월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주거 지원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

② 부산시 주거지원 사업 가산점 제도 실행

- 현재 서울시는 SH공사와 함께 <예술인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도 1년 정도 의식주 해결 및 창작활동이 가능한 예술 레지던시 공간을 제공하는 <예술인의 집> 사업을 추진 중임. 이와 같이 예술인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공공주택 정책 내로 편입시킨다면 별도의 예산 사용 없이도 양질의 주거공간을 예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기 시행되었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행복주택 신청지원 사업과 같이, 부산의 국민임대아파트, 드림아파트, 햇살등지, 청년 세어하우스 등 공공주택 정책 내에 예술인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게 가산점 혹은 세대수별 예술인 쿼터제를 도입하여 해당 지역에서 예술가들이 작업하고 활동하면서 소외된 지역에 문화예술적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음

[사업비]

■ 예산(연간)

- 2020년 이후 250백만원 ~ 400백만원(2019년 사업 준비, 2020년 이후 시행)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비용 포함
-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이 예상되나, 예술활동증명 수반과 일정정도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급격한 증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산출내역

- 현재 부산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은 3,000여 명으로, 실태조사 결과에서 주거형태가 월세인 예술가는 20% 정도임. 이 중 세대주, 소득분위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을 200여 명 정도로 추산하면 월 10만원의 월세 지원 시 연간 2억 4천만원 소요
- 부산시 주거지원 사업 가산점 혹은 쿼터 제도 실행 시 소요 예산 없음

[사업추진주체]

- 예술인 월세 지원 : 부산광역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 부산시 주거지원 사업 가산점 제도 실행 :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새 예술정책(2018~2022)]

■ 예술인의 창작·주거 연계 확산을 지원

- (현황) 지자체별 예술인주택 보급(15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국토부, 임대료 20~30% 저렴) 입주요건에 '예술인' 추가('17.2월)
- (특화) 일정규모 이상 단지에 다목적 공용 전시·공연 공간 조성 또는 예술인 주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추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확대) 예술인의 주거·창작·공공생활·전시 및 공연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우수사례 홍보 및 확산 방안 마련('19년~, 관계기관 협업)
- (일정) 정책연구('19년) → 국토부·지자체 등 협업사업 발굴 → 조성 확대

[예술인 공공주택] (서울시, SH공사)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서울시(혹은 공공주택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이하의 해당자(각 공공주택별 기준 상이)에게 임대보증금 1,100~1,500만원, 월임대료 15~20만원으로 제공

[부산 청년 1천명에게 월세 10만원 지원]

- 부산시에서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예정인 정책으로, 공모를 통해 1천 명을 선정해 매 달 10만원의 월세 지원

[행복주택 사업]

-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 청년예술인이 행복주택 입주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행복주택 신청에 필요한 증빙을 발급받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부산 드림아파트 사업]

- 대중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8년 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30세대 이상, 60㎡ 미만의 규모로 조성할 예정

[부산 청년 세어하우스]

- 시에서 보유한 임대주택을 활용해 부산형 세어하우스를 공급
- 청년 1인가구 주거난 해소를 위해 개인공간 외 거실, 욕실, 주방 등의 공용공간을 공유하는 주거방식
- 2022년까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

(3) 추진과제 1-3 : 부산 예술인 건강보험 지원 [중장기선도과제]

[주요내용]

-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법률에 의해 강제 적용되고 있어 가입률은 매우 높지만,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많은 예술인들의 경우 피부양자 혹은 지역가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과도한 보험료 부과 문제, 직장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예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은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대신 의료비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움. 또한 소득수준이 낮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타 사회보험에 비해 높은 편임
- 현재 중앙정부 정책 내 지원 사각지대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부산 예술인의 기초적인 생활자금 부담을 줄이고 기본적 생활을 보호해 나아감. 농·어업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참고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 지역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함. 이를 통하여 지역분권형 복지정책의 선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세부방안]

■ 기간

- 2019년 ~ 계속

■ 대상

- 분야별 장르별 부산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

■ 방법

① 부산 예술인 건강보험 가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분석과 건강보험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② 프리랜서 예술가 대상 건강보험 지원

- 현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월정액 혹은 반액 지원

※ 사업 시행 전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부처와 업무 협의

[사업비]

■ 예산(연간)

- 2020년 이후 350백만원~500백만원 (2019년 사업 준비, 2020년 이후 시행)
- 연구용역 및 건강보험료 대상자 선정비용 포함
-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이 예상되나, 예술활동증명 수반과 일정정도의 자격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하므로 급격한 증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산출내역

- 2018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를 참고로 지역 예술인의 약 40%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부산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약 3,000여 명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1,2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50%가 가입을 희망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초기 지원인원은 600명 가량으로 예상
- 2017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건강보험료 부담액 평균은 87,458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으로, 월 건강보험료 50% 지원 시 1인당 약 45,000원, 600명 기준 월 27백만원, 1년 기준 약 3.2억원 소요 예상
- 지원인원을 점차적으로 늘려 추산되는 지역가입자 1,200여 명에게 모두 50%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월 54백만원, 1년 기준 6.4억원 소요 예상

[사업추진주체]

- 부산 예술인 건강보험 가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 프리랜서 예술가 대상 건강보험 지원 : 부산광역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새 예술정책(2018~2022)]

■ 예술인 의료비 부담 경감

-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의료비 지원(50~500만원) 및 단계별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사업개편 추진('19년~)
-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단계적 급여화('18~'20년),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농업인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 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 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상 농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 내용 : 고용보험, 국민연금 최대 90% 지원
- 지원 수준 : 신규 지원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경우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 기 지원자 10명 미만 사업 40% 지원

2) 예술인 직업환경 개선

부산에서의 예술창작에 자부심을 느끼고, 직업적 전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신장한다.

○ 정책배경

■ 예술인 직업환경

- 예술인의 취업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특히 개인 활동이 중심이 되는 ‘프리랜서형’ 직업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 예술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예술인들이 임금노동자로서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박영정, 2012)
- 특히 부산의 경우 직업 환경이 상당히 취약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예술분야 첫 활동 방식에서 건축 분야를 제외할 경우 취업을 통한 첫 활동이 거의 없는 형태임. 한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형 예술단체의 활동도 거의 없는 상태이며, 대부분 소규모 임의단체, 자영업,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 중임
-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계약 혹은 사실상 무계약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예술인들의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직업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나 채우 문제가 발생하거나, 국가의 사회안전망 등 공공적 보호 정책에 벗어나 있음
- 한편 부산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특화되거나 심화된 직업적 역량강화 교육이나 직업전환 프로그램이 적고, 대부분 대학 중심으로 편재되어 민간 영역의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관련교육이 부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기초적인 수준이며,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지역 예술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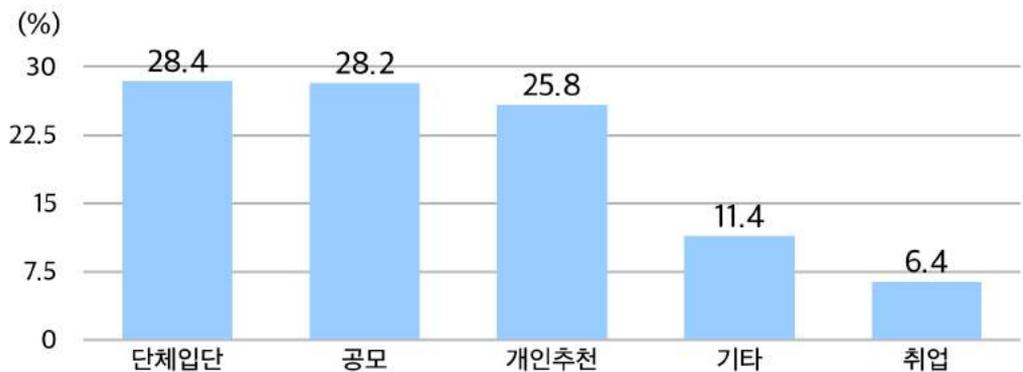
- 예술인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예술생태계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 및 자생력을 강화하여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따라서 지역의 예술 일자리 환경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변화되는 문화예술 환경에서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살아가기에 좋은 선도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해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
- 근래 지역사회에서는 도시재생, 사회복지, 생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예술적 활동

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2018년 현재 수립이 진행 중인 부산문화 2030 비전에서도 6가지 정책 관련 의제로 인구, 사회적 가치, 기술발전, 생활양식, 도시재생, 정책혁신이 제시되었음.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통한 풍요로운 문화적 삶, 문화정책 변화 대응으로 창작 지원체계의 구축, 시민문화권 보장으로 부산 문화향유 등이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었음

- 구체적으로 청년인력의 지역이탈과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4차산업혁명 등 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지역문화의 가치 증대를 위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문화적 도시재생, 시민의 일상적인 문화환경 조성 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2018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 주 활동분야 첫 활동(데뷔) 방식

응답자 수 : 2,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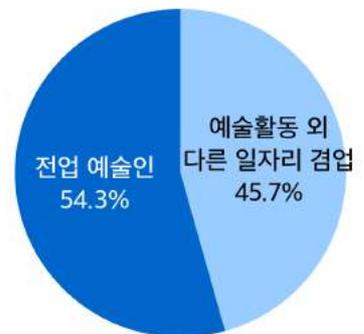


- 예술활동 분야 첫 활동(데뷔) 방식으로는 단체입단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모 28.2%, 개인추천 25.8%, 취업 6.4% 등의 순임
- 예술 분야 첫 활동 방식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악과 무용, 연극, 국악 분야는 단체입단, 문학과 미술, 사진 분야는 공모, 음악과 연예 분야는 개인추천, 건축과 만화 분야는 취업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18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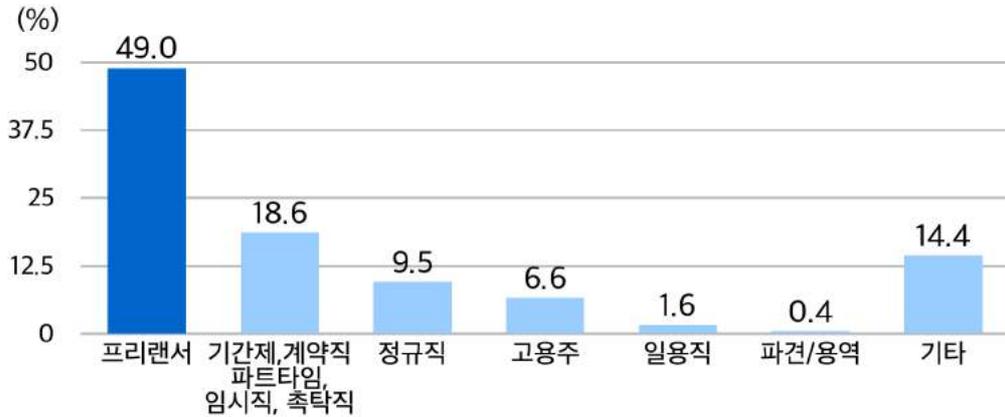
- 전업 예술인 여부와 고용형태

-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4%가 전업 예술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예술활동 외 다른 겸업 예술인 예술인이 45.7%로 나타남



■ 2018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 전업 예술인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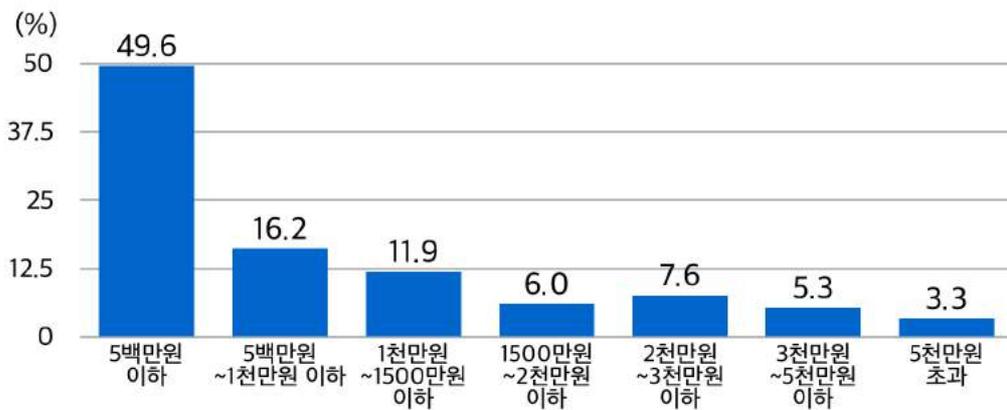
응답자 수 : 1,087명, 보기 제시



- 전업 예술인인 경우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프리랜서가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기간제/계약직/파트타임/임시직/축탁직 18.6%, 정규직 9.5%, 고용주 6.6%, 일용직 1.6%, 파견/용역 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 최근 3년 간 예술활동 관련 연간 평균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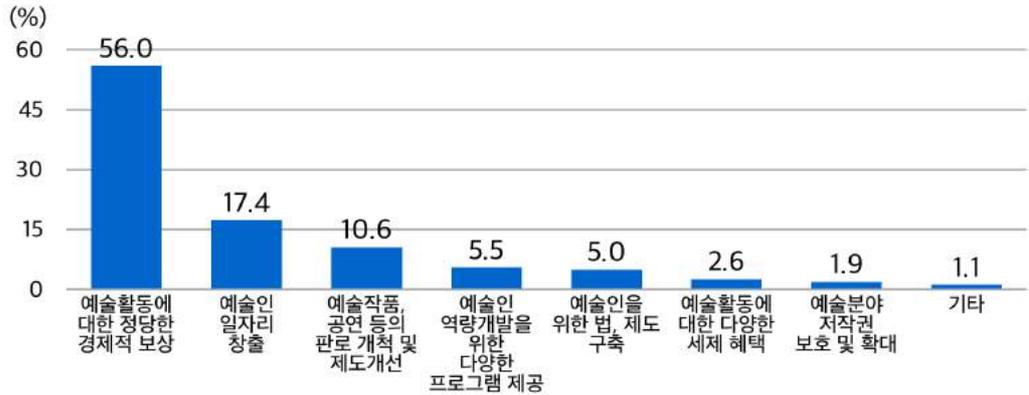
응답자 수 : 1,404명



- 지난 3년 간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는 예술인의 65.8%는 연간 평균 수입이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8.7%에 불과함

■ 2018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기 위해 중요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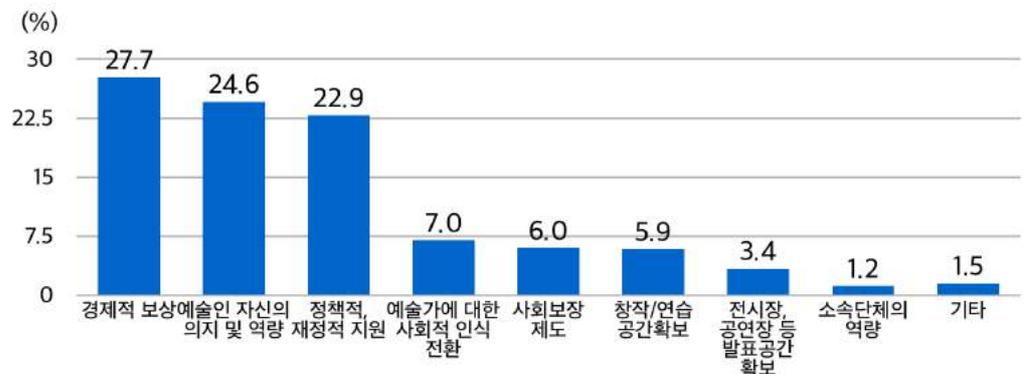
응답자 수 : 2,000명



-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기 위해 중요한 점으로는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이 56.0%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예술인 일자리 창출 17.4%, 예술 작품/공연 등의 판로 개척 및 제도개선 10.6%, 예술인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5.5%, 예술인을 위한 법/제도 구축 5.0%, 예술활동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 2.6%, 예술분야 저작권 보호 및 확대 1.9%의 순임

■ 2018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 예술창작을 위한 필요 요소

응답자 수 : 2,000명



- 예술창작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살펴보면, 경제적 보상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인 자신의 의지/역량 24.6%, 정책적/재정적 지원 22.9%,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7.0%, 사회 보장 제도 6.0%, 창작/연습공간 확보 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즉 훌륭한 예술창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경제적 보상과 예술인 자신의 의지/역량, 정책적/재정적 지원 3가지 요소에 대해서 고른 비율로 응답됨

■ 2018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 예술활동 시 체결 계약 형태

- 한편 2015년 조사 당시 예술활동 관련 계약 경험이 있는 경우가 32.8%로 응답하였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4%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계약 체결 경험이 있는 경우 계약의 형태를 살펴보면, 구두 계약 12.4%, 서면 계약 87.6%로 나타났음

○ 문제점 및 주요과제

■ 예술인 직업환경의 불안정성

- 실태조사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업 예술인의 비중이 낮으며, 전업예술인의 경우에도 2명 중 1명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규직 비율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직업적 안정성이 낮음
- 특히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이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으로 나타나는 등 예술인들에 대한 인건비/사례비 지급의 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실제로 예술인들의 낮은 소득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2015년에 비해 나아졌으나 계약체결율도 여전히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계약이나, 사실상 무계약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음. 계약문화에 대한 인식확산이 필요함
- 아울러 서울, 수도권에 비해 분야나 장르별 직업적 역량강화 교육이나 직업전환 프로그램이 드물어 직업안정성이 불안한 상황임. 한편 예술창작을 위한 필요 요소에서 예술인자신의 의지/역량 강화가 중요한 요소로 지적됨. 따라서 예술인의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예술복지정책의 사각지대

- 현행 예술활동증명에서는 창작분야가 뚜렷하게 설정되어야만 가능하므로 복합·융합·다원 분야 등의 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문화예술기획자(매개자), 공간 운영인력 등의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예술활동증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움. 최근 다양한 형태의 생활문화 현장, 도시재생 등의 새로운 형태의 예술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창작분야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예술활동증명의 사각지대에 있음
-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예술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신진, 청년 예술인의 경우 취업을 통한 활동이 드물고 주로 단체입단이나 공모 형태로 진행되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또한 예술활동증명은 일정 정도의 활동경력이 필요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이들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정책개요 및 추진방향

(1) 추진과제 2-1 : 부산 문화예술분야 사례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실태조사 결과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기 위해 중요한 점으로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의 중요성이 꼽혔음. 부산 지역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문제는 예술인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인건비, 사례비 지급이며, 현재 이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적절한 수준의 사례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예술인들은 상대적이긴 하나 경제적 보상 수준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도 상당한 편차가 있다고 지적함
- 이는 부산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며, 실제 전반적인 문화예술 산업 내 공정한 보상체계와 비용기준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관행적으로 발주처에서 자의적으로 사례비를 책정하면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음.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표준계약서 정착을 유도하여 해결하는데 집중하였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0년 문화예술분야 단가조사 연구를 수행하면서 각종 문학, 시각, 연극 등 7개 분야 예술활동에 대한 공공지원금의 정산서를 검토·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반영한 제작 직접경비(출연료, 제작비, 기타 부대경비 등)의 합리적인 기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예기금 공연예술사업 5개년 사례비 단가조사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2018년 9월 기준)
- 위 연구들은 문예기금 및 지방비 지원사업 교부 시 필요한 경비 기준액 모델(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크나, 이를 문화예술계의 가격 현실화 및 정상 거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지위와 권익을 보장하고, 창작 등의 직업 환경을 공정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예술인 사례비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정착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세부방안]

■ 기간

- 2019년 ~ 2020년

■ 대상

- 공공기관 문화예술 관련 축제 및 행사 프로그램
-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
- 분야별 장르별 부산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

■ 방법

① 연구용역을 통하여 예술인 사례비 현황 조사

- 문화예술 장르별, 분야별로 기획비, 개발비, 인건비, 제작비, 장소사용료, 마케팅비용, 진행비 등 조사
-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에 대한 문헌 연구 및 현장조사, 인터뷰 조사
- 서울, 경기, 광주 등 타 지역 사례비와 비교연구

②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인의 적정 사례비에 대한 권고 가이드북 제작, 배포
- 준비·기획·개발과정, 제작과정, 실연과정 등 예술창작의 구체적인 과정에 따라 현실적인 사례비의 수준을 제시
- 예술인 섭외를 통한 사업 및 프로그램 진행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북 제작, 배포

[사업비]

■ 예산액

- 2019년~2021년까지 100백만원~150백만원
- 2019년~20년 연구용역 및 가이드북 제작 배포 비용

■ 산출내역

- 연구용역 : 공연예술분야 50백만원 (2019년) / 시각예술분야 50백만원 (2019년)
문학·콘텐츠분야 100백만원 (2020년)
-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50백만원 (2020년~2021년)

[사업추진주체]

- 연구용역을 통한 예술인 사례비 현황 조사(용역)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부산광역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새 예술정책(2018~2022)]

■ 예술 창작에 관한 정당한 대가체계 형성

- (대가기준 마련)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적정대가 마련
- 장르별 도입 : 미술창작대가기준 마련('18년) → 공연 등 확대('19년~)
- 단계적 추진 : 국·공립기관 등 공공분야 시범 적용→ 범제화

2018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문예기금 공연예술사업 5개년 사례비 단가조사 연구>

- 연구용역 18.9월 발주되어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한 공연 예술 관련 각종 사례비의 현황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제시된 기준 모델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관련 지원금의 교부 및 정산 과정에서 효과적인 검토 자료로 활용 예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는 매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인건비 지급기준, 처우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음

(2) 추진과제 2-2 : 부산 예술인학당(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주요내용]

- 2015년 부산 예술인복지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예술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제안되었음. 당시 주요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산지역 예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공적 영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수 역시 적음. 예술인 개인의 역량 강화프로그램, 탈장르 예술인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창의적 예술창작 활동을 촉진함
 - 예술인 대상 PR기법, PPT 제작, 포토샵, 영상 편집, SNS 활용 방안, 장르별 특화교육, 직업전환교육, 저작권·회계 등 법률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2015년 이후 부산문화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됨
 - <장애 예술인 역량 강화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특강>, <생활문화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 시리즈, <공연예술 사진 워크숍>, <부산 지역 공연 예술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공연예술 전문가 초청 심화 워크숍>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데이 시리즈(2017년 총 7차, 2018년 총 3차),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한 지역예술인 권익신장 기여, 예술창작과 관련한 전문적 컨설팅, 문제 해결로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지원, 예술 활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 저작권, 법률 등의 상담·컨설팅 지원
- 부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교육 프로그램이나 컨설팅에 대비하여 기초적인 수준이며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2015년 제안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적인 형태의 장르별 전문·심화형 역량강화, VR, 4D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예술의 접목 등 변화되는 예술계에 예술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직업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 부산 예술인학당은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적인 문화매개인력 양성사업, 문화예술교육과는 차이가 있음. 예술인들의 창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워크숍, 마스터클래스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실행함. 나아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와 예술인 간의 소통을 강화함

[세부방안]

■ 기간

- 2019년 ~ 계속

■ 대상

- 분야별 장르별 부산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

■ 방법

- 다음과 같이 4~5개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센터 자체적으로 혹은 위탁 사업으로 체계적, 정기적으로 수행함. 프로그램에 따라 디자인, 과학 등 분야별 전문 기관과 협업하여 진행함

㉠ 장르별 심화교육 :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 장르별 특성에 따른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부산의 장르별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하는 워크숍, 마스터클래스 진행

㉡ 융복합 워크숍 : 최근 변화되고 있는 예술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음악+무용, 문학+영화 영상, 음악+무용, 문학+영화, 영상+만화와 같이 장르 간 협업을 위한 컨설팅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

㉢ 과학기술 활용교육 : VR, 3D프린터 등 4차산업으로 빠르게 접목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 직업역량 강화교육 : PR 기법 강좌, 홍보·마케팅 강좌, 저작권·회계 등 법률 교육을 통하여 직업적 역량을 강화

㉤ 직업전환교육 : 불가피한 상황으로 직업변경의 필요 시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직업 전환에 대한 안내 및 준비를 위한 기초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 예산액(연간)

- 매해 50백만원

■ 산출내역

- 5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비(각 분야별 3~5강 기준) × 10백만원

[사업추진주체]

-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비(용역)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새 예술정책(2018~2022)]

■ 예술인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인문·노동 교육

- (내용) 예술인-사회 협업 확대를 위한 인문학, 사회적 예술론 교육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 지역·사회 속에서 예술인이 직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 제공 (예술과 파트너십, 예술 기관론, 예술과 IT, 예술인의 노동과 권리 등)
- (방식) 4~8주 과정의 온·오프라인 교육 개설 및 재단 사업 참여자 대상 교육 이수 유도 등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의식 제고

■ 현장 예술인 주도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 협회·단체를 통한 현장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 (방향) 장르별 단체들이 현장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강의형)을 직접 설계·운영토록 하여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 지원
- * 지원자격(안) : ① 3개 이상의 예술 법인 단체 컨소시엄 ② 3개 이상 시·도 대상 수강생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법인 단체
-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 예술인(5인 이상예술활동증명 완료자)이 프로그램 기획·신청 시 사업비를 지원(1~3천만원), 소규모 예술공동체 활성화 및 가치 공유 촉진

[2018 예술경영아카데미 특별과정] <예술+@>

- <블록체인 기술과 문화예술 시장, 서로를 탐색하다>, <4차 산업혁명과 문화예술>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과학기술과 예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위한 <오픈토크>
-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시리즈 (현재 50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아르코챔프아카데미]

- 문화예술 전문인력 대상(문화예술 분야 협약업체 근로자)으로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교육 실시. 온라인 학사관리시스템으로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함

프로그램 현황(2018년 하반기)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공연장 안전관리 개론	문화기획론
	무대음향 개론	문화예술 기획안 작성실무
	무대장치 개론	문화예술 홍보마케팅 실무
	무대조명 개론	문화예술 홍보전략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공연예술 협상 및 계약 체결 실무	문화복지정책과 사업개발
	공연예술의 이해	문화예술 기획안 작성 실무
	공연장 안전관리 개론	문화예술 재원조성
	공연장 조성 실무 개론	문화예술 홍보마케팅 실무
	무대음향 개론	문화예술 홍보전략
	무대장치 개론	문화예술과 저작권
	무대조명 개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정산실무
	문화기획론	한국문화정책과 제도의 이해

(3) 추진과제 2-3 : 예술활동 사각지대 해소 [중장기선도과제]

[주요내용]

- 현행 예술활동증명제도는 문학, 음악 등 창작영역이 1차적으로 뚜렷하게 확인이 되어야 해 복합·융합·다원적 형태의 예술가나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매개자, 문화공간 및 축제 종사자 등의 활동영역이 예술활동증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또한 예술관련 대학 졸업예정자 등 예비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이 직업적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사회보장체계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동시에 증빙 가능한 활동실적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최근 도시재생, 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영역, 과학기술과 결합된 예술활동 등 예술영역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예술활동에 대한 개념이 확장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예술생태계의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하여 예비, 신진 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한편 '생활예술' 개념이 등장하면서 비전문가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가치 논의가 활발한 지금(안채린, 2018), 예술활동증명의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양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여 확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됨
- 부산이 선도적으로 기획자·매개자, 관련 공간 및 축제 종사자 그룹까지 예술인복지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여 예술활동의 폭을 확장함. 현행 제도에서는 새로운 분야의 문화예술활동 종사자들을 예술활동증명의 대상으로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부산형 예술활동증명으로 개념화하고, 단기적으로는 부산의 독자적인 지원 영역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세부방안]

■ 기간

- 2019년 ~ 계속

■ 대상

- 현행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대상자가 아니나 예술인복지정책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별 장르별 부산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

■ 방법

① 자체적인 심의를 통한 부산형 예술활동증명자 선정

- 분기별(3개월), 혹은 반기별(6개월)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부산형 예술인복지대상자를 선정
-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예술 생태계 조사(기반과제)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지역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여 자격요건 등의 기준을 마련함(예 :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수행, 3년 이상 문화공간 운영 실적,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수행실적 등)
- 선정자는 반딧불이사업, 파견지원사업 퍼실리테이터 등 부산의 자체적인 예술인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참여의 기회를 부여함

② 향후 예술인복지재단과 협의를 통한 예술활동증명

- 부산형 예술활동증명 대상자들이 최종적으로 정부의 예술활동증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정부의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모호한 경우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지역 사회에서 예술 활동을 보증하는 특례형태로 지정을 요청함
- 현행의 예술활동증명으로 부산형 예술활동증명자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현장의 실상을 설명하고, 제안하면서 지역 분권형 예술인복지정책을 선도해 나아감

[사업비]

■ 예산액

- 10백만원 (연간)

■ 산출내역

- 예술활동심의비용 및 대상자 관리비용 3개월 × 4회 (연간)

[사업추진주체]

- 부산형 예술활동증명자 선정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3) 예술인 지역상생 확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예술창작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상승시킨다.

○ 정책배경

■ 예술인과 지역사회의 공존

- 예술인들은 예술인복지정책이 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생활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특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역 예술인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고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함
- 한편 예술인들은 예술복지정책이 예술인에 대한 시혜성 지원이 아닌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존중받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면서 공공적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함. 예술인들의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복지 정책이 체감되는 동시에 예술 활동이 지역사회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정책사업이 필요함
- 예술인복지정책은 각 지역문화 형성의 주체가 되는 예술인들의 지역 내 생활, 직업, 창작 환경의 개선과 지원으로 궁극적으로는 고유한 지역문화를 창달해내는 지원정책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지역에 특화된 예술인복지정책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원형의 보존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이룰 수 있음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현황

- 현재 부산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굿모닝 예술인>, <반딧불이> 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한 예술인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과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음
- 두 사업 모두 지역의 기업, 기관, 마을 등 특정 주체와 구체적으로 연계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굿모닝 예술인〉 사업 현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파견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독자적으로 추진 중
- 예술로 조직 내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에 예술인을 파견하여 매칭 된 기업(기관)과 예술적 협업 및 프로젝트 진행. 사업흐름은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 및 기관의 신청을 접수 후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⁷⁾를 통하여 매칭하여 진행하는 형태. 예술인은 최소 월 30시간 활동을 진행
- 2018년 기준 참여기업·기관: 총 35곳(국립부산과학관 외 34곳), 참여예술인: 총 40명(시각 30명, 공연 4명, 음악 6명)
- 총 예산은 예술인일자리 박람회 사업을 포함하여 시비 400백만원 소요. 예술인에게는 1인당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창작활동비로 120만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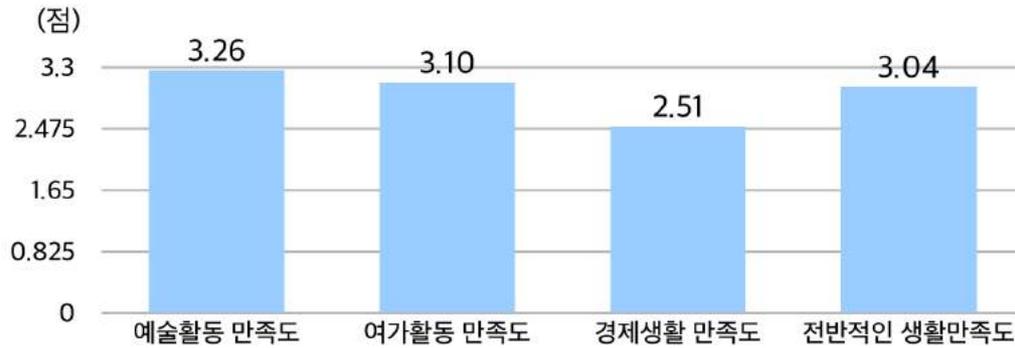
〈반딧불이〉 사업 현황

- 2015년 예술인복지정책과제로 제안된 사업으로 빈집을 활용한 창작공간 사업
- 지역의 유휴공간을 발굴·확보하여 예술인의 창작공간 및 시민 문화 향유공간으로 개보수 후 입주예술가가 상주해 창작활동과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함. 빈집 기부를 접수 후 예술인을 매칭하여 진행하는 형태
- 현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진구 등 총 7개 장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총 55명의 입주작가(단체)가 운영 중임. 공간을 기부하는 곳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공간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개인 혹은 단체 예술인에게 공간 무상제공, 시민문화향유 프로그램 진행 경비 일부지원 (약 매월 500,000원 상당)하며, 입주 예술인(단체)은 매월 1회 이상 지역민을 대상으로 시민향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함
- 총 예산은 130백만원으로 기본적인 공간 개보수 비용 및 각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지원함

7)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 예술인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파견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 예술인의 참여 공간 마련. 파견지원 사업 지원 예술인에게 취업정보를 제공, 기업들에게는 기업 홍보와 아울러 인재채용의 기회제공. 2018년 기준 참가인원: 총 3,000명 참여기업·기관: 35곳 / 참여예술인: 총 122명 / 사전접수 63명, 현장접수 15명, 예비예술인 44명

■ 2018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 생활 만족도

응답자 수 : 2,000명, 5점 척도 평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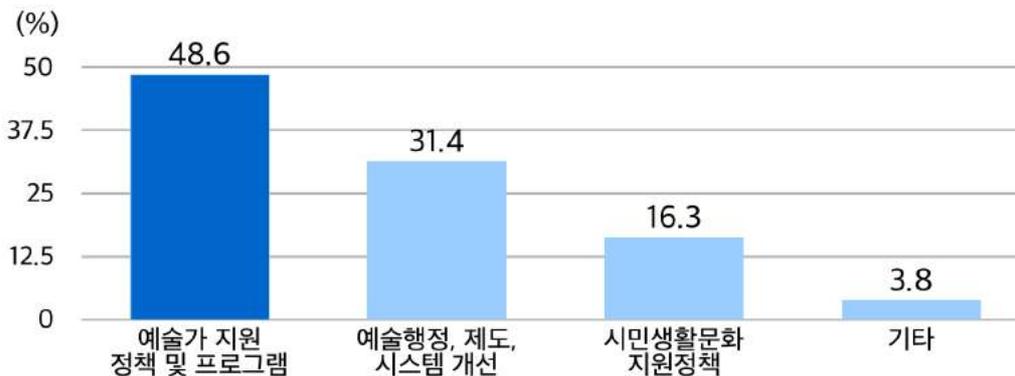


항목	응답자 수 (명)	불만족 (1+2점)	보통	만족(4+5점)	5점 평균(점)
1) 예술활동 만족도	2,000	18.5	42.5	39.1	3.26
2) 여가활동 만족도	2,000	23.3	43.7	33.0	3.10
3) 경제생활 만족도	2,000	49.2	37.3	13.6	2.51
4)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2,000	24.1	46.2	29.8	3.04

- 생활 만족도를 5점 평균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술활동 만족도가 3.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가활동 만족도 3.10점,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3.04점, 경제생활 만족도 2.51점으로 나타남

■ 2018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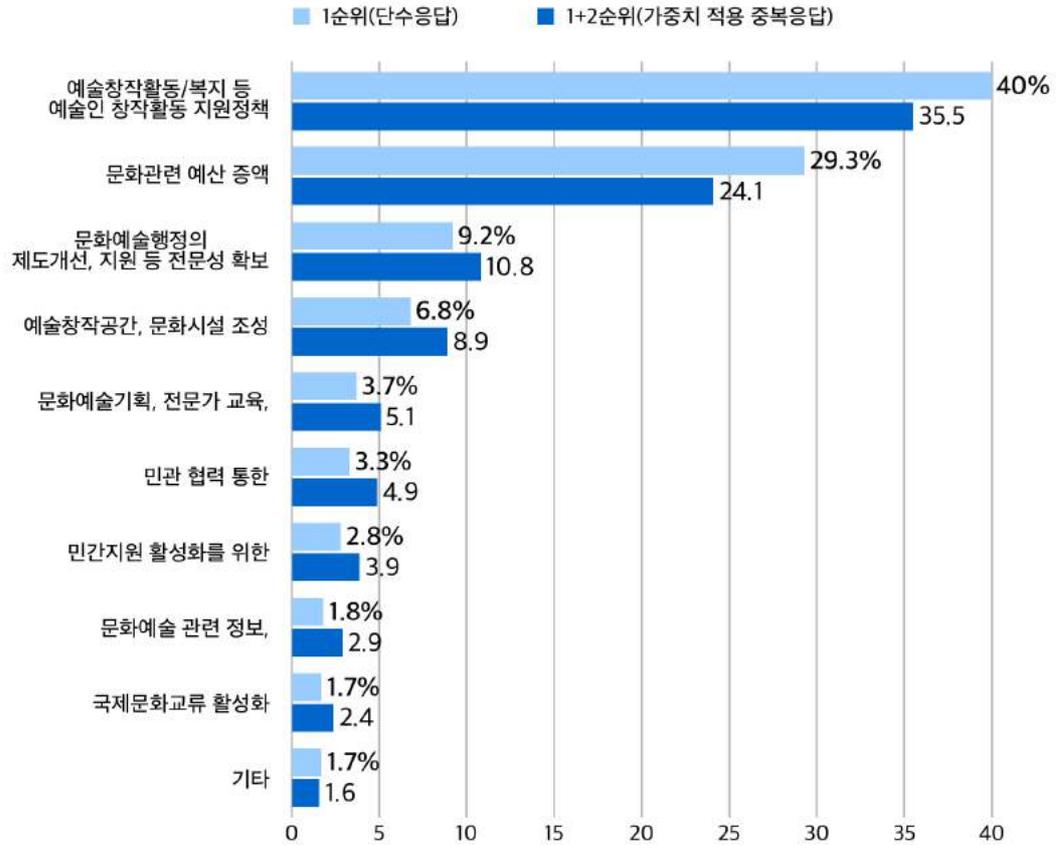
응답자 수 : 2,000명



- 부산의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해 중요한 점으로는 예술가 지원 정책/프로그램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행정/제도/시스템 개선 31.4%, 시민생활문화 지원정책 16.3%의 순임

■ 2018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부산시 중점 정책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가중치 설정 비중(1순위:2순위=2:1)



-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중점 정책을 1+2순위 가중치를 적용한 중복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술창작활동/복지 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정책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화관련 예산 증액 24.1%, 문화예술행정의 제도개선/지원 등 전문성 확보 10.8%, 예술창작공간/문화 시설 조성 8.9%, 문화예술 기획/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지원 5.1%, 민관협력 통한 문화예술지원 시스템 강화 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는 예술창작 활동/복지 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한 문화관련 예산 증액도 2순위로 나타남

○ 문제점 및 주요과제

■ 예술인패스 문제

- 2018년도 예술인 패스 발급자수 총 2,450명(전년대비 336명 증가). 발급대상자는 예술인 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 학예사·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 예술인패스 사용처 비교

사용처	서울 예술인패스	부산 예술인패스	경남 예술인패스
박물관	2개 브이센터 더 라이브 뮤지엄,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없음	7개 -남해유배문학관, 박진전쟁기념관, 창녕박물관, 합천박물관 무료, 통영/밀양시립 박물관 25%, 30% 할인, 마산박물관 60% 할인
미술관	6개 국립현대미술관 무료, 서울미술관 20% 할인, 토탈미술관 40% 할인 등	없음	3개 경남도립미술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50% 할인, 문신미술관 300원 할인
공연장	24개 예술의전당/세종문화회관 10~30% 할인(공연별 상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연예술센터 20% 할인, 국립국악원 30% 할인, 예술인패스 연계된 극장/마포아트센터 50% 할인 등	5개 국립부산국악원(토요신명) 50% 할인, 금정문화회관(발레공연)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내한공연 30% 할인, 영화의전당 공연 50% 할인	6개 경남문화예술회관 10% 할인, 김해문화의전당 30% 할인, 통영국제음악당 30% 할인 등
기타	행화탕 메뉴 10% 할인	-	금호리조트(통영) 30% 할인

- 부산 예술인패스 사용처는 공연장 말고 전무한 상황임. 공연장의 경우도 서울은 기관 대부분의 전체 전시·공연이 예술인패스에 해당하지만, 부산은 기관의 일부 공연이기 때문에 예술인패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예술인패스에 해당하는 공연인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함
- 부산의 박물관의 경우, 주요 박물관·전시관⁸⁾ 모두가 무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술인패스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음. 유료운영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5,000원)이 있음
- 부산시립미술관은 관람료 2,000원(부산시민)을 받고 있음. 또한 기획·특별전시전은 1만원대의 입장료를 받고있음. 부산현대미술관 관람료는 무료임. 2018년 부산비엔날레의 입장료는 12,000원으로 예술인패스가 적용되지 않았음. 같은 해 진행되었던 광주비엔날레는 예술인패스가 적용되었으며, 대구사진비엔날레에도 예술인패스가 50% 적용되었음
- 경기의 경우, 문화재단(고양, 수원, 안산)이 주최하는 공연일 경우 예술인패스 할인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경남 시립/도립 박물관, 미술관에 예술인패스를 적용시키고 있음
- 대형 민간공연장의 음악공연(콘서트, 갈라쇼, 클래식 등)의 경우 장르별 차이가 있지만 대관공연은 좌석에 따라 55,000원~99,000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음

공연장	클래식/전통 대관 공연 기준
KBS부산홀	- R석 99,000원, S석 77,000원, A석 55,000원 · 가족 뮤지컬 공연 - R석 22,000원, S석 16,500원
벅스코	· 대관 공연 - R석 99,000원, S석 77,000원, A석 55,000원
소향씨어터	· 2018 부산국제합창제 갈라콘서트2(2018.10) - 예술인패스 20% 할인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유료회원 30% 할인

· 그 외 공연장: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신세계문화홀,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등

- 지역 소극장 연극공연의 경우, 평균 약 20,000원(정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음
- 대부분 공연 예매사이트를 보면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술인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공연은 거의 없음

8) 국립해양박물관, 부산박물관, 북천박물관, 정관박물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부산근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 동삼동태충전시관, 시민공원역사관

■ 선도적인 지원 정책의 지속적 성과 확산

- 〈굿모닝 예술인〉, 〈반딧불이〉 사업 등에 대한 예술인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특히 〈굿모닝 예술인〉 활동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원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실태조사에서 예술인들이 경제생활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반딧불이〉사업의 경우 대상지가 접근성이 낮아서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로 재개발예정 지역, 낙후지역에 있어 1,2년의 임대 형태가 대부분임. 이러한 조건은 예술가들에게도 입주에 부담으로 작용함
- 〈굿모닝 예술인〉사업의 경우 현재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인력으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갈등 해소 등의 관리 및 지원이 사실상 어려움. 예술 작업 과정 및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함

○ 정책개요 및 추진방향

(1) 추진과제 3-1 : 반딧불이 사업 확대

[주요내용]

- 실태조사 결과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인과 정책에서 예술가 지원 정책프로그램(설문지 문항에서는 ex. 예술창작공간 및 관련 시설 조성, 예술가 교육 및 육성 프로그램 등으로 표기)과 예술창작공간/문화시설 조성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되었음. 이와 같이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요구가 많으며, 현재 부산시의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사업>을 비롯하여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반딧불이>사업 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현재 민선7기는 반딧불이 활용 사업과 연계하여, 1년 정도 의식주 해결 및 창작활동이 가능한 예술 레지던시 공간 제공으로서 <예술인의 집>정책을 추진 중.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 발맞춰 다양한 마을 커뮤니티에 예술인의 활동을 바탕으로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의 형태로 반딧불이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아감
- 반딧불이 사업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발굴·확보하여 공간 제공 전, 개보수 후 진행되고 있는데, 빈집을 리모델링(최대 800만원)한 후 예술인들에게 공간을 보여주고 신청모집을 받음. 리모델링은 최소한의 벽지·바닥공사의 기초적인 공사만 해당하여 시설정비가 미비(낮은 전력량, 외부 화장실, 바닥난방 부재 등)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 편, 빈집을 기부자에게는 공간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
- 향후 안정적인 공간 확보와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하여 공간 기부를 3년 이상으로 책정하고, 예술인(단체)에게도 최소 2년, 최대 3년 이상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이에 따라 공간 기부를 활성화하고, 예술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리모델링 비용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현행 수준보다 높임

[세부방안]

■ 기간

- 2019년 ~ 계속

■ 대상

- 반딧불이 사업 참여 공간

■ 방법

① 리모델링 비용 상향 지원

- 반딧불이 사업으로 기부되는 공간 중 3년 ~ 5년 이상 기부 약정을 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공간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현행 수준에서 상향 지원하여 기부자와 입주 예술인의 만족도를 높임
- 아울러 실속 있는 리모델링 지원을 통하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빈 집 기부를 유도하여 전반적인 지역 사회내 파급효과를 확산함
- 빈집 공간별 10백만원 ~ 최대 20백만원 (전체 리모델링 비용 제한)

② 예술인 계약 기간 연장

- 입주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현행 수준 (1년계약, 최대 2년)에서 최소 2년, 최대 3년으로 연장 지원하여 활동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임
- 입주 예술인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임

[사업비]

■ 예산액

- 2019년 200백만원, 이후 단계별 증액
- 2018년 기준 130백만원. 연간 최대 금액을 확정하여, 예산의 과도한 증액을 지양함
- 빈집공간 기부가 활성화 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지원 비용 등이 증액 예상

■ 산출내역 (2019년 예상 기준)

- 빈집 기부 공간 5개소 리모델링 비용 최대 × 20백만원
-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지원 비용 15개소 기준 (현재 7개소) × 5백만원
- 공간 관리 운영비 25백만원

[사업 추진주체]

- 반딧불이 사업 개선 및 확대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부산 또따또가]

-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 중앙동에 원도심 지역 재생을 위해 부산시가 빈 집을 3년간 임대하여 리모델링 후 예술가들에게 무상으로 임대. 현재 시각예술, 문학, 공연, 커뮤니티 등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70여개의 예술인(단체)가 입주해있으며, 주기적으로 시민문화 예술 교육프로그램, 또따또가 축제 참여, 입주 공간별 고유 창작활동 및 전시 등 발표활동을 진행함

[울산 문화의 거리]

- 울산 중구는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관련 업종의 육성 등 지원함
- 조례에 의해 울산 중구 문화의 거리 내 화랑, 골동품점, 공연장, 전시장 등에 점포 수리비, 간판설치 교체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지원기준은 수리비의 경우 80% 범위에서 800만원 이내(1회), 간판은 80% 범위에서 150만원 이내(1회), 임차료는 월별 80%범위에서 1년 360만원 이내로 하되, 반기별로 3년간 지원, 전시 및 공연 행사비는 60% 범위 내에서 연 1회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대구 범어 아트스트리트]

- 대구 수성문화재단에서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공간을 지원하고,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간으로 범어아트스트리트 내 스튜디오 5개실을 예술인들(단체)에게 지원함
- 임대료는 무상이며, 청소경비용역비 등 일반 관리비를 지원함. 이후 전기사용료, 인터넷,전화료 등은 입주자가 부담함. 계약기간은 1년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함
- 범어아트스트리트 공동 기획사업에 참여해야하며, 거리활성화 및 소개 홍보를 위해 스튜디오(창작전시관)의 개방이 필요시 적극 협조해야함

(2) 추진과제 3-2 : 굿모닝 예술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확대

[주요내용]

- <굿모닝 예술인>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예술로 조직 내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에 예술인을 파견하여 매칭된 기업(기관)과 예술적 협업 및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 사업임
- 사업 참여 예술인 및 기업(기관)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 등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실태조사결과에서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응답되었음
- 특히 본 사업은 부산에서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간다면 지역의 선도적인 예술인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지역사회로 파급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업임. 따라서 현행 굿모닝 예술인 사업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략적인 사업 전개를 진행함
- 사업에 부족한 전문인력으로 기획자·매개자·퍼실리레이터를 충원하여 예술인과 기업 간의 파견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된 지점들을 확장시킴. 아울러 현행 기업모집에서 전략적으로 3~5가지 범주를 설정, 모집하는 등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를 유도함

[세부방안]

■ 기간

- 2019년 ~ 계속

■ 대상

- 굿모닝 예술인의 참여를 희망하는 분야별 장르별 부산지역 예술인
- 굿모닝 예술인의 참여를 희망하는 분야별 장르별 공공기관, 문화기관 및 기업 등

■ 방법

① 매개 전문인력(퍼실리테이터) 선발 및 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의 경우 퍼실리테이터⁹⁾를 통하여 기업과 예술인의 매개 역할 및 갈등관리와 협업구조(활동)를 지원함. 또한 프로젝트 기획·운영, 성과관리 등을 진행함
- 현재 부산의 경우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자체 인력으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 또한 담당자가 바뀌는 등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따라서 향후 굿모닝 예술인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퍼실리테이터의 선발 및 운영이 필요함
- 현행 참여 예술인은 기존의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¹⁰⁾을 유지하되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제안한 핵심과제 중 <예술활동 사각지대 해소>사업과 연계하여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부산의 문화기획자, 공간운영자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함
- 또한 퍼실리테이터를 중심으로 창작된 예술작품의 저작권 문제 등 관련 법률 교육이나 관리를 진행하고, 현재의 예술인 선발 방식(기업 중심의 면접 및 선발), 성과관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함

② 5개 분야 전략화 사업

- 굿모닝 예술인 사업이 사회적 처방, 사회문제 치유 등 예술인의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개념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 등의 공공기관 및 문화공간, 도시재생지역(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파견지원 사업을 확대함
- 기존의 모집대상은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적 개입을 통해 이슈를 해결 하고자 하는 부산소재 기업(기관)”으로 다소 일반화된 구조임. 향후 3~5개 분야를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함
- 즉, 현재의 기업파견 형태를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최근 지역사회에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도시재생 지역 등과의 연계를 해나감. 아울러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퍼실리테이터를 선임하여 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진행함

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퍼실리테이터 개념 : 기업(기관)과 매칭이 완료된 예술인으로, 참여기업의 이슈를 진단하고 참여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경험과 참여기업을 매개하여 예술적 협업구조(활동)를 마련하고 프로젝트 기획·운영, 성과관리 등을 진행하는 예술인

10)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① ~ ③까지 모두 충족해야함) 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부산인 예술인 ②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예술인 ③ 최근 3년간(2015년 ~ 2017년) 3회 이상 활동실적(해외포함)이 있는 예술인
- 신청제한사항 ① 2018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으로선정된 예술인 (퍼실리테이터 포함) ②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진행 완료 후 해당, 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불이익 적용을 받은 단체 (결과보고서 최종 제출 기한 초과 등) ③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④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수행한 단체

- ㉠ 생활문화분야 - 각 지역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등 생활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연합회 등
- ㉡ 도시재생분야 - 도시재생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구군 지자체 및 기관, 문화 공간, 마을 등
- ㉢ 민간문화분야 - 소극장, 단체 등 민간의 문화예술단체 및 공간
- ㉣ 공공기관분야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 등 공공기관 및 시설
- ㉤ 민간기업분야 - 현행 모집대상으로서 지역 민간 기업 분야

[사업비]

■ 예산액

- 2019년 550백만원, 이후 지속적 확대
- 2018년 기준 400백만원. 연간 최대 금액을 확정하여, 예산의 과도한 증액을 지양함
- 굿모닝 예술인 사업 예산의 지속적 증액으로 활성화 유도

■ 산출내역 (2019년 예상 기준)

- 참여 예술인 운영 50명 (2018년 40명) × 8.4백만원(7개월, 120만원 기준)
- 퍼실리테이터 운영 10명 (1인당 5개 기관 관리) × 8.4백만원(7개월, 120만원 기준)
- 프로그램 운영 일부 지원 및 관리비 등

[사업추진주체]

- 매개 전문인력(퍼실리테이터) 선발 및 운영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 5개 분야 전략화 사업 : 부산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새 예술정책(2018~2022)]

■ 예술인 파견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재구조화

- (내용) 기관·기업과 예술인을 연결, 예술분야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기업의 경영혁신 등에 서의 예술의 역할을 확대(예술인파견지원)
- ('14년) 331명/178개 → ('18년) 1,000명/258개
- (질적 개선) 공유가치 생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내실화를 위한 증장기 관리 체계 마련('18년~)
- 사회적기업과의 협업 증대, 예술인 실무교육 강화 및 기업 사전 워크숍으로 성과도출, 전문위원단 운영으로 모니터링·성과관리·리스크관리 체계화
- (기반 확대) 예술인-공공서비스 간 파트너십 확대 등 직무영역 다각화 ('19년~), 지역분야 별 자발적 결연과 협업 지원시스템 마련('21년~)

(3) 추진과제 3-3 : 부산형 예술인 패스지원 [증장기선도과제]

[주요내용]

- 예술인패스 제도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에 대한 예우,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전국 문화예술기관 관람료 및 생활 속 공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부산의 경우 예술인패스는 거의 사용할 곳이 없고 유명무실하여 체감하기 어려움. 부산에서 국공립 기관은 의무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공연, 전시 및 프로그램 무료, 할인 등을 적극 추진. 특히 국공립 기관의 대관 조건에 예술인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예술인패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감
- 사랑티켓과 문화누리카드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확대. 민간문화공간에서 공연, 전시 운영시 예술인패스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 구입 관람객 뿐만 아니라 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을 일부 지원함

[세부방안]

■ 기간

- 2019년 ~ 계속

■ 대상

- 공공부문 부산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시설
- 민간부문 주요 공연장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시설

■ 방법

① 부산의 공공기관 예술인패스 의무 사용 확대

- 대관 공연을 포함하여 공공문화시설의 프로그램에 예술인패스 할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함
- 통신사 할인 등 일반적인 형태의 할인에 추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함

② 민간문화공간에서 공연, 전시 등 프로그램 진행시 예술인패스 할인에 대한 지원

- 부산에서 진행되는 민간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술인패스 사용에 정액 예산 지원 1회 10,000원 × 최대 3회 (지역 소극장 연극 평균 공연료의 50% 수준)
- 부산의 민간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부산의 예술인들의 참여를 높여, 궁극적으로 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함

[사업비]

■ 예산액

- 공공기관 예술인패스 의무사용 확대 : 예산 불필요
- 민간문화공간 예술인패스 지원 : 60백만원 (2019년 시행 준비, 2020년 이후부터 연간 소규모 증액. 예산 소진시 까지)
- * 연간 예산의 최대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예산 증액을 방지함

■ 산출내역 (2020년 예상 기준)

- 예술활동증명 대상자 중 70% 수준인 2,000명 대상 × 10,000원 × 최대 3회 지원

[사업추진주체]

- 부산의 공공기관 예술인패스 의무 사용 확대 : 부산광역시
- 민간문화공간 예술인패스 할인 : 부산광역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새 예술정책(2018~2022)]

■ 문화예술인 패스 개편으로 맞춤형 혜택 제공

- 예술인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발급하는 문화예술인 패스의 혜택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
- (현황) 43,837명 발급('17.10월)/ 박물관 266개소, 미술관 46개소, 공연장 119개소 참여
- (내용) 참여기관의 전시·공연 관람 시 청소년수준으로 할인율(30% 내외) 적용
- (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장르 대표단체 정회원/ 학예사·문화예술교육자 등
- ▲1단계('18~'20) : 제휴('17년 431개→'20년 1,000개) 및 혜택 확대
 - * 대형 뮤지컬 1+1 혜택, 전국 체인 커피숍 제휴 할인, 문화재 관람 할인 등
- ▲2단계('21~'22) IC칩 카드 기반으로 전환(신원 확인, 금융기능 부가) 및 지원 사업 통합 플랫폼으로 활용 추진
 - * 복지금고 계좌 개설, 예술인패스를 통한 활동증명 및 창작준비금 등 수령·사용 등

사랑티켓

-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된 사랑티켓은 문화취약계층 노년(65세 이상)과 아동·청소년(24세 이하)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공연·전시 관람 비용(최대 20,000원 지원)을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됨. 구입관람객 뿐만 아니라 예술단체(기획사)에게도 할인된 관람금액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원했었기 때문에 많은 공연·전시 행사에서 사랑티켓을 유치함. 2016년 말 문화누리 사업과 성격이 중복된 점, 개인보다는 단체에게 수혜가 편중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사업이 폐지됨

문화누리카드

-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행 중인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문화바우처)는 기초,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상자 1인에게 70,000원을 지원해줌. 공연·전시 뿐만 아니라 서점, 영화, 숙박, 스포츠, 여행사 등 26, 382곳이 가맹점으로 맺어져있어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갖고 있음. 현재 도서 구입, 영화 관람 위주로 활용되고 있음에서 연 1회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4. 기반과제 세부내용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위상 강화

부산 예술인복지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한다.

○ 정책배경

■ 부산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2013)

- 해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제4조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 예술인 복지 실태 및 근로 실태 조사 실시(제5조 실태조사 등)
-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 재정 지원)
-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위탁할 수 있다(제9조 사무의 위탁)

■ 타 지역 관련기관 조례 및 구성 비교

- 현재 예술인복지 관련 센터가 있는 정부·지자체 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서울 불공정피해상담센터(예술인전용),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경남 예술인 통합지원센터(2019년 예술인복지센터 개설 예정) 총 5가지 센터로 이를 바탕으로 조례 분석함

※ 타 지역 관련기관 조례 및 구성 비교

	(중앙정부) 예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독립기관 설립	<p>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등)</p> <p>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9조(불공정피해상담센터)</p> <p>① 시장은 예술인의 부당 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공정피해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2.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자문 3. 불공정피해 예방 교육 4. 그 밖에 불공정피해 관련 지원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무
위탁운영	<p>부산 예술인 복지지원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운영 <hr/> <p>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11월 수립된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계획(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 예술인복지증진사업의 전담조직을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으로 지정하여 운영 <hr/> <p>경남예술인통합지원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조례 제정 예정 - 경남도 문화관광체육사업에 신규사업으로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 3억원 배정 - 현재 2018년 통합지원센터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비로 운영 - 예정된 조례에 예술인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이 명시되어 있음(전국 유일) <p>제7조(예술인복지센터의 설치·운영)</p> <p>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예술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2019년 예정)

제7조(예술인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행정 간소화

- 예술인 복지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할 때, 예술인의 신청편의를 위하여 서류를 받는 대신 국가 전산망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또는 가구원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게함(제10조의3 신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에게 예술인 또는 가구원의 관련 자료 요청 및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목적 외 이용할 경우 벌칙(제17조)

■ 2018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방안

- 2018년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예술계 내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인 인식변화 캠페인, 예술계 성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의 순으로 응답됨
-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운영 시 필요한 사항으로는 예술계 지원사업/혜택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강화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법적지원/의료지원/상담지원, 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남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방안	성폭력 대응센터 운영 필요사항
1 순위	예술계 내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 강화 (26.7%)	예술계 지원사업/혜택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강화(41.2%)
2 순위	예술인 인식변화 캠페인(19.8%)	법적지원/의료지원/상담지원(23.3%)
3 순위	예술계 성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 (17.2%)	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15.1%)

○ 문제점 및 주요과제

■ 부산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성과와 한계

- 부산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예술활동증명 대행 성과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통하여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앞서 살펴본 <반딧불이>, <굿모닝 예술인>사업과 같은 독자적인 사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고 지원하여 2018년 기준 114명이 선정되는데 기여함. 예산으로 봤을 때 약 6억원 가량의 국비 유치 또한 성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부산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성과를 확산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에 적합한 제도적 지원과 인력충원 등이 필요함. 현재의 위상과 인력, 예산으로는 사업의 질적 성장을 이어가기 힘들며, 중앙정부와 원활하게 연계하여 예산을 확보하거나 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려움

■ 예술인의 권익 증진에 대한 관심과 지원

- 예술인복지정책이 예술인의 권익 증진이라는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법의 개정, (가칭)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 제정 준비 등의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은 헌법 제22조에 따른 예술가의 권리 보호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표현의 자유' 등 예술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에 관한 사항, 예술인의 권리 침해의 유형 및 형사처벌 조항 등 법제화, 독립적 사무를 수행하는 예술인 권리구제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이 주요 골자임
- 한편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문화예술계의 미투운동 등을 계기로 한 예술인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의 보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의 권익보호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고 있음
- 부산의 경우에도 블랙리스트 문제와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사태 등의 방지를 포함하여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근절방안, 예술의 자유보장과 권익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정책개요 및 추진방향

(1) 추진과제 4-1 : 조례개정 및 인력충원

[주요내용]

- 중앙정부의 예술인복지정책은 예산확대와 사업확장 등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역의 역할을 강조해 나아갈 예정임. 이러한 정책 확대와 지역분권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부산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어 사업을 총괄하여 일관된 방향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한편 현재 부산예술인복지센터는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 예술지원팀에 소속되어 있어 정책 역할과 기능상 적합한 조직 위계와 구조를 갖추고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단기인력 중심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적합한 조직과 인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편함

[세부방안]

■ 기간

- 2019년 ~ 계속

■ 방법

① 부산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2013) 일부 개정

- 예술인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통하여 위상을 강화함
-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복지정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명시함. 또한 원활한 복지사업수행을 위한 구군/동 단위 지자체 업무 협력 등을 법, 제도적으로 지원함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이하 "지원대상 예술인"이라 한다)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소득·재산·출입국·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 예시)

-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예술인 복지지원 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혹은 부산문화재단을 명시**)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시장은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소득·재산·출입국·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 개편 및 인력 충원

- 복지전문인력의 부재, 과도한 사업실행으로 직원의 집중이 어려운 상황과 피로도가 높은 상태임. 예술가들 또한 사업 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문제로 지적함
- 단기인력, 예술활동증명 사업 중심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규직 인력 등을 충원하여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함
- 현행 체계에서는 부산문화재단 정관 개정이 필요함. 현재의 부산문화재단 정관 총칙에 목적, 사업 조항에 예술인복지를 위한 사업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부산문화재단 정관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제3조(목적) 재단은 시의 문화예술창작, 학예진흥의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여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창작활동 기반 조성 및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부산을 창의와 품격을 갖춘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5>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 예술 활동의 지원 사업
2. 문화예술교육사업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4.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5. 학예진흥을 위한 회원활동의 지원 사업
6. 문화예술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7.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신설 2013.3.15>
8.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구청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이나 기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사업범위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비]

■ 예산액

- 200백만원 (연간)

■ 산출내역

- 팀장 1명, 직원 2명 정규직 고용
- 예술인복지코디네이터 3~5명 운영

[사업추진주체]

- 조례개정 및 인력충원 : 부산광역시, 부산시의회

(2) 추진과제 4-2 :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주요내용]

- 2018년 기준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예술인복지코디네이터 운영,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및 파견지원사업, 반딧불이(빈집활용)사업, 휴-안심프로그램 운영, 예술인 법률 상담 및 신문고 운영,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운영, 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복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음
- 센터 설립 후 진행된 예술활동증명의 성과와 기존 사업의 개선과 확대를 통하여 부산에서 선도적인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예술인들에 적합한 예술인복지 정책을 시행함
- 2018년 정책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예술인 복지정책들이 예술인들의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예술생태계의 특성을 면밀하게 탐구함

[세부방안]

■ 기간

- 2019년 ~ 계속

■ 방법

① 기존 사업의 재편과 지속

기존 주요사업	2018년 정책연구 제안사업
반딧불이(빈집활용)사업	반딧불이 사업 확대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및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사업 확대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예술인복지코디네이터 운영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조례개정 및 인력 충원
휴 - 안심프로그램 운영 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복지 만족도 조사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예술인 법률 상담 및 신문고 운영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운영	(가칭)예술인권익위원회 설치

② 부산 예술생태계 조사(실태조사 연계)

- 2018년 제안된 정책과제 사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현장 연구조사
- 장르별, 분야별 현장 중심의 창작환경 실태조사 및 포럼 등을 통하여 부산 예술인들의 창작환경과 생태계를 면밀하게 탐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예술인복지정책의 수정, 보완을 지속함
 - 조사 : 2019~2020년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창작분야별 조사, 2021년 예술인실태조사
 - 포럼 : 예술인복지정책의 홍보를 겸하여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의 의견 수렴 (사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토론회 (18.9.11) / 예술을 통한 혁신적 가치 창출 토론회 (17. 9. 22.)

③ 예술인 사업안내 체계 구축(홍보강화)

- 현재 부산예술인복지센터의 홈페이지가 부재한 상황인 것을 감안해 독자적인 홈페이지 제작, SNS, 문자 및 메일링 등 예술활동증명 대상자 중 원하는 예술인들에게 복지정책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계 소식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홍보체계를 구축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부산문화재단이 아닌 외부기관의 관련 사업소개 등도 포함하여 전달함
- 예술인 정보, 경력관리, 데이터관리 등을 통해 공공기관 등 예술가를 필요로 하는 기관, 사업, 행사 등과 부산의 지역 예술인 매칭함
(사례) 댄서스잡마켓: 순수 예술 무용 공연을 앞둔 무용단과 공연 출연을 희망하는 무용수를 연계해 무용수들이 역량 있는 무용단과 작업 기회 제공

[사업비]

■ 예산액

- 2019년~2021년까지 연구용역 150백만원

■ 산출내역

- 부산 예술생태계조사 창작분야별 (시각, 공연, 콘텐츠 연차별 용역) 조사
 - * 2019년 시각/공연 분야 각 50백만원. 2020년 문학 등 콘텐츠 분야 100백만원
 - * 2021년(3년차) 정기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수립 진행 100백만원
- 포럼 및 휴-안심프로그램 운영 × 5백만원 × 총8회
- 예술인 사업전달 체계 구축 10백만원

[사업추진주체]

- 부산 예술생태계 조사(용역)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 예술인 사업안내 체계 구축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새 예술정책(2018~2022)]

■ 예술인 직업 환경 및 복지 실태조사 강화

- 직업군 분류 및 실태조사 : 정기조사로 예술분야 직업의 시대적 변화 파악 및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2018년 기초조사, 2019년 장르별 세부조사)
 - 내용 : 문화예술진흥법상 예술의 정의*에 따른 인위적 장르 구분을 재검토하여, 실제 정책대상으로서의 예술인 직업·직무를 조사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 등 13개 분야
- ** 매개영역도 포함하여, 매개인력의 직무·직업군 체계화·표준화 추진
- (방식)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초로 세밀한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직업군별 정의·설명을 마련하여 직업으로서의 객관적 지위 확보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www.jbaw.or.kr 홈페이지]

- 분기별 센터소식, 센터 및 사업 소개, 이달의 전시&공연,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등



(3) 추진과제 4-3 : (가칭) 예술인복지 선도도시 지정 요구

[주요내용]

- 중앙정부 지원정책의 원활한 연계와 장기적으로 지역분권을 위하여 정책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재단과의 업무 협의를 실행
- 단순한 MOU 형태의 업무협약이 아닌 실제 예산 등이 배정되어 지역특화형 사업을 추진하고, 예술활동증명 정보 등이 교류될 수 있도록 시범도시 지정 형태의 사업체제로 갖추어나감

[세부방안]

■ 기간

- 2019년 ~ 계속

■ 방법

-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부산을 (가칭)지역분권 예술인복지 선도(시범)사업 도시로 지정을 요구함
- 예술활동증명완료자의 수가 서울·경기권을 제외하고 부산(약 3,000여명)이 월등하게 높으며(서울·경기 제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평균 수 900여명), 전국 지자체 최초의 예술인 복지 조례, 예술복지지원센터 등의 설립과 같이 지역 예술인복지정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음을 강조함
- 기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의 사례와 같이 부산을 지자체 예술인복지 선도/시범사업 도시로 지정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협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복지지원정책 사업을 지역 주체로 운영해 나아감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 2018년 8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역 예술인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공모함. 참여대상 자격 및 심의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대전문화재단이 선정됨
- 참여대상 자격: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광역지자체 소속 문화재단으로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장비를 갖춘 광역문화재단
- 심의기준
 - 예술활동증명완료자수(배점30점)

- 1명~1000명: 10점/ 1001명~2000명: 20점/ 2001명~3000명: 30점
-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배점 20점)
- 예술인 복지조례 제정(배점 20점)
- 지역 예술인 대상 의료협력 성과(정성평가)
- 예술인 복지사업 협력(정성평가)
-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정성평가)

[사업비]

■ 예산액

- 별도 소요 예산 없음

[사업추진주체]

- (가) 예술인복지 선도도시 지정요구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새 예술정책(2018~2022)]

■ 예술인 복지정책 지역 협력체계 구축

- (협업강화) 주거환경 개선, 공공 직무창출, 임대공간 제공 등 협업, (가칭)예술인복지 지역 협력위원회 구성
- * 복지재단-13개 지역문화재단 간 MOU 체결 및 문체부·지자체·재단 공동워크숍 개최(매년 2월), 정책방향 공유 및 공동사업 추진('19년~)
- (지역확산) 복지재단 사업 신청대행·불공정관행개선 등 협업 ('18년~) 및 지역문화재단에 예술인 복지 전담인력 배치('20년~) * 예술인 고용보험·복지금고·창작준비금 등 사업 안내 및 예술활동증명신청 대행 등

(3) 추진과제 4-4 : (가칭) 예술인권익위원회 설치

[주요내용]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예술인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실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로 (가칭) 예술인권익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자문기구로 역할을 하며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관행·성폭력문제 등에 대한 상담, 신고 등을 바탕으로 예술가권익침해의 시정 및 구제조치를 위한 1차 소통기구로 기능함

[세부방안]

■ 기간

- 2019년 ~ 계속

■ 방법

- 예술인복지정책과 연관한 다양한 문화예술 및 법, 행정, 노동, 성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함. 분기별 회의를 통하여 예술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자문 및 1차 소통기구의 역할을 담당함
- 예술인권익위원회 구성 이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 및 법령 등을 검토하여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을 진행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제재 및 징계 규정 등을 마련함
- 예술인권익위원회와 구성과 함께 센터 내 불공정, 성폭력 상담신고 센터를 개설하여 현장 예술가들이 처한 문제적 사항을 파악하고 피해사례 접수 및 1차적 대응체계를 구축함
(사례) 마포구 흥대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가 신설. 9명의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가 예술가나 예술인 단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함

[사업비]

■ 예산액

- 20백만원 (연간)

■ 산출내역

- 운영위원회 자문회의 운영 3개월 × 4회 (연간)
- 불공정, 성폭력 상담신고 센터 운영

[사업추진주체]

- (가칭) 예술인권익위원회 설치, 신고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새 예술정책(2018~2022)]

■ (제도개선)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확보

-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 및 예술가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해 (가칭)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전담기구신설) 예술가권리보장을 위한 기구 설치

- 예술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권리 침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조직인 (가칭)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조사를 위한 (가칭)예술보호관 및 신고센터 신설
- (가칭)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예술가 권리침해행위 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안), 권리 침해 관련 정책 등을 심의·의결

[예술인소셜유니온]

- “밥 먹고 예술하자”는 구호 아래 예술인들의 생활고와 노동착취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동조합(노조)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예술적 산물의 생성과 매개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모여 예술가의 노동권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 제공을 위한 활동을 함. 문화예술분야 월례포럼 및 개최, 예술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 저작권 교육, 문화부 예산 분석 포럼 등 진행

[제주여성인권연대]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제반활동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며, 일상적인 평화와 성평등한 사회실현에 기여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제주여성상담센터, 제주현장상담센터, 여성의 쉼터,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음

제5장

정책제언

제5장 정책제언

1. 예술인복지정책사업의 연관관계

1) 기반과제의 역할

○ 예술생태계의 개선과 강화

- 조례개정과 인력충원 등을 중심으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위상강화와 역할의 확대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부산의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직업을 영위하는 생태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생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있음. 예술인들이 부산에서 예술창작의 자부심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작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해 나아감
- 예술생태계의 개선과 강화는 예술인복지정책과 사업이 실제 지역에서 실현되는데 있어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될 것이므로, 최우선적으로 과제에 집중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핵심과제의 역할

○ 예술인이 체감하는 예술인 복지

- 핵심과제는 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체감가능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지원과 주거지원, 반딧불이 사업과 굿모닝예술인 사업 등을 통하여 생활의 안정, 일자리 지원 및 지속적인 창작환경 조성에 기여함
- 또한 최근 지역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 다원 예술, 기획/매개자 및 공간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부)사업의 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성장의 토대로 나아갈 수 있음



2. 예술인복지정책 추진 로드맵

1) 2019년 ~

○ 부산예술인복지정책 추진 체계의 정비

- 예술인복지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기존의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범주에 포함되나, 일반적인 문화예술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고용·노동·직업환경 등을 아우르는 특수성이 있어 정책적 특화가 필요함. 다만 지역문화의 토대와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부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됨
- 따라서 현행 관련 조례와 정관 등을 개정하여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분명히 명시하는 등 추진 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또한 전문 인력의 배치와 예산증액, 중앙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예술인복지정책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 나아감

○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적극적 협력 필요

- 부산예술인복지정책의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부산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책과제 중 중장기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건강보험 지원, 부산형 예술인패스 지원은 사회복지기관 및 여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이를 조율하고 부처간 업무 협력이 가능하도록 부산시 당국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아울러 중앙정부 부처와의 유기적인 정책과 사업 연계를 위해서 부산시의회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함. 특히 (가칭)예술인복지 선도도시 지정 요구 등을 통하여 예산을 유치하고, 지역 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교섭이 반드시 중요하며, 이는 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임

2) 2020년 ~ 2021년

○ 기반과제에 기초한 핵심과제의 본격적 추진

- 2019년 추진체계 정비와 함께 센터의 위상과 역할 강화,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 등을 바탕으로 주요 핵심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함. 예술활동증명자를 대상으로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상담/지원과 예술인 주거지원, 창작역량강화 등을 바탕으

로 체감되는 복지증진에 노력함

- 이와 함께 반딧불이 사업, 굿모닝예술인 사업의 개선과 확대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문화적 환경을 상승시키는데 노력함. 또한 예술인들의 직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분야별 인건비/사례비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권익증진에 노력함

○ 중장기 과제의 토대 마련

- 핵심과제 내 중장기과제로 제안한 건강보험 지원, 예술활동 사각지대 해소, 부산형 예술인 패스 지원은 문화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과제임.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함. 우선 관련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기초적인 자료 확보 등을 진행함. 이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를 중심으로 관련기관과의 범부처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하여 사업의 체계를 점검하고,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방식의 정책 시행이 필요함
- 중장기과제는 현행 예술인복지정책과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설정되어 있음. 따라서 단기적인 효과는 뚜렷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행착오가 발생할 우려도 있지만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아간다면 지역 예술인복지지원정책의 선도적인 모델로 발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2) 2022년 ~ 2025년

○ 예술인복지정책과 사업의 지속화

- 예술인복지정책과 사업이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현장 연구 등을 통하여 정책의 성과를 점검함. 특히 각 정책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검증함
- 특히 현행 시점에서 제안된 예술인복지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하고 정책의 기초토대로서 부산의 문화예술생태계의 지형에 대한 면밀한 탐구가 필요함.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정, 보완하여 지역의 실정과 상황에 적절한 예술인복지정책이 되도록 노력함

3. 세부 정책과제 연차별 소요예산(5개년)

* 2018년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산 총 1,004백만원

구분	과제명	사업비(백만원)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총계	소계	10,390	1,320	2,115	2,225	2,260	2,470	-
추진 과제	1.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1-1. 사회보험 이음사업 4대보험 가입상담/지원	90	40	25	25	-	-	-
	1-2. 예술인 주거지원	1,300	-	250	300	350	400	지속
	1-3. 부산 예술인 건강보험 지원	1,700	-	350	400	450	500	지속
	2. 예술인 직업환경 개선							
	2-1. 부산 문화예술분야 사례비 가이드라인	300	100	150	50	-	-	신규 실행
	2-2. 부산 예술인학당	250	50	50	50	50	50	확대
	2-3. 예술활동 사각지대 해소	50	10	10	10	10	10	지속
	3. 예술인 지역상생 확대							
	3-1. 반딧불이 사업확대	1,500	200	250	300	350	400	확대
	3-2. 굿모닝예술인 사업확대	3,250	550	600	650	700	750	확대
	3-3. 부산형 예술인 패스지원	300	-	60	70	80	90	확대
기반 과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강화							
	• 조례개정 및 인력 충원	1,000	200	200	200	200	200	확대
	•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550	150	150	150	50	50	신규 실행
	• (가칭) 예술인복지 선도도시 지정 요구	-	-	-	-	-	-	-
	• (가칭) 예술인권익위원회 설치	100	20	20	20	20	20	지속

참고문헌

• 보고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6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예술인 고용보험 및 복지금고 도입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 제2차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 박조원 외, 『주요 국가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3
- 배재정, 예술인소셜유니온 준비위원회, 『예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 문화연대, 2014
- 부산광역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민선7기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 부산광역시. 2018
-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우리 시대 예술을 이해하는 8개의 정책 키워드』,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 2018
-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2018
- 새문화정책준비단 외,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을 위한 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 2018
- 이규석, 박영정, 이승엽, 오혜경 외,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 예술경영지원센터, 200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분야 단가조사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예술인 맞춤형 사회복지사업 개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6
- 한국예술경영연구소,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07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종합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인패스 발전방안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7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을 통한 혁신적 가치 창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7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규모 및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4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산재보험의 거의 모든 것』,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7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금고 재원조성 방안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7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 2017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1회~제4회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2013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지원체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2
- 한국재정분석연구원,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복지정책수립 보고서』, 부산광역시, 2015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요 국가 예술인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3

• 논문 및 문서

- 강신하, 「공정한 이용료 및 대우 못받는 청년예술가들: 문화예술(만화·웹툰/일러스트 분야) 불공정 실태조사」, 『저작권문화』vol.276,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 강익희, 「문화예술 인력의 복지현황과 개선과제」, 『KOCCA 포커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 노재철, 「예술인의 직업적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vol.18, 한국콘텐츠학회, 2018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2018년도 예산(일반회계) 집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8
- 박영정, 「〈예술인 복지법〉내용과 추진방향」,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vol.11, 제주문화예술재단, 2012
- 박시영,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 대한 제언 - ‘예술인’의 정의 및 해외(독일, 프랑스) 사례와의 비교」, 『중소기업과 법』vol.10,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서울특별시, 「‘저작권 뺏고, 대금 안 주고’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특별시, 2017
- 안채린, 「‘예술인 근로자 의제’에 대한 재 고찰」, 『예술경영연구』vol.45, 한국예술경영학회, 2018, 47p
- 이민, 김지영,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술인 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무용학회지』vol.16, 한국무용학회, 2016
- 이원재, 「예술인 복지 정책의 현재성과 개선방안」, 『예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2014
- 이종승, 「예술인 복지 정책, 당연권리인 사회보장제도에 진입하기 위하여」, 『연극평론』vol.88,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18
- 전민정, 「서울시 ‘서울예술인플랜’ 발표 -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문화+서울』 10월호, 서울문화재단, 2016
- 정다정, 「제18,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비교 연구」, 『문화산업연구』, 한국문화산업학회, 2016
- 한석진, 김선애, 「공연예술인을 위한 해외복지제도 조사 및 분석 - 수혜대상 가입조건을 중심으로」, 『한국무용학회지』vol.17, 한국무용학회, 2017, 57-66p

• 기사

- 국제뉴스, 「진선미,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2018.09.14.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1740>
- 국제신문, 「부산시,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내년부터 상설운영」, 2018.10.30.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031.22007013426>
- 경남신문, 「[수요문화기획] 경남 예술인 복지 어디까지 왔나」, 2018.09.04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60780>
- 뉴스1, 「“2022년까지 예술인 복지금고 1500억 조성한다”」, 2017.08.29.
<http://news1.kr/articles/?3085715>
- 뉴스1, 「한정애,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법안 발의」, 2018.11.07.
http://www.news1.com/view/?id=NISX20181107_0000466144&cID=10201&pID=10200
- 매일노동뉴스, 「정부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추진 - 노동부·문체부 “용역계약 예술인에 적용, 내년에 도입”」, 2018.07.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59>

머니투데이, 「230만 특고·39만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의결...실업급여 등 혜택 전망」, 2018.08.06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0610462580445>

시사매거진, 「김영주 의원,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11.11.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67#09ne>

영남일보, 「[창작하기 좋은 대구 만들기.2]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2018.09.19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0919.010090725330001>

• 웹사이트

법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수성문화재단 <http://www.sscf.or.kr/main/index.htm>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http://insurancesupport.or.kr/>

또따또가 <http://www.tttg.kr/>

문화누리카드 <http://www.mnuri.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부산광역시 <http://www.busan.go.kr/>

부산광역시 공약&매니페스토 <http://promotion.busan.go.kr/>

부산문화재단 <http://www.bsfc.or.kr/>

부산청년플랫폼 <http://www.busan.go.kr/young/>

서울문화재단 <http://www.sfac.or.kr/>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http://www.kawfartist.kr/>

예술인패스 <http://artpass.kawf.kr/>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http://www.fkmwu.org/>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 <http://www.jbaw.or.kr/>

전문무용수지원센터 <http://www.dcdcenter.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www.arte.or.kr/>

한국연극인복지재단 <http://plays.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부록

FGI 결과

○ 예술인, 예술인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 예술인복지정책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회적 공감의 필요성

- 과연 예술인이 지원, 보호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술인 안에서도 논의가 이뤄지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합의,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예술가들에게 선별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의 오해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 선별적인 복지정책보다 보편적인 복지로서 예술인복지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예술의 노동적 가치, 댓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 낮다.
- 예술가들이 은행 방문 시 직업란을 무직으로 처리하고, 대출 진행에 한계가 있는 등 예술가의 신분과 직업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예술인복지정책 수혜기준

- 예술인의 범위, 수혜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전업인지 겸업의 차이, 예술에 대한 투여시간, 조건 등 개념 규정과 범위, 문화예술특성을 반영하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예술인복지정책의 수혜기준이 모호하다. 같은 상황의 예술가들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런 선정과정의 모호성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가에게 신뢰도가 낮다.
- 활동하고 있는 영역 내 민간에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단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 복지정책이 돌보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활동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술활동증명의 기준이나, 복지정책 수혜기준이 모호하다 생각한다.

■ 예술인복지정책 체감

- 예술복지정책이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절실하나, 현재는 실효성이 전무하다.
- 주변 예술인 중 관련 예술인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어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주변 예술인들이 많이 생각한다.
- 예술인복지정책 초창기부터 요구하는 사항들 다 진행했는데 결론적으로 도움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 한국형 예술인복지사업의 시작이 사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구성되다 보니 너무나도 많고 다양한 요청들이 있고 그에 대응하다보니 사업들이 난발되고 있지 않나 싶다. 선택과 집중의 단계가 필요하다.
- 예술인복지 지원 초반, 최고은 작가 사건 이후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각되어 예술가를 구제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듯한 인식이 있었다.
- 예술인복지정책 자체가 본질에 대한 집중보다 사후보완책으로 지엽적으로 진행되어 더더욱 예술인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 현재 예술인 복지정책이 예술인복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느껴지긴 한다. 직접적인 체감은 없지만 이런 게 시작이 되었구나 느낌이 든다. 예술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도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구나 싶다.
- 예술가복지라는 개념이 예술가에게 창작활동의 시간을 확보를 해주고, 보장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사업형식들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지원사업과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한다. 예술가의 노동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 크다.
- 단발적인 지원정책이라고 생각이 든다. 사업 선정자들을 보면 실제 필요한 사람보다 권력적으로 작동하는 느낌도 들었다.
- 정권, 당선자 등에 따라 예술정책의 지원 예산이나 사업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진다. 이 달라진 것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때 책임자가 없다. 어느정도 최소한의 바뀌지 않는 틀(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 문화예술을 운영의 입장에서 정책들이 급변해서 최저임금 등 경제적인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준비할 수 있는 과정,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막상 예술가들을 위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사업들이 탄력적으로 예술가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 예술활동증명을 다른 예술인들에게 권했던 이유는 예술인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혜택이 당장 없어도 예술인을 위한 정책이 드무니까 일단 무조건 해라고 권장했다. 사실 가입을 하고 혜택을 받은 게 없었다. 혜택설명도 미비했지만 예술인들이 반응을 보여줘야 정책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한다.

■ 서울 중심의 예술인복지정책에 대한 비판

- 예술인복지정책이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서울에서는 혜택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만, 부산, 지역에서는 혜택이 거의 없다.
- 관련 사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지역인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속 가야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 예술활동증명이 서울 지역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라 진행했지만, 특히 부산에서의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 예술활동증명 조건이 실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산은 실적을 낼 수 있는 활동이 한정적이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증명받기 까다롭다.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예술인이 아니게 되는 시스템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대한 의견

<행정업무>

- 예술인들에게 매개활동과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하도록 강요하는 시스템(e-나라도움 등)들이 불합리하다.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등록업무를 지원해주는 등의 행정적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엄청난 서류를 내야하고, 자기 소득 뿐만 아니라 가족소득까지 밝혀야해서 증명의 과정이 불합리하다 느꼈다.

<창작지원금>

- 창작지원금은 일반적인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추가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실제 생활영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청년예술인들이 창작준비금 등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청년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으면 한다.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 등의 예술가들의 경우 진입에 어려움이 많다. 이와 관련해 예비예술가들이 예술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청년예술인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해봤으면 한다.

〈파견지원사업〉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 시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아 좋았으나 파견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들을 봤을 때 교육강사 등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층위가 다양해 예술인의 경계가 모호해보였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파견사업은 다른 지역 예술가 협업과정, 경제적인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퍼실리테이터 역할 등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 최근 예술인파견지원사업으로 예술가를 매칭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작가와의 협업으로 예술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사업을 바라보는 등 좋은 자극이 되고 있다.
- 일자리파견사업은 서울까지 가야했고, 실제 계획서와 다른 활동을 하는 등 참여한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 이후 사업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 파견사업의 경우, 예술가에게 창작활동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또다른 활용으로써 기업에 가서 노동을 해야 돈을 준다 이런 논리들이 깔려있다고 느낀다.
- 파견지원사업에 예술가가 문화단체에 가면 역량을 펼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으나, 사기업으로 가면 폭력적인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이 참가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나 장기적인 복지라기 보다 단기적인 지원정책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예술인패스〉

- 예술인패스를 쓰는 예술인들이 없다. 실제 공연, 전시회는 예술가 지인에게 초대받는 것이 금액적으로 더 저렴하다. 단순 할인제도 외에 바우처 기능을 첨가해 예술가가 필요한 책, 재료 사는 등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예술인패스의 내용은 예술인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실질적으로 예술인패스의 내용(할인, 입장 등)들은 실제 일반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이 예술가의 작품을 보고,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내 예술저변이 확대 되고, 일반시민과 예술가가 연결되어 전폭적으로 시민이 예술가를 지지하고, 나아가 생태계 양성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예술인패스 할인에 대해 부산이 할인적용이 작은 이유는 무료입장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인패스를 특화시킨다면 기존할인에 중복할인을 해준다던가, 할인율을 높여주던가 현실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어야한다.
- 예술인패스의 혜택 중 부산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 문화바우처와 같이 예술인이 예술인패스를 써서 할인을 받으면 그만큼의 예술단체에게 혜택이 돌아오면 좋겠다. 그럼 예술단체 내 홍보도 활성화 될 것이다.
- 공간을 운영하면서 예술인패스 할인을 항상 명시해놓지만 사용한 적을 본 적 없다.
- 경제활동에 대한 예술인패스가 필요하다.

〈사대보험 지원〉

- 직장이 있다가 무직의 상태여서 사대보험 관련 보험금이 부담스러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대보험 관련 지원사업을 살펴봤었는데 그 프로세스가 다시 직장이나 어디 소속에 들어가야 받는 상황이었다. 이게 과연 예술인 창작활동증진이라고 볼 수 있을까. 보통 직장에 들어가서 하는 거랑 다를 바 없어 유명무실하게 느껴졌다.
- 사대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예술인이 사회적 안전망에 속해지려면 일반인과 같은 보편적인 시스템에 들어가야 국가·지자체에서 하는 사회적 지원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예술단체의 경우, 프로젝트 기반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4대보험 관련 지원이 된다면 가입할 의향은 있다.
- 4대보험은 들고싶었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지원제도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기타>

- 의료지원도 지정된 병원에 가야 10~20% 할인 정도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작은 혜택을 받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해당 병원까지 가는 수고스러움을 하지 않는다. 매달 내는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내준다던가, 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을 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 관한 의견

■ 센터에 대한 의견: 홍보문제, 인력부족

- 부산문화재단 1층에 있다는 것은 알아도 방문해본 적은 없다.
- 예술활동증명이 주업무인 줄 알았고, 관련 타사업이 있는지 몰랐다.
- 주변 많은 문화단체, 예술가들이 부산에서 이뤄지는 예술인복지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다.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연간 사업스케줄이 공지되어 있지 않아 예술인마다 각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미리 계획하고 매칭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세우고 미리 공지해줬으면 좋겠다.
- 예술인복지정책에 대한 홍보 폭이 매우 좁고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분명 예술인등록을 하면서 연락처나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했을텐데 그걸 잘 활용하는 지 의문이다. 그냥 등록만 시키고 마는, 그걸 활용해서 지역예술가들에 대한 파악이 안되는 것 같다.
- 예술활동증명 자체를 독려하고 사대보험 가입권유 등 도움이 된 부분은 있다.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들이 분야마다 잘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과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사업 구분이 모호하다. 두 사업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경우 활동증빙이 많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사업처럼 부산 예술인복지지원센터도 문화예술지원방식에 증빙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인력이나 역량, 예산에 비해 사업은 많아지고 있어 예술인 복지 사업을 잘 만들어가기 어렵다. 취·창업, 일자리마련을 무리하게 넣고 거기에 대한 반감이 크다.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 센터장이 없는 것이 말이 안된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다.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자체가 전담인력이 맡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
- 사업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담당 전문인력이 부재한 것이다. 소통의 과정이 아쉬웠으며 부산 예술인복지지원센터 내 직원분들의 업무강도가 너무 높으며, 피로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정규인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 센터가 복지전담 전문인력이 아닌 재단직원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사업이나 인력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작년까지 코디네이터 분이 예술활동증명 하라고 적극 홍보를 하던데 그것 외에 전체적인 교육이나 활동들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단지 예술활동증명 해야된다고 해서 그게 꼭 실적주의처럼 느껴져 거부감이 들었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와 지역예술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고민이 부족하지않나 싶다.

■ 사업에 대한 생각

<굿모닝 예술인 - 부산 예술인파견지원사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지원사업을 진행했었고, 주변 예술가들에게 부산 파견지원 예술인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프로세스가 많이 달라 당혹스러웠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은 인터뷰를 진행할 때 전혀 관계없는, 심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채점하는 형태이며, 예술가가 원하는 기업을 작성하고 기업과 신청한 예술가들이 매칭이 되는데 부산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기업이 작가를 선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굿모닝 예술파견지원 사업 중 기업이 원하는 분야와 비인기분야가 있는 것 같다. 장르별로 특성에 따라 가지적인 결과가 나오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는 분야가 있어서 그런데 비인기분야로서 상처아닌 상처를 받긴 했다.
- 파견사업 같은 경우 퍼실리테이터가 부재하다 보니 예술인이 의견이 기업으로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면접이라는 과정도 예술가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파견사업은 퍼실리테이터가 있으나, 부산의 경우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직원이 코디를 겸하여 일의 강도도 너무 높고, 집중도도 떨어진다. 파견사업의 경우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이 크기 때문에 부산의 경우에도 중간 매개자의 역할이 커졌으면 좋겠다.
- 기업의 입장에서 굿모닝 파견지원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진행매뉴얼 개선이 우선이다. 예술인과 기업이 실제 원하는 대상을 찾기 위한 매칭 전담인력(퍼실리테이터)이 필요하다. 퍼실리테이터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센터 직원겸 코디네이터가 한 달에 한번 형식적인 진행만 한다.
- 굿모닝 파견지원사업을 하면서 기업, 만나는 사람들마다 시간이 너무 짧은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 굿모닝 파견지원사업의 형태가 기업에서 희망사항을 제안하고, 예술가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 능력을 제안을 하고 그게 매칭되는 형태인데 기업에서 순위를 정해서 뽑아서 예술가의 입장에서선 자존감이 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굿모닝 파견지원사업이 경제적인 이유로 만족도가 높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결과 부분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해마다 1회성으로 신청, 진행 해야하고, 장르별로 예술가들이 파견의 성격이 안맞는 게 많다. 이런 매칭과정을 개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주로 문제가 예술인과 기업의 소통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서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 파견지원사업의 경우 1년 정도는 파견조사기간으로 봤으면 좋겠다. 예술가와 기업의 상호소통으로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해는 그것을 순위별로 지원하는 형태로 2년 단위의 사업진행이 필요하다. 지금의 형식은 너무 단기적이다.
- 파견예술인지원사업 자체는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예술인과 매칭을 계기로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스터디를 하는 식의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기존과 다르게 시도하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
- 현재 파견예술인지원사업을 진행 중인데 모니터링을 너무 자주 오는 편이고, 감시의 느낌이 있다. 모니터링 온 담당자의 피로도도 심각해보였다. 모니터링 사업 목적을 재정립하고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 상공회의소와 협약해 실제적인 기업과 연계해서 예술가를 한명씩 고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파견지원이 결국 예술단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건 예술가파견이 아니라 예술단체 운영지원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반딧불이 - 예술가 입주 및 창작공간 활용>

- 현재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반딧불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 참여단체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 빈집지원도 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하면 더 좋은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2호점, 8호점(행복마을센터 유희공간 사용) 정도가 시설이 괜찮은 상태이고, 다른 곳은 시설이 정말 미비하다고 알고 있다.
- 시설에 대해 미비하긴 하나,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큰 편이다.

- 시설 조성은 바닥과 벽면페인트, 벽지 등 정도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다.
- 계약단위는 1년이며 최대 3년. 협의에 따라 계속 진행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 시민향유 프로그램 집행에 대해서도, 올해까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총 600만원으로 정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전달받았다.
- 커뮤니티아트 베이스의 기획자 단체라 시민향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단체에겐 재밌게 느껴지나, 다른 순수예술이나 예술가의 입장에서선 힘들어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단순 창작공간지원의 형태가 아니긴 하다.

<법률상담 및 심리치료>

- 법률상담은 실제 생활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빈도가 높지 예술활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그다지 실효성 없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
- 부산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 운영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을까 접근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실제 예술인에게 도움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해야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의례적인 행사로 비춰진다.

○ 예술인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

■ 복지정책의 인식 개선

- 예술인 복지정책이 구제가 아닌 권리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정책은 우선적으로 기초작업이 필요하다. 계획적으로 단계적인 성과와 최종 목표에 가깝다는 실感が 부족하다.
- 예술인복지사업의 가장 근간은 데이터베이스사업이라 생각한다. 전수조사가 잘되어있어야하는데 우리나라에 예술인관련 아카이브 시설이 전무하지 않다. 이런 전수조사는 필수적이다.
-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복지의 개념이나 왜 예술가들이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와야하는지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한다.
- 예술인이 어떤 노동을 제공하고 활동하고 있는지, 예술의 가치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 현재 예술인복지정책이 예술활동증명과 표준계약서, 창작지원금이 강조되어 있는데, 다음 단계를 도모해야한다. 예술가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궁극적으로 예술인의 인격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 지역에서 예술인복지정책이 사회적동의를 얻기 위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슬로건을 만들어 홍보를 해야된다 생각한다.
- 영화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에 제작영화만 체크되고, 영화제나 관련 부속행사들의 경력같은 경우 취급되지 않는데 이런 활동도 예술활동증명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단순 복지가 아니라 권익차원으로 정책이나 사업이 설계되어야한다.
- 기업가들에게 예술의 노동적 측면에 대해 교육했으면 좋겠다.

■ 예술활동의 세분화와 확대

- 아직까지도 진화하는 과정으로 각 장르별 특성에 따른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 세분화를 위한 기초 예술조사가 필요하다.
- 소외받는 분야 혹은 지나치게 관심을 받는 분야 등 기초자료 전수조사가 세심하게 필요하다.

- 이런 이야기를 듣는 자리처럼 예술가를 수면위로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공통된 주제를 통해서 다각도로 예술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 예술인 안의 층위가 나누어져야한다. 예술의 형태, 층위, 연령대가 만큼 정책도 다양화되어야 한다.
- 분야별 상황이 다른 만큼 예술분야별 정책연구가,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 지금 파악되어있는 예술활동증명 예술가들을 모아서 분과별로 회의를 하여 아젠다를 도출하는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 예술활동증명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음악 분야의 기획자로 증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기획자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 예술활동증명에 기획자, 축제감독, 매개자는 예술활동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개자도 예술활동증명에 포함되지 않는 건 고쳐야할 사항이다
- 예술활동증명의 형평성 문제는 계속 발생했던 문제다. 기획·매개 인력까지 포함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관련 예시로 프랑스 사례를 보면 문화예술분야에서 500시간 이상 일을 했으면 등록이 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문화예술종사자가 육성되고, 나아가 전체적인 문화예술 저변확대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예술영역에서 기획자의 역할도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창작환경, 직업환경 개선

- 예술인복지정책이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환경조성이 더 우선시 되어야한다.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원받지 않아도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한다.
- 창작활동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주었으면 한다. 창작비용 지원보다 실제 예술가가 예술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현장지원 등 이런 게 진정한 예술인복지라고 생각한다.
- 복지라는 것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환경에 대한 지원이나 권익보호, 법률이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에서 강조되었으면 좋겠다.
- 복지정책에 사대보험 등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실제 예술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는 게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예술가들은 다른 일반사회에 비해 터무니 없을만큼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의 통로를 열어주던가, 정책이 매개자역할로 작용하는 정책이 만들어졌음 좋겠다.
- 부산 굿모닝파견지원사업에 대해 예술가의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이 확실히 규정되었으면 좋겠다. 사업 중 저작권 관련 교육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인 작업결과물에 대한 원본, 사본이용관계에 대해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 굿모닝 파견지원사업 중 예술작업이 아닌 채용의 형태로 접근하는 기업이 있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기업을 교육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 문학의 경우 원고료 지원정책이 시행되서 최저원고료가 지정되었는데 부산의 경우 2005년은 5,000 원 수준으로 정지되어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터무니 없는 비용이라 최저원고료는 필요하다.

■ 부산예술인복지정책수립의 주안점 : 지역 상생

- 성장기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와닿는 사업과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창작이 만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예술가가 몸담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일반시민들이 예술가들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기업과 예술가가 만나는 접점을 넓혀가고, 이런 접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지역예술인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고 알려주는 시스템이나, 언제든지 예술가와 지역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예술가가 동네에 함께 있을 때 동네가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

- 예전에는 예술가는 자유롭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예술가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협업의 측면을 강화해 예술가도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 중앙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이 필요한 아젠다를 발굴해 내고 지역예술인과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 요즘 부산에 재생사업이나 마을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예술가들이 많이 매칭되었으면 좋겠다.
- 문화예술예산 뿐만 아니라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과 협업해서 상생의 네트워크를 만들면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지역에서 예술인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극장이라던지 도서관이라던지 지역예술가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지 그들의 이름이라도 새겨놓는다면 시민들도 어떤 예술가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 서로가 자긍심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 아파트 설립 시 조형물 1%의 규칙처럼 아파트 만들 때부터 문화공간을 지정해서 지역에 문화예술인 프라가 조성될 수 있게 만들어줬음 좋겠다.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개선사항

■ 행정적 지원

- e나라도움 시스템을 없애주는 게 복지다.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코디네이터를 양성해줬으면 좋겠다. 행정 과정에 쏟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
- 단체를 전문예술단체로 증명할 경우 요구되는 행정서류나 절차가 많이 복잡한 편이라 이런 부분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 최근 바뀐 정산업무 e-나라도움 같은 경우 부산에는 설명회를 하고 말았으나, 광주는 매달 한번씩 집중교육을 했었다. 이런 정산업무를 도와주는 게 예술인 복지측면이 아닐까 생각한다.
- 예술인정책사업에 4시즌제를 도입해 예산 집행이 끝나는 겨울에도 계속적으로 예술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한다.
- 과감하게 사업을 줄이더라도 예술인 전담 홍보전문가가 필요하다. 행정적 용어가 어려워 복지대상임에도 복지를 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많다. 특히 장르별 전담 예술인복지 홍보 코디네이터가 양성되어야 한다.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예술인들에게 e나라도움을 도와주는, 행정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 지원사업에 대해 예술인이 주최자가 되었을 때.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에 대한 기획비, 인건비가 전혀 지급이 안된다. 이 부분은 꼭 개선이 필요하다.
- 문화예술 회계기준 2년으로 늘리면 좋겠다. 예술인들의 지원현황이 1~3월달까지 너무나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 생활지원

- 부산에 유희공간이 많은데 유희공간 활성화에 대해 예술가에게 공간제공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감만창의문화촌처럼 예술가들이 편하게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을에 많이 생기고, 예술가가 마을에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 노후준비 보다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 예술인마켓 등 예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 식당, 병원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줬음 한다.
- 산발적인 사업보다는 기초적인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특히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당장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이나 장학금 등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줬음 좋겠다.
-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재단 및 센터의 인력 등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의 복지 먼저 챙겼으면 한다.
- 예술인 의료복지 혜택을 줄 때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빈도조사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의료복지 혜택을 줬으면 한다.
- 당장의 지원이 복지보다 눈에 잘 보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률상담과 의료서비스등 기초지원프로그램과 복지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육아·자녀교육 지원이 된다면 가장 큰 자부심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생각한다.
- 여러 사업을 열거해놓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예술인 지원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법률적 지원, 저작권, 기존 사회복지제도와와의 연계, 의료지원 등 예술인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한다.

■ 센터 역할 강화

-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부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라면 자체 정책을 가지고 독립되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형식적으로 중앙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올 수 밖에 없다.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 예술을 위해 전반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이 진행해야 한다. 예술가가 아니라 역량강화 및 복지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 부산문화재단과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직원 업무과중이 매우 심각하다. 작은 인원에 너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된다.
- 부산문화재단과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엄청나게 낮다. 사업별로 임시직 고용을 채용하나,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담당자가 여러번 바뀌어 사업 집중도가 낮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심각한 사항이다.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내에 별도의 예술인권익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 예술인 스스로 이야기가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으며, 그 단체의 존재만으로도 예술인과 사회가 체감하는 것이 다를 것이다.
- 예술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라면 지역 내 문제, 이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 입장표명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와 성폭력상담지원센터 모두 부산문화재단이 통솔하고, 재단 내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익명성 보장이 전혀 되지 않으며, 좁은 지역사회에서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
- 예술인 생존권과 관련하여 부산문화재단의 문제를 고발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법률상담이나 민원을 제기할 곳이 부산문화재단인 것이 부담이다. 부산문화재단에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속해있으면 사실 그런 도움을 받기 힘들다 생각한다.
- 지역예술가들을 규합해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예술인의 목소리를 모으는 시간과 정책에 반영되는 시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은 부산 내 이뤄지는 워크숍, 포럼 등 필요에 의한 행사들 홍보가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전략이 필요하다. 영화 분야는 평균제작비라고 관련 계산서가 있어서 출연자수, 얼마 입력을 하면 예상 제작금액이 나와 그 예산에 따라서 (금액에 평균보다 낮을 시) 표준계약서 작성유무의 자율권을 주기도 하는 등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예술경영센터 등 다른 곳은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술활동증명이 되어있어도 관련 사업에 대해 홍보가 전혀 없다.

2018 부산 예술인 실태 및 복지만족도 조사 보고서

2018. 12

제 출 문

부산문화재단 귀중

본 보고서를
「2018 부산 예술인 실태 및 복지만족도 조사」 용역의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주식회사 동남리서치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11
1. 조사 목적	11
2. 조사 추진 경과	11
3. 조사 설계	12
4. 자료 처리 및 분석	13
5. 조사 내용	14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17
I. 응답자 특성	17
1. 성별	17
2. 연령	19
3. 결혼상태	21
4. 주거형태	23
5. 거주 지역	25
6. 응답자 특성 요약	27
II. 예술활동 분야	29
1. 예술 분야	29
2. 주 활동분야 첫 활동(데뷔) 방식	32
3. 주 예술 분야 활동 기간	34
4. 주 활동분야 활동 유형	36
5. 지난 3년 간 예술활동 발표 횟수	38
III. 고용형태 및 근로 환경	41
1. 전업 예술인 여부	41
1-1. 전업 예술인 고용형태	43
2. 최근 3년 간 예술활동 주 수입원	45
3. 최근 3년 간 예술활동 관련 연간 평균 수입	47
4. 연간 수입액 중 예술활동 수입액 비중	49
5. 예술활동 시 계약 체결 경험 유무	51

5-1. 예술활동 시 체결 계약 형태	53
5-2. 예술활동 시 체결 계약의 이행 정도	55
5-2-1. 예술활동 시 체결 계약의 분쟁 발생 유형	57
6. 불공정 계약 강요당한 경험 유무	59

IV. 생활 및 복지 61

1. 공적연금 가입 유형	61
1-1.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	63
1-2. 국민연금 납부액 일부 지원 시 가입 의향	65
2. 건강보험 가입 유형	67
3. 고용보험 가입 여부	69
3-1.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	71
3-2. 고용보험 납부액 일부 지원 시 가입 의향	73
4. 산재보험 가입 여부	75
4-1.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	77
4-2. 산재보험 납부액 일부 지원 시 가입 의향	79
4-3. 업무상 재해 발생 정도	81
4-4. 재해 보상 여부	83
5. 실업급여 수혜 경험	85
5-1. 실업급여 수혜횟수	87
5-2. 실업급여 수혜금액	89
6. 예술활동 과정에서 업무상 상해 경험 유무	91
7. 노후생활 대비 여부	93
7-1. 노후생활 대비 방법	95

V. 예술 정책 및 만족도 97

1. 생활 만족도	97
2. 예술창작을 위한 필요 요소	102
3.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기 위해 중요한 점	104
4.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점	106
5.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부산시 중점 정책	108
6. 부산 예술인 관련 중요 복지 정책	110
7. 예술인복지법 사업 중요도	112
8. 부산에서의 예술활동 이유	122

9. 예술활동증명 인지도 124
 9-1. 예술활동증명 인지 경로 126
10. 예술활동증명 신청 완료 여부 128

제3장. 조사 결과 요약 133

별첨. 설문지 147

제1장. 조사 개요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인의 직업·생활 및 복지 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기적인 조사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2(실태조사)에 근거하며,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본 조사는 부산에 거주하거나 부산을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예술인의 창작여건, 생활실태, 복지수요 등을 파악하여 향후 부산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됨

2. 조사 추진 경과

일정	추진 내용
‘18. 08. 17 ~ 08. 31	· 설문지 내용 검토 및 확정
‘18. 08. 20 ~ 09. 05	· 조사대상 명부 확보
‘18. 09. 06 ~ 09. 10	· 온라인 조사 화면 제작
‘18. 09. 11 ~ 10. 31	· 조사 실시
‘18. 11. 01 ~ 11. 09	· 데이터 처리 및 통계분석
‘18. 11. 10 ~ 11. 30	· 보고서 작성

3. 조사 설계

항목	내용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및 우편 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함																																																																										
조사 대상	· 11개 예술 분야(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중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부산을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예술인 · 조사대상 명부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제공하거나 유관 기관 협조를 통하여 확보 - 2016-18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예술인 명단 - 2016-18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행 완료자 명단 - 부산예총 및 민예총 회원 명부																																																																										
표본 수	· 2,000명																																																																										
표본 추출	<p>· 모집단의 상세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워 11개 예술 분야별 모집단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예술 분야별 규모에 비례하여 목표 표본 수를 사전에 할당하지는 못하였으며, 확보된 명부의 비율을 최대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를 진행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분야</th> <th colspan="2">조사대상 명부</th> <th colspan="2">유효 표본</th> </tr> <tr> <th>명</th> <th>%</th> <th>명</th> <th>%</th> </tr> </thead> <tbody> <tr> <td>문학</td> <td>749</td> <td>12.2</td> <td>381</td> <td>19.1</td> </tr> <tr> <td>미술</td> <td>2,745</td> <td>44.5</td> <td>695</td> <td>34.8</td> </tr> <tr> <td>음악</td> <td>970</td> <td>15.7</td> <td>393</td> <td>19.7</td> </tr> <tr> <td>무용</td> <td>363</td> <td>5.9</td> <td>104</td> <td>5.2</td> </tr> <tr> <td>연극</td> <td>250</td> <td>4.1</td> <td>132</td> <td>6.6</td> </tr> <tr> <td>영화</td> <td>130</td> <td>2.1</td> <td>52</td> <td>2.6</td> </tr> <tr> <td>연예</td> <td>112</td> <td>1.8</td> <td>28</td> <td>1.4</td> </tr> <tr> <td>국악</td> <td>370</td> <td>6.0</td> <td>133</td> <td>6.7</td> </tr> <tr> <td>사진</td> <td>37</td> <td>0.6</td> <td>47</td> <td>2.4</td> </tr> <tr> <td>건축</td> <td>215</td> <td>3.5</td> <td>25</td> <td>1.3</td> </tr> <tr> <td>만화</td> <td>4</td> <td>0.1</td> <td>10</td> <td>0.5</td> </tr> <tr> <td>미분류</td> <td>219</td> <td>3.6</td> <td>-</td> <td>-</td> </tr> <tr> <td>계</td> <td>6,164</td> <td>100.0</td> <td>2,000</td> <td>100.0</td> </tr> </tbody> </table>	분야	조사대상 명부		유효 표본		명	%	명	%	문학	749	12.2	381	19.1	미술	2,745	44.5	695	34.8	음악	970	15.7	393	19.7	무용	363	5.9	104	5.2	연극	250	4.1	132	6.6	영화	130	2.1	52	2.6	연예	112	1.8	28	1.4	국악	370	6.0	133	6.7	사진	37	0.6	47	2.4	건축	215	3.5	25	1.3	만화	4	0.1	10	0.5	미분류	219	3.6	-	-	계	6,164	100.0	2,000	100.0
분야	조사대상 명부		유효 표본																																																																								
	명	%	명	%																																																																							
문학	749	12.2	381	19.1																																																																							
미술	2,745	44.5	695	34.8																																																																							
음악	970	15.7	393	19.7																																																																							
무용	363	5.9	104	5.2																																																																							
연극	250	4.1	132	6.6																																																																							
영화	130	2.1	52	2.6																																																																							
연예	112	1.8	28	1.4																																																																							
국악	370	6.0	133	6.7																																																																							
사진	37	0.6	47	2.4																																																																							
건축	215	3.5	25	1.3																																																																							
만화	4	0.1	10	0.5																																																																							
미분류	219	3.6	-	-																																																																							
계	6,164	100.0	2,000	100.0																																																																							
조사 기간	· 2018년 9월 11일 ~ 10월 31일																																																																										

4. 자료 처리 및 분석

1) 자료 처리

□ 자료 처리 프로세스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과정을 거쳐 SPSS 20.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함



2) 자료 분석

□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 응답자별 설문내용 빈도 및 분포표상의 개괄적인 특성 파악, 상대적 백분율, 응답누적빈도 등

□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

- 서로 다른 항목 변수의 범주를 교차시켜 교차된 집계 분석표를 통하여 두 변수간의 상호 독립성이나 관련성 또는 개연성의 정도를 분석

□ 척도분석(Scale analysis)

- 일반적으로 산재된 응답빈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며, 본 조사에서는 만족도, 정책 중요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Likert Scale을 적용하고 항목별로 5점 척도의 평균을 활용함

5. 조사 내용

구분	세부 항목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결혼상태, 주거형태, 거주 지역
예술활동 분야	· 예술 분야 · 주 활동분야 첫 활동(데뷔) 방식 · 주 예술 분야 활동 기간 · 주 활동분야 활동 유형 · 지난 3년 간 예술활동 발표 횟수
고용형태 및 근로 환경	· 전업 예술인 여부 및 고용형태 · 최근 3년 간 예술활동 주 수입원 및 연간 평균 수입 · 연간 수입액 중 예술활동 수입액 비중 · 예술활동 시 계약 체결 경험 유무 · 예술활동 시 체결 계약 형태 · 예술활동 시 체결 계약의 이행 정도 · 예술활동 시 체결 계약의 분쟁 발생 유형 · 불공정 계약 강요당한 경험 유무
생활 및 복지	· 4대보험 가입 유형 · 4대보험 미가입 이유 · 4대보험 납부액 일부 지원 시 가입 의향 · 업무상 재해 발생 정도 및 재해 보상 여부 · 실업급여 수혜 경험 및 횟수, 금액 · 예술활동 과정에서 업무상 상해 경험 유무 · 노후생활 대비 여부 및 방법
예술 정책 및 만족도	· 생활 만족도 · 예술창작을 위한 필요 요소 ·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기 위해 중요한 점 ·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점 ·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부산시 중점 정책 · 부산 예술인 관련 중요 복지 정책 · 예술인복지법 사업 중요도 · 부산에서의 예술활동 이유 · 예술활동증명 인지도 및 인지 경로 · 예술활동증명 신청 완료 여부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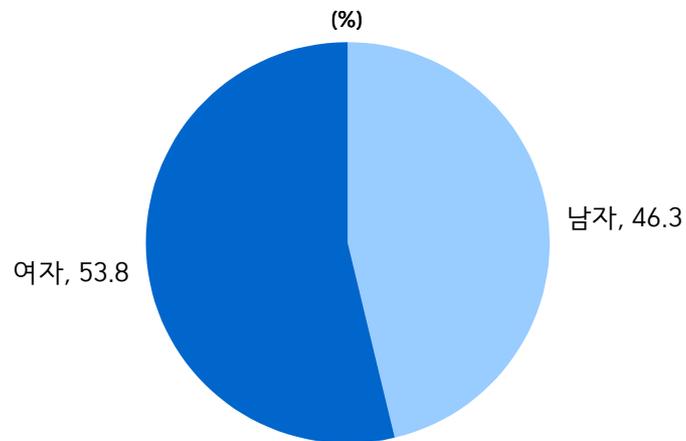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I. 응답자 특성

1. 성별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전체 응답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자 46.3%, 여자 53.8%임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남자	여자
전체		2,000	46.3	53.8
연령	30대 이하	579	37.3	62.7
	40~50대	865	43.7	56.3
	60대 이상	556	59.5	40.5
예술분야	문학	381	41.7	58.3
	미술	695	44.7	55.3
	음악	393	51.4	48.6
	무용	104	19.2	80.8
	연극	132	53.0	47.0
	영화	52	57.7	42.3
	연예	28	57.1	42.9
	국악	133	41.4	58.6
	사진	47	78.7	21.3
	건축	25	84.0	16.0
	만화	10	40.0	60.0
국민연금	가입	1,008	45.1	54.9
	미가입	992	47.4	52.6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45.8	54.2
	겸업 예술인	913	46.8	53.2
예술활동명	완료	795	48.4	51.6
	미완료	1,205	44.8	55.2
주거형태	자가	1,206	48.2	51.8
	전월세	653	45.9	54.1
	기타	141	31.2	68.8
결혼상태	기혼	1,257	50.2	49.8
	미혼	545	38.2	61.8
	기타	198	43.4	56.6
거주지¹⁾	동부산	747	44.0	56.0
	중부산	795	47.4	52.6
	서부산	284	45.4	54.6
	부산 외	174	51.7	48.3

- 응답자 특성 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예술인은 여자, 60대 이상은 남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술 분야별로는 무용과 만화 분야는 여자, 음악/연극/영화/연예/사진/건축 분야는 남자의 비율이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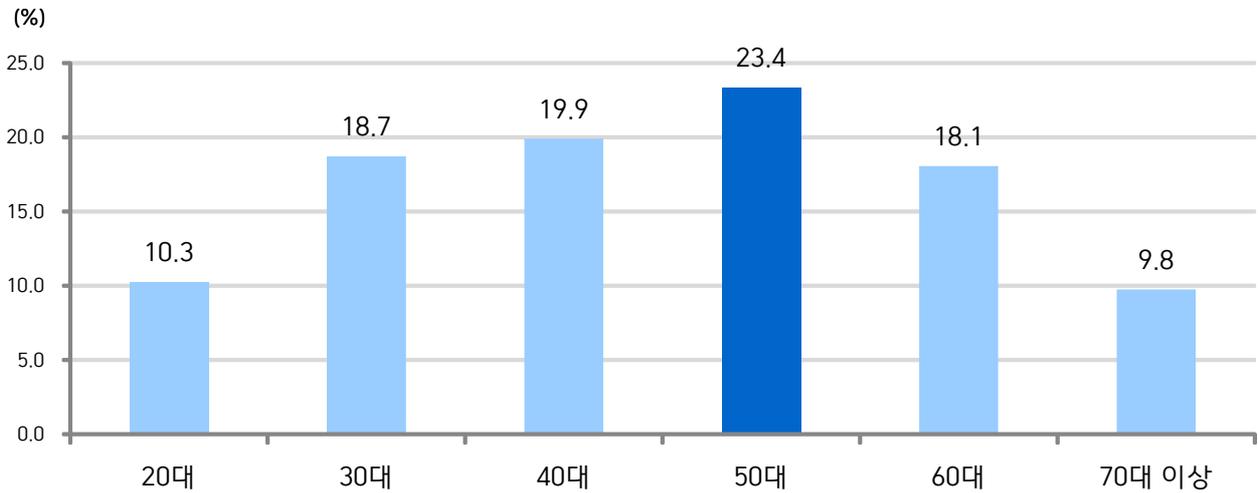
1) 지역 변수는 부산 지역을 아래와 같이 3개 권역별로 재부호화(recode)하여 분석에 활용함

- 동부산 : 해운대구, 기장군, 금정구, 동래구
- 중부산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 서부산 :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2. 연령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단위 : %]



-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10.3%, 30대 18.7%, 40대 19.9%, 50대 23.4%, 60대 18.1%, 70대 이상 9.8%로 나타남

- 응답 예술인의 평균 연령은 49.6세임

☞ 전체 응답 예술인의 연령대별 비율은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는 가운데,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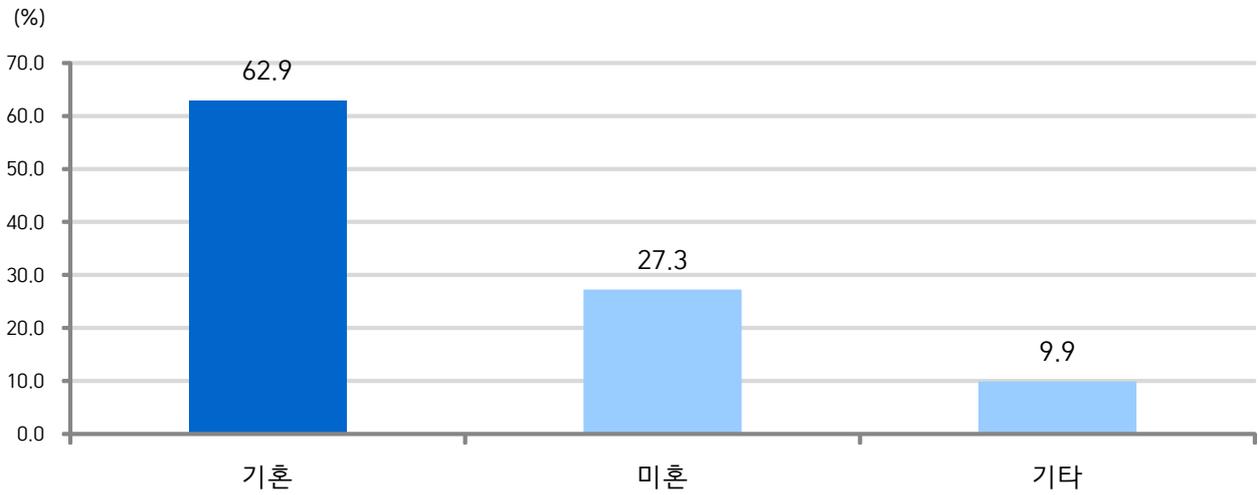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평균(세)
전체		2,000	10.3	18.7	19.9	23.4	18.1	9.8	49.6
성별	남자	925	7.5	15.9	19.8	21.1	19.7	16.1	52.5
	여자	1,075	12.7	21.1	20.0	25.3	16.7	4.3	47.2
예술분야	문학	381	1.6	5.0	7.6	28.3	34.6	22.8	60.5
	미술	695	7.2	18.0	16.8	27.6	20.1	10.2	51.5
	음악	393	13.2	23.9	31.3	20.1	7.4	4.1	44.2
	무용	104	21.2	28.8	22.1	19.2	5.8	2.9	41.6
	연극	132	26.5	29.5	27.3	13.6	1.5	1.5	38.3
	영화	52	30.8	36.5	13.5	11.5	7.7	0.0	37.8
	연예	28	10.7	7.1	25.0	7.1	35.7	14.3	53.7
	국악	133	10.5	25.6	24.8	21.8	13.5	3.8	45.8
	사진	47	8.5	17.0	17.0	17.0	29.8	10.6	51.6
	건축	25	0.0	4.0	44.0	20.0	24.0	8.0	53.4
	만화	10	30.0	30.0	40.0	0.0	0.0	0.0	34.7
국민연금	가입	1,008	7.5	20.3	24.3	27.0	15.6	5.3	48.6
	미가입	992	13.0	17.0	15.4	19.7	20.6	14.3	50.7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9.3	17.0	19.2	22.9	18.7	12.9	51.0
	겸업 예술인	913	11.4	20.7	20.7	23.9	17.3	6.0	48.0
예술활동증명	완료	795	10.7	22.3	17.4	21.6	17.6	10.4	49.1
	미완료	1,205	10.0	16.3	21.6	24.5	18.3	9.3	50.0
주거형태	자가	1,206	4.7	12.2	19.6	27.2	23.5	12.9	53.9
	전월세	653	16.7	27.4	20.8	19.6	10.1	5.4	44.1
	기타	141	27.7	34.0	18.4	7.8	8.5	3.5	38.9
결혼상태	기혼	1,257	0.8	11.9	22.2	29.4	23.1	12.6	54.6
	미혼	545	35.6	40.0	14.5	6.8	3.1	0.0	34.8
	기타	198	0.5	3.5	20.2	30.3	27.3	18.2	58.6
거주지	동부산	747	9.8	18.5	22.0	22.9	16.9	10.0	49.7
	중부산	795	9.8	19.4	18.2	23.9	18.5	10.2	49.8
	서부산	284	10.9	16.5	19.0	22.2	22.9	8.5	50.1
	부산 외	174	13.2	20.1	20.1	24.7	13.2	8.6	47.8

- 예술 분야별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문학이 평균 60.5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예 53.7세, 건축 53.4세, 사진 51.6세, 미술 51.5세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연극과 영화, 만화 분야의 평균 연령은 40대 미만으로 낮은 편임

3. 결혼상태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단위 : %]



- 전체 응답자의 62.9%가 기혼으로 나타났으며, 미혼 27.3%으로 응답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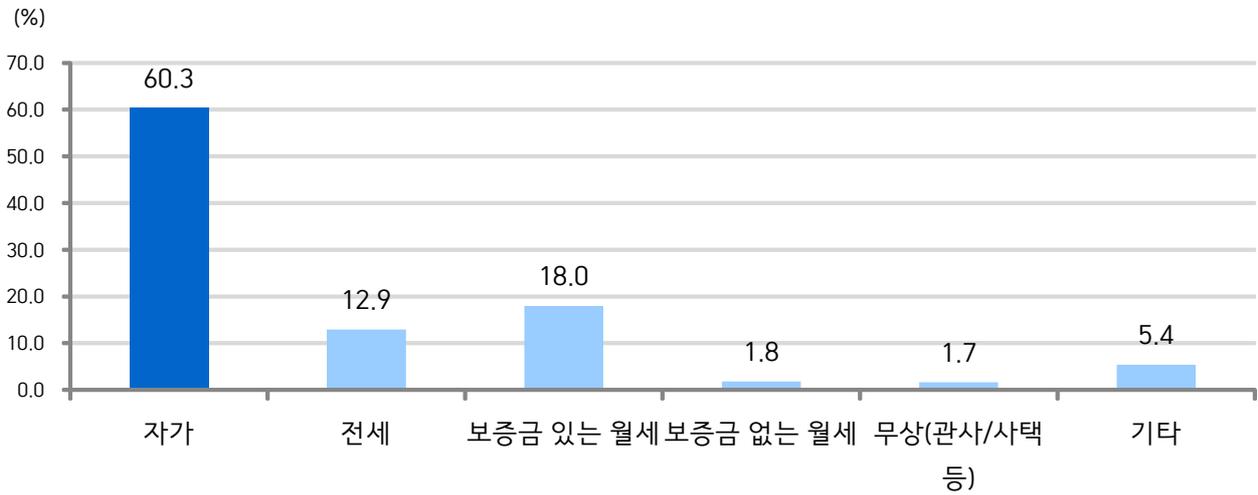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기혼	미혼	기타
전체		2,000	62.9	27.3	9.9
성별	남자	925	68.2	22.5	9.3
	여자	1,075	58.2	31.3	10.4
연령	30대 이하	579	27.5	71.2	1.4
	40~50대	865	75.0	13.4	11.6
	60대 이상	556	80.8	3.1	16.2
예술분야	문학	381	78.0	8.7	13.4
	미술	695	67.1	23.7	9.2
	음악	393	56.5	34.9	8.7
	무용	104	40.4	49.0	10.6
	연극	132	41.7	49.2	9.1
	영화	52	28.8	67.3	3.8
	연예	28	57.1	21.4	21.4
	국악	133	65.4	26.3	8.3
	사진	47	63.8	23.4	12.8
	건축	25	88.0	8.0	4.0
	만화	10	50.0	50.0	0.0
국민연금	가입	1,008	65.2	25.8	9.0
	미가입	992	60.5	28.7	10.8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63.7	25.4	10.9
	겸업 예술인	913	61.9	29.5	8.7
예술활동명	완료	795	58.1	30.3	11.6
	미완료	1,205	66.0	25.2	8.8
주거형태	자가	1,206	78.9	14.8	6.3
	전월세	653	43.2	40.6	16.2
	기타	141	16.3	72.3	11.3
거주지	동부산	747	65.3	25.6	9.1
	중부산	795	60.1	28.6	11.3
	서부산	284	64.8	25.7	9.5
	부산 외	174	61.5	31.0	7.5

- 문학과 건축 분야는 기혼, 음악과 무용, 연극, 영화 분야는 미혼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4. 주거형태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주거형태별로는 자가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증금 있는 월세 18.0%, 전세 12.9%, 보증금 없는 월세 1.8%, 무상(관사/사택 등) 1.7%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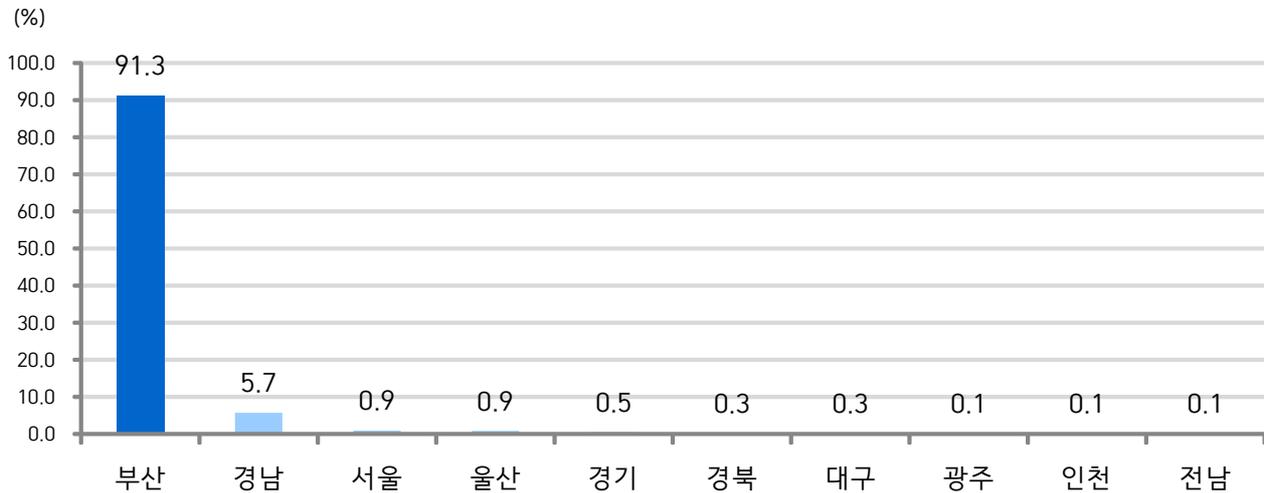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관사/ 사택 등)	기타
전체		2,000	60.3	12.9	18.0	1.8	1.7	5.4
성별	남자	925	62.8	12.2	18.4	1.8	1.2	3.6
	여자	1,075	58.1	13.5	17.6	1.8	2.0	7.0
연령	30대 이하	579	35.2	18.1	29.2	2.4	2.8	12.3
	40~50대	865	65.2	13.9	15.1	1.5	1.0	3.2
	60대 이상	556	78.8	5.9	10.6	1.6	1.4	1.6
예술분야	문학	381	74.3	6.6	12.6	1.6	2.4	2.6
	미술	695	63.7	12.9	14.2	1.7	1.7	5.6
	음악	393	52.4	16.3	19.6	2.3	1.0	8.4
	무용	104	52.9	16.3	22.1	0.0	1.0	7.7
	연극	132	36.4	16.7	37.9	3.0	1.5	4.5
	영화	52	44.2	11.5	40.4	0.0	0.0	3.8
	연예	28	53.6	14.3	17.9	7.1	3.6	3.6
	국악	133	54.9	17.3	18.8	2.3	1.5	5.3
	사진	47	68.1	6.4	21.3	0.0	2.1	2.1
	건축	25	88.0	8.0	4.0	0.0	0.0	0.0
	만화	10	60.0	20.0	0.0	0.0	10.0	10.0
국민연금	가입	1,008	62.1	13.7	16.3	1.2	1.3	5.5
	미가입	992	58.5	12.1	19.7	2.4	2.0	5.3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61.3	12.8	17.6	1.9	1.6	4.9
	겸업 예술인	913	59.1	13.0	18.4	1.6	1.8	6.0
예술종명	완료	795	53.5	11.9	23.5	2.1	2.0	6.9
	미완료	1,205	64.8	13.5	14.3	1.6	1.4	4.4
결혼상태	기혼	1,257	75.7	12.6	9.3	0.6	1.0	0.9
	미혼	545	32.7	13.8	31.2	3.7	2.8	16.0
	기타	198	38.4	12.6	36.4	4.5	3.0	5.1
거주지	동부산	747	61.3	13.3	18.2	0.9	1.2	5.1
	중부산	795	57.9	13.3	19.4	2.3	1.5	5.7
	서부산	284	65.5	10.6	14.1	1.8	2.1	6.0
	부산 외	174	58.6	13.2	16.7	3.4	3.4	4.6

- 30대 이하 예술인은 자가 비율은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 가운데,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문학과 사진, 건축 분야는 자가, 연극과 영화 분야는 보증금 있는 월세, 연예 분야는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30대 이하의 젊은 예술인과 연극과 영화 분야 예술인은 주거형태가 자가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전세나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대와 예술 분야별로 주거형태의 특징이 드러나는 편임

5. 거주 지역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전체 응답자의 91.3%가 부산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경남 5.7%, 기타 시/도는 거주 비율은 각각 1% 미만임

☞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부산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부산	경남	서울	울산	경기	경북	대구	광주	인천	전남
전체		2,000	91.3	5.7	0.9	0.9	0.5	0.3	0.3	0.1	0.1	0.1
성별	남자	925	90.3	6.6	0.8	1.0	0.6	0.3	0.2	0.1	0.0	0.1
	여자	1,075	92.2	4.9	1.0	0.7	0.4	0.3	0.3	0.1	0.1	0.0
연령	30대 이하	579	90.0	5.2	2.4	1.0	0.5	0.2	0.3	0.2	0.2	0.0
	40~50대	865	91.0	6.5	0.1	1.2	0.3	0.5	0.3	0.1	0.0	0.0
	60대 이상	556	93.2	5.0	0.5	0.2	0.7	0.2	0.0	0.0	0.0	0.2
예술분야	문학	381	93.7	5.2	0.3	0.5	0.3	0.0	0.0	0.0	0.0	0.0
	미술	695	89.2	7.1	1.0	0.9	0.7	0.6	0.3	0.1	0.1	0.0
	음악	393	91.3	5.6	0.8	1.0	0.5	0.3	0.5	0.0	0.0	0.0
	무용	104	94.2	4.8	0.0	1.0	0.0	0.0	0.0	0.0	0.0	0.0
	연극	132	90.2	4.5	3.0	1.5	0.0	0.0	0.0	0.8	0.0	0.0
	영화	52	90.4	1.9	5.8	1.9	0.0	0.0	0.0	0.0	0.0	0.0
	연예	28	82.1	14.3	0.0	0.0	3.6	0.0	0.0	0.0	0.0	0.0
	국악	133	94.0	3.8	0.0	0.8	0.8	0.0	0.8	0.0	0.0	0.0
	사진	47	97.9	0.0	0.0	0.0	0.0	0.0	0.0	0.0	0.0	2.1
	건축	25	92.0	8.0	0.0	0.0	0.0	0.0	0.0	0.0	0.0	0.0
	만화	10	90.0	0.0	0.0	0.0	0.0	10.0	0.0	0.0	0.0	0.0
국민연금	가입	1,008	91.0	6.3	0.7	0.7	0.6	0.5	0.1	0.0	0.1	0.1
	미가입	992	91.6	5.1	1.1	1.0	0.4	0.1	0.4	0.2	0.0	0.0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89.8	7.0	0.7	0.8	0.7	0.3	0.4	0.1	0.1	0.1
	겸업 예술인	913	93.1	4.2	1.1	0.9	0.2	0.3	0.1	0.1	0.0	0.0
예술종목명	완료	795	91.3	5.4	1.5	0.5	0.3	0.3	0.3	0.3	0.1	0.1
	미완료	1,205	91.3	5.9	0.5	1.1	0.7	0.3	0.2	0.0	0.0	0.0
주거형태	자가	1,206	91.5	5.8	0.5	1.0	0.4	0.4	0.2	0.1	0.0	0.1
	전월세	653	91.1	5.4	1.7	0.6	0.8	0.0	0.5	0.0	0.0	0.0
	기타	141	90.1	6.4	0.7	0.7	0.0	0.7	0.0	0.7	0.7	0.0
결혼상태	기혼	1,257	91.5	5.6	0.6	1.0	0.6	0.3	0.3	0.1	0.0	0.1
	미혼	545	90.1	5.7	1.8	0.9	0.6	0.4	0.2	0.2	0.2	0.0
	기타	198	93.4	6.1	0.5	0.0	0.0	0.0	0.0	0.0	0.0	0.0

- 연예 분야 예술인은 경남 지역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6. 응답자 특성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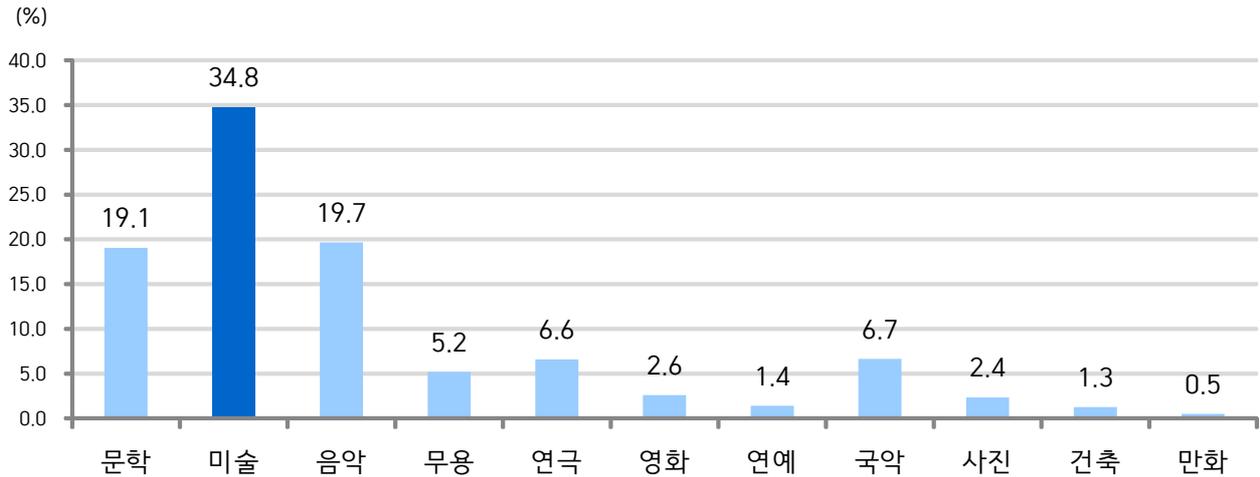
		빈도(명)	비율(%)
전체		2,000	100.0
성별	남자	925	46.3
	여자	1,075	53.8
연령	20대	205	10.3
	30대	374	18.7
	40대	398	19.9
	50대	467	23.4
	60대	361	18.1
	70대 이상	195	9.8
	[평균 : 49.6세]		
결혼 상태	기혼	1,257	62.9
	미혼	545	27.3
	기타	198	9.9
거주 형태	자가	1,206	60.3
	전세	258	12.9
	보증금 있는 월세	359	18.0
	보증금 없는 월세	36	1.8
	무상(관사/사택 등)	33	1.7
	기타	108	5.4
거주지	부산	1,826	91.3
	동부산	747	37.4
	중부산	795	39.8
	서부산	284	14.2
	부산 외 지역	174	8.7

Ⅱ. 예술활동 분야

1. 예술 분야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전체 응답자의 예술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술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음악 19.7%, 문학 19.1%, 국악 6.7%, 연극 6.6%, 무용 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 활동 분야

예술분야	주 활동 분야	빈도	비율	예술분야	주 활동 분야	빈도	비율	
문학	합계 : 381명 (19.1%)			연극	합계 : 132명 (6.6%)			
	시	171	8.6		연출	27	1.4	
	소설	48	2.4		연기	64	3.2	
	시조	26	1.3		기술스태프	7	0.4	
	수필	80	4.0		극작	4	0.2	
	아동문학	34	1.7		제작/기획	24	1.2	
	희곡	1	0.1		평론/이론	1	0.1	
	번역	1	0.1		기타	5	0.3	
	평론/이론	15	0.8	합계 : 52명 (2.6%)				
	기타	5	0.3	감독	19	1.0		
미술	합계 : 695명 (34.8%)			영화	연기	5	0.3	
	한국화	83	4.2		기술스태프	3	0.2	
	서양화	234	11.7		시나리오	10	0.5	
	조각	40	2.0		제작/기획	7	0.4	
	공예	98	4.9		평론/이론	2	0.1	
	서예	84	4.2		기타	6	0.3	
	판화	13	0.7	합계 : 28명 (1.4%)				
	디자인	50	2.5	배우	2	0.1		
	설치미술	34	1.7	대중가수	15	0.8		
	미디어아트	10	0.5	제작/기획	4	0.2		
	평론/이론	8	0.4	기술스태프	1	0.1		
	전시/기획	17	0.9	기타	6	0.3		
	기타	24	1.2	합계 : 133명 (6.7%)				
음악	합계 : 393명 (19.7%)			국악	기악	45	2.3	
	성악	71	3.6		소리(성악)	30	1.5	
	건박악	61	3.1		작곡	1	0.1	
	현악	54	2.7		민속극	3	0.2	
	관악	60	3.0		풍물(농악)	40	2.0	
	타악	14	0.7		전통춤	4	0.2	
	오페라	11	0.6		기타	10	0.5	
	지휘	10	0.5	합계 : 47명 (2.4%)				
	작곡/편곡	50	2.5	창작사진	35	1.8		
	평론/이론	5	0.3	보도사진	2	0.1		
감독/연출	14	0.7	상업사진	6	0.3			
기타	43	2.2	평론/이론	1	0.1			
무용	합계 : 104명 (5.2%)			사진	기타	3	0.2	
	한국무용	55	2.8		합계 : 25명 (1.3%)			
	발레	10	0.5		건축설계	18	0.9	
	현대무용	16	0.8		실내설계	1	0.1	
	평론/이론	4	0.2		구조설계	1	0.1	
	감독/연출	2	0.1		도시환경	2	0.1	
	기타	17	0.9	평론/이론	1	0.1		
	연예				건축	기타	2	0.1
						합계 : 10명 (0.5%)		
						만화작가	5	0.3
			평론/이론	1		0.1		
			기술지원/기획지원	1		0.1		
			기타	3	0.2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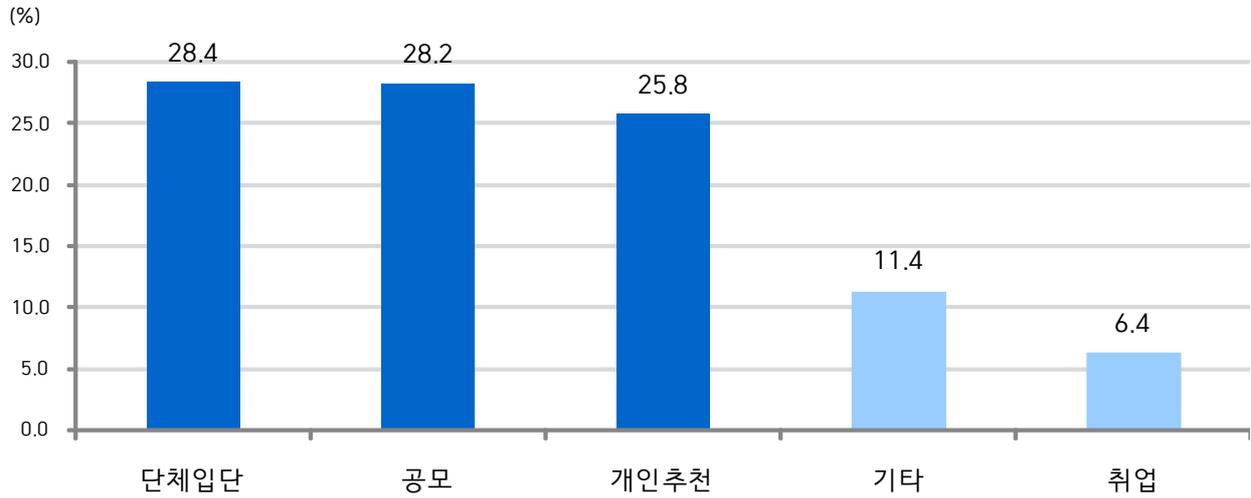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전체		2,000	19.1	34.8	19.7	5.2	6.6	2.6	1.4	6.7	2.4	1.3	0.5
성별	남자	925	17.2	33.6	21.8	2.2	7.6	3.2	1.7	5.9	4.0	2.3	0.4
	여자	1,075	20.7	35.7	17.8	7.8	5.8	2.0	1.1	7.3	0.9	0.4	0.6
연령	30대 이하	579	4.3	30.2	25.2	9.0	12.8	6.0	0.9	8.3	2.1	0.2	1.0
	40~50대	865	15.8	35.7	23.4	5.0	6.2	1.5	1.0	7.2	1.8	1.8	0.5
	60대 이상	556	39.4	37.9	8.1	1.6	0.7	0.7	2.5	4.1	3.4	1.4	0.0
국민 연금	가입	1,008	18.3	34.3	19.0	4.4	6.2	3.3	1.9	7.3	3.2	1.9	0.3
	미가입	992	19.9	35.2	20.3	6.0	7.1	1.9	0.9	5.9	1.5	0.6	0.7
직업 구분	전업 예술인	1,087	16.5	33.4	21.8	5.9	7.5	0.9	1.6	8.9	1.7	1.3	0.5
	겸업 예술인	913	22.1	36.4	17.1	4.4	5.5	4.6	1.2	3.9	3.1	1.2	0.5
예술 활동 증명	완료	795	23.5	31.4	17.0	4.2	8.9	1.9	1.4	7.9	3.3	0.3	0.3
	미완료	1,205	16.1	36.9	21.4	5.9	5.1	3.1	1.4	5.8	1.7	1.9	0.7
주거 형태	자가	1,206	23.5	36.7	17.1	4.6	4.0	1.9	1.2	6.1	2.7	1.8	0.5
	전월세	653	12.1	30.8	23.0	6.1	11.6	4.1	1.7	7.8	2.0	0.5	0.3
	기타	141	13.5	36.2	26.2	6.4	5.7	1.4	1.4	6.4	1.4	0.0	1.4
결혼 상태	기혼	1,257	23.6	37.1	17.7	3.3	4.4	1.2	1.3	6.9	2.4	1.8	0.4
	미혼	545	6.1	30.3	25.1	9.4	11.9	6.4	1.1	6.4	2.0	0.4	0.9
	기타	198	25.8	32.3	17.2	5.6	6.1	1.0	3.0	5.6	3.0	0.5	0.0
거주지	동부산	747	20.2	34.9	19.5	6.0	5.4	2.3	0.7	6.8	2.7	1.2	0.3
	중부산	795	18.0	32.2	19.6	5.2	8.6	3.0	1.4	7.2	2.6	1.5	0.8
	서부산	284	22.2	36.3	20.1	4.2	3.9	2.1	2.5	6.0	1.8	0.7	0.4
	부산 외	174	13.8	43.1	19.5	3.4	7.5	2.9	2.9	4.6	0.6	1.1	0.6

- 30대 이하는 음악과 연극, 60대 이상은 문학과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산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미술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2. 주 활동분야 첫 활동(데뷔) 방식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예술활동 분야 첫 활동(데뷔) 방식으로는 단체입단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모 28.2%, 개인추천 25.8%, 취업 6.4% 등의 순임

☞ 단체입단과 공모, 개인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술활동 분야에 첫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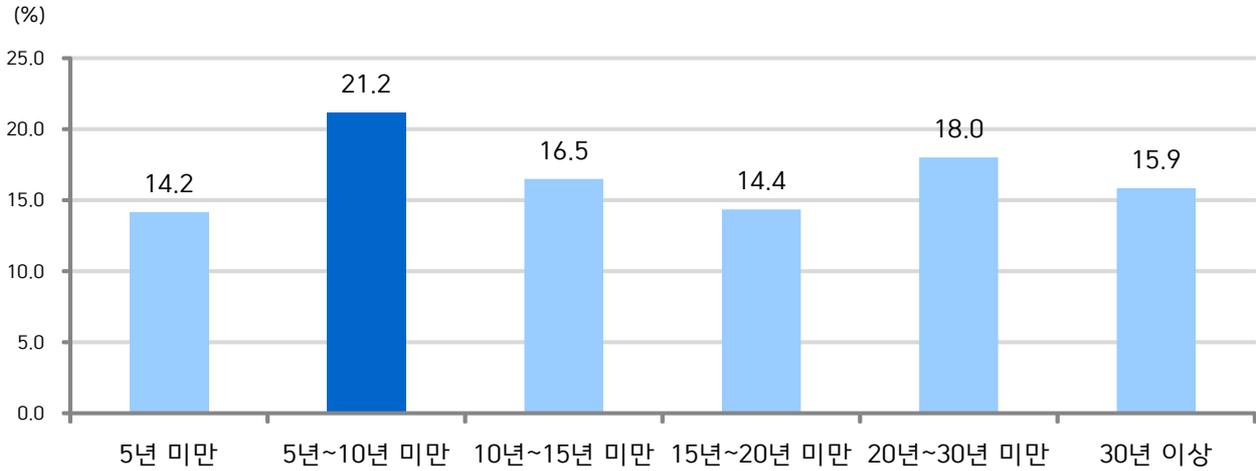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단체입단	공모	개인추천	취업	기타
전체		2,000	28.4	28.2	25.8	6.4	11.4
성별	남자	925	28.8	28.9	25.2	5.9	11.2
	여자	1,075	28.0	27.6	26.2	6.7	11.4
연령	30대 이하	579	29.5	20.4	27.8	9.2	13.1
	40~50대	865	31.1	28.6	22.9	6.2	11.2
	60대 이상	556	22.8	35.8	28.1	3.6	9.7
예술분야	문학	381	11.3	55.4	25.2	0.3	7.9
	미술	695	21.6	38.8	21.7	6.3	11.5
	음악	393	38.9	7.4	32.8	9.7	11.2
	무용	104	44.2	2.9	26.0	7.7	19.2
	연극	132	51.5	3.8	26.5	6.8	11.4
	영화	52	28.8	30.8	21.2	3.8	15.4
	연예	28	25.0	7.1	46.4	10.7	10.7
	국악	133	54.9	3.8	23.3	6.0	12.0
	사진	47	12.8	38.3	27.7	2.1	19.1
	건축	25	16.0	16.0	24.0	44.0	0.0
	만화	10	20.0	10.0	30.0	20.0	20.0
	국민연금	가입	1,008	27.8	29.6	24.6	7.4
미가입		992	28.9	26.8	26.9	5.2	12.1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30.4	25.4	26.2	7.4	10.7
	겸업 예술인	913	26.0	31.5	25.2	5.1	12.2
예술활동증명	완료	795	27.7	31.3	24.8	4.0	12.2
	미완료	1,205	28.8	26.1	26.4	7.9	10.8
주거형태	자가	1,206	27.9	31.7	25.2	5.7	9.5
	전월세	653	29.7	23.1	25.7	7.2	14.2
	기타	141	25.5	22.0	30.5	7.8	14.2
결혼상태	기혼	1,257	28.0	32.1	24.3	5.3	10.3
	미혼	545	29.5	20.4	28.4	9.2	12.5
	기타	198	27.3	25.3	27.3	5.6	14.6
거주지	동부산	747	28.0	27.7	27.0	4.8	12.4
	중부산	795	28.3	27.4	25.7	7.7	10.9
	서부산	284	28.5	30.6	22.9	6.7	11.3
	부산 외	174	29.9	29.9	25.3	6.3	8.6

- 예술 분야 첫 활동 방식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악과 무용, 연극, 국악 분야는 단체입단, 문학과 미술, 사진 분야는 공모, 음악과 연예 분야는 개인추천, 건축과 만화 분야는 취업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 주 예술 분야 활동 기간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주 활동 분야 활동 기간을 살펴보면, 5년 미만 14.2%, 5년~10년 미만 21.2%, 10년~15년 미만 16.5%, 15년~20년 미만 14.4%, 20년~30년 미만 18.0%, 30년 이상 15.9%로 응답됨

☞ 예술 분야 활동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51.8%, 15년 이상 48.2%로 기간별로 고른 분포를 보임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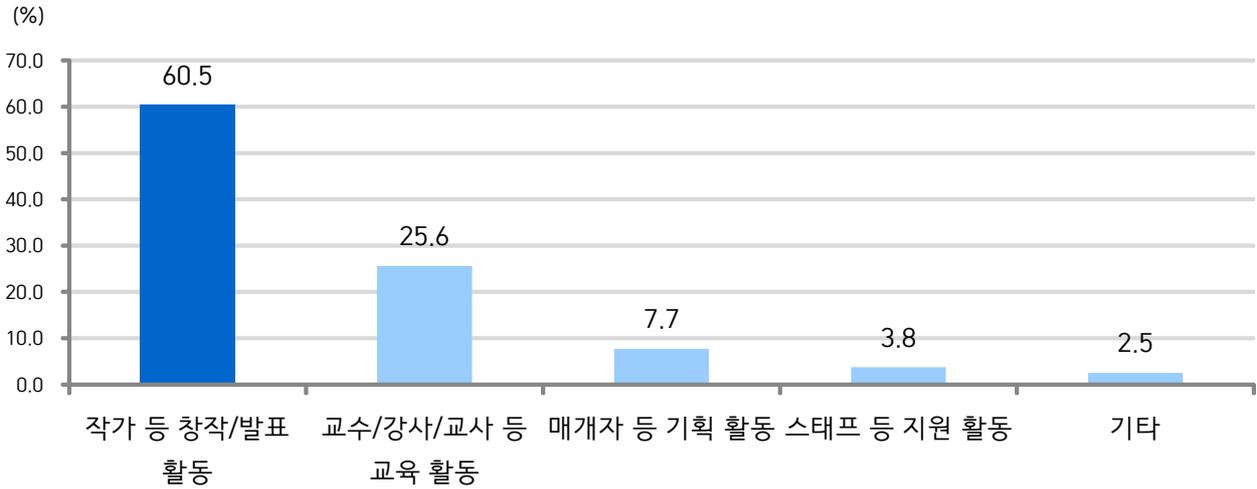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20년 미만	20년~30년 미만	30년 이상
전체		2,000	14.2	21.2	16.5	14.4	18.0	15.9
성별	남자	925	10.7	17.6	15.4	13.4	19.5	23.5
	여자	1,075	17.1	24.2	17.5	15.2	16.7	9.3
연령	30대 이하	579	34.0	34.7	21.8	7.9	1.2	0.3
	40~50대	865	7.5	17.1	14.2	18.3	29.6	13.3
	60대 이상	556	3.8	13.3	14.6	14.9	17.4	36.0
예술분야	문학	381	12.6	26.5	22.3	16.5	13.1	8.9
	미술	695	11.1	16.7	13.1	13.2	22.4	23.5
	음악	393	17.3	23.7	18.1	12.7	17.3	10.9
	무용	104	14.4	17.3	18.3	12.5	16.3	21.2
	연극	132	23.5	26.5	15.9	12.1	12.1	9.8
	영화	52	44.2	25.0	13.5	7.7	1.9	7.7
	연예	28	17.9	14.3	28.6	14.3	14.3	10.7
	국악	133	2.3	21.1	14.3	24.8	24.8	12.8
	사진	47	12.8	17.0	19.1	14.9	14.9	21.3
	건축	25	0.0	20.0	0.0	20.0	28.0	32.0
	만화	10	70.0	20.0	0.0	0.0	10.0	0.0
국민연금	가입	1,008	13.3	22.2	18.3	15.1	18.0	13.2
	미가입	992	15.0	20.1	14.7	13.6	18.0	18.5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10.3	18.0	15.9	14.8	20.1	20.9
	겸업 예술인	913	18.7	24.9	17.2	13.8	15.6	9.9
예술활동명	완료	795	11.9	22.5	20.4	14.5	16.6	14.1
	미완료	1,205	15.6	20.2	13.9	14.3	18.9	17.0
주거형태	자가	1,206	9.5	19.7	14.8	16.1	20.0	20.0
	전월세	653	19.6	22.5	19.6	12.6	15.6	10.1
	기타	141	29.1	27.7	16.3	7.8	12.1	7.1
결혼상태	기혼	1,257	7.4	17.9	16.1	17.5	21.4	19.7
	미혼	545	32.7	30.6	16.7	8.3	7.9	3.9
	기타	198	6.1	15.7	18.7	11.1	24.2	24.2
거주지	동부산	747	13.3	20.3	16.6	16.6	17.3	15.9
	중부산	795	13.8	21.1	16.5	14.2	18.2	16.1
	서부산	284	16.9	22.5	16.5	10.2	19.4	14.4
	부산 외	174	14.9	22.4	16.1	12.1	17.8	16.7

- 예술 분야별로 활동 기간을 살펴보면, 미술과 무용, 사진, 건축 분야는 30년 이상, 연극과 영화, 만화 분야 예술인은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업 예술인은 겸업 예술인에 비해 30년 이상 길게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편임

4. 주 활동분야 활동 유형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주 활동분야에서의 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작가 등 창작/발표 활동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수/강사/교사 등 교육 활동 25.6%, 매개자 등 기획 활동 7.7%, 스태프 등 지원 활동 3.8%의 순으로 응답됨

☞ 응답 예술인 10명 중 6명 정도는 창작/발표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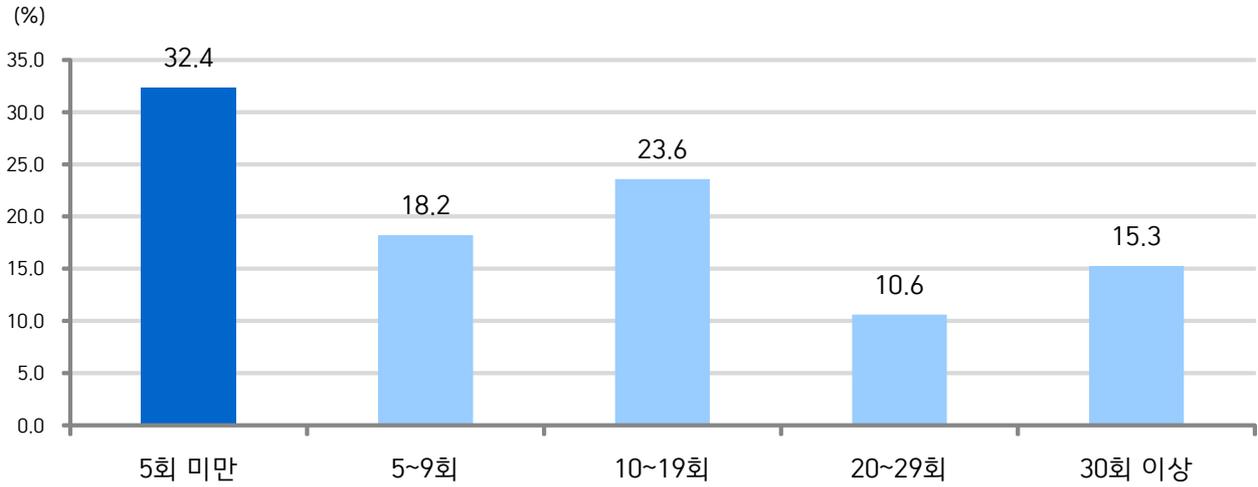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작가 등 창작/발표 활동	교수/강사/ 교사 등 교육 활동	매개자 등 기획 활동	스태프 등 지원 활동	기타
전체		2,000	60.5	25.6	7.7	3.8	2.5
성별	남자	925	64.3	21.1	7.8	4.4	2.4
	여자	1,075	57.1	29.5	7.6	3.2	2.6
연령	30대 이하	579	55.8	23.3	11.2	7.9	1.7
	40~50대	865	55.0	32.1	8.3	2.7	1.8
	60대 이상	556	73.7	17.8	3.1	1.1	4.3
예술분야	문학	381	84.0	10.0	4.7	0.8	0.5
	미술	695	67.5	25.0	4.0	1.3	2.2
	음악	393	38.2	44.3	11.2	4.3	2.0
	무용	104	43.3	43.3	8.7	1.0	3.8
	연극	132	60.6	12.9	14.4	12.1	0.0
	영화	52	40.4	11.5	17.3	26.9	3.8
	연예	28	53.6	7.1	10.7	7.1	21.4
	국악	133	44.4	33.8	9.8	6.8	5.3
	사진	47	70.2	6.4	10.6	6.4	6.4
	건축	25	48.0	28.0	16.0	0.0	8.0
	만화	10	50.0	10.0	20.0	10.0	10.0
국민연금	가입	1,008	58.9	24.8	10.3	3.6	2.4
	미가입	992	62.0	26.4	5.0	3.9	2.6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60.7	26.5	7.2	3.1	2.5
	겸업 예술인	913	60.1	24.5	8.3	4.5	2.5
예술활동증명	완료	795	70.7	17.7	6.8	3.1	1.6
	미완료	1,205	53.7	30.8	8.3	4.1	3.1
주거형태	자가	1,206	60.6	27.8	6.7	2.3	2.6
	전월세	653	60.2	21.9	9.5	6.1	2.3
	기타	141	60.3	24.1	7.8	5.0	2.8
결혼상태	기혼	1,257	62.2	26.9	6.7	1.8	2.4
	미혼	545	53.8	24.6	10.6	8.4	2.6
	기타	198	67.7	20.2	6.1	3.0	3.0
거주지	동부산	747	61.0	27.4	6.0	3.7	1.7
	중부산	795	58.7	25.7	8.7	4.3	2.6
	서부산	284	63.0	21.5	10.6	1.8	3.2
	부산 외	174	61.5	24.1	5.7	4.6	4.0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과 미술, 사진 분야는 작가 등 창작/발표 활동, 음악과 무용 국악 분야는 교수/강사/교사 등 교육 활동, 연극과 영화, 만화 분야는 매개자 등 기획활동과 스태프 등 지원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은 작가 등 창작/발표 활동, 미완료 예술인은 교수/강사/교사 등 교육 활동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5. 지난 3년 간 예술활동 발표 횟수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단위 : %]



- 지난 3년 간 예술활동 발표 횟수를 살펴보면, 5회 미만 32.4%, 5~9회 18.2%, 10~19회 23.6%, 20~29회 10.6%, 30회 이상 15.3%로 응답됨
- 지난 3년 간 예술활동 평균 발표 횟수는 14.9회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5회 미만	5~9회	10~19회	20~29회	30회 이상	평균(회)
전체		2,000	32.4	18.2	23.6	10.6	15.3	14.9
성별	남자	925	28.8	17.8	22.9	11.6	18.9	17.2
	여자	1,075	35.4	18.5	24.2	9.8	12.1	12.9
연령	30대 이하	579	36.8	18.7	21.8	10.2	12.6	13.3
	40~50대	865	28.8	19.2	24.2	11.1	16.8	16.2
	60대 이상	556	33.3	16.2	24.6	10.3	15.6	14.5
예술분야	문학	381	39.9	13.9	21.0	8.1	17.1	15.1
	미술	695	28.1	19.4	24.2	14.2	14.1	13.8
	음악	393	27.2	16.3	24.4	11.5	20.6	19.1
	무용	104	41.3	23.1	19.2	6.7	9.6	10.0
	연극	132	26.5	28.0	26.5	6.8	12.1	15.2
	영화	52	71.2	13.5	13.5	1.9	0.0	4.1
	연예	28	42.9	7.1	28.6	3.6	17.9	16.6
	국악	133	25.6	18.0	25.6	9.8	21.1	20.1
	사진	47	23.4	31.9	31.9	8.5	4.3	8.8
	건축	25	56.0	8.0	28.0	8.0	0.0	6.4
	만화	10	70.0	10.0	20.0	0.0	0.0	4.1
	국민연금	가입	1,008	32.2	18.2	22.7	12.0	14.9
미가입		992	32.5	18.2	24.5	9.2	15.6	14.5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25.4	18.8	24.9	12.6	18.3	17.1
	겸업 예술인	913	40.6	17.5	22.0	8.2	11.6	12.3
예술활동증명	완료	795	25.2	19.6	26.8	11.9	16.5	16.4
	미완료	1,205	37.1	17.3	21.5	9.7	14.4	14.0
주거형태	자가	1,206	31.0	17.1	24.7	10.9	16.3	15.4
	전월세	653	34.0	19.9	21.4	10.1	14.5	14.6
	기타	141	36.2	19.9	24.1	9.9	9.9	11.9
결혼상태	기혼	1,257	31.3	17.0	23.9	10.4	17.3	16.0
	미혼	545	35.4	20.2	21.8	11.2	11.4	12.7
	기타	198	30.8	20.2	26.3	10.1	12.6	14.1
거주지	동부산	747	30.1	18.1	25.2	10.0	16.6	16.2
	중부산	795	33.1	19.1	21.6	11.4	14.7	14.6
	서부산	284	36.6	15.5	23.2	8.5	16.2	13.1
	부산 외	174	31.6	19.0	26.4	12.6	10.3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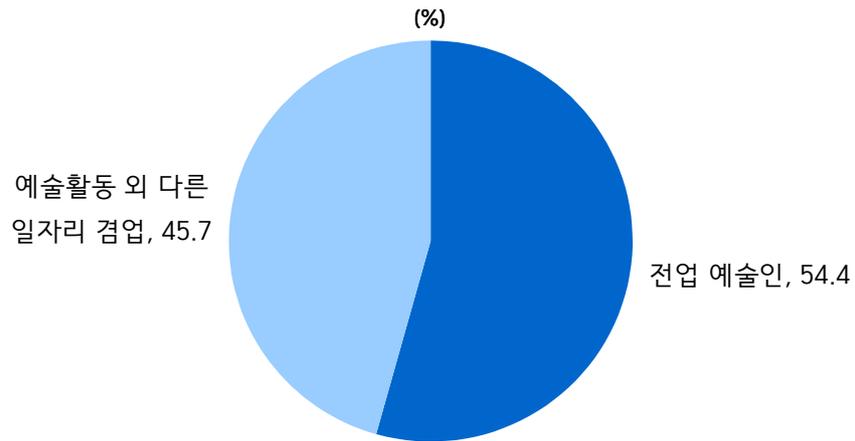
- 지난 3년 간 예술활동 발표 횟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악 분야 예술인은 평균 20.1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악 19.1회, 연예 16.6회, 연극 15.2회, 문학 15.1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겸업 예술인은 전업 예술인에 비해 예술활동 발표 횟수가 작은 편임

Ⅲ. 고용형태 및 근로 환경

1. 전업 예술인 여부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전체 응답자의 54.4%가 전업 예술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겸업 예술인이 45.7%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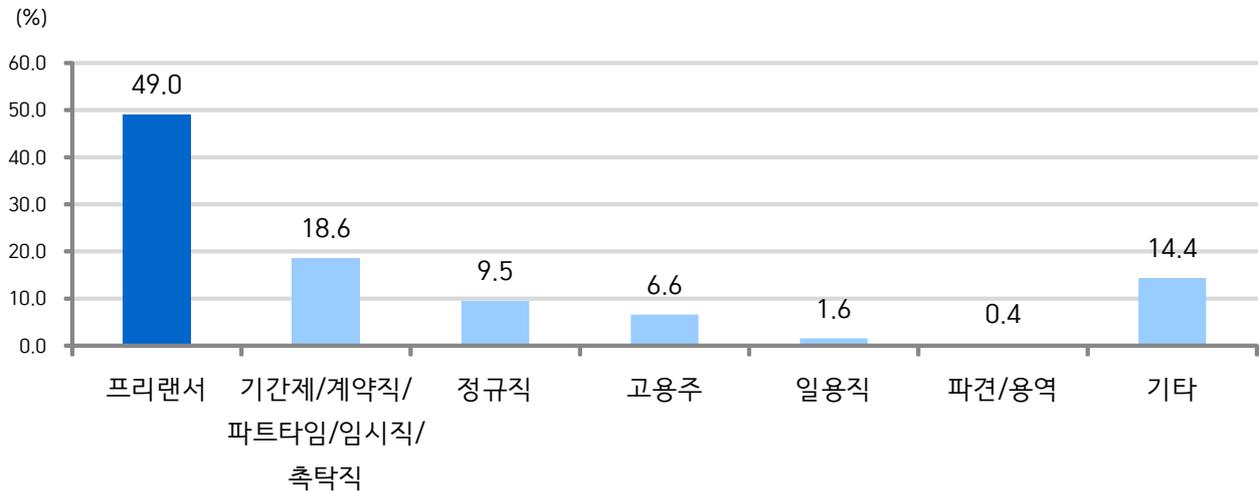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전업 예술인	겸업 예술인
전체		2,000	54.4	45.7
성별	남자	925	53.8	46.2
	여자	1,075	54.8	45.2
연령	30대 이하	579	49.4	50.6
	40~50대	865	52.9	47.1
	60대 이상	556	61.7	38.3
예술분야	문학	381	47.0	53.0
	미술	695	52.2	47.8
	음악	393	60.3	39.7
	무용	104	61.5	38.5
	연극	132	62.1	37.9
	영화	52	19.2	80.8
	연예	28	60.7	39.3
	국악	133	72.9	27.1
	사진	47	40.4	59.6
	건축	25	56.0	44.0
	만화	10	50.0	50.0
	국민연금	가입	1,008	50.1
미가입		992	58.7	41.3
예술활동증명	완료	795	61.4	38.6
	미완료	1,205	49.7	50.3
주거형태	자가	1,206	55.2	44.8
	전월세	653	53.8	46.2
	기타	141	49.6	50.4
결혼상태	기혼	1,257	55.1	44.9
	미혼	545	50.6	49.4
	기타	198	60.1	39.9
거주지	동부산	747	52.9	47.1
	중부산	795	55.5	44.5
	서부산	284	49.3	50.7
	부산 외	174	63.8	36.2

- 예술 분야별로는 음악과 무용, 연극, 연예, 국악 분야는 전업 예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문학과 영화, 사진 분야는 겸업 예술인 비율이 높은 편임
- 60대 이상이거나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은 상대적으로 전업 예술인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부산 외 지역 거주 예술인은 전업 예술인, 서부산 거주 예술인은 겸업 예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1-1. 전업 예술인 고용형태

□ 전체

[응답자 수 : 1,087명, 보기 제시, 단위 : %]



- 전업 예술인인 경우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프리랜서가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기간제/계약직/파트타임/임시직/축탁직 18.6%, 정규직 9.5%, 고용주 6.6%, 일용직 1.6%, 파견/용역 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전업 예술인 2명 중 1명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정규직 비율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한편, 특정한 고용형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거나 단순한 개인 작업, 취미,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스스로의 예술 활동을 규정하는 기타 응답 비율도 높은 편임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프리랜서	기간제/ 계약직/ 파트타임/ 임시직/ 촉탁직	정규직	고용주	일용직	파견/용역	기타
전체		1,087	49.0	18.6	9.5	6.6	1.6	0.4	14.4
성별	남자	498	52.0	11.8	11.4	8.6	1.2	0.4	14.5
	여자	589	46.5	24.3	7.8	4.9	1.9	0.3	14.3
연령	30대 이하	286	52.4	26.9	10.8	4.9	1.4	0.3	3.1
	40~50대	458	46.7	22.1	11.8	9.2	1.5	0.2	8.5
	60대 이상	343	49.3	7.0	5.2	4.7	1.7	0.6	31.5
예술분야	문학	179	55.3	10.1	1.7	0.0	1.7	0.6	30.7
	미술	363	56.7	11.8	3.6	7.2	1.1	0.3	19.3
	음악	237	43.0	30.8	14.3	5.1	2.5	0.4	3.8
	무용	64	50.0	31.3	9.4	3.1	3.1	0.0	3.1
	연극	82	37.8	18.3	18.3	19.5	1.2	0.0	4.9
	영화	10	60.0	20.0	10.0	0.0	0.0	0.0	10.0
	연예	17	52.9	5.9	5.9	0.0	0.0	5.9	29.4
	국악	97	36.1	26.8	23.7	5.2	1.0	0.0	7.2
	사진	19	57.9	15.8	5.3	10.5	0.0	0.0	10.5
	건축	14	0.0	0.0	35.7	64.3	0.0	0.0	0.0
국민연금	가입	505	46.3	22.4	9.1	9.3	1.2	0.6	11.1
	미가입	582	51.4	15.3	9.8	4.3	1.9	0.2	17.2
예술활동증명	완료	488	53.9	16.6	7.0	7.2	1.6	0.2	13.5
	미완료	599	45.1	20.2	11.5	6.2	1.5	0.5	15.0
주거형태	자가	666	47.1	17.9	10.4	6.6	1.2	0.3	16.5
	전월세	351	51.9	18.8	9.1	7.4	1.7	0.6	10.5
	기타	70	52.9	24.3	2.9	2.9	4.3	0.0	12.9
결혼상태	기혼	692	46.7	17.8	10.1	7.4	1.4	0.1	16.5
	미혼	276	55.1	23.6	9.4	4.0	2.2	0.7	5.1
	기타	119	48.7	11.8	5.9	8.4	0.8	0.8	23.5
거주지	동부산	395	49.6	20.0	8.4	7.6	1.8	0.3	12.4
	중부산	441	46.7	18.6	11.3	6.8	1.6	0.0	15.0
	서부산	140	50.7	14.3	10.0	5.0	1.4	0.0	18.6
	부산 외	111	54.1	18.9	5.4	4.5	0.9	2.7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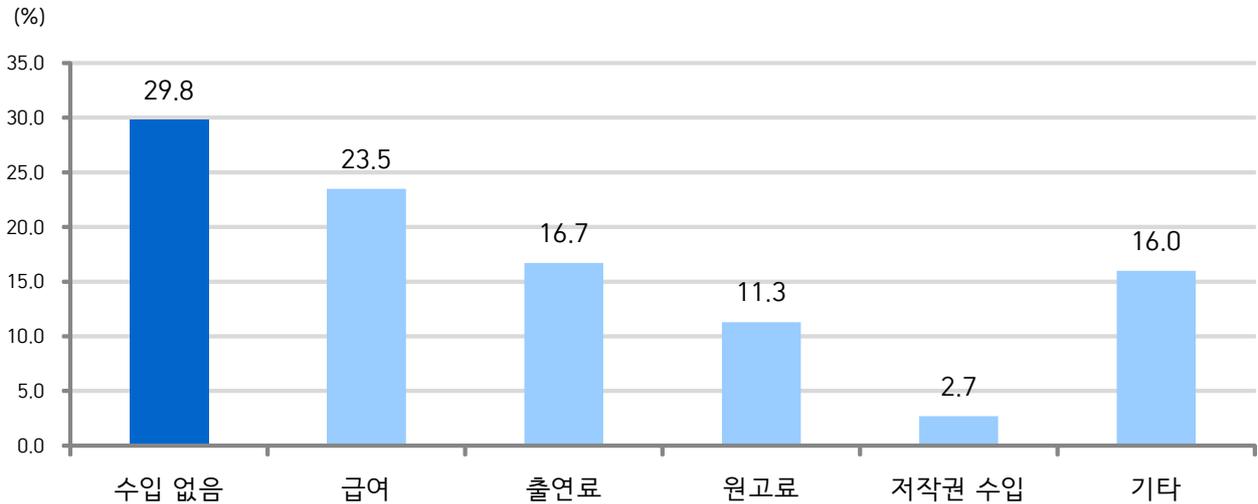
- 여자와 30대 이하 전업 예술인은 고용형태가 기간제/계약직/파트타임/임시직/촉탁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술 분야별로는 문학과 영화, 사진 분야는 프리랜서, 음악과 국악 분야는 기간제/계약직/파트타임/임시직/촉탁직, 연극과 건축은 정규직과 고용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2. 최근 3년 간 예술활동 주 수입원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최근 3년 간 예술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급여가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출연료 16.7%, 원고료 11.3%, 저작권 수입 2.7%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전체 응답자의 29.8%가 최근 3년 간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없다고 응답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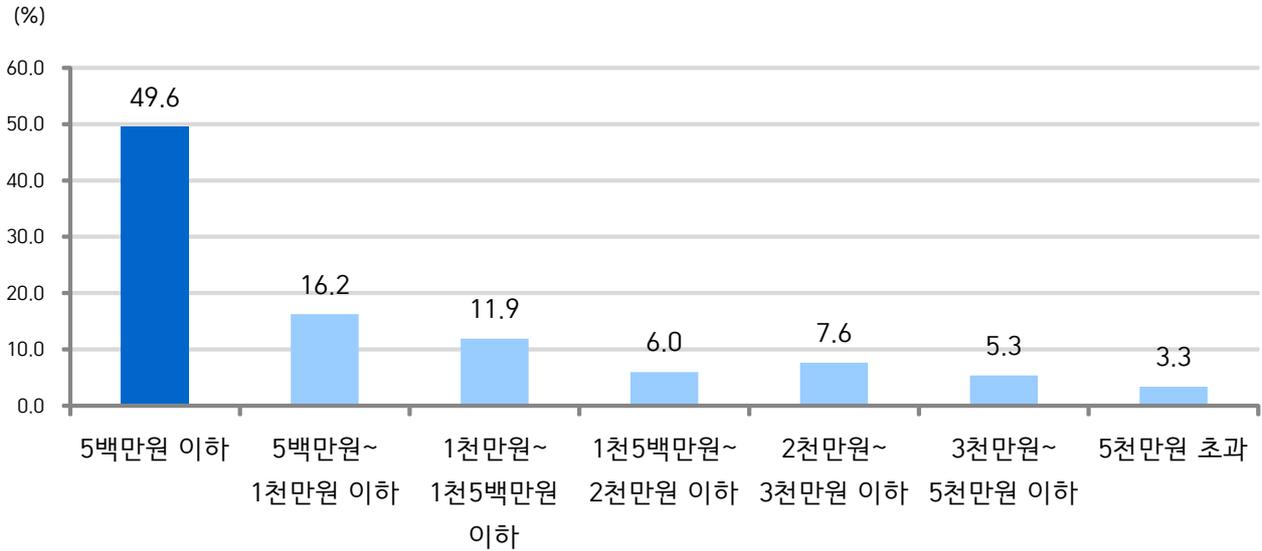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수입 없음	급여	출연료	원고료	저작권 수입	기타
전체		2,000	29.8	23.5	16.7	11.3	2.7	16.0
성별	남자	925	29.2	20.5	19.2	10.7	3.6	16.8
	여자	1,075	30.3	26.0	14.5	11.8	2.0	15.3
연령	30대 이하	579	22.1	30.7	26.6	4.1	2.1	14.3
	40~50대	865	23.6	28.0	16.1	10.3	2.9	19.2
	60대 이상	556	47.5	9.0	7.4	20.3	3.1	12.8
예술분야	문학	381	32.5	7.9	1.3	49.3	1.0	7.9
	미술	695	43.0	22.3	1.9	2.2	4.2	26.5
	음악	393	17.0	33.3	35.4	1.8	2.3	10.2
	무용	104	16.3	35.6	32.7	2.9	0.0	12.5
	연극	132	15.2	26.5	46.2	1.5	0.0	10.6
	영화	52	28.8	30.8	9.6	7.7	7.7	15.4
	연예	28	25.0	10.7	53.6	0.0	3.6	7.1
	국악	133	12.8	33.1	45.1	0.8	0.8	7.5
	사진	47	42.6	8.5	4.3	8.5	6.4	29.8
	건축	25	20.0	48.0	0.0	0.0	12.0	20.0
	만화	10	50.0	30.0	0.0	20.0	0.0	0.0
국민연금	가입	1,008	26.2	25.5	16.8	10.5	3.4	17.7
	미가입	992	33.5	21.5	16.6	12.1	2.0	14.3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24.9	24.5	18.6	11.6	2.9	17.5
	겸업 예술인	913	35.6	22.3	14.5	11.0	2.4	14.2
예술활동종명	완료	795	27.2	18.2	19.9	15.2	2.9	16.6
	미완료	1,205	31.5	27.0	14.6	8.7	2.6	15.6
주거형태	자가	1,206	31.9	22.9	12.6	13.4	2.9	16.3
	전월세	653	25.6	25.0	23.3	8.3	2.6	15.3
	기타	141	31.2	22.0	21.3	7.1	1.4	17.0
결혼상태	기혼	1,257	30.7	22.7	13.6	13.8	3.1	16.1
	미혼	545	25.1	29.4	25.3	5.0	1.8	13.4
	기타	198	36.9	12.6	12.6	13.1	2.5	22.2
거주지	동부산	747	29.6	23.7	16.2	12.0	2.8	15.7
	중부산	795	29.1	24.4	18.1	11.2	2.5	14.7
	서부산	284	34.9	17.6	14.8	11.3	3.2	18.3
	부산 외	174	25.9	28.2	15.5	8.6	2.3	19.5

- 60대 이상과 미술/사진/만화 분야, 겸업 예술인, 서부산권 거주 예술인은 지난 3년 간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예술 분야 특성에 따라 주된 수입원의 형식은 다양하게 나타남

3. 최근 3년 간 예술활동 관련 연간 평균 수입

□ 전체

[응답자 수 : 1,404명, 보기 제시, 단위 : %]



- 지난 3년 간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는 경우 연간 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5백만원 이하 49.6%, 5백만원~1천만원 이하 16.2%, 1천만원~1천5백만원 이하 11.9%, 1천5백만원~2천만원 이하 6.0%, 2천만원~3천만원 이하 7.6%, 3천만원~5천만원 이하 5.3%, 5천만원 초과 3.3%로 응답됨

☞ 최근 3년 간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는 예술인의 65.8%는 연간 평균 수입이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8.7%에 불과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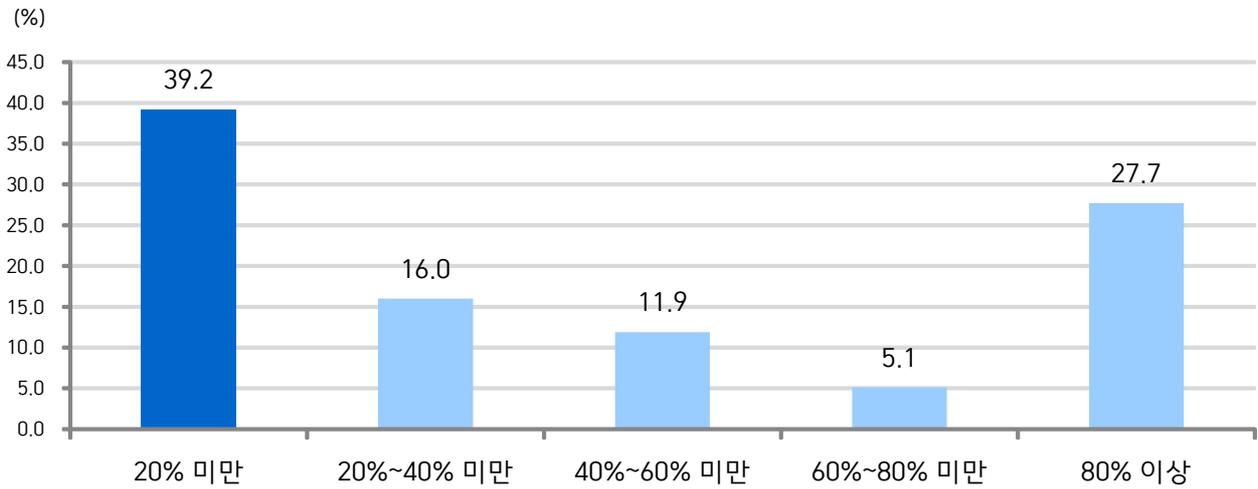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5백만원 이하	5백만원 ~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 1천5백만원 이하	1천5백만원 ~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전체		1,404	49.6	16.2	11.9	6.0	7.6	5.3	3.3
성별	남자	655	46.0	16.6	11.1	4.9	7.6	8.2	5.5
	여자	749	52.7	15.9	12.6	6.9	7.6	2.8	1.5
연령	30대 이하	451	41.9	19.1	15.1	8.0	10.9	4.0	1.1
	40~50대	661	46.0	15.3	12.7	6.7	7.4	7.4	4.5
	60대 이상	292	69.5	14.0	5.1	1.4	3.1	2.7	4.1
예술분야	문학	257	88.7	5.4	3.5	0.4	0.8	1.2	0.0
	미술	396	41.9	19.4	13.9	7.1	8.1	4.5	5.1
	음악	326	40.2	20.6	13.8	5.8	9.2	6.1	4.3
	무용	87	39.1	17.2	14.9	14.9	9.2	4.6	0.0
	연극	112	51.8	17.0	13.4	8.0	5.4	2.7	1.8
	영화	37	43.2	21.6	16.2	2.7	5.4	10.8	0.0
	연예	21	33.3	28.6	9.5	9.5	4.8	14.3	0.0
	국악	116	32.8	15.5	14.7	7.8	16.4	10.3	2.6
	사진	27	59.3	3.7	11.1	3.7	11.1	11.1	0.0
	건축	20	5.0	15.0	5.0	0.0	15.0	25.0	35.0
	만화	5	20.0	0.0	20.0	20.0	20.0	0.0	20.0
국민연금	가입	744	45.0	15.2	13.8	7.8	11.2	4.8	2.2
	미가입	660	54.7	17.4	9.7	3.9	3.6	5.9	4.7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816	41.8	17.5	13.1	7.2	9.9	6.5	3.9
	겸업 예술인	588	60.4	14.5	10.2	4.3	4.4	3.7	2.6
예술활동증명	완료	579	55.6	14.3	12.8	5.7	7.4	2.9	1.2
	미완료	825	45.3	17.6	11.3	6.2	7.8	7.0	4.8
주거형태	자가	821	52.6	14.3	9.6	4.9	7.4	6.8	4.4
	전월세	486	43.6	19.1	14.6	7.8	8.6	3.9	2.3
	기타	97	53.6	18.6	17.5	6.2	4.1	0.0	0.0
결혼상태	기혼	871	51.9	13.8	10.3	5.5	7.5	6.3	4.7
	미혼	408	43.4	21.3	14.5	7.1	8.6	4.2	1.0
	기타	125	53.6	16.8	14.4	5.6	5.6	2.4	1.6
거주지	동부산	526	48.7	15.0	12.9	6.7	8.4	4.9	3.4
	중부산	564	48.4	17.2	10.6	6.2	8.2	6.6	2.8
	서부산	185	57.3	15.7	11.9	4.3	5.9	2.7	2.2
	부산 외	129	47.3	17.8	13.2	4.7	4.7	5.4	7.0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과 사진 분야는 5백만원 이하, 건축 분야는 5천만원 초과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국민연금 미가입이거나 겸업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서부산 거주 예술인은 5백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4. 연간 수입액 중 예술활동 수입액 비중

□ 전체

[응답자 수 : 1,404명, 단위 : %]



- 연간 수입액 중 예술활동 수입의 비중을 살펴보면, 20% 미만 39.2%, 20%~40% 미만 16.0%, 40%~60% 미만 11.9%, 60%~80% 미만 5.1%, 80% 이상 27.7%로 나타남
- 연간 수입액 중 예술활동 수입액 평균 비중은 41.6%임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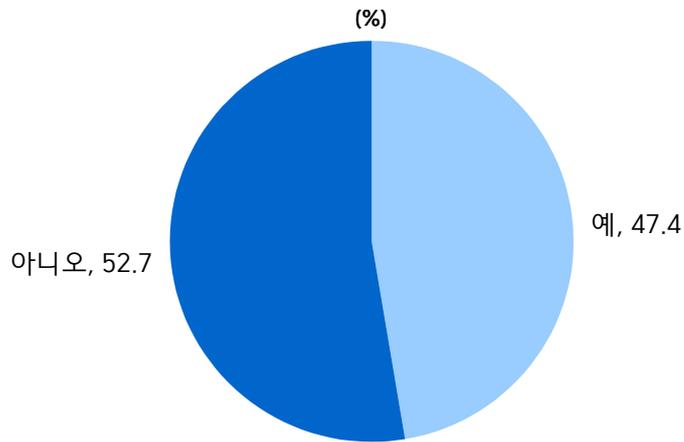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평균(%)
전체		1,404	39.2	16.0	11.9	5.1	27.7	41.6
성별	남자	655	38.5	15.3	13.0	6.7	26.6	41.8
	여자	749	39.9	16.7	10.9	3.7	28.7	41.4
연령	30대 이하	451	27.3	19.7	13.5	5.5	33.9	49.1
	40~50대	661	39.2	15.7	10.1	6.2	28.7	42.4
	60대 이상	292	57.9	11.0	13.4	2.1	15.8	28.2
예술분야	문학	257	80.9	6.6	3.1	1.2	8.2	15.6
	미술	396	34.8	18.9	13.4	5.6	27.3	42.9
	음악	326	30.7	19.9	14.4	5.5	29.4	44.7
	무용	87	23.0	20.7	16.1	1.1	39.1	52.2
	연극	112	25.0	13.4	8.9	12.5	40.2	55.2
	영화	37	43.2	21.6	13.5	2.7	18.9	34.5
	연예	21	14.3	28.6	19.0	9.5	28.6	51.0
	국악	116	21.6	10.3	14.7	5.2	48.3	60.9
	사진	27	40.7	7.4	25.9	7.4	18.5	41.5
	건축	20	10.0	35.0	5.0	5.0	45.0	57.0
	만화	5	0.0	0.0	20.0	40.0	40.0	78.0
국민연금	가입	744	36.2	18.0	11.0	5.8	29.0	43.1
	미가입	660	42.7	13.8	12.9	4.4	26.2	39.8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816	25.7	13.4	12.5	6.1	42.3	55.1
	겸업 예술인	588	58.0	19.7	11.1	3.7	7.5	22.8
예술활동증명	완료	579	37.3	15.7	12.1	5.2	29.7	43.6
	미완료	825	40.6	16.2	11.8	5.1	26.3	40.2
주거형태	자가	821	43.8	16.4	10.2	4.8	24.7	38.0
	전월세	486	33.5	14.2	14.4	6.2	31.7	46.5
	기타	97	28.9	21.6	13.4	3.1	33.0	47.1
결혼상태	기혼	871	44.1	15.0	10.6	4.9	25.4	38.5
	미혼	408	26.7	20.1	13.2	6.1	33.8	49.1
	기타	125	46.4	9.6	16.8	3.2	24.0	38.0
거주지	동부산	526	38.8	16.2	13.5	4.9	26.6	41.3
	중부산	564	40.2	15.4	11.0	5.3	28.0	41.6
	서부산	185	44.9	15.1	7.6	5.4	27.0	38.9
	부산 외	129	28.7	19.4	15.5	4.7	31.8	46.4

- 연령대가 높을수록 연간 수입액 중 예술활동 수입액 평균 비중이 낮게 나타남
- 예술 분야별로는 만화가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악 60.9%, 건축 57.0%, 연극 55.2%, 무용 52.2% 등의 순임
- 전업 예술인의 비중이 겸업 예술인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임

5. 예술활동 시 계약 체결 경험 유무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전체 응답자의 47.4%가 예술활동 시 계약 체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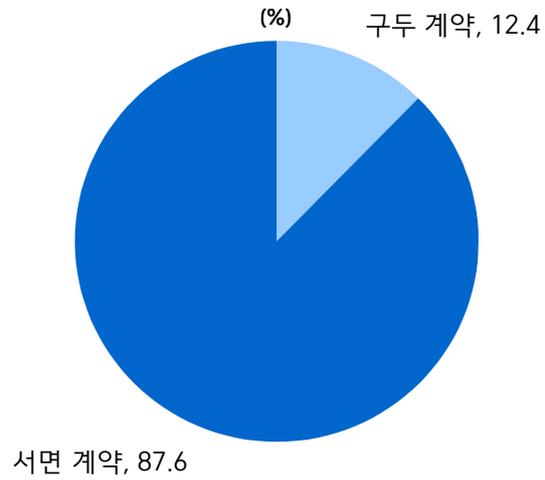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예	아니요
전체		2,000	47.4	52.7
성별	남자	925	50.2	49.8
	여자	1,075	44.9	55.1
연령	30대 이하	579	60.8	39.2
	40~50대	865	49.4	50.6
	60대 이상	556	30.2	69.8
예술분야	문학	381	26.5	73.5
	미술	695	37.7	62.3
	음악	393	59.8	40.2
	무용	104	75.0	25.0
	연극	132	72.7	27.3
	영화	52	61.5	38.5
	연예	28	60.7	39.3
	국악	133	69.9	30.1
	사진	47	29.8	70.2
	건축	25	64.0	36.0
	만화	10	30.0	70.0
국민연금	가입	1,008	50.2	49.8
	미가입	992	44.5	55.5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54.5	45.5
	겸업 예술인	913	38.9	61.1
예술활동증명	완료	795	54.0	46.0
	미완료	1,205	43.0	57.0
주거형태	자가	1,206	43.6	56.4
	전월세	653	54.7	45.3
	기타	141	45.4	54.6
결혼상태	기혼	1,257	43.7	56.3
	미혼	545	59.3	40.7
	기타	198	37.9	62.1
거주지	동부산	747	48.9	51.1
	중부산	795	48.1	51.9
	서부산	284	40.5	59.5
	부산 외	174	48.9	51.1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와 전업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은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술 분야별로는 문학과 미술, 사진, 만화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은 편임

5-1. 예술활동 시 체결 계약 형태

□ 전체

[응답자 수 : 947명, 보기 제시, 단위 : %]



- 예술활동 시 계약 체결 경험이 있는 경우 계약의 형태를 살펴보면, 구두 계약 12.4%, 서면 계약 87.6%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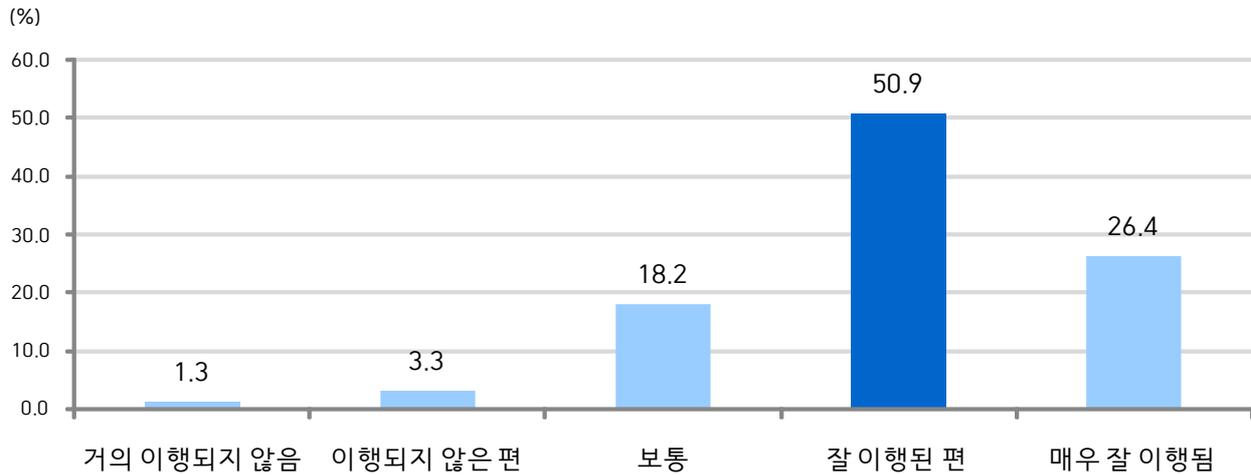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구두 계약	서면 계약
전체		947	12.4	87.6
성별	남자	464	13.4	86.6
	여자	483	11.4	88.6
연령	30대 이하	352	8.2	91.8
	40~50대	427	9.4	90.6
	60대 이상	168	28.6	71.4
예술분야	문학	101	14.9	85.1
	미술	262	12.6	87.4
	음악	235	13.2	86.8
	무용	78	10.3	89.7
	연극	96	11.5	88.5
	영화	32	3.1	96.9
	연예	17	47.1	52.9
	국악	93	8.6	91.4
	사진	14	7.1	92.9
	건축	16	0.0	100.0
국민연금	가입	506	10.9	89.1
	미가입	441	14.1	85.9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592	12.5	87.5
	겸업 예술인	355	12.1	87.9
예술활동명	완료	429	11.4	88.6
	미완료	518	13.1	86.9
주거형태	자가	526	12.9	87.1
	전월세	357	10.9	89.1
	기타	64	15.6	84.4
결혼상태	기혼	549	14.2	85.8
	미혼	323	9.3	90.7
	기타	75	12.0	88.0
거주지	동부산	365	11.8	88.2
	중부산	382	12.6	87.4
	서부산	115	14.8	85.2
	부산 외	85	10.6	89.4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예술인은 타 연령대에 비해 구두 계약 비율이 높은 편임

5-2. 예술활동 시 체결 계약의 이행 정도

□ 전체

[응답자 수 : 947명, 5점 척도 평가, 단위 : %]



- 예술활동 시 계약 체결 경험이 있는 경우 계약의 이행 정도를 살펴보면, 거의 이행되지 않음 1.3%, 이행되지 않은 편 3.3%, 보통 18.2%, 잘 이행된 편 50.9%, 매우 잘 이행됨 26.4%로 나타남

☞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7.3%가 계약은 성실하게 잘 이행이 된 편이라고 응답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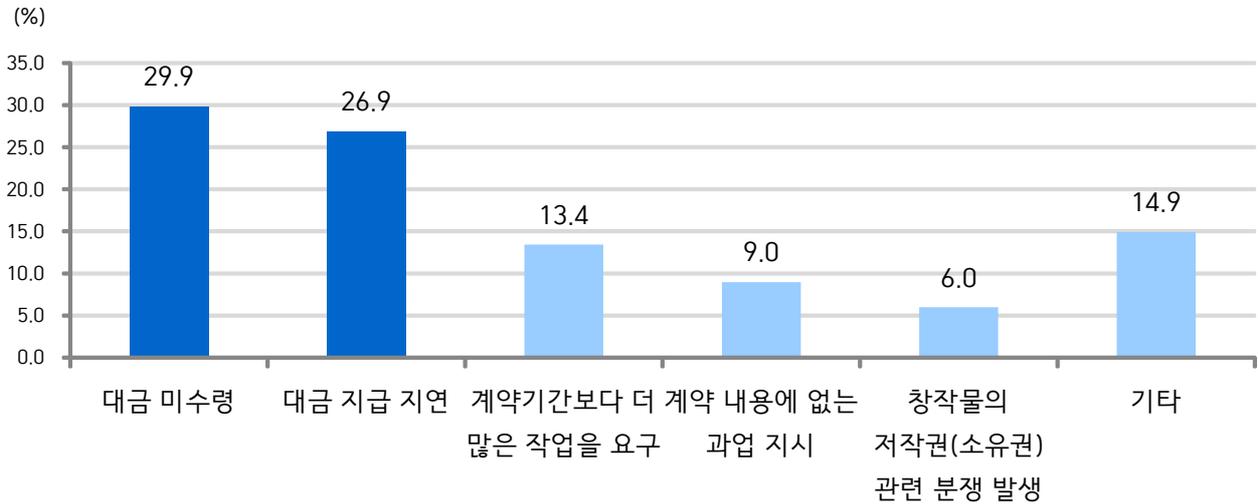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거의 이행되지 않음	이행되지 않은 편	보통	잘 이행된 편	매우 잘 이행됨	3분류			5점 평균 (점)	
							잘 이행안됨 (1+2점)	보통	잘 이행됨 (4+5점)		
전체	947	1.3	3.3	18.2	50.9	26.4	4.5	18.2	77.3	3.98	
성별	남자	464	1.5	4.5	19.6	50.0	24.4	6.0	19.6	74.4	3.91
	여자	483	1.0	2.1	16.8	51.8	28.4	3.1	16.8	80.1	4.04
연령	30대 이하	352	0.9	2.6	19.3	56.5	20.7	3.4	19.3	77.3	3.94
	40~50대	427	1.2	2.6	16.4	48.5	31.4	3.7	16.4	79.9	4.06
	60대 이상	168	2.4	6.5	20.2	45.2	25.6	8.9	20.2	70.8	3.85
예술분야	문학	101	4.0	6.9	22.8	45.5	20.8	10.9	22.8	66.3	3.72
	미술	262	0.8	2.3	17.2	54.6	25.2	3.1	17.2	79.8	4.01
	음악	235	1.3	2.6	16.6	49.4	30.2	3.8	16.6	79.6	4.05
	무용	78	1.3	1.3	20.5	46.2	30.8	2.6	20.5	76.9	4.04
	연극	96	1.0	7.3	20.8	46.9	24.0	8.3	20.8	70.8	3.85
	영화	32	3.1	3.1	25.0	56.3	12.5	6.3	25.0	68.8	3.72
	연예	17	0.0	5.9	29.4	41.2	23.5	5.9	29.4	64.7	3.82
	국악	93	0.0	1.1	9.7	55.9	33.3	1.1	9.7	89.2	4.22
	사진	14	0.0	0.0	21.4	57.1	21.4	0.0	21.4	78.6	4.00
	건축	16	0.0	6.3	25.0	56.3	12.5	6.3	25.0	68.8	3.75
	만화	3	0.0	0.0	0.0	66.7	33.3	0.0	0.0	100.0	4.33
국민연금	가입	506	1.0	2.6	17.6	52.6	26.3	3.6	17.6	78.9	4.01
	미가입	441	1.6	4.1	18.8	49.0	26.5	5.7	18.8	75.5	3.95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592	1.0	3.0	16.0	52.4	27.5	4.1	16.0	79.9	4.02
	겸업 예술인	355	1.7	3.7	21.7	48.5	24.5	5.4	21.7	73.0	3.90
예술활동명	완료	429	0.6	1.9	8.2	23.0	11.5	2.5	8.2	34.5	3.95
	미완료	518	0.6	1.4	9.9	27.9	14.9	2.0	9.9	42.8	4.01
주거형태	자가	526	0.0	1.6	9.0	28.3	16.7	1.6	9.0	45.0	4.08
	전월세	357	1.0	1.6	7.3	19.4	8.4	2.5	7.3	27.9	3.87
	기타	64	0.3	0.1	1.9	3.2	1.3	0.4	1.9	4.4	3.73
결혼상태	기혼	549	0.4	1.8	9.6	29.0	17.1	2.2	9.6	46.1	4.05
	미혼	323	0.4	1.1	7.2	18.8	6.7	1.5	7.2	25.4	3.89
	기타	75	0.4	0.4	1.4	3.1	2.6	0.8	1.4	5.7	3.89
거주지	동부산	365	0.4	1.1	7.1	19.3	10.7	1.5	7.1	30.0	4.01
	중부산	382	0.5	1.7	7.5	19.9	10.8	2.2	7.5	30.6	3.96
	서부산	115	0.2	0.1	2.4	6.2	3.2	0.3	2.4	9.4	3.99
	부산 외	85	0.1	0.4	1.2	5.5	1.8	0.5	1.2	7.3	3.94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은 계약이 잘 이행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국악은 잘 이행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은 편임

5-2-1. 예술활동 시 체결 계약의 분쟁 발생 유형

□ 전체

[응답자 수 : 43명, 보기 제시, 중복응답, 단위 : %]



- 예술활동 시 체결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분쟁 발생 유형으로는 대금 미수령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금 지급 지연이 26.9%로 그 뒤를 따름
- 그 다음으로는 계약기간보다 더 많은 작업을 요구 13.4%, 계약 내용에 없는 과업 지시 9.0%, 창작물의 저작권(소유권) 관련 분쟁 발생 6.0%의 순으로 나타남

☞ 계약 이행이 잘 되지 않은 경우는 주로 대금 미수령과 지급 지연 등의 문제인 것으로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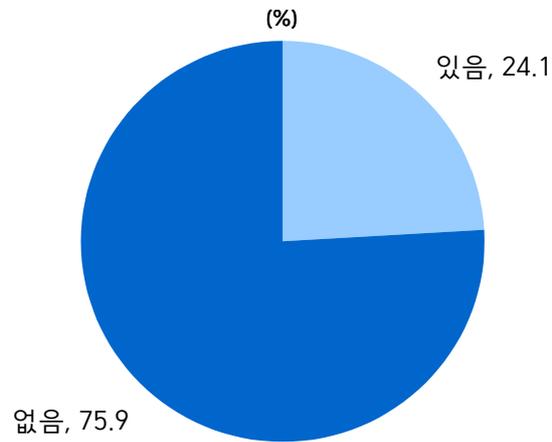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중복응답					창작물의 저작권 (소유권) 관련 분쟁 발생	기타
		대금 미수령	대금 지급 지연	계약기간 보다 더 많은 작업을 요구	계약 내용에 없는 과업 지시			
전체	43	29.9	26.9	13.4	9.0	6.0	14.9	
성별	남자	28	31.0	28.6	11.9	9.5	9.5	9.5
	여자	15	28.0	24.0	16.0	8.0	0.0	24.0
연령	30대 이하	12	20.8	29.2	25.0	12.5	0.0	12.5
	40~50대	16	38.5	19.2	7.7	7.7	11.5	15.4
	60대 이상	15	29.4	35.3	5.9	5.9	5.9	17.6
예술분야	문학	11	33.3	33.3	0.0	8.3	8.3	16.7
	미술	8	35.7	28.6	7.1	7.1	7.1	14.3
	음악	9	25.0	25.0	16.7	8.3	0.0	25.0
	무용	2	33.3	33.3	33.3	0.0	0.0	0.0
	연극	8	17.6	23.5	23.5	11.8	11.8	11.8
	영화	2	50.0	0.0	25.0	25.0	0.0	0.0
	연예	1	50.0	50.0	0.0	0.0	0.0	0.0
	국악	1	0.0	50.0	0.0	0.0	0.0	50.0
	사진	-	-	-	-	-	-	-
	건축	1	100.0	0.0	0.0	0.0	0.0	0.0
	만화	-	-	-	-	-	-	-
국민연금	가입	18	21.2	24.2	12.1	9.1	9.1	24.2
	미가입	25	38.2	29.4	14.7	8.8	2.9	5.9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24	21.2	36.4	12.1	3.0	6.1	21.2
	겸업 예술인	19	38.2	17.6	14.7	14.7	5.9	8.8
예술활동명	완료	24	35.5	29.0	9.7	0.0	6.5	19.4
	미완료	19	25.0	25.0	16.7	16.7	5.6	11.1
주거형태	자가	15	31.8	27.3	13.6	9.1	4.5	13.6
	전월세	24	29.3	26.8	14.6	9.8	7.3	12.2
	기타	4	25.0	25.0	0.0	0.0	0.0	50.0
결혼상태	기혼	21	32.3	22.6	9.7	9.7	6.5	19.4
	미혼	14	19.2	30.8	23.1	11.5	3.8	11.5
	기타	8	50.0	30.0	0.0	0.0	10.0	10.0
거주지	동부산	14	25.0	31.3	12.5	0.0	6.3	25.0
	중부산	21	24.3	27.0	13.5	13.5	8.1	13.5
	서부산	3	33.3	16.7	16.7	16.7	0.0	16.7
	부산 외	5	62.5	25.0	12.5	0.0	0.0	0.0

6. 불공정 계약 강요당한 경험 유무

□ 전체

[응답자 수 : 947명, 보기 제시, 단위 : %]



-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 응답자의 24.1%가 유형 혹은 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있음	없음
전체		947	24.1	75.9
성별	남자	464	26.3	73.7
	여자	483	21.9	78.1
연령	30대 이하	352	31.3	68.8
	40~50대	427	20.4	79.6
	60대 이상	168	18.5	81.5
예술분야	문학	101	18.8	81.2
	미술	262	24.4	75.6
	음악	235	26.0	74.0
	무용	78	28.2	71.8
	연극	96	31.3	68.8
	영화	32	15.6	84.4
	연예	17	5.9	94.1
	국악	93	15.1	84.9
	사진	14	28.6	71.4
	건축	16	37.5	62.5
	만화	3	66.7	33.3
국민연금	가입	506	25.5	74.5
	미가입	441	22.4	77.6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592	25.8	74.2
	겸업 예술인	355	21.1	78.9
예술활동명	완료	429	23.8	76.2
	미완료	518	24.3	75.7
주거형태	자가	526	20.2	79.8
	전월세	357	28.9	71.1
	기타	64	29.7	70.3
결혼상태	기혼	549	22.0	78.0
	미혼	323	28.8	71.2
	기타	75	18.7	81.3
거주지	동부산	365	23.3	76.7
	중부산	382	25.9	74.1
	서부산	115	22.6	77.4
	부산 외	85	21.2	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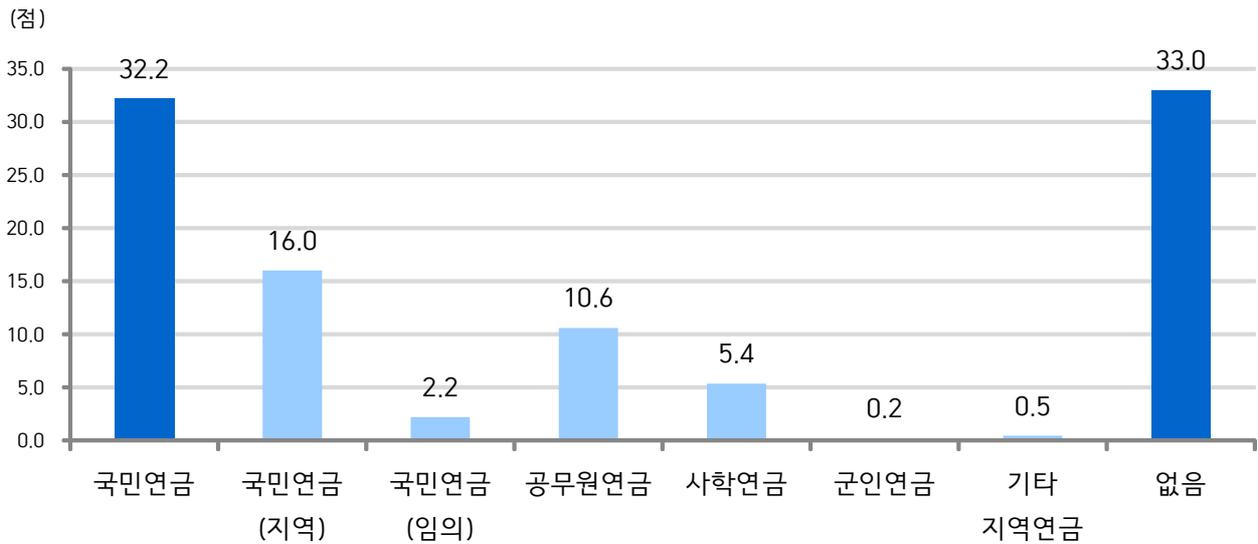
- 30대 이하와 연극, 건축, 만화 분야의 예술인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IV. 생활 및 복지

1. 공적연금 가입 유형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공적연금 가입 유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32.2%로 가장 가입 비율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지역) 16.0%, 공무원연금 10.6%, 사학연금 5.4%, 국민연금(임의) 2.2%, 기타 지역연금 0.5%, 군인연금 0.2%의 순으로 응답됨
- 한편, 공적연금 미가입 비율은 33.0%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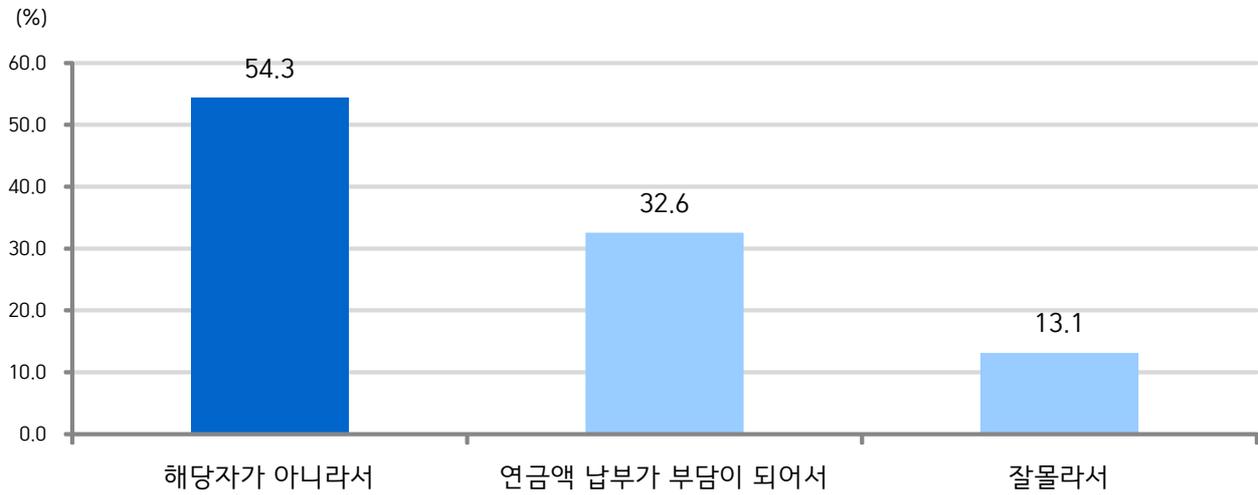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	국민연금 (임의)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타 지역연금	없음
전체		2,000	32.2	16.0	2.2	10.6	5.4	0.2	0.5	33.0
성별	남자	925	32.3	15.0	1.8	12.9	8.9	0.2	0.4	28.4
	여자	1,075	32.1	16.8	2.5	8.7	2.3	0.2	0.5	36.9
연령	30대 이하	579	33.5	13.5	1.6	3.1	0.7	0.2	0.2	47.3
	40~50대	865	34.9	21.8	3.0	8.9	6.1	0.0	0.5	24.7
	60대 이상	556	26.6	9.5	1.6	21.0	9.0	0.5	0.7	30.9
예술분야	문학	381	32.0	13.6	2.6	17.6	5.8	0.5	0.3	27.6
	미술	695	29.5	18.3	2.0	9.9	6.3	0.1	0.6	33.2
	음악	393	29.3	17.3	2.3	9.7	6.9	0.0	0.5	34.1
	무용	104	27.9	13.5	1.0	6.7	2.9	0.0	1.9	46.2
	연극	132	34.8	12.1	0.0	2.3	0.8	0.8	0.0	49.2
	영화	52	50.0	13.5	0.0	1.9	1.9	0.0	0.0	32.7
	연예	28	46.4	17.9	3.6	0.0	0.0	0.0	0.0	32.1
	국악	133	33.8	15.8	6.0	16.5	2.3	0.0	0.0	25.6
	사진	47	53.2	14.9	0.0	6.4	4.3	0.0	0.0	21.3
	건축	25	64.0	8.0	4.0	8.0	12.0	0.0	0.0	4.0
	만화	10	20.0	10.0	0.0	0.0	10.0	0.0	0.0	60.0
	국민연금	가입	1,008	63.9	31.7	4.4	0.0	0.0	0.0	0.0
미가입		992	0.0	0.0	0.0	21.4	10.8	0.4	0.9	66.5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28.3	15.5	2.6	11.1	4.9	0.2	0.8	36.5
	겸업 예술인	913	36.8	16.5	1.8	10.0	5.9	0.2	0.0	28.8
예술활동증명	완료	795	32.1	16.0	2.6	8.3	2.9	0.3	0.3	37.6
	미완료	1,205	32.3	16.0	1.9	12.1	7.0	0.2	0.6	30.0
주거형태	자가	1,206	34.2	15.3	2.4	14.8	7.7	0.2	0.7	24.6
	전월세	653	28.6	17.8	1.7	4.6	2.1	0.2	0.2	44.9
	기타	141	31.9	13.5	2.8	2.1	0.0	0.0	0.0	49.6
결혼상태	기혼	1,257	32.5	17.2	2.5	14.4	7.3	0.2	0.6	25.3
	미혼	545	32.8	13.4	1.5	2.9	0.9	0.2	0.2	48.1
	기타	198	28.3	15.7	2.0	7.6	5.1	0.5	0.5	40.4
거주지	동부산	747	32.1	16.5	1.7	12.0	5.1	0.0	0.3	32.3
	중부산	795	33.2	15.5	2.1	10.3	5.7	0.3	0.6	32.3
	서부산	284	31.0	14.1	3.2	11.6	4.6	0.4	0.7	34.5
	부산 외	174	29.9	19.5	2.9	4.0	6.3	0.6	0.0	36.8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와 전월세 거주, 미혼 예술인의 공적 연금 미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술 분야별로는 무용과 연극, 만화 분야의 공적 연금 미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1-1.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

□ 전체

[응답자 수 : 992명, 보기 제시, 단위 : %]



-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로는 해당자가 아니라서 54.3%, 연금액 납부가 부담이 되어서 32.6%, 잘 몰라서 13.1%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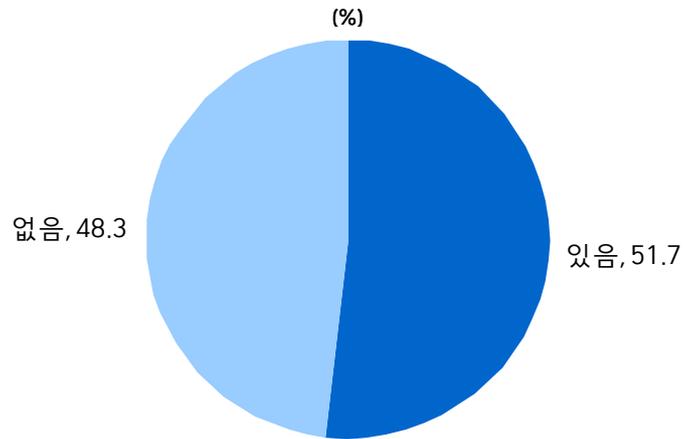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해당자가 아니라서	연금액 납부가 부담이 되어서	잘몰라서
전체		992	54.3	32.6	13.1
성별	남자	470	61.3	27.4	11.3
	여자	522	48.1	37.2	14.8
연령	30대 이하	298	42.3	35.2	22.5
	40~50대	348	50.3	41.7	8.0
	60대 이상	346	68.8	21.1	10.1
예술분야	문학	197	64.0	28.9	7.1
	미술	349	57.9	30.9	11.2
	음악	201	54.2	26.9	18.9
	무용	60	45.0	45.0	10.0
	연극	70	30.0	50.0	20.0
	영화	19	21.1	52.6	26.3
	연예	9	33.3	44.4	22.2
	국악	59	52.5	32.2	15.3
	사진	15	46.7	33.3	20.0
	건축	6	83.3	16.7	0.0
	만화	7	57.1	42.9	0.0
국민연금	가입	-	-	-	-
	미가입	992	54.3	32.6	13.1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582	53.3	33.0	13.7
	겸업 예술인	410	55.9	32.0	12.2
예술활동증명	완료	392	44.9	42.9	12.2
	미완료	600	60.5	25.8	13.7
주거형태	자가	580	64.1	24.3	11.6
	전월세	339	42.5	43.4	14.2
	기타	73	31.5	47.9	20.5
결혼상태	기혼	600	61.5	28.8	9.7
	미혼	285	40.4	38.2	21.4
	기타	107	51.4	38.3	10.3
거주지	동부산	371	56.6	31.5	11.9
	중부산	391	52.2	34.5	13.3
	서부산	147	58.5	29.3	12.2
	부산 외	83	47.0	33.7	19.3

- 40~50대와 예술활동증명 완료, 전월세 거주, 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 분야 예술인은 연금액 납부가 부담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2. 국민연금 납부액 일부 지원 시 가입 의향

□ 전체

[응답자 수 : 992명, 보기 제시, 단위 : %]



-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51.7%가 국민연금 납부액 일부 지원 시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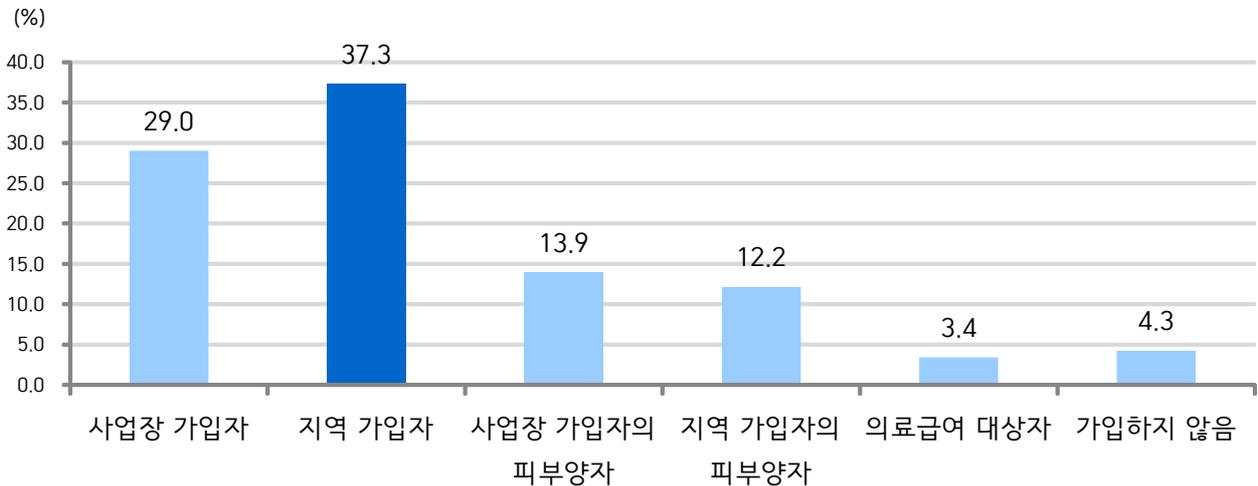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있음	없음
전체		992	51.7	48.3
성별	남자	470	44.7	55.3
	여자	522	58.0	42.0
연령	30대 이하	298	64.8	35.2
	40~50대	348	57.2	42.8
	60대 이상	346	35.0	65.0
예술분야	문학	197	41.1	58.9
	미술	349	47.0	53.0
	음악	201	60.7	39.3
	무용	60	63.3	36.7
	연극	70	67.1	32.9
	영화	19	47.4	52.6
	연예	9	66.7	33.3
	국악	59	57.6	42.4
	사진	15	26.7	73.3
	건축	6	66.7	33.3
	만화	7	57.1	42.9
국민연금	가입	-	-	-
	미가입	992	51.7	48.3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582	53.4	46.6
	겸업 예술인	410	49.3	50.7
예술활동증명	완료	392	57.1	42.9
	미완료	600	48.2	51.8
주거형태	자가	580	42.9	57.1
	전월세	339	62.8	37.2
	기타	73	69.9	30.1
결혼상태	기혼	600	45.3	54.7
	미혼	285	65.6	34.4
	기타	107	50.5	49.5
거주지	동부산	371	49.6	50.4
	중부산	391	53.2	46.8
	서부산	147	55.8	44.2
	부산 외	83	47.0	53.0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와 30대 이하,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전월세 거주하거나 미혼 인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액 일부 지원 시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2. 건강보험 가입 유형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건강보험 가입 유형으로는 지역 가입자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업장 가입자 29.0%, 사업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13.9%, 지역 가입자의 피부양자 12.2%, 의료급여 대상자 3.4%의 순임
-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95.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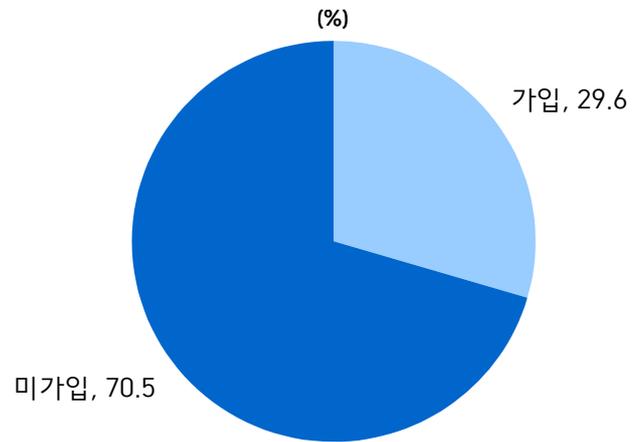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 대상자	가입하지 않음	
전체		2,000	29.0	37.3	13.9	12.2	3.4	4.3	
성별	남자	925	32.1	41.5	11.4	7.8	2.9	4.3	
	여자	1,075	26.3	33.7	16.1	15.9	3.8	4.2	
연령	30대 이하	579	28.2	27.5	13.0	16.9	4.8	9.7	
	40~50대	865	36.8	39.7	11.8	8.2	2.3	1.3	
	60대 이상	556	17.8	43.9	18.2	13.3	3.6	3.2	
예술분야	문학	381	27.0	36.0	19.4	12.3	3.4	1.8	
	미술	695	23.3	39.7	14.7	16.3	2.7	3.3	
	음악	393	35.4	38.9	11.5	6.4	3.8	4.1	
	무용	104	26.9	38.5	11.5	8.7	6.7	7.7	
	연극	132	27.3	38.6	9.1	12.9	2.3	9.8	
	영화	52	34.6	28.8	7.7	11.5	1.9	15.4	
	연예	28	21.4	53.6	7.1	3.6	14.3	0.0	
	국악	133	39.1	27.1	12.0	15.8	3.0	3.0	
	사진	47	25.5	42.6	19.1	4.3	0.0	8.5	
	건축	25	84.0	12.0	4.0	0.0	0.0	0.0	
	만화	10	30.0	0.0	10.0	20.0	20.0	20.0	
	국민연금	가입	1,008	35.3	39.9	12.5	8.7	1.5	2.1
		미가입	992	22.6	34.7	15.3	15.6	5.3	6.5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20.4	41.1	15.5	14.1	4.0	4.8	
	겸업 예술인	913	39.2	32.7	11.9	9.9	2.6	3.6	
예술활동증명	완료	795	23.3	39.0	17.0	13.7	3.3	3.8	
	미완료	1,205	32.8	36.2	11.9	11.1	3.5	4.6	
주거형태	자가	1,206	32.3	35.4	15.8	11.5	2.2	2.7	
	전월세	653	23.4	42.4	10.4	11.5	6.0	6.3	
	기타	141	26.2	29.8	13.5	20.6	2.1	7.8	
결혼상태	기혼	1,257	31.8	35.6	17.0	12.6	1.5	1.4	
	미혼	545	25.1	36.1	8.4	13.4	5.9	11.0	
	기타	198	21.7	51.5	9.1	5.6	8.6	3.5	
거주지	동부산	747	30.4	37.3	13.0	12.7	2.8	3.7	
	중부산	795	30.3	39.0	12.6	10.6	2.9	4.7	
	서부산	284	25.0	33.5	19.4	12.7	4.6	4.9	
	부산 외	174	23.6	35.6	14.9	16.1	6.3	3.4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와 연극, 영화, 만화 분야 예술인, 미혼인 경우에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전체 응답자의 29.6%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함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가입	미가입
전체		2,000	29.6	70.5
성별	남자	925	29.0	71.0
	여자	1,075	30.0	70.0
연령	30대 이하	579	35.6	64.4
	40~50대	865	37.2	62.8
	60대 이상	556	11.3	88.7
예술분야	문학	381	20.5	79.5
	미술	695	25.3	74.7
	음악	393	36.1	63.9
	무용	104	29.8	70.2
	연극	132	34.1	65.9
	영화	52	42.3	57.7
	연예	28	17.9	82.1
	국악	133	47.4	52.6
	사진	47	23.4	76.6
	건축	25	60.0	40.0
	만화	10	30.0	70.0
국민연금	가입	1,008	40.7	59.3
	미가입	992	18.2	81.8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22.2	77.8
	겸업 예술인	913	38.3	61.7
예술활동명	완료	795	26.8	73.2
	미완료	1,205	31.4	68.6
주거형태	자가	1,206	28.6	71.4
	전월세	653	30.6	69.4
	기타	141	32.6	67.4
결혼상태	기혼	1,257	29.8	70.2
	미혼	545	32.1	67.9
	기타	198	21.2	78.8
거주지	동부산	747	30.0	70.0
	중부산	795	31.7	68.3
	서부산	284	27.5	72.5
	부산 외	174	21.3	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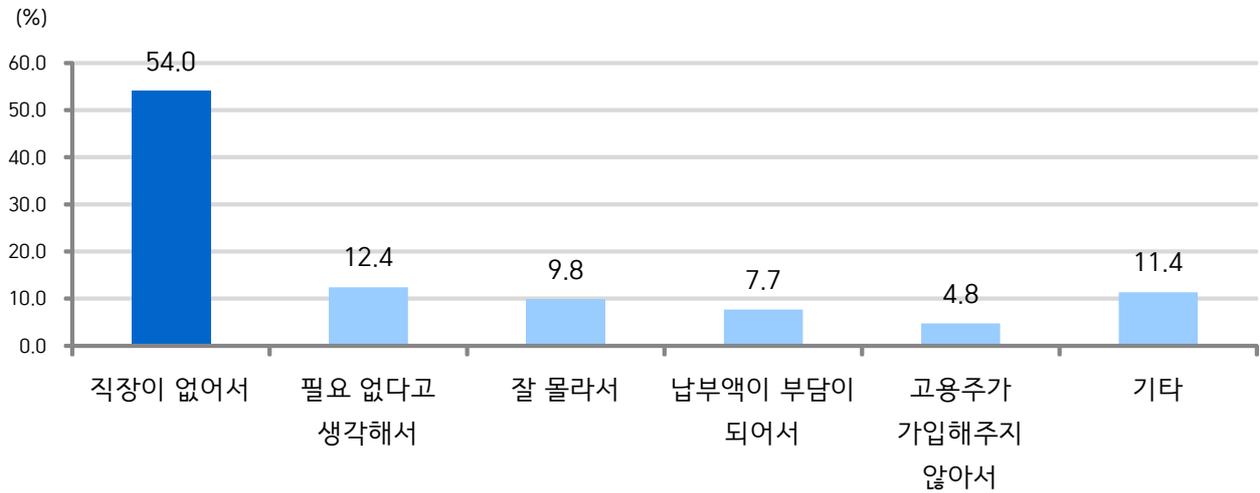
- 예술 분야별로는 문학과 연예, 사진 분야는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업 예술인은 겸업 예술인에 비해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이 높은 편임

3-1.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

□ 전체

[응답자 수 : 1,409명, 보기 제시, 단위 : %]



-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로는 직장이 없어서가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12.4%, 잘 몰라서 9.8%, 납부액이 부담이 되어서 7.7%, 고용주가 가입해주지 않아서 4.8%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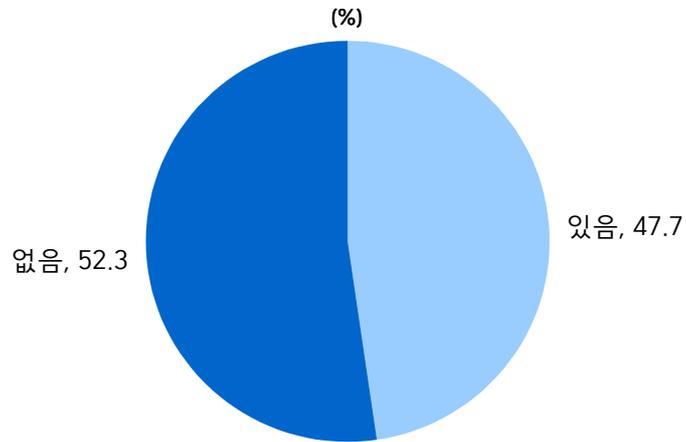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직장이 없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잘 몰라서	납부액이 부담이 되어서	고용주가 가입해주지 않아서	기타
전체		1,409	54.0	12.4	9.8	7.7	4.8	11.4
성별	남자	657	53.0	14.2	8.1	8.2	3.8	12.8
	여자	752	54.9	10.9	11.3	7.2	5.6	10.1
연령	30대 이하	373	48.5	9.7	18.0	6.7	10.5	6.7
	40~50대	543	50.1	13.1	8.7	10.3	4.4	13.4
	60대 이상	493	62.5	13.8	4.9	5.5	0.8	12.6
예술분야	문학	303	63.7	13.9	2.6	6.3	1.3	12.2
	미술	519	57.2	12.9	7.5	8.5	2.9	11.0
	음악	251	45.0	9.2	19.1	7.2	9.2	10.4
	무용	73	43.8	13.7	16.4	5.5	8.2	12.3
	연극	87	37.9	10.3	16.1	14.9	8.0	12.6
	영화	30	56.7	6.7	6.7	10.0	13.3	6.7
	연예	23	69.6	8.7	4.3	4.3	8.7	4.3
	국악	70	52.9	12.9	14.3	2.9	4.3	12.9
	사진	36	52.8	11.1	11.1	8.3	0.0	16.7
	건축	10	0.0	50.0	0.0	10.0	20.0	20.0
	만화	7	57.1	28.6	0.0	0.0	14.3	0.0
	국민연금	가입	598	49.3	13.9	9.0	9.0	4.2
미가입		811	57.5	11.3	10.4	6.7	5.2	9.0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846	62.2	9.3	10.9	6.7	3.8	7.1
	겸업 예술인	563	41.7	17.1	8.2	9.1	6.2	17.8
예술활동증명	완료	582	59.8	11.0	7.2	7.6	4.3	10.1
	미완료	827	49.9	13.4	11.6	7.7	5.1	12.2
주거형태	자가	861	54.4	14.6	7.8	7.3	3.7	12.2
	전월세	453	53.4	9.1	11.9	8.4	6.2	11.0
	기타	95	53.7	8.4	17.9	7.4	7.4	5.3
결혼상태	기혼	883	55.6	14.3	7.4	6.9	3.1	12.8
	미혼	370	48.6	9.5	17.3	8.6	9.7	6.2
	기타	156	57.7	9.0	5.8	9.6	2.6	15.4
거주지	동부산	523	54.9	12.6	8.2	7.6	4.0	12.6
	중부산	543	49.5	13.1	10.9	9.2	5.2	12.2
	서부산	206	59.2	11.7	7.8	5.8	5.3	10.2
	부산 외	137	60.6	10.2	14.6	4.4	5.1	5.1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과 연예 분야는 직장이 없어서, 음악과 무용 분야는 잘 몰라서, 연극은 잘 몰라서와 납부액이 부담이 되어서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30대 이하는 잘 몰라서와 고용주가 가입해주지 않아서, 60대 이상은 직장이 없어서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3-2. 고용보험 납부액 일부 지원 시 가입 의향

□ 전체

[응답자 수 : 1,409명, 보기 제시, 단위 : %]



-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47.7%가 고용보험 납부액 일부 지원 시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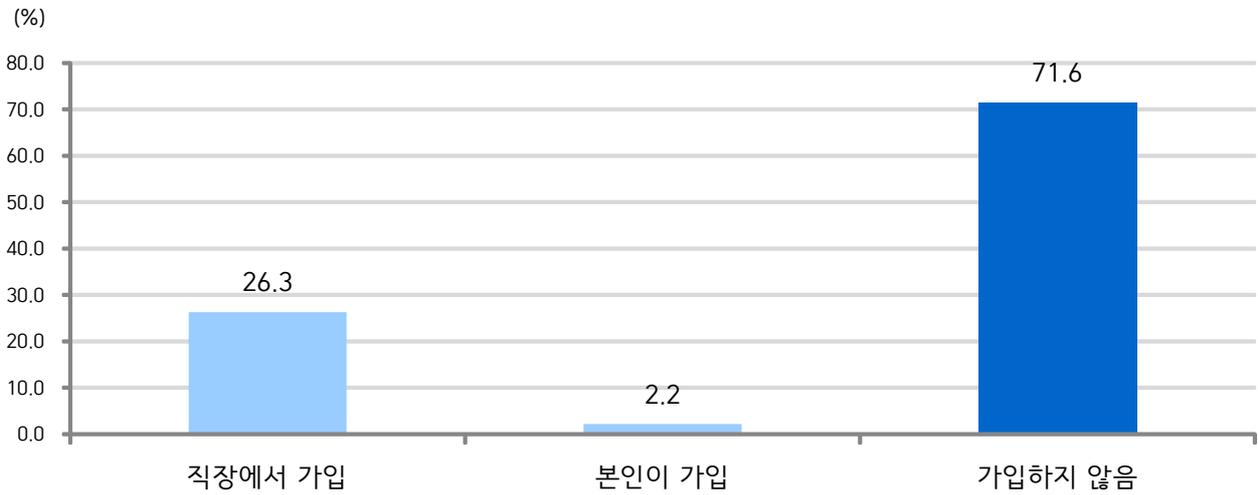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있음	없음
전체		1,409	47.7	52.3
성별	남자	657	44.7	55.3
	여자	752	50.3	49.7
연령	30대 이하	373	57.1	42.9
	40~50대	543	52.3	47.7
	60대 이상	493	35.5	64.5
예술분야	문학	303	38.0	62.0
	미술	519	44.3	55.7
	음악	251	58.2	41.8
	무용	73	52.1	47.9
	연극	87	58.6	41.4
	영화	30	43.3	56.7
	연예	23	65.2	34.8
	국악	70	58.6	41.4
	사진	36	41.7	58.3
	건축	10	60.0	40.0
	만화	7	28.6	71.4
국민연금	가입	598	51.3	48.7
	미가입	811	45.0	55.0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846	49.2	50.8
	겸업 예술인	563	45.5	54.5
예술활동명	완료	582	50.5	49.5
	미완료	827	45.7	54.3
주거형태	자가	861	42.5	57.5
	전월세	453	56.7	43.3
	기타	95	51.6	48.4
결혼상태	기혼	883	43.1	56.9
	미혼	370	57.3	42.7
	기타	156	50.6	49.4
거주지	동부산	523	49.1	50.9
	중부산	543	46.6	53.4
	서부산	206	49.0	51.0
	부산 외	137	44.5	55.5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음악/연극/연예/국악/건축 분야 예술인, 전월세 거주하거나 미혼인 경우는 고용보험 납부액 일부 지원 시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4. 산재보험 가입 여부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직장에서 가입 26.3%, 본인이 가입 2.2%, 가입하지 않음 71.6%로 응답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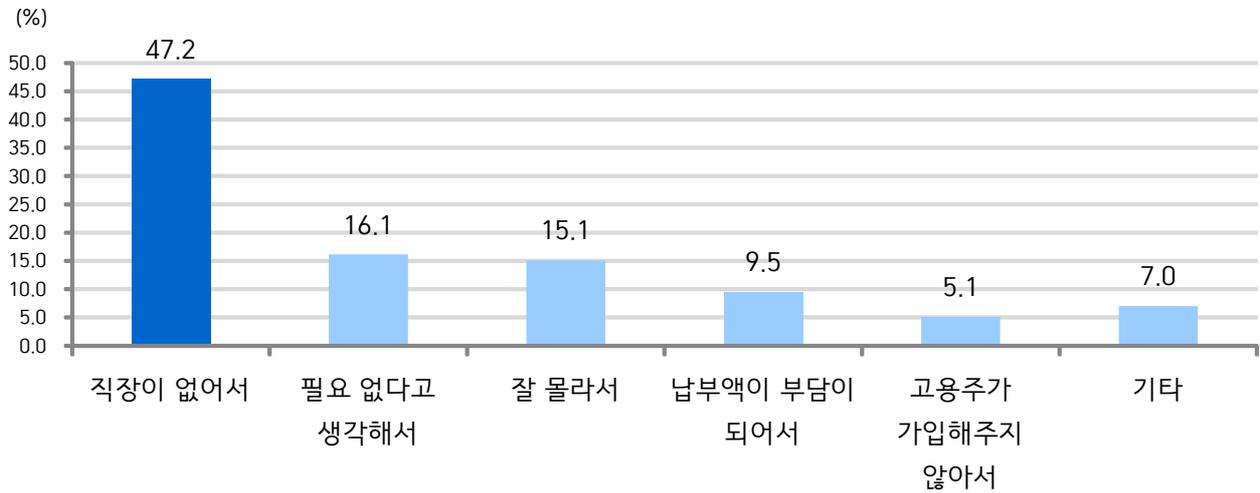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직장에서 가입	본인이 가입	가입하지 않음	
전체		2,000	26.3	2.2	71.6	
성별	남자	925	28.5	2.2	69.3	
	여자	1,075	24.4	2.1	73.5	
연령	30대 이하	579	30.7	2.1	67.2	
	40~50대	865	32.0	2.9	65.1	
	60대 이상	556	12.8	1.1	86.2	
예술분야	문학	381	20.7	0.8	78.5	
	미술	695	21.6	2.4	76.0	
	음악	393	29.5	2.5	67.9	
	무용	104	31.7	2.9	65.4	
	연극	132	28.8	3.0	68.2	
	영화	52	34.6	3.8	61.5	
	연예	28	25.0	0.0	75.0	
	국악	133	43.6	2.3	54.1	
	사진	47	23.4	0.0	76.6	
	건축	25	56.0	0.0	44.0	
	만화	10	20.0	10.0	70.0	
	국민연금	가입	1,008	34.2	2.3	63.5
		미가입	992	18.2	2.0	79.7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16.7	2.6	80.7	
	겸업 예술인	913	37.7	1.6	60.7	
예술활동명	완료	795	23.0	2.6	74.3	
	미완료	1,205	28.5	1.8	69.7	
주거형태	자가	1,206	27.1	1.9	71.0	
	전월세	653	25.6	2.0	72.4	
	기타	141	22.7	5.0	72.3	
결혼상태	기혼	1,257	27.4	1.7	70.9	
	미혼	545	26.1	2.9	71.0	
	기타	198	19.7	3.0	77.3	
거주지	동부산	747	26.6	2.1	71.2	
	중부산	795	27.2	2.1	70.7	
	서부산	284	27.1	2.5	70.4	
	부산 외	174	19.5	1.7	78.7	

- 60대 이상과 전업 예술인 부산 외 지역 거주 예술인은 산재보험 미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4-1.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

□ 전체

[응답자 수 : 1,431명, 보기 제시, 단위 : %]



-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로는 직장이 없어서가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16.1%, 잘 몰라서 15.1%, 납부액이 부담이 되어서 9.5%, 고용주가 가입해주지 않아서 5.1%의 순으로 응답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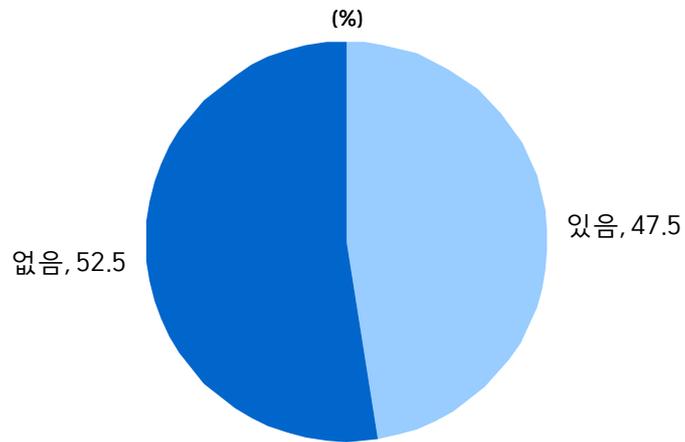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직장이 없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잘 몰라서	납부액이 부담이 되어서	고용주가 가입해주지 않아서	기타	
전체		1,431	47.2	16.1	15.1	9.5	5.1	7.0	
성별	남자	641	49.8	17.5	12.2	9.4	3.9	7.3	
	여자	790	45.1	15.1	17.5	9.6	6.1	6.7	
연령	30대 이하	389	37.3	16.5	23.7	10.3	8.0	4.4	
	40~50대	563	42.5	15.1	16.9	11.9	6.0	7.6	
	60대 이상	479	60.8	17.1	6.1	6.1	1.7	8.4	
예술 분야	문학	299	62.2	14.7	6.0	6.0	2.3	8.7	
	미술	528	47.5	18.8	12.3	12.5	3.4	5.5	
	음악	267	40.1	14.6	23.2	6.4	10.1	5.6	
	무용	68	29.4	19.1	26.5	8.8	4.4	11.8	
	연극	90	24.4	11.1	28.9	17.8	7.8	10.0	
	영화	32	46.9	12.5	21.9	6.3	12.5	0.0	
	연예	21	52.4	14.3	14.3	9.5	9.5	0.0	
	국악	72	52.8	8.3	13.9	6.9	4.2	13.9	
	사진	36	58.3	19.4	11.1	5.6	2.8	2.8	
	건축	11	9.1	45.5	0.0	18.2	9.1	18.2	
	만화	7	42.9	14.3	42.9	0.0	0.0	0.0	
	국민 연금	가입	640	39.7	18.3	16.9	11.3	5.5	8.4
		미가입	791	53.2	14.4	13.7	8.1	4.8	5.8
직업 구분	전업 예술인	877	53.9	12.7	16.9	8.7	3.3	4.6	
	겸업 예술인	554	36.5	21.7	12.3	10.8	7.9	10.8	
예술 활동 증명	완료	591	50.1	14.9	13.0	11.8	4.1	6.1	
	미완료	840	45.1	17.0	16.5	7.9	5.8	7.6	
주거 형태	자가	856	49.6	18.2	11.9	8.1	4.1	8.1	
	전월세	473	43.6	13.5	18.8	11.4	7.0	5.7	
	기타	102	43.1	10.8	24.5	12.7	4.9	3.9	
결혼 상태	기혼	891	49.5	17.7	12.6	8.2	4.0	8.0	
	미혼	387	39.3	15.5	22.5	11.6	7.8	3.4	
	기타	153	53.6	8.5	11.1	11.8	4.6	10.5	
거주지	동부산	532	45.9	16.7	16.4	9.6	4.3	7.1	
	중부산	562	44.3	16.7	14.4	10.1	6.0	8.4	
	서부산	200	57.0	13.5	12.0	7.0	4.5	6.0	
	부산 외	137	49.6	15.3	17.5	10.2	5.1	2.2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과 연예, 국악, 사진 분야는 직장이 없어서, 음악과 무용, 영화, 만화 분야는 잘 몰라서, 연극은 잘 몰라서와 납부액이 부담이 되어서, 음악과 영화는 고용주가 가입해주지 않아서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30대 이하는 잘 몰라서와 고용주가 가입해주지 않아서, 60대 이상은 직장이 없어서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4-2. 산재보험 납부액 일부 지원 시 가입 의향

□ 전체

[응답자 수 : 1,431명, 보기 제시, 단위 : %]



-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47.5%가 산재보험 납부액 일부 지원 시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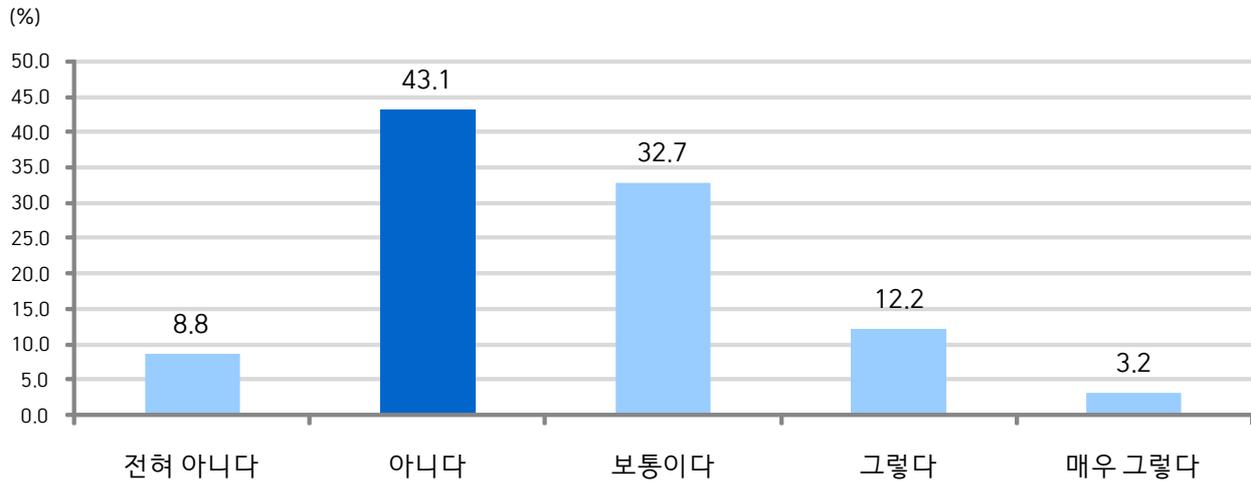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있음	없음
전체		1,431	47.5	52.5
성별	남자	641	46.2	53.8
	여자	790	48.6	51.4
연령	30대 이하	389	58.4	41.6
	40~50대	563	51.0	49.0
	60대 이상	479	34.7	65.3
예술분야	문학	299	34.8	65.2
	미술	528	44.9	55.1
	음악	267	54.7	45.3
	무용	68	54.4	45.6
	연극	90	66.7	33.3
	영화	32	53.1	46.9
	연예	21	57.1	42.9
	국악	72	62.5	37.5
	사진	36	38.9	61.1
	건축	11	63.6	36.4
	만화	7	14.3	85.7
	국민연금	가입	640	51.3
미가입		791	44.5	55.5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877	48.6	51.4
	겸업 예술인	554	45.8	54.2
예술활동증명	완료	591	51.1	48.9
	미완료	840	45.0	55.0
주거형태	자가	856	42.4	57.6
	전월세	473	56.4	43.6
	기타	102	49.0	51.0
결혼상태	기혼	891	43.2	56.8
	미혼	387	57.9	42.1
	기타	153	46.4	53.6
거주지	동부산	532	50.2	49.8
	중부산	562	46.1	53.9
	서부산	200	44.0	56.0
	부산 외	137	48.2	51.8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전월세 거주하거나 미혼인 경우는 산재보험 납부액 일부 지원 시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4-3. 업무상 재해 발생 정도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5점 척도 평가, 단위 : %]



- 업무상 재해 발생 정도를 살펴보면, 전혀 아니다 8.8%, 아니다 43.1%, 보통이다 32.7%, 그렇다 12.2%, 매우 그렇다 3.2%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15.4%가 업무상 재해 발생하는 편이라고 응답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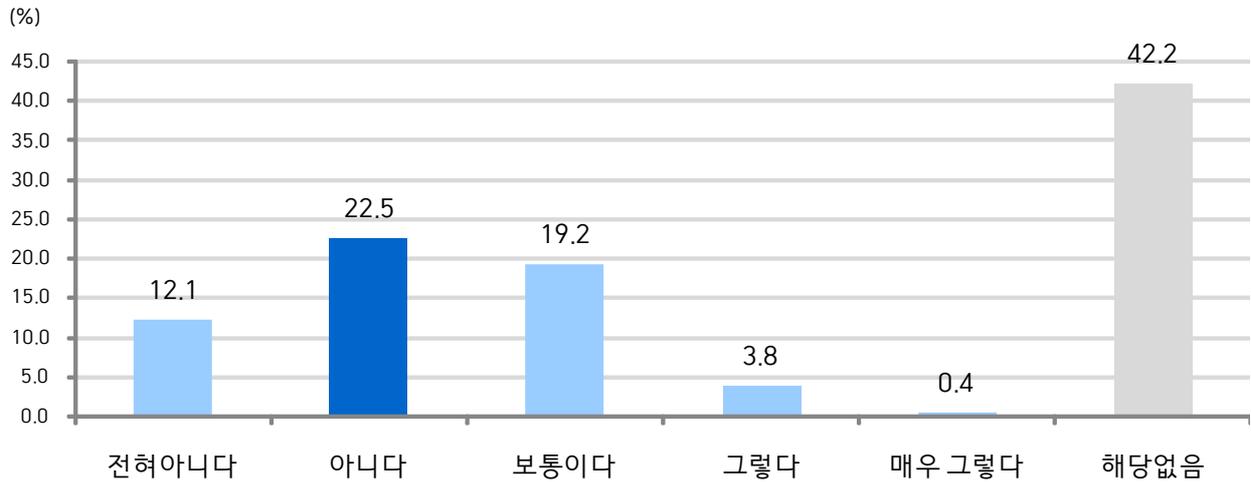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분류			5점 평균 (점)	
							낮음 (1+2점)	보통	높음 (4+5점)		
전체	2,000	8.8	43.1	32.7	12.2	3.2	51.9	32.7	15.4	2.58	
성별	남자	925	9.9	43.6	31.2	12.1	3.1	53.5	31.2	15.2	2.55
	여자	1,075	7.8	42.7	34.0	12.3	3.3	50.5	34.0	15.5	2.60
연령	30대 이하	579	4.8	25.6	41.1	21.6	6.9	30.4	41.1	28.5	3.00
	40~50대	865	9.2	45.8	32.6	10.1	2.3	55.0	32.6	12.4	2.50
	60대 이상	556	12.2	57.2	24.1	5.8	0.7	69.4	24.1	6.5	2.26
예술분야	문학	381	18.6	56.2	21.0	3.7	0.5	74.8	21.0	4.2	2.11
	미술	695	7.2	44.5	33.8	11.4	3.2	51.7	33.8	14.5	2.59
	음악	393	7.1	44.0	35.4	10.7	2.8	51.1	35.4	13.5	2.58
	무용	104	1.9	23.1	40.4	25.0	9.6	25.0	40.4	34.6	3.17
	연극	132	5.3	22.7	40.9	23.5	7.6	28.0	40.9	31.1	3.05
	영화	52	3.8	38.5	34.6	21.2	1.9	42.3	34.6	23.1	2.79
	연예	28	0.0	42.9	28.6	28.6	0.0	42.9	28.6	28.6	2.86
	국악	133	9.0	36.1	30.8	18.8	5.3	45.1	30.8	24.1	2.75
	사진	47	6.4	40.4	40.4	12.8	0.0	46.8	40.4	12.8	2.60
	건축	25	4.0	44.0	40.0	8.0	4.0	48.0	40.0	12.0	2.64
	만화	10	0.0	20.0	80.0	0.0	0.0	20.0	80.0	0.0	2.80
국민연금	가입	1,008	8.9	44.1	32.7	11.1	3.1	53.1	32.7	14.2	2.55
	미가입	992	8.7	42.0	32.7	13.3	3.3	50.7	32.7	16.6	2.61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9.3	41.3	32.0	14.1	3.3	50.6	32.0	17.4	2.61
	겸업 예술인	913	8.2	45.2	33.5	10.0	3.1	53.5	33.5	13.0	2.54
예술활동명	완료	795	9.2	40.5	32.3	14.3	3.6	49.7	32.3	18.0	2.63
	미완료	1,205	8.5	44.8	32.9	10.8	2.9	53.4	32.9	13.7	2.55
주거형태	자가	1,206	10.1	48.8	30.3	8.9	1.9	58.9	30.3	10.8	2.44
	전월세	653	6.9	35.5	35.5	16.8	5.2	42.4	35.5	22.1	2.78
	기타	141	6.4	29.8	39.7	19.1	5.0	36.2	39.7	24.1	2.87
결혼상태	기혼	1,257	10.5	49.8	27.9	9.5	2.2	60.3	27.9	11.8	2.43
	미혼	545	4.2	26.8	42.8	20.4	5.9	31.0	42.8	26.2	2.97
	기타	198	10.6	45.5	35.4	6.6	2.0	56.1	35.4	8.6	2.44
거주지	동부산	747	7.9	44.0	35.3	10.7	2.0	51.9	35.3	12.7	2.55
	중부산	795	10.2	42.8	29.6	13.8	3.6	53.0	29.6	17.5	2.58
	서부산	284	7.4	46.1	33.1	9.2	4.2	53.5	33.1	13.4	2.57
	부산 외	174	8.6	35.6	35.1	16.1	4.6	44.3	35.1	20.7	2.72

- 예술 분야별로는 무용과 연극, 영화, 연예, 국악 분야 예술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4-4. 재해 보상 여부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5점 척도 평가, 단위 : %]



- 보인 혹은 주변 동료들이 재해를 입은 경우 적절하게 보상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전혀 아니다 12.1%, 아니다 22.5%, 보통이다 19.2, 그렇다 3.8%, 매우 그렇다 0.4%로 응답됨
- 한편, 해당 없음 42.2%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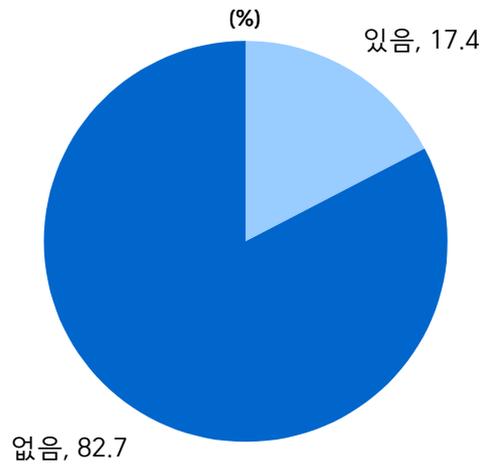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3분류			5점 평균 (점)	
									아닌 편 (1+2점)	보통	그런 편 (4+5점)	해당 없음	
전체		2,000	12.1	22.5	19.2	3.8	0.4	42.2	34.6	19.2	4.2	42.2	2.27
성별	남자	925	10.9	21.4	20.3	4.6	0.5	42.2	32.3	20.3	5.2	42.2	2.35
	여자	1,075	13.1	23.3	18.1	3.1	0.2	42.1	36.5	18.1	3.3	42.1	2.20
연령	30대 이하	579	16.9	23.1	24.9	4.7	0.5	29.9	40.1	24.9	5.2	29.9	2.27
	40~50대	865	10.3	25.3	20.0	3.6	0.3	40.5	35.6	20.0	3.9	40.5	2.30
	60대 이상	556	9.9	17.3	11.9	3.2	0.2	57.6	27.2	11.9	3.4	57.6	2.21
예술분야	문학	381	9.2	17.3	12.1	3.1	0.0	58.3	26.5	12.1	3.1	58.3	2.22
	미술	695	11.7	24.2	16.3	1.9	0.4	45.6	35.8	16.3	2.3	45.6	2.18
	음악	393	13.5	20.6	23.4	3.6	0.5	38.4	34.1	23.4	4.1	38.4	2.30
	무용	104	16.3	30.8	25.0	4.8	0.0	23.1	47.1	25.0	4.8	23.1	2.24
	연극	132	18.2	33.3	25.0	6.1	0.8	16.7	51.5	25.0	6.8	16.7	2.25
	영화	52	9.6	19.2	28.8	11.5	0.0	30.8	28.8	28.8	11.5	30.8	2.61
	연예	28	10.7	14.3	21.4	10.7	0.0	42.9	25.0	21.4	10.7	42.9	2.56
	국악	133	10.5	25.6	22.6	6.8	0.8	33.8	36.1	22.6	7.5	33.8	2.42
	사진	47	14.9	14.9	19.1	2.1	0.0	48.9	29.8	19.1	2.1	48.9	2.17
	건축	25	8.0	4.0	36.0	20.0	0.0	32.0	12.0	36.0	20.0	32.0	3.00
	만화	10	10.0	20.0	40.0	0.0	0.0	30.0	30.0	40.0	0.0	30.0	2.43
국민연금	가입	1,008	12.2	22.1	19.5	4.4	0.4	41.4	34.3	19.5	4.8	41.4	2.29
	미가입	992	12.0	22.8	18.8	3.2	0.3	42.9	34.8	18.8	3.5	42.9	2.25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12.1	22.5	18.8	3.0	0.5	43.1	34.7	18.8	3.5	43.1	2.25
	겸업 예술인	913	12.0	22.3	19.6	4.7	0.2	41.1	34.4	19.6	4.9	41.1	2.30
예술활동명	완료	795	13.5	25.7	16.2	4.0	0.3	40.4	39.1	16.2	4.3	40.4	2.19
	미완료	1,205	11.2	20.3	21.1	3.7	0.4	43.3	31.5	21.1	4.1	43.3	2.33
주거형태	자가	1,206	10.0	20.5	18.5	3.8	0.3	46.9	30.4	18.5	4.1	46.9	2.32
	전월세	653	14.9	25.6	21.1	4.3	0.3	33.8	40.4	21.1	4.6	33.8	2.24
	기타	141	17.7	24.8	15.6	1.4	0.7	39.7	42.6	15.6	2.1	39.7	2.05
결혼상태	기혼	1,257	10.7	21.2	18.5	3.4	0.5	45.7	31.9	18.5	3.9	45.7	2.30
	미혼	545	15.2	26.2	23.3	5.3	0.2	29.7	41.5	23.3	5.5	29.7	2.27
	기타	198	12.6	19.7	12.1	2.0	0.0	53.5	32.3	12.1	2.0	53.5	2.08
거주지	동부산	747	12.7	23.4	18.3	3.3	0.4	41.8	36.1	18.3	3.7	41.8	2.23
	중부산	795	12.6	22.0	19.1	4.3	0.3	41.8	34.6	19.1	4.5	41.8	2.27
	서부산	284	11.6	23.2	20.1	3.2	0.4	41.5	34.9	20.1	3.5	41.5	2.27
	부산 외	174	8.0	19.0	21.3	4.6	0.6	46.6	27.0	21.3	5.2	46.6	2.45

- 30대 이하와 전월세 거주 예술인, 미혼인 경우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예술 분야별로는 무용과 연극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5. 실업급여 수혜 경험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전체 응답자의 17.4%가 실업급여 수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있음	없음
전체		2,000	17.4	82.7
성별	남자	925	18.7	81.3
	여자	1,075	16.2	83.8
연령	30대 이하	579	20.6	79.4
	40~50대	865	17.6	82.4
	60대 이상	556	13.7	86.3
예술분야	문학	381	18.9	81.1
	미술	695	17.1	82.9
	음악	393	12.7	87.3
	무용	104	17.3	82.7
	연극	132	19.7	80.3
	영화	52	23.1	76.9
	연예	28	7.1	92.9
	국악	133	22.6	77.4
	사진	47	19.1	80.9
	건축	25	28.0	72.0
	만화	10	20.0	80.0
국민연금	가입	1,008	22.1	77.9
	미가입	992	12.5	87.5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14.6	85.4
	겸업 예술인	913	20.6	79.4
예술활동증명	완료	795	18.6	81.4
	미완료	1,205	16.5	83.5
주거형태	자가	1,206	15.9	84.1
	전월세	653	19.3	80.7
	기타	141	20.6	79.4
결혼상태	기혼	1,257	17.4	82.6
	미혼	545	17.6	82.4
	기타	198	16.2	83.8
거주지	동부산	747	16.2	83.8
	중부산	795	16.7	83.3
	서부산	284	22.9	77.1
	부산 외	174	16.1	8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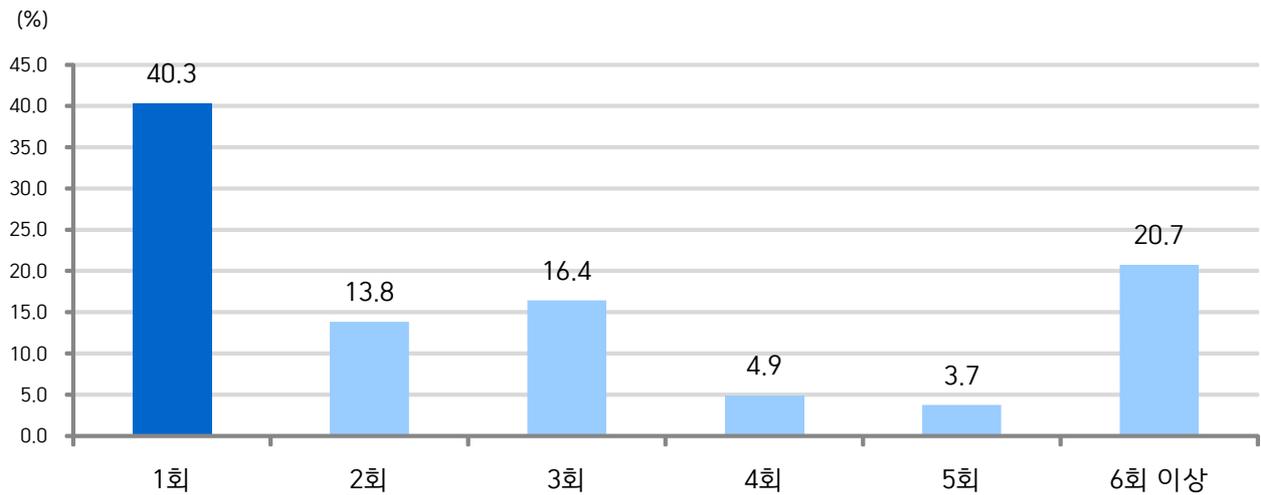
- 예술 분야별로는 영화와 국악, 건축 분야는 실업급여 수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연예는 수혜 경험이 없는 응답 비율이 높은 편임

5-1. 실업급여 수혜횟수

□ 전체

[응답자 수 : 347명, 단위 : %]

[평균 : 3.24 회]



-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혜횟수 1회 40.3%, 2회 13.8%, 3회 16.4%, 4회 4.9%, 5회 3.7%, 6회 이상 20.7%로 응답됨

- 평균 실업급여 수혜횟수는 3.24회임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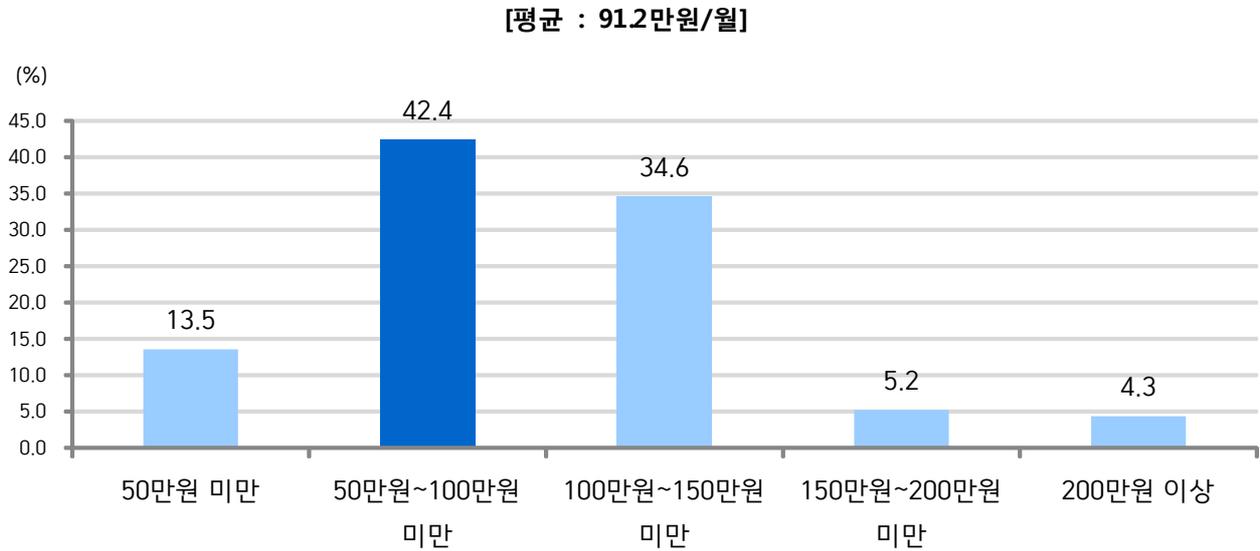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평균(회)	
전체		347	40.3	13.8	16.4	4.9	3.7	20.7	3.24	
성별	남자	173	35.3	10.4	15.6	5.8	4.6	28.3	3.82	
	여자	174	45.4	17.2	17.2	4.0	2.9	13.2	2.67	
연령	30대 이하	119	47.9	14.3	22.7	7.6	2.5	5.0	2.18	
	40~50대	152	42.1	15.8	15.8	2.6	2.6	21.1	3.16	
	60대 이상	76	25.0	9.2	7.9	5.3	7.9	44.7	5.05	
예술분야	문학	72	31.9	12.5	15.3	2.8	6.9	30.6	4.03	
	미술	119	40.3	13.4	16.0	5.9	2.5	21.8	3.29	
	음악	50	56.0	4.0	14.0	6.0	6.0	14.0	2.96	
	무용	18	22.2	16.7	33.3	5.6	0.0	22.2	3.56	
	연극	26	42.3	26.9	26.9	3.8	0.0	0.0	1.92	
	영화	12	66.7	16.7	8.3	0.0	0.0	8.3	1.75	
	연예	2	0.0	0.0	0.0	0.0	50.0	50.0	5.50	
	국악	30	36.7	20.0	16.7	6.7	3.3	16.7	2.83	
	사진	9	33.3	11.1	0.0	0.0	0.0	55.6	4.78	
	건축	7	42.9	28.6	14.3	0.0	0.0	14.3	2.29	
	만화	2	50.0	0.0	0.0	50.0	0.0	0.0	2.50	
	국민연금	가입	223	39.5	13.9	13.5	4.9	3.1	25.1	3.44
		미가입	124	41.9	13.7	21.8	4.8	4.8	12.9	2.88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59	40.3	12.6	18.2	3.8	5.0	20.1	3.31	
	겸업 예술인	188	40.4	14.9	14.9	5.9	2.7	21.3	3.18	
예술활동명	완료	148	34.5	14.2	18.9	4.1	4.1	24.3	3.80	
	미완료	199	44.7	13.6	14.6	5.5	3.5	18.1	2.82	
주거형태	자가	192	38.0	8.3	15.1	3.6	4.2	30.7	3.70	
	전월세	126	41.3	21.4	19.8	6.3	2.4	8.7	2.70	
	기타	29	51.7	17.2	10.3	6.9	6.9	6.9	2.52	
결혼상태	기혼	219	38.4	14.2	16.0	4.1	2.3	25.1	3.41	
	미혼	96	47.9	11.5	18.8	7.3	5.2	9.4	2.58	
	기타	32	31.3	18.8	12.5	3.1	9.4	25.0	4.06	
거주지	동부산	121	37.2	11.6	18.2	7.4	4.1	21.5	3.45	
	중부산	133	42.1	18.0	14.3	3.8	4.5	17.3	2.89	
	서부산	65	44.6	9.2	16.9	1.5	1.5	26.2	3.60	
	부산 외	28	35.7	14.3	17.9	7.1	3.6	21.4	3.18	

- 남자는 여자에 비해,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실업급여 수혜횟수가 많은 편임

5-2. 실업급여 수혜금액

□ 전체

[응답자 수 : 347명, 단위 : %]



-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혜금액을 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50만원 미만 13.5%, 50만원~100만원 미만 42.4%, 100만원~150만원 미만 34.6%, 150만원~200만원 미만 5.2%, 200만원 이상 4.3%로 응답됨

- 평균 실업급여 수혜금액은 월 평균 91.2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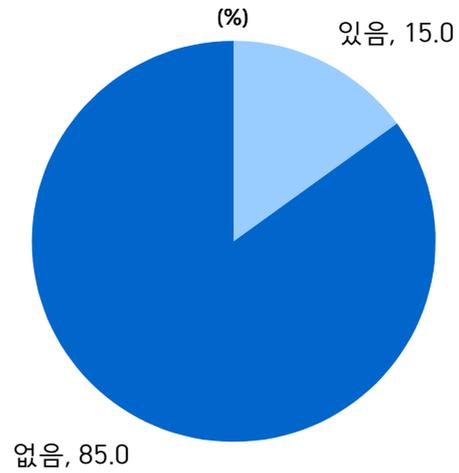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50만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150만원 미만	15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 (만원/월)
전체		347	13.5	42.4	34.6	5.2	4.3	91.2
성별	남자	173	12.7	41.0	36.4	5.2	4.6	93.2
	여자	174	14.4	43.7	32.8	5.2	4.0	89.2
연령	30대 이하	119	10.1	41.2	41.2	5.0	2.5	93.7
	40~50대	152	14.5	46.7	27.6	5.9	5.3	89.2
	60대 이상	76	17.1	35.5	38.2	3.9	5.3	91.3
예술분야	문학	72	13.9	26.4	43.1	5.6	11.1	106.6
	미술	119	17.6	42.9	33.6	5.0	0.8	82.7
	음악	50	4.0	44.0	40.0	10.0	2.0	97.6
	무용	18	5.6	55.6	33.3	0.0	5.6	87.9
	연극	26	15.4	50.0	30.8	0.0	3.8	89.0
	영화	12	16.7	50.0	25.0	0.0	8.3	89.5
	연예	2	50.0	0.0	50.0	0.0	0.0	75.0
	국악	30	20.0	53.3	16.7	10.0	0.0	74.4
	사진	9	0.0	44.4	55.6	0.0	0.0	102.8
	건축	7	0.0	71.4	14.3	0.0	14.3	100.0
	만화	2	0.0	50.0	0.0	0.0	50.0	135.0
국민연금	가입	223	15.2	41.7	34.1	4.5	4.5	90.1
	미가입	124	10.5	43.5	35.5	6.5	4.0	93.2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59	13.2	44.7	32.7	5.0	4.4	89.3
	겸업 예술인	188	13.8	40.4	36.2	5.3	4.3	92.8
예술활동명	완료	148	10.1	39.2	36.5	8.1	6.1	98.2
	미완료	199	16.1	44.7	33.2	3.0	3.0	86.0
주거형태	자가	192	10.9	46.4	37.5	2.1	3.1	88.5
	전월세	126	15.1	36.5	34.9	9.5	4.0	94.5
	기타	29	24.1	41.4	13.8	6.9	13.8	94.4
결혼상태	기혼	219	11.9	47.5	31.1	3.7	5.9	91.1
	미혼	96	15.6	34.4	42.7	5.2	2.1	90.9
	기타	32	18.8	31.3	34.4	15.6	0.0	92.5
거주지	동부산	121	13.2	42.1	37.2	5.0	2.5	88.8
	중부산	133	12.8	40.6	35.3	4.5	6.8	94.4
	서부산	65	12.3	50.8	29.2	3.1	4.6	89.5
	부산 외	28	21.4	32.1	32.1	14.3	0.0	90.3

6. 예술활동 과정에서 업무상 상해 경험 유무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전체 응답자의 15.0%가 예술활동 과정에서 업무상 상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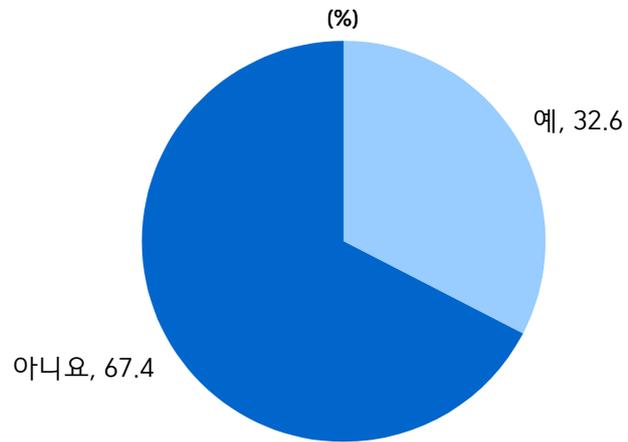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있음	없음
전체		2,000	15.0	85.0
성별	남자	925	17.0	83.0
	여자	1,075	13.3	86.7
연령	30대 이하	579	23.7	76.3
	40~50대	865	14.3	85.7
	60대 이상	556	7.0	93.0
예술분야	문학	381	3.4	96.6
	미술	695	14.2	85.8
	음악	393	12.2	87.8
	무용	104	41.3	58.7
	연극	132	34.1	65.9
	영화	52	7.7	92.3
	연예	28	14.3	85.7
	국악	133	23.3	76.7
	사진	47	17.0	83.0
	건축	25	16.0	84.0
	만화	10	10.0	90.0
	국민연금	가입	1,008	14.8
미가입		992	15.2	84.8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17.3	82.7
	겸업 예술인	913	12.3	87.7
예술활동증명	완료	795	17.7	82.3
	미완료	1,205	13.2	86.8
주거형태	자가	1,206	11.0	89.0
	전월세	653	22.8	77.2
	기타	141	12.8	87.2
결혼상태	기혼	1,257	11.9	88.1
	미혼	545	22.8	77.2
	기타	198	13.1	86.9
거주지	동부산	747	13.8	86.2
	중부산	795	15.6	84.4
	서부산	284	16.2	83.8
	부산 외	174	15.5	84.5

- 30대 이하와 미혼, 전월세 거주 예술인, 무용과 연극, 국악 분야 예술인은 예술활동 과정에서 업무상 상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7. 노후생활 대비 여부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전체 응답자의 32.6%가 노후생활을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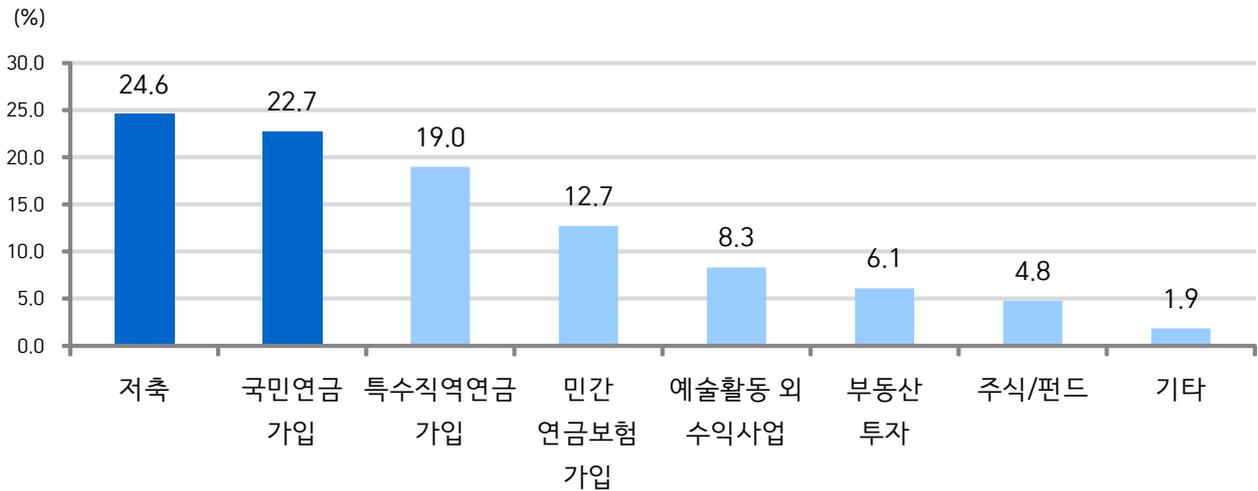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예	아니요
전체		2,000	32.6	67.4
성별	남자	925	32.4	67.6
	여자	1,075	32.7	67.3
연령	30대 이하	579	19.5	80.5
	40~50대	865	36.4	63.6
	60대 이상	556	40.3	59.7
예술분야	문학	381	41.2	58.8
	미술	695	32.4	67.6
	음악	393	31.8	68.2
	무용	104	30.8	69.2
	연극	132	10.6	89.4
	영화	52	15.4	84.6
	연예	28	39.3	60.7
	국악	133	42.1	57.9
	사진	47	19.1	80.9
	건축	25	40.0	60.0
	만화	10	50.0	50.0
국민연금	가입	1,008	31.8	68.2
	미가입	992	33.4	66.6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30.3	69.7
	겸업 예술인	913	35.4	64.6
예술활동증명	완료	795	28.7	71.3
	미완료	1,205	35.2	64.8
주거형태	자가	1,206	42.9	57.1
	전월세	653	17.3	82.7
	기타	141	15.6	84.4
결혼상태	기혼	1,257	39.9	60.1
	미혼	545	18.2	81.8
	기타	198	25.8	74.2
거주지	동부산	747	34.5	65.5
	중부산	795	31.2	68.8
	서부산	284	31.3	68.7
	부산 외	174	32.8	67.2

- 60대 이상과 문학/연예/국악/건축/만화 분야, 주거형태가 자가이거나 기혼인 경우 노후생활을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30대 이하와 연극/영화/사진 분야, 전월세 거주하거나 미혼인 경우 노후생활을 위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7-1. 노후생활 대비 방법

□ 전체

[응답자 수 : 654명, 보기 제시, 중복응답, 단위 : %]



- 노후생활 대비 방법을 살펴보면, 저축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연금 가입 22.7%, 특수지역연금 가입 19.0%, 민간 연금보험 가입 12.7%, 예술활동 외 수익사업 8.3%, 부동산 투자 6.1%, 주식/펀드 4.8%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저축	국민연금 가입	특수지역 연금 가입	*중복응답 민간 연금보험 가입	예술활동 외 수익사업	부동산 투자	주식/펀드	기타
전체		654	24.6	22.7	19.0	12.7	8.3	6.1	4.8	1.9
성별	남자	301	21.5	18.7	26.4	10.0	10.0	6.9	4.7	1.8
	여자	353	27.1	26.0	13.0	14.9	6.9	5.4	4.8	1.9
연령	30대 이하	113	36.6	21.6	2.2	12.5	14.7	4.3	7.8	0.4
	40~50대	315	22.0	26.0	14.6	16.5	7.9	7.0	4.6	1.4
	60대 이상	226	20.5	17.8	38.4	6.3	4.5	5.7	3.0	3.6
예술분야	문학	157	19.9	23.4	27.3	12.9	5.5	6.6	3.5	0.8
	미술	226	24.3	21.8	22.6	12.1	7.8	5.1	3.8	2.4
	음악	126	25.1	20.4	12.8	14.5	11.9	6.0	6.4	3.0
	무용	32	42.3	19.2	9.6	7.7	9.6	3.8	5.8	1.9
	연극	14	16.7	33.3	4.2	8.3	20.8	8.3	8.3	0.0
	영화	8	23.8	19.0	0.0	14.3	14.3	14.3	14.3	0.0
	연예	11	26.1	26.1	0.0	13.0	17.4	8.7	4.3	4.3
	국악	56	29.7	28.7	17.8	13.9	4.0	4.0	2.0	0.0
	사진	9	14.3	28.6	21.4	0.0	7.1	7.1	14.3	7.1
	건축	10	27.6	20.7	10.3	13.8	3.4	17.2	6.9	0.0
	만화	5	16.7	16.7	16.7	33.3	0.0	0.0	16.7	0.0
국민연금	가입	323	24.4	37.2	0.9	14.2	9.8	7.0	5.2	1.4
	미가입	331	24.8	2.7	43.9	10.7	6.3	4.8	4.2	2.5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330	28.4	21.5	21.3	10.9	7.1	5.3	4.0	1.6
	겸업 예술인	324	21.0	23.9	16.8	14.4	9.5	6.9	5.5	2.1
예술활동증명	완료	230	23.2	29.7	17.2	9.3	8.4	5.7	4.1	2.5
	미완료	424	25.2	19.3	19.9	14.4	8.2	6.3	5.1	1.6
주거형태	자가	517	24.0	22.0	21.9	12.8	7.1	6.1	4.2	1.9
	전월세	114	25.5	27.0	10.8	11.8	10.8	6.9	6.4	1.0
	기타	23	31.1	17.8	0.0	15.6	20.0	2.2	8.9	4.4
결혼상태	기혼	502	23.1	21.4	21.9	13.4	7.3	6.8	4.5	1.6
	미혼	100	34.8	26.1	3.3	10.3	15.8	2.7	6.5	0.5
	기타	52	17.1	29.3	23.2	11.0	2.4	6.1	3.7	7.3
거주지	동부산	258	24.9	21.3	19.3	12.6	9.9	5.6	5.4	0.9
	중부산	249	24.3	24.8	19.2	12.5	6.7	6.9	3.7	1.9
	서부산	90	23.6	23.6	20.8	9.0	6.9	6.3	6.3	3.5
	부산 외	57	25.2	18.9	14.4	18.9	9.9	4.5	4.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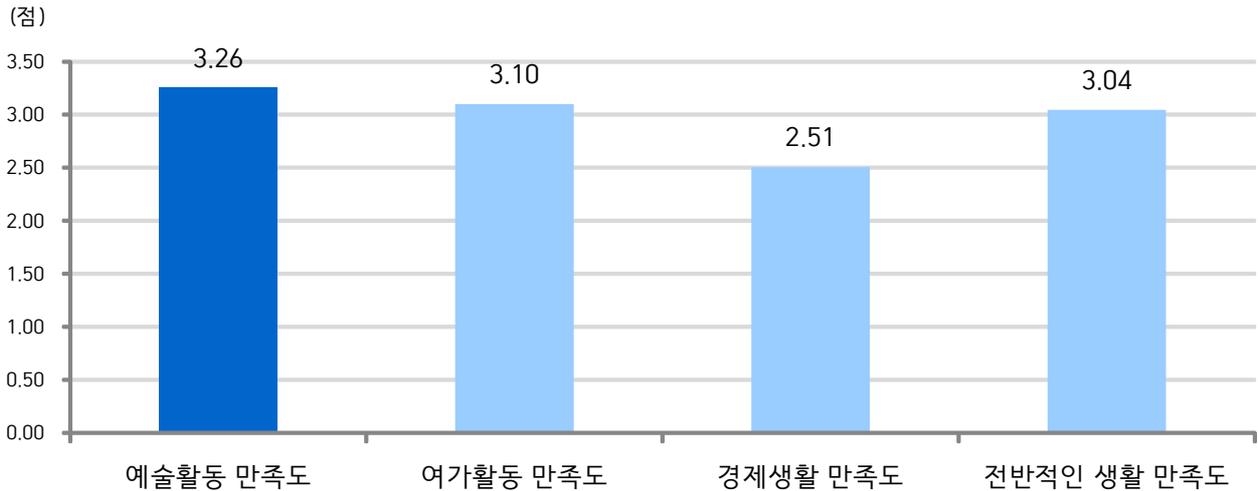
- 30대 이하와 미혼은 저축과 예술활동 외 수익사업, 남자와 60대 이상은 특수지역 연금가입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V. 예술 정책 및 만족도

1. 생활 만족도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5점 척도 평가, 단위 : 점]



항목	응답자 수 (명)	불만족(1+2점)	보통	만족(4+5점)	5점 평균(점)
1) 예술활동 만족도	2,000	18.5	42.5	39.1	3.26
2) 여가활동 만족도	2,000	23.3	43.7	33.0	3.10
3) 경제생활 만족도	2,000	49.2	37.3	13.6	2.51
4)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2,000	24.1	46.2	29.8	3.04

- 생활 만족도를 5점 평균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술활동 만족도가 3.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가활동 만족도 3.10점,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3.04점, 경제생활 만족도 2.51점으로 나타남

☞ 예술활동과 여가활동, 전반적 생활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비율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생활은 불만족 응답 비율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 1) 예술활동 만족도

		응답자 수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3분류			5점 평균 (점)
								불만족 (1+2점)	보통	만족 (4+5점)	
전체		2,000	3.7	14.8	42.5	30.6	8.5	18.5	42.5	39.1	3.26
성별	남자	925	3.7	13.5	39.2	33.2	10.4	17.2	39.2	43.6	3.33
	여자	1,075	3.6	15.9	45.2	28.4	6.9	19.5	45.2	35.3	3.19
연령	30대 이하	579	5.4	16.1	43.4	28.3	6.9	21.4	43.4	35.2	3.15
	40~50대	865	3.6	14.6	42.7	30.8	8.4	18.2	42.7	39.2	3.26
	60대 이상	556	2.0	13.8	41.2	32.7	10.3	15.8	41.2	43.0	3.35
예술분야	문학	381	1.8	16.3	45.1	27.3	9.4	18.1	45.1	36.7	3.26
	미술	695	4.2	14.2	42.4	31.4	7.8	18.4	42.4	39.1	3.24
	음악	393	5.3	16.0	44.3	28.0	6.4	21.4	44.3	34.4	3.14
	무용	104	3.8	14.4	36.5	29.8	15.4	18.3	36.5	45.2	3.38
	연극	132	3.8	13.6	31.8	41.7	9.1	17.4	31.8	50.8	3.39
	영화	52	1.9	9.6	59.6	26.9	1.9	11.5	59.6	28.8	3.17
	연예	28	3.6	21.4	42.9	25.0	7.1	25.0	42.9	32.1	3.11
	국악	133	3.0	14.3	37.6	33.1	12.0	17.3	37.6	45.1	3.37
	사진	47	2.1	12.8	36.2	36.2	12.8	14.9	36.2	48.9	3.45
	건축	25	0.0	8.0	44.0	44.0	4.0	8.0	44.0	48.0	3.44
	만화	10	0.0	10.0	70.0	10.0	10.0	10.0	70.0	20.0	3.20
국민연금	가입	1,008	3.6	15.1	43.9	28.9	8.5	18.7	43.9	37.4	3.24
	미가입	992	3.7	14.5	40.9	32.4	8.5	18.2	40.9	40.8	3.27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3.5	14.1	39.1	32.7	10.7	17.6	39.1	43.3	3.33
	겸업 예술인	913	3.8	15.7	46.4	28.1	5.9	19.5	46.4	34.1	3.17
예술활동증명	완료	795	3.9	14.3	39.4	32.1	10.3	18.2	39.4	42.4	3.31
	미완료	1,205	3.5	15.1	44.5	29.6	7.3	18.6	44.5	36.9	3.22
주거형태	자가	1,206	2.7	12.9	42.9	31.8	9.7	15.6	42.9	41.5	3.33
	전월세	653	4.3	17.2	41.7	29.7	7.2	21.4	41.7	36.9	3.18
	기타	141	8.5	20.6	42.6	24.1	4.3	29.1	42.6	28.4	2.95
결혼상태	기혼	1,257	2.8	14.3	42.3	31.3	9.2	17.1	42.3	40.6	3.30
	미혼	545	5.9	15.8	42.9	29.0	6.4	21.7	42.9	35.4	3.14
	기타	198	3.0	15.2	41.9	30.3	9.6	18.2	41.9	39.9	3.28
거주지	동부산	747	3.1	15.1	42.8	30.4	8.6	18.2	42.8	39.0	3.26
	중부산	795	3.4	13.8	41.3	31.9	9.6	17.2	41.3	41.5	3.30
	서부산	284	4.2	18.3	46.5	25.7	5.3	22.5	46.5	31.0	3.10
	부산 외	174	6.3	12.1	39.7	33.3	8.6	18.4	39.7	42.0	3.26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무용과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예술활동에 만족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 2) 여가활동 만족도

		응답자 수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3분류			5점 평균 (점)
								불만족 (1+2점)	보통	만족 (4+5점)	
전체		2,000	5.1	18.2	43.7	27.5	5.5	23.3	43.7	33.0	3.10
성별	남자	925	5.4	19.1	42.2	27.1	6.2	24.5	42.2	33.3	3.10
	여자	1,075	4.8	17.4	45.0	27.8	4.9	22.2	45.0	32.7	3.11
연령	30대 이하	579	7.3	23.7	39.0	25.9	4.1	30.9	39.0	30.1	2.96
	40~50대	865	5.9	19.5	44.7	24.7	5.1	25.4	44.7	29.8	3.04
	60대 이상	556	1.6	10.4	46.9	33.5	7.6	12.1	46.9	41.0	3.35
예술분야	문학	381	2.6	14.2	42.5	34.1	6.6	16.8	42.5	40.7	3.28
	미술	695	5.6	17.1	46.0	25.6	5.6	22.7	46.0	31.2	3.08
	음악	393	4.6	19.1	46.8	25.7	3.8	23.7	46.8	29.5	3.05
	무용	104	6.7	21.2	38.5	22.1	11.5	27.9	38.5	33.7	3.11
	연극	132	9.1	30.3	32.6	25.8	2.3	39.4	32.6	28.0	2.82
	영화	52	7.7	17.3	46.2	28.8	0.0	25.0	46.2	28.8	2.96
	연예	28	0.0	17.9	57.1	21.4	3.6	17.9	57.1	25.0	3.11
	국악	133	6.8	20.3	36.1	30.1	6.8	27.1	36.1	36.8	3.10
	사진	47	4.3	12.8	40.4	34.0	8.5	17.0	40.4	42.6	3.30
	건축	25	4.0	28.0	48.0	16.0	4.0	32.0	48.0	20.0	2.88
	만화	10	0.0	0.0	60.0	30.0	10.0	0.0	60.0	40.0	3.50
국민연금	가입	1,008	4.5	19.6	45.2	25.8	4.9	24.1	45.2	30.7	3.07
	미가입	992	5.7	16.7	42.1	29.2	6.1	22.5	42.1	35.4	3.13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4.6	18.5	42.0	28.8	6.2	23.1	42.0	35.0	3.13
	겸업 예술인	913	5.7	17.9	45.8	26.0	4.7	23.5	45.8	30.7	3.06
예술활동명	완료	795	6.4	18.7	42.1	26.5	6.2	25.2	42.1	32.7	3.07
	미완료	1,205	4.2	17.8	44.7	28.1	5.1	22.1	44.7	33.2	3.12
주거형태	자가	1,206	4.0	14.9	43.7	30.9	6.5	18.9	43.7	37.4	3.21
	전월세	653	5.7	24.2	43.6	22.2	4.3	29.9	43.6	26.5	2.95
	기타	141	12.1	18.4	44.0	22.7	2.8	30.5	44.0	25.5	2.86
결혼상태	기혼	1,257	3.9	15.1	46.2	28.2	6.5	19.0	46.2	34.8	3.18
	미혼	545	7.3	25.3	37.1	26.6	3.7	32.7	37.1	30.3	2.94
	기타	198	6.6	18.2	46.0	25.3	4.0	24.7	46.0	29.3	3.02
거주지	동부산	747	4.6	17.9	44.3	27.6	5.6	22.5	44.3	33.2	3.12
	중부산	795	5.4	19.0	41.4	28.2	6.0	24.4	41.4	34.2	3.10
	서부산	284	5.6	15.8	50.0	24.6	3.9	21.5	50.0	28.5	3.05
	부산 외	174	5.2	19.5	41.4	28.7	5.2	24.7	41.4	33.9	3.09

-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은 편임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과 사진, 만화 분야는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연극과 건축 분야는 불만족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 3) 경제생활 만족도

	응답자 수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3분류			5점 평균 (점)	
							불만족 (1+2점)	보통	만족 (4+5점)		
전체	2,000	15.8	33.4	37.3	11.7	1.9	49.2	37.3	13.6	2.51	
성별	남자	925	15.2	34.1	35.9	12.4	2.4	49.3	35.9	14.8	2.53
	여자	1,075	16.3	32.7	38.5	11.0	1.5	49.0	38.5	12.5	2.49
연령	30대 이하	579	22.8	38.0	30.4	7.1	1.7	60.8	30.4	8.8	2.27
	40~50대	865	15.0	32.6	38.0	12.5	1.8	47.6	38.0	14.3	2.54
	60대 이상	556	9.7	29.7	43.3	15.1	2.2	39.4	43.3	17.3	2.70
예술분야	문학	381	10.2	31.8	38.6	17.1	2.4	42.0	38.6	19.4	2.70
	미술	695	16.5	32.1	40.1	9.5	1.7	48.6	40.1	11.2	2.48
	음악	393	15.0	35.4	36.1	11.7	1.8	50.4	36.1	13.5	2.50
	무용	104	25.0	26.0	33.7	11.5	3.8	51.0	33.7	15.4	2.43
	연극	132	26.5	41.7	26.5	5.3	0.0	68.2	26.5	5.3	2.11
	영화	52	15.4	38.5	34.6	11.5	0.0	53.8	34.6	11.5	2.42
	연예	28	14.3	42.9	35.7	7.1	0.0	57.1	35.7	7.1	2.36
	국악	133	14.3	34.6	35.3	14.3	1.5	48.9	35.3	15.8	2.54
	사진	47	21.3	29.8	36.2	8.5	4.3	51.1	36.2	12.8	2.45
	건축	25	0.0	28.0	48.0	20.0	4.0	28.0	48.0	24.0	3.00
	만화	10	10.0	30.0	40.0	10.0	10.0	40.0	40.0	20.0	2.80
국민연금	가입	1,008	14.7	34.9	39.1	9.7	1.6	49.6	39.1	11.3	2.49
	미가입	992	16.9	31.8	35.5	13.6	2.2	48.7	35.5	15.8	2.52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16.6	34.3	35.9	11.4	1.8	50.9	35.9	13.2	2.48
	겸업 예술인	913	14.9	32.2	39.0	11.9	2.0	47.1	39.0	13.9	2.54
예술활동증명	완료	795	19.2	36.7	33.1	9.2	1.8	56.0	33.1	10.9	2.37
	미완료	1,205	13.5	31.1	40.1	13.3	2.0	44.6	40.1	15.3	2.59
주거형태	자가	1,206	10.8	28.4	42.5	16.3	2.2	39.1	42.5	18.4	2.71
	전월세	653	21.7	42.3	28.9	5.5	1.5	64.0	28.9	7.0	2.23
	기타	141	31.2	34.8	31.9	0.7	1.4	66.0	31.9	2.1	2.06
결혼상태	기혼	1,257	10.3	30.5	41.8	15.3	2.1	40.8	41.8	17.4	2.68
	미혼	545	25.5	37.2	30.6	5.3	1.3	62.8	30.6	6.6	2.20
	기타	198	24.2	40.4	27.3	6.1	2.0	64.6	27.3	8.1	2.21
거주지	동부산	747	14.9	34.1	36.5	12.4	2.0	49.0	36.5	14.5	2.53
	중부산	795	15.7	33.6	36.6	12.3	1.8	49.3	36.6	14.1	2.51
	서부산	284	19.4	30.6	39.4	8.5	2.1	50.0	39.4	10.6	2.43
	부산 외	174	14.4	33.3	40.2	10.3	1.7	47.7	40.2	12.1	2.52

-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임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과 건축, 만화 분야는 경제생활에 만족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연극과 연예 분야는 불만족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술활동증명 완료하였거나 전월세 거주 예술인, 미혼인 경우는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 4)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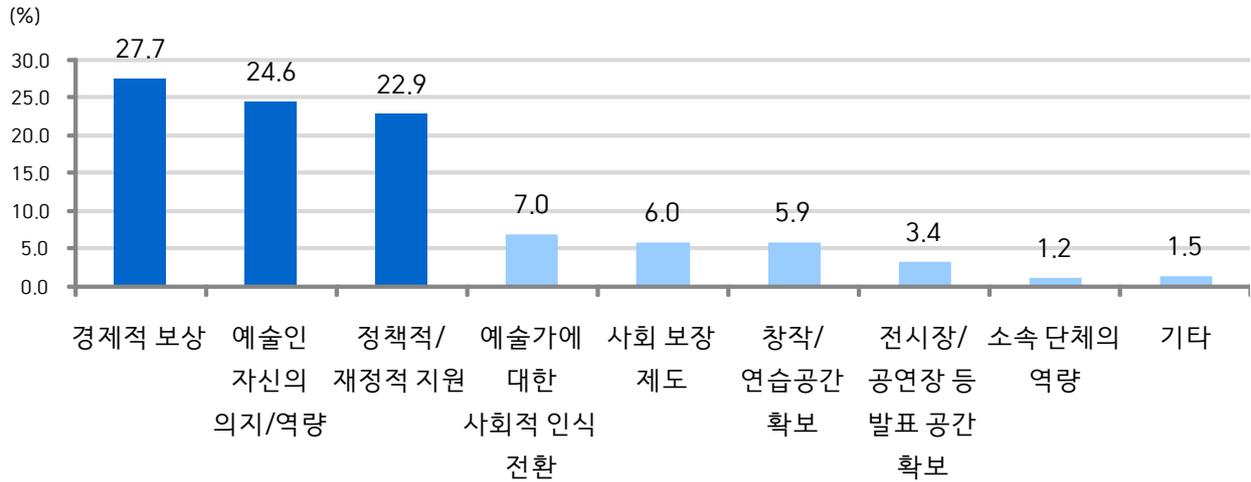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3분류			5점 평균 (점)	
							불만족 (1+2점)	보통	만족 (4+5점)		
전체	2,000	4.7	19.4	46.2	26.3	3.5	24.1	46.2	29.8	3.04	
성별	남자	925	5.3	21.8	44.1	25.1	3.7	27.1	44.1	28.8	3.00
	여자	1,075	4.2	17.2	48.0	27.3	3.3	21.4	48.0	30.6	3.08
연령	30대 이하	579	4.1	21.4	48.5	22.5	3.5	25.6	48.5	25.9	3.00
	40~50대	865	4.9	17.9	44.4	29.0	3.8	22.8	44.4	32.8	3.09
	60대 이상	556	5.0	19.4	46.6	26.1	2.9	24.5	46.6	29.0	3.02
예술분야	문학	381	3.7	17.3	44.1	30.7	4.2	21.0	44.1	34.9	3.14
	미술	695	6.3	19.0	47.1	24.6	3.0	25.3	47.1	27.6	2.99
	음악	393	3.1	22.1	47.8	23.9	3.1	25.2	47.8	27.0	3.02
	무용	104	3.8	19.2	40.4	30.8	5.8	23.1	40.4	36.5	3.15
	연극	132	4.5	22.7	44.7	26.5	1.5	27.3	44.7	28.0	2.98
	영화	52	3.8	21.2	48.1	26.9	0.0	25.0	48.1	26.9	2.98
	연예	28	7.1	35.7	39.3	17.9	0.0	42.9	39.3	17.9	2.68
	국악	133	5.3	12.8	48.9	27.1	6.0	18.0	48.9	33.1	3.16
	사진	47	6.4	25.5	42.6	21.3	4.3	31.9	42.6	25.5	2.91
	건축	25	0.0	4.0	60.0	32.0	4.0	4.0	60.0	36.0	3.36
	만화	10	0.0	10.0	40.0	40.0	10.0	10.0	40.0	50.0	3.50
국민연금	가입	1,008	4.2	19.3	46.8	26.5	3.2	23.5	46.8	29.7	3.05
	미가입	992	5.2	19.4	45.6	26.1	3.7	24.6	45.6	29.8	3.04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5.1	19.8	45.0	26.5	3.7	24.8	45.0	30.2	3.04
	겸업 예술인	913	4.3	18.8	47.6	26.1	3.2	23.1	47.6	29.2	3.05
예술활동명	완료	795	5.8	21.0	44.8	24.8	3.6	26.8	44.8	28.4	2.99
	미완료	1,205	4.0	18.3	47.1	27.3	3.3	22.2	47.1	30.6	3.08
주거형태	자가	1,206	3.3	15.0	46.3	31.7	3.7	18.3	46.3	35.4	3.17
	전월세	653	6.3	26.2	46.6	18.1	2.9	32.5	46.6	21.0	2.85
	기타	141	9.2	24.8	44.0	18.4	3.5	34.0	44.0	22.0	2.82
결혼상태	기혼	1,257	3.7	15.5	47.1	29.8	4.0	19.2	47.1	33.7	3.15
	미혼	545	5.3	24.6	46.6	20.7	2.8	29.9	46.6	23.5	2.91
	기타	198	9.6	29.3	39.4	19.7	2.0	38.9	39.4	21.7	2.75
거주지	동부산	747	3.6	19.1	47.5	25.8	3.9	22.8	47.5	29.7	3.07
	중부산	795	4.9	20.1	43.6	27.8	3.5	25.0	43.6	31.3	3.05
	서부산	284	7.0	18.0	48.9	23.6	2.5	25.0	48.9	26.1	2.96
	부산 외	174	4.6	19.0	47.7	25.9	2.9	23.6	47.7	28.7	3.03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과 무용, 건축, 만화 분야는 현재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연예와 사진 분야는 불만족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가 자가인 경우 전월세에 비해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높음

2. 예술창작을 위한 필요 요소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예술창작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살펴보면, 경제적 보상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인 자신의 의지/역량 24.6%, 정책적/재정적 지원 22.9%,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7.0%, 사회 보장 제도 6.0%, 창작/연습공간 확보 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훌륭한 예술창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경제적 보상과 예술인 자신의 의지/역량, 정책적/재정적 지원 3가지 요소에 대해서 고른 비율로 응답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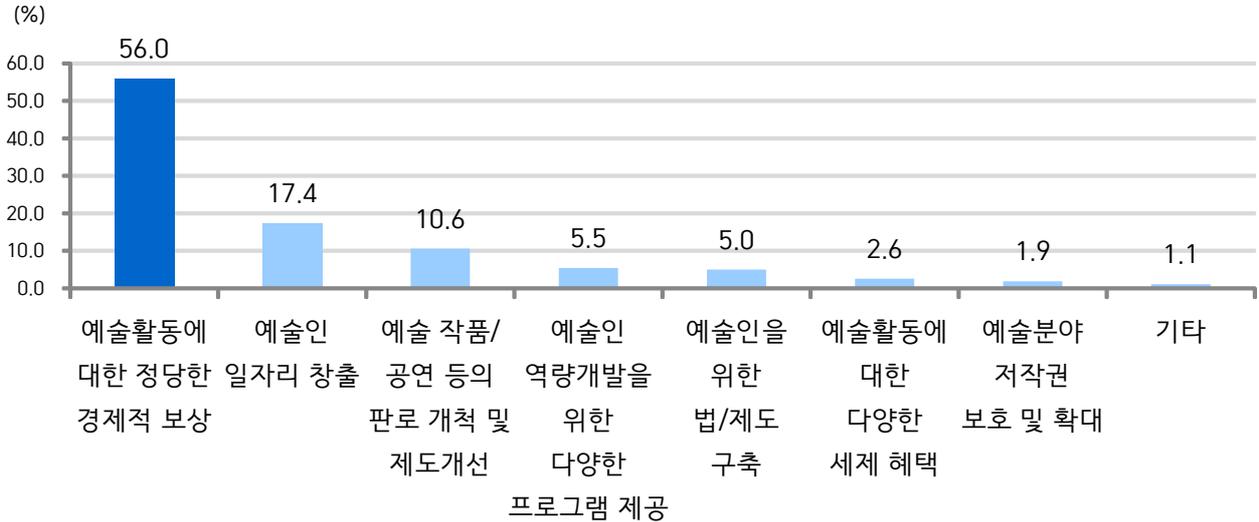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경제적 보상	예술인 자신의 의지/역량	정책적/재정적 지원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사회보장 제도	창작/연습공간 확보	전시장/공연장 등 발표 공간 확보	소속 단체의 역량	기타
전체		2,000	27.7	24.6	22.9	7.0	6.0	5.9	3.4	1.2	1.5
성별	남자	925	25.3	27.1	22.2	8.3	6.3	5.0	3.1	1.1	1.6
	여자	1,075	29.8	22.3	23.5	5.9	5.7	6.7	3.5	1.3	1.3
연령	30대 이하	579	35.4	17.4	20.6	6.9	6.9	7.3	1.9	1.6	2.1
	40~50대	865	26.7	22.1	25.9	7.5	5.9	6.0	3.7	0.9	1.3
	60대 이상	556	21.2	35.8	20.7	6.3	5.0	4.3	4.3	1.3	1.1
예술분야	문학	381	23.1	40.9	20.7	3.7	4.7	3.1	2.1	1.0	0.5
	미술	695	28.1	23.7	20.3	6.8	7.1	8.5	4.0	0.3	1.3
	음악	393	32.8	15.8	24.7	9.2	4.3	5.9	2.8	2.3	2.3
	무용	104	22.1	23.1	26.9	7.7	9.6	5.8	3.8	0.0	1.0
	연극	132	25.8	20.5	27.3	6.8	6.8	5.3	3.0	1.5	3.0
	영화	52	32.7	19.2	23.1	11.5	7.7	3.8	1.9	0.0	0.0
	연예	28	39.3	7.1	17.9	14.3	3.6	0.0	10.7	7.1	0.0
	국악	133	26.3	18.0	30.8	6.0	7.5	4.5	1.5	2.3	3.0
	사진	47	25.5	29.8	25.5	4.3	2.1	4.3	8.5	0.0	0.0
	건축	25	28.0	24.0	16.0	16.0	0.0	4.0	8.0	4.0	0.0
	만화	10	30.0	10.0	30.0	20.0	0.0	0.0	0.0	10.0	0.0
국민연금	가입	1,008	28.8	22.3	23.9	7.5	6.2	5.9	3.3	1.0	1.2
	미가입	992	26.6	26.8	21.9	6.5	5.7	5.9	3.4	1.4	1.7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28.5	24.9	22.6	7.7	4.9	4.8	3.7	1.0	1.8
	겸업 예술인	913	26.7	24.1	23.2	6.1	7.2	7.2	3.0	1.4	1.0
예술활동명	완료	795	32.5	22.4	21.6	6.7	6.5	4.9	2.9	0.8	1.8
	미완료	1,205	24.6	26.0	23.7	7.2	5.6	6.6	3.7	1.5	1.2
주거형태	자가	1,206	25.0	28.9	23.4	7.2	4.9	5.3	3.8	0.7	0.8
	전월세	653	30.8	18.4	21.9	7.4	7.4	6.7	2.6	2.1	2.8
	기타	141	36.9	16.3	23.4	3.5	8.5	7.1	2.8	0.7	0.7
결혼상태	기혼	1,257	25.3	27.9	23.5	7.1	4.9	5.3	3.7	1.0	1.3
	미혼	545	33.8	16.7	22.2	7.7	7.2	7.3	2.2	1.1	1.8
	기타	198	26.3	24.7	21.2	4.5	9.1	6.1	4.0	2.5	1.5
거주지	동부산	747	28.0	25.7	23.3	6.6	5.0	6.3	2.7	0.8	1.7
	중부산	795	27.3	25.3	22.0	7.4	6.4	5.0	3.6	1.3	1.6
	서부산	284	27.8	22.2	23.2	7.7	7.0	6.0	3.2	2.1	0.7
	부산 외	174	28.2	20.1	24.7	5.7	6.3	8.0	5.2	1.1	0.6

-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는 경제적 보상, 60대 이상은 예술인 자신의 의지/역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술 분야별로는 음악과 연예 분야는 경제적 보상, 문학과 사진 분야는 예술인 자신의 의지/역량, 국악 분야는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3.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기 위해 중요한 점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기 위해 중요한 점으로는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이 56.0%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예술인 일자리 창출 17.4%, 예술 작품/공연 등의 판로 개척 및 제도개선 10.6%, 예술인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5.5%, 예술인을 위한 법/제도 구축 5.0%, 예술활동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 2.6%, 예술분야 저작권 보호 및 확대 1.9%의 순임

☞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으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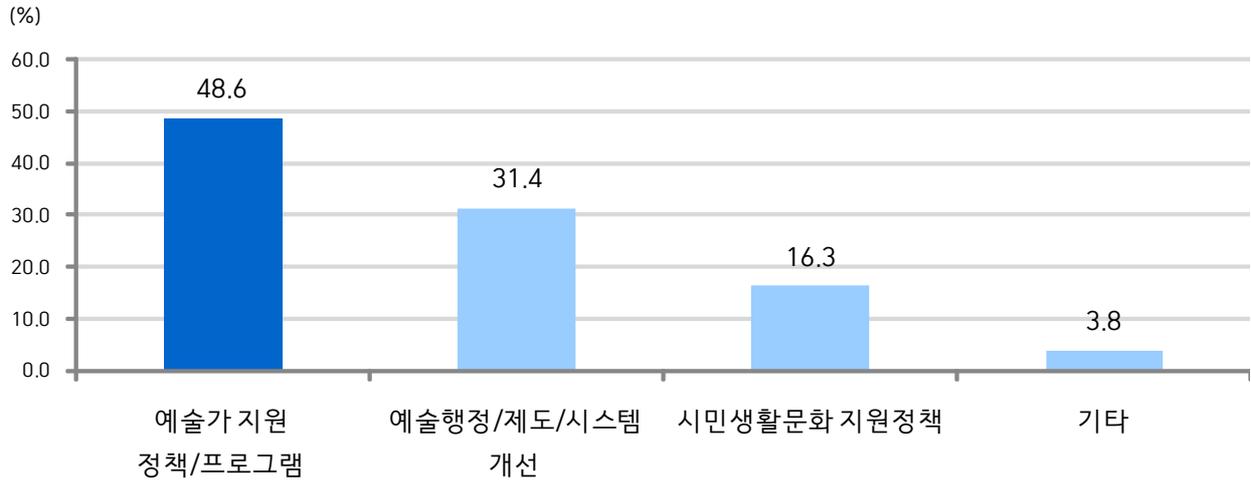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	예술인 일자리 창출	예술 작품/공연 등의 판로 개척 및 제도개선	예술인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예술인을 위한 법/제도 구축	예술활동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	예술분야 저작권 보호 및 확대	기타	
전체	2,000	56.0	17.4	10.6	5.5	5.0	2.6	1.9	1.1	
성별	남자	925	59.4	13.8	9.8	5.2	6.4	2.5	1.8	1.1
	여자	1,075	53.1	20.5	11.3	5.7	3.8	2.6	2.0	1.1
연령	30대 이하	579	57.5	21.2	6.7	4.3	5.0	2.6	1.7	0.9
	40~50대	865	57.3	15.4	12.3	4.4	5.2	2.9	1.7	0.8
	60대 이상	556	52.3	16.5	12.1	8.3	4.7	2.0	2.3	1.8
예술분야	문학	381	59.6	15.5	5.0	10.2	3.4	2.1	3.1	1.0
	미술	695	54.8	14.7	15.4	3.6	5.6	3.5	1.6	0.9
	음악	393	55.0	22.1	10.4	4.8	3.1	1.3	2.0	1.3
	무용	104	53.8	24.0	9.6	3.8	8.7	0.0	0.0	0.0
	연극	132	61.4	11.4	11.4	3.8	5.3	3.0	0.8	3.0
	영화	52	63.5	17.3	5.8	7.7	3.8	1.9	0.0	0.0
	연예	28	42.9	28.6	3.6	14.3	3.6	7.1	0.0	0.0
	국악	133	57.1	22.6	6.0	4.5	6.0	2.3	0.8	0.8
	사진	47	40.4	19.1	12.8	4.3	12.8	4.3	2.1	4.3
	건축	25	60.0	4.0	0.0	4.0	8.0	8.0	16.0	0.0
	만화	10	40.0	30.0	20.0	0.0	10.0	0.0	0.0	0.0
국민연금	가입	1,008	55.9	18.4	10.8	5.0	5.1	2.8	1.3	0.9
	미가입	992	56.1	16.4	10.4	5.9	4.9	2.3	2.5	1.3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56.0	16.2	11.8	4.6	5.6	2.5	1.9	1.4
	겸업 예술인	913	56.0	18.8	9.2	6.5	4.3	2.6	1.9	0.8
예술활동명	완료	795	61.8	16.2	8.9	3.8	4.7	1.8	1.9	1.0
	미완료	1,205	52.2	18.2	11.7	6.6	5.2	3.1	1.9	1.2
	자가	1,206	56.1	16.7	10.7	6.1	4.7	2.7	2.2	0.8
주거형태	전월세	653	57.0	17.0	10.1	5.1	5.2	2.6	1.4	1.7
	기타	141	51.1	24.8	12.1	2.1	6.4	1.4	1.4	0.7
결혼상태	기혼	1,257	56.2	16.1	11.8	5.8	4.5	2.3	2.3	1.0
	미혼	545	58.7	20.0	8.1	3.9	5.3	2.4	0.9	0.7
	기타	198	47.5	18.2	10.1	7.6	7.1	4.5	2.0	3.0
거주지	동부산	747	57.7	17.5	9.2	6.2	4.6	2.3	1.6	0.9
	중부산	795	55.1	18.0	10.8	5.2	4.8	2.9	2.0	1.3
	서부산	284	55.3	16.5	9.2	5.3	7.4	2.1	2.8	1.4
	부산 외	174	54.0	15.5	17.8	4.0	4.0	2.9	1.1	0.6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극과 영화 분야는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 무용과 연예, 국악, 만화는 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4.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점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부산의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해 중요한 점으로는 예술가 지원 정책/프로그램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행정/제도/시스템 개선 31.4%, 시민생활문화 지원정책 16.3%의 순임

☞ 예술인들은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가 지원 정책/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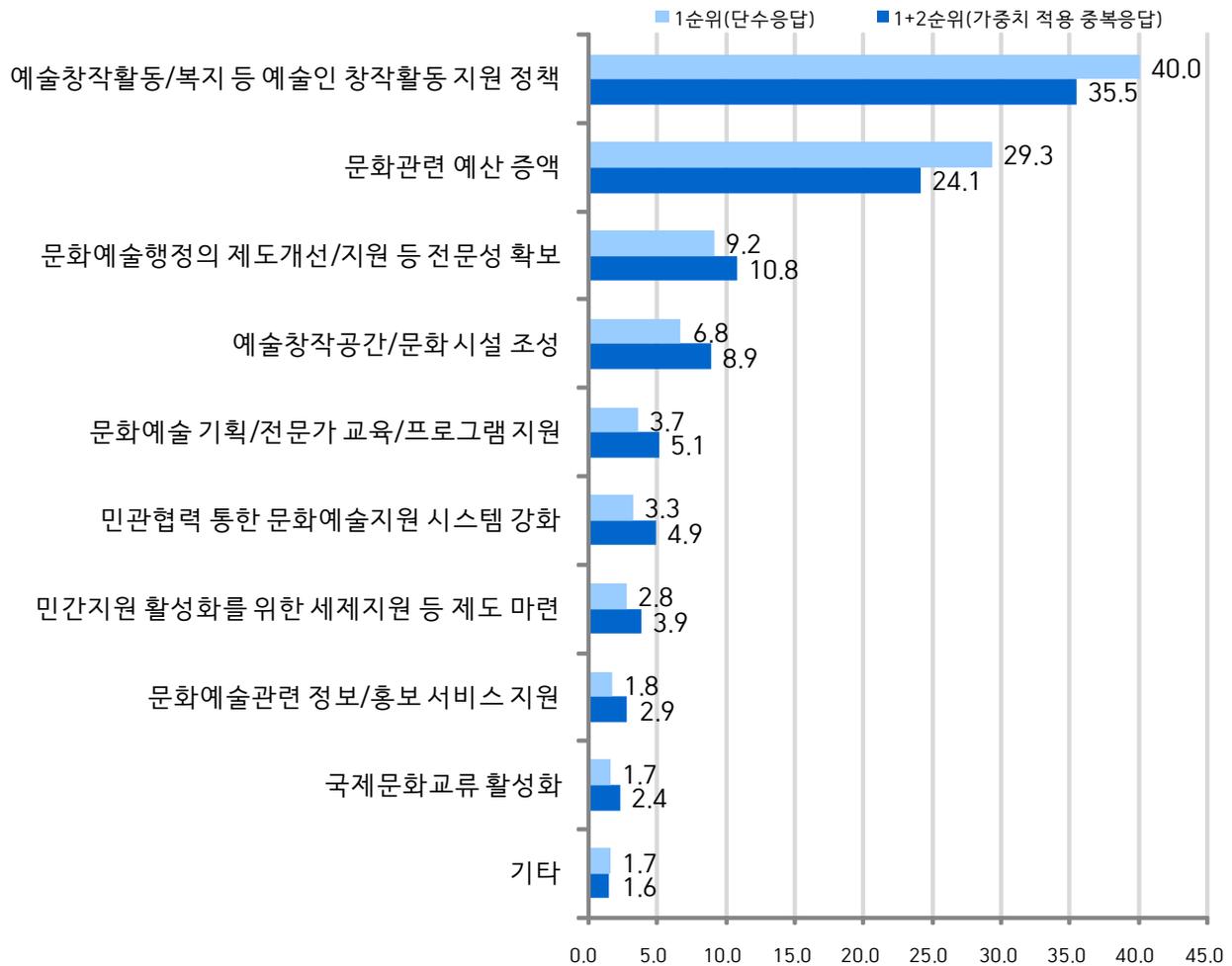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예술가 지원 정책/프로그램	예술행정/제도/ 시스템 개선	시민생활문화 지원정책	기타
전체		2,000	48.6	31.4	16.3	3.8
성별	남자	925	45.8	33.3	16.3	4.5
	여자	1,075	51.0	29.7	16.3	3.1
연령	30대 이하	579	49.2	32.6	14.3	3.8
	40~50대	865	48.2	34.2	14.5	3.1
	60대 이상	556	48.6	25.5	21.2	4.7
예술 분야	문학	381	52.2	21.5	22.0	4.2
	미술	695	51.4	30.8	14.2	3.6
	음악	393	45.3	36.1	14.8	3.8
	무용	104	45.2	36.5	16.3	1.9
	연극	132	44.7	32.6	17.4	5.3
	영화	52	36.5	50.0	13.5	0.0
	연예	28	39.3	42.9	14.3	3.6
	국악	133	50.4	33.8	10.5	5.3
	사진	47	42.6	31.9	23.4	2.1
	건축	25	36.0	36.0	24.0	4.0
국민 연금	가입	1,008	47.9	33.6	15.7	2.8
	미가입	992	49.3	29.0	16.9	4.7
직업 구분	전업 예술인	1,087	49.6	31.6	14.4	4.4
	겸업 예술인	913	47.4	31.1	18.5	3.0
예술 활동 증명	완료	795	49.9	32.1	14.3	3.6
	미완료	1,205	47.7	30.9	17.6	3.8
주거 형태	자가	1,206	50.3	29.4	17.0	3.2
	전월세	653	46.1	33.4	15.8	4.7
결혼 상태	기타	141	45.4	38.3	12.8	3.5
	기혼	1,257	49.0	30.2	16.7	4.1
	미혼	545	47.3	34.5	15.2	2.9
거주 지	기타	198	49.5	29.8	16.7	4.0
	동부산	747	50.2	31.3	13.9	4.6
	중부산	795	46.9	31.7	17.5	3.9
	서부산	284	46.1	31.7	20.4	1.8
	부산 외	174	53.4	29.3	14.4	2.9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만화 분야는 예술가 지원 정책/프로그램과 시민생활문화 지원정책, 문학과 사진, 건축 분야는 시민생활문화 지원정책, 무용과 영화, 연예 분야는 예술행정/제도/시스템 개선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5.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부산시 중점 정책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가중치 설정 비중(1순위:2순위=2:1), 단위 : %]



-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중점 정책을 1+2순위 가중치를 적용한 중복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술창작활동/복지 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정책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화관련 예산 증액 24.1%, 문화예술행정의 제도개선/지원 등 전문성 확보 10.8%, 예술창작공간/문화 시설 조성 8.9%, 문화예술 기획/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지원 5.1%, 민관협력 통한 문화예술지원 시스템 강화 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는 예술창작활동/복지 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한 문화관련 예산 증액도 2순위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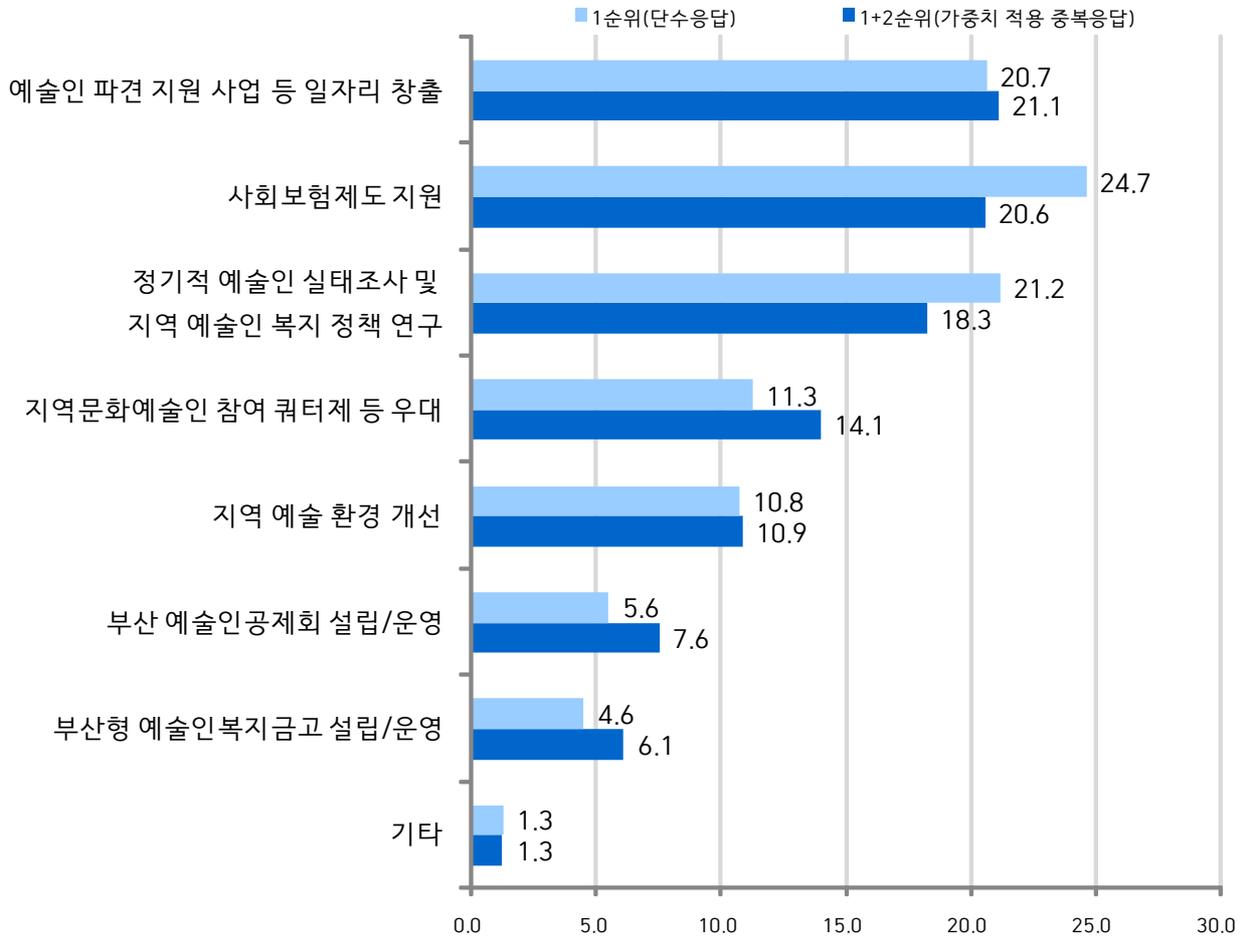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1순위 응답 기준									
			예술창작 활동/ 복지 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정책	문화관련 예산 증액	문화예술 행정의 제도 개선/ 지원 등 전문성 확보	예술창작 공간/ 문화 시설 조성	문화예술 기획/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지원	민관협력 통한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강화	민간지원틀 위한 세제 지원 제도 마련	문화예술 관련 정보/ 홍보 서비스 지원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	기타
전체		2,000	40.0	29.3	9.2	6.8	3.7	3.3	2.8	1.8	1.7	1.7
성별	남자	925	38.9	32.5	9.7	6.7	1.3	3.2	2.7	1.8	1.1	1.9
	여자	1,075	40.9	26.5	8.7	6.8	5.7	3.3	2.9	1.7	2.1	1.4
연령	30대 이하	579	37.1	30.7	8.3	9.3	4.0	2.8	2.6	2.2	1.9	1.0
	40~50대	865	37.3	29.5	10.5	6.5	4.6	3.1	3.8	1.5	1.7	1.4
	60대 이상	556	47.1	27.5	7.9	4.5	1.8	4.1	1.4	1.6	1.3	2.7
예술 분야	문학	381	46.5	31.8	6.3	5.0	3.4	2.6	1.3	1.0	1.3	0.8
	미술	695	47.1	21.6	8.9	7.5	3.5	2.2	3.0	1.4	2.3	2.6
	음악	393	29.8	34.1	10.7	8.4	3.6	5.3	4.6	2.0	0.5	1.0
	무용	104	31.7	30.8	8.7	4.8	7.7	5.8	3.8	1.9	2.9	1.9
	연극	132	40.9	29.5	8.3	7.6	1.5	4.5	0.8	3.8	1.5	1.5
	영화	52	40.4	36.5	9.6	7.7	3.8	0.0	0.0	0.0	1.9	0.0
	연예	28	21.4	39.3	10.7	0.0	7.1	0.0	3.6	10.7	0.0	7.1
	국악	133	29.3	43.6	12.8	3.0	3.8	2.3	1.5	0.8	2.3	0.8
	사진	47	29.8	25.5	10.6	10.6	4.3	4.3	6.4	4.3	2.1	2.1
	건축	25	32.0	32.0	12.0	8.0	0.0	12.0	4.0	0.0	0.0	0.0
	만화	10	40.0	20.0	20.0	10.0	10.0	0.0	0.0	0.0	0.0	0.0
국민연금	가입	1,008	38.6	31.4	9.4	5.7	3.1	3.5	3.1	1.7	2.0	1.6
	미가입	992	41.4	27.1	8.9	7.9	4.2	3.1	2.5	1.8	1.3	1.7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40.4	30.2	9.4	5.7	3.2	3.4	2.6	1.6	1.8	1.7
	겸업 예술인	913	39.5	28.3	8.9	8.0	4.2	3.2	3.1	2.0	1.4	1.5
예술활동명	완료	795	42.8	30.8	8.9	6.7	2.4	2.6	1.6	1.6	1.4	1.1
	미완료	1,205	38.2	28.3	9.3	6.8	4.5	3.7	3.6	1.8	1.8	2.0
주거형태	자가	1,206	41.2	29.8	8.1	6.5	3.7	3.3	2.9	1.7	1.3	1.4
	전월세	653	38.4	29.9	11.2	6.3	3.4	2.9	2.5	1.5	2.0	2.0
	기타	141	36.9	22.7	8.5	11.3	4.3	5.0	3.5	2.8	2.8	2.1
결혼상태	기혼	1,257	41.0	29.2	9.6	6.0	3.3	3.1	3.2	1.4	1.3	1.8
	미혼	545	38.3	28.6	8.4	9.0	4.0	3.3	2.6	2.6	2.0	1.1
	기타	198	38.4	31.8	8.1	5.1	4.5	4.5	1.0	1.5	3.0	2.0
거주지	동부산	747	39.9	28.6	9.8	6.3	3.3	2.7	3.5	1.9	2.0	2.0
	중부산	795	40.6	29.9	10.1	5.9	3.3	3.6	2.5	1.5	1.1	1.4
	서부산	284	40.1	29.6	6.0	8.1	6.3	3.9	1.4	2.5	1.1	1.1
	부산 외	174	37.4	28.7	7.5	10.3	2.3	3.4	3.4	1.1	3.4	2.3

- 문학과 미술 분야는 예술창작활동/복지 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정책, 영화/연예/국악은 문화관련 예산 증액, 만화는 문화예술행정의 제도개선/지원 등 전문성 확보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6. 부산 예술인 관련 중요 복지 정책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가중치 설정 비중(1순위:2순위=2:1), 단위 : %]



- 부산 예술인 관련 중요 복지 정책을 1+2순위 가중치를 적용한 중복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이 2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보험제도 지원 20.6%, 정기적 예술인 실태조사 및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 연구 18.3%, 지역문화예술인 참여 쿼터제 등 우대 14.1%, 지역 예술 환경 개선 10.9% 등의 순으로 응답됨

☞ 부산 예술인에 대한 복지 정책 중에서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제도 지원이 2순위, 정기적인 예술인 실태조사 및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 연구가 3순위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1순위 응답 기준								
		사회보험 제도 지원	정기적 예술인 실태조사 및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 연구	예술인 파견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지역문화 예술인 참여 쿼터제 우대	지역 예술 환경 개선	부산 예술인 공제회 설립/운영	부산형 예술인 복지금고 설립/운영	기타	
전체	2,000	24.7	21.2	20.7	11.3	10.8	5.6	4.6	1.3	
성별	남자	925	21.9	26.1	16.1	12.3	10.9	5.9	5.0	1.7
	여자	1,075	27.0	17.0	24.7	10.4	10.6	5.2	4.2	0.9
연령	30대 이하	579	26.6	15.7	23.7	7.9	14.3	5.0	5.5	1.2
	40~50대	865	29.5	20.1	21.0	13.2	7.1	4.5	3.9	0.7
	60대 이상	556	15.1	28.6	17.1	11.9	12.8	7.7	4.5	2.3
예술 분야	문학	381	18.4	25.5	22.0	11.8	12.1	5.2	3.9	1.0
	미술	695	26.2	22.0	20.9	9.5	7.9	6.0	6.0	1.4
	음악	393	26.7	18.1	20.4	13.2	10.9	5.1	4.8	0.8
	무용	104	30.8	16.3	21.2	11.5	14.4	3.8	1.9	0.0
	연극	132	18.9	18.2	19.7	15.2	13.6	6.8	5.3	2.3
	영화	52	28.8	19.2	21.2	9.6	15.4	1.9	3.8	0.0
	연예	28	32.1	17.9	10.7	14.3	10.7	7.1	0.0	7.1
	국악	133	27.8	19.5	21.8	9.0	12.8	6.8	0.8	1.5
	사진	47	29.8	25.5	17.0	4.3	12.8	4.3	2.1	4.3
	건축	25	8.0	32.0	20.0	20.0	8.0	8.0	4.0	0.0
국민연금	가입	1,008	28.2	19.3	21.5	10.2	9.4	6.3	4.3	0.7
	미가입	992	21.1	23.1	19.9	12.4	12.1	4.7	4.8	1.9
직업 구분	전업 예술인	1,087	23.3	21.0	20.3	12.3	11.3	5.2	5.0	1.7
	겸업 예술인	913	26.3	21.5	21.1	10.1	10.1	6.0	4.1	0.9
예술 활동명	완료	795	25.0	20.3	20.1	11.6	9.2	6.9	5.9	1.0
	미완료	1,205	24.4	21.8	21.1	11.1	11.8	4.6	3.7	1.5
주거 형태	자가	1,206	23.0	22.2	20.1	12.5	11.6	5.8	3.5	1.3
	전월세	653	27.6	21.0	19.9	10.0	9.0	5.4	6.0	1.2
	기타	141	25.5	13.5	29.8	7.1	11.3	4.3	7.1	1.4
결혼 상태	기혼	1,257	22.6	22.4	21.7	12.9	10.5	5.3	3.4	1.3
	미혼	545	30.3	15.8	20.6	8.3	12.3	5.9	5.7	1.3
	기타	198	22.2	28.8	14.6	9.6	8.1	6.6	8.6	1.5
거주지	동부산	747	26.9	21.8	20.2	10.7	9.1	6.2	3.6	1.5
	중부산	795	22.4	22.1	20.9	11.7	11.1	4.4	5.9	1.5
	서부산	284	23.6	20.4	20.1	13.0	12.7	4.9	4.6	0.7
	부산 외	174	27.0	15.5	23.0	9.2	13.2	9.2	2.3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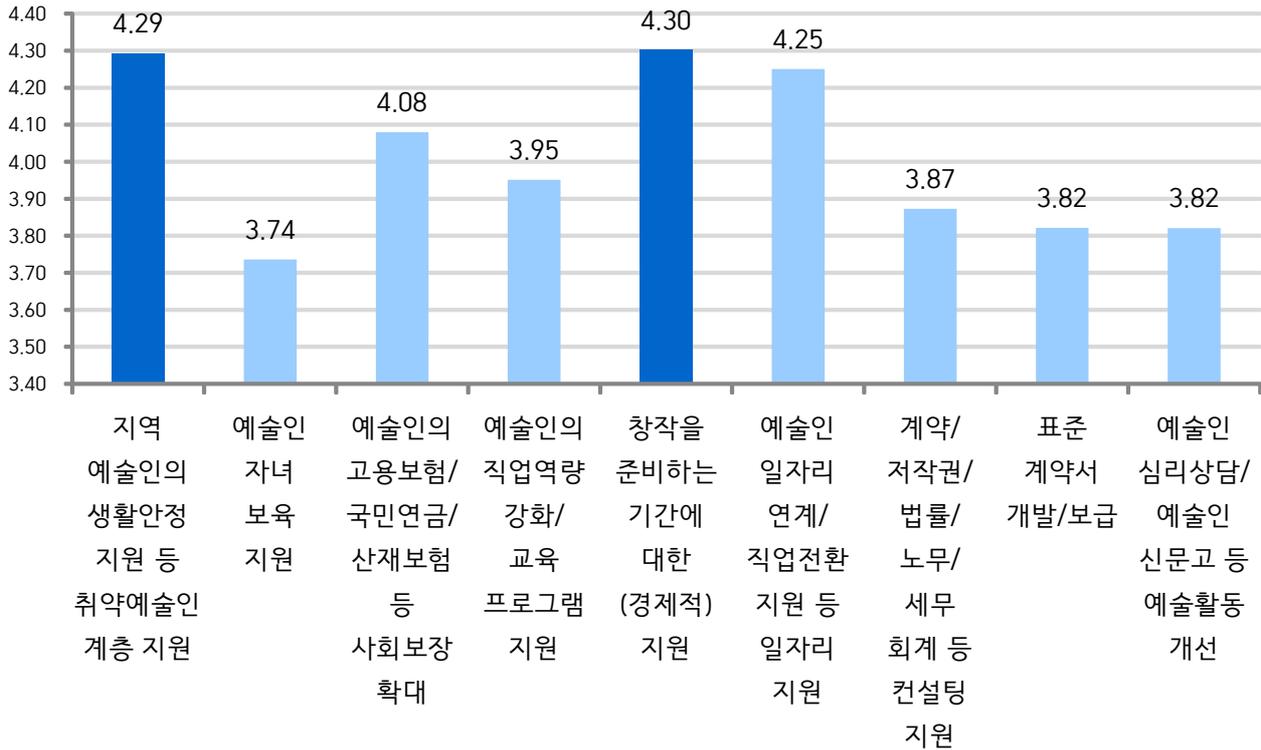
- 무용과 연예, 사진 분야는 사회보험제도 지원, 건축 분야는 정기적 예술인 실태조사 및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 연구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7. 예술인복지법 사업 중요도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5점 척도 평가, 단위 : 점]

(점)



항목	응답자 수 (명)	낮음 (1+2점)	보통	높음 (4+5점)	5점 평균 (점)
1) 지역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인 계층 지원	2,000	1.6	12.5	86.0	4.29
2) 예술인 자녀 보육 지원	2,000	8.6	30.1	61.3	3.74
3) 예술인의 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2,000	2.8	19.7	77.5	4.08
4)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지원	2,000	4.6	22.7	72.8	3.95
5) 창작 준비 기간에 대한 경제적 지원	2,000	2.3	13.6	84.1	4.30
6) 예술인 일자리 연계/직업전환 지원 등 일자리 지원	2,000	2.3	14.2	83.6	4.25
7) 계약/저작권/법률/노무/세무회계 등 컨설팅 지원	2,000	5.2	26.9	68.0	3.87
8)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2,000	6.4	29.1	64.5	3.82
9) 예술인 심리상담/신문고 등 예술활동 개선	2,000	6.6	28.0	65.4	3.82

- 예술인복지법 관련 사업의 중요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창작을 준비하는 기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4.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인 계층 지원 4.29점, 예술인 일자리 연계/직업전환 지원 등 일자리 지원 4.25점, 예술인의 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4.0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 1) 지역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인 계층 지원

		응답자 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3분류			5점 평균 (점)
								낮음 (1+2점)	보통	높음 (4+5점)	
전체		2,000	0.4	1.3	12.5	40.6	45.4	1.6	12.5	86.0	4.29
성별	남자	925	0.8	1.5	12.2	39.9	45.6	2.3	12.2	85.5	4.28
	여자	1,075	0.0	1.0	12.7	41.2	45.1	1.0	12.7	86.3	4.30
연령	30대 이하	579	0.7	1.4	13.1	42.8	42.0	2.1	13.1	84.8	4.24
	40~50대	865	0.3	1.3	13.1	36.0	49.4	1.6	13.1	85.3	4.33
	60대 이상	556	0.0	1.1	10.8	45.5	42.6	1.1	10.8	88.1	4.30
예술분야	문학	381	0.0	1.0	10.5	45.7	42.8	1.0	10.5	88.5	4.30
	미술	695	0.4	1.2	13.5	40.7	44.2	1.6	13.5	84.9	4.27
	음악	393	0.0	1.5	12.7	38.4	47.3	1.5	12.7	85.8	4.32
	무용	104	0.0	0.0	12.5	36.5	51.0	0.0	12.5	87.5	4.38
	연극	132	1.5	0.8	8.3	31.1	58.3	2.3	8.3	89.4	4.44
	영화	52	0.0	1.9	11.5	50.0	36.5	1.9	11.5	86.5	4.21
	연예	28	0.0	0.0	7.1	50.0	42.9	0.0	7.1	92.9	4.36
	국악	133	0.8	2.3	12.8	40.6	43.6	3.0	12.8	84.2	4.24
	사진	47	2.1	2.1	12.8	38.3	44.7	4.3	12.8	83.0	4.21
	건축	25	0.0	4.0	28.0	44.0	24.0	4.0	28.0	68.0	3.88
	만화	10	0.0	0.0	30.0	20.0	50.0	0.0	30.0	70.0	4.20
국민연금	가입	1,008	0.4	1.6	13.0	39.9	45.1	2.0	13.0	85.0	4.28
	미가입	992	0.3	0.9	11.9	41.3	45.6	1.2	11.9	86.9	4.31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0.4	1.0	11.4	39.7	47.6	1.4	11.4	87.2	4.33
	겸업 예술인	913	0.3	1.5	13.7	41.7	42.7	1.9	13.7	84.4	4.25
예술활동명	완료	795	0.4	1.3	9.6	37.7	51.1	1.6	9.6	88.8	4.38
	미완료	1,205	0.3	1.2	14.4	42.5	41.6	1.6	14.4	84.1	4.24
주거형태	자가	1,206	0.2	1.2	13.5	43.1	42.0	1.4	13.5	85.1	4.25
	전월세	653	0.8	0.6	11.0	36.9	50.7	1.4	11.0	87.6	4.36
	기타	141	0.0	4.3	9.9	36.2	49.6	4.3	9.9	85.8	4.31
결혼상태	기혼	1,257	0.4	1.3	12.8	42.6	43.0	1.7	12.8	85.5	4.26
	미혼	545	0.4	1.1	12.8	40.9	44.8	1.5	12.8	85.7	4.29
	기타	198	0.0	1.5	9.1	27.3	62.1	1.5	9.1	89.4	4.50
거주지	동부산	747	0.3	1.7	11.2	38.7	48.1	2.0	11.2	86.7	4.33
	중부산	795	0.4	0.9	12.8	41.0	44.9	1.3	12.8	85.9	4.29
	서부산	284	0.4	1.1	15.5	38.7	44.4	1.4	15.5	83.1	4.26
	부산 외	174	0.6	1.1	10.9	50.0	37.4	1.7	10.9	87.4	4.22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예 분야 예술인은 타 분야에 비해 지역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인 계층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응답자별 특성 - 2) 예술인 자녀 보육 지원

		응답자 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3분류			5점 평균 (점)
								낮음 (1+2점)	보통	높음 (4+5점)	
전체		2,000	1.6	7.0	30.1	38.8	22.5	8.6	30.1	61.3	3.74
성별	남자	925	1.7	7.4	27.8	39.5	23.7	9.1	27.8	63.1	3.76
	여자	1,075	1.5	6.7	32.1	38.2	21.5	8.2	32.1	59.7	3.72
연령	30대 이하	579	1.7	5.5	27.1	35.8	29.9	7.3	27.1	65.6	3.87
	40~50대	865	1.4	4.6	30.2	38.4	25.4	6.0	30.2	63.8	3.82
	60대 이상	556	1.8	12.2	33.1	42.6	10.3	14.0	33.1	52.9	3.47
예술분야	문학	381	2.4	13.1	32.0	41.7	10.8	15.5	32.0	52.5	3.45
	미술	695	1.3	6.0	34.2	38.8	19.6	7.3	34.2	58.4	3.69
	음악	393	1.5	4.1	26.2	37.4	30.8	5.6	26.2	68.2	3.92
	무용	104	1.0	4.8	25.0	36.5	32.7	5.8	25.0	69.2	3.95
	연극	132	1.5	6.1	19.7	33.3	39.4	7.6	19.7	72.7	4.03
	영화	52	1.9	3.8	32.7	42.3	19.2	5.8	32.7	61.5	3.73
	연예	28	0.0	10.7	39.3	21.4	28.6	10.7	39.3	50.0	3.68
	국악	133	1.5	5.3	27.1	42.9	23.3	6.8	27.1	66.2	3.81
	사진	47	4.3	10.6	25.5	36.2	23.4	14.9	25.5	59.6	3.64
	건축	25	0.0	8.0	32.0	52.0	8.0	8.0	32.0	60.0	3.60
	만화	10	0.0	0.0	30.0	30.0	40.0	0.0	30.0	70.0	4.10
국민연금	가입	1,008	1.7	7.1	29.7	37.9	23.6	8.8	29.7	61.5	3.75
	미가입	992	1.5	6.9	30.5	39.7	21.4	8.4	30.5	61.1	3.73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1.4	6.6	28.7	39.8	23.5	8.0	28.7	63.3	3.77
	겸업 예술인	913	1.9	7.4	31.8	37.6	21.4	9.3	31.8	58.9	3.69
예술활동명	완료	795	1.6	6.9	26.4	39.1	25.9	8.6	26.4	65.0	3.81
	미완료	1,205	1.6	7.1	32.5	38.6	20.2	8.6	32.5	58.8	3.69
주거형태	자가	1,206	1.6	8.1	30.8	39.1	20.4	9.7	30.8	59.5	3.69
	전월세	653	1.5	4.9	29.9	37.8	25.9	6.4	29.9	63.7	3.82
	기타	141	2.1	7.1	25.5	40.4	24.8	9.2	25.5	65.2	3.79
결혼상태	기혼	1,257	1.2	7.6	29.8	38.6	22.8	8.8	29.8	61.4	3.74
	미혼	545	2.2	5.3	31.0	40.0	21.5	7.5	31.0	61.5	3.73
	기타	198	2.5	7.6	29.8	36.9	23.2	10.1	29.8	60.1	3.71
거주지	동부산	747	2.4	7.0	30.0	37.1	23.6	9.4	30.0	60.6	3.72
	중부산	795	1.4	6.5	30.2	38.0	23.9	7.9	30.2	61.9	3.76
	서부산	284	0.0	8.1	31.0	43.0	18.0	8.1	31.0	60.9	3.71
	부산 외	174	1.7	7.5	28.7	43.1	19.0	9.2	28.7	62.1	3.70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악과 무용, 연극, 만화 분야 예술인은 타 분야에 비해 예술인 자녀 보육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응답자별 특성 - 3) 예술인의 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응답자 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3분류			5점 평균 (점)
								낮음 (1+2점)	보통	높음 (4+5점)	
전체		2,000	0.3	2.6	19.7	44.0	33.6	2.8	19.7	77.5	4.08
성별	남자	925	0.3	3.4	20.2	44.6	31.5	3.7	20.2	76.1	4.04
	여자	1,075	0.2	1.9	19.3	43.3	35.3	2.0	19.3	78.7	4.12
연령	30대 이하	579	0.5	2.4	17.4	41.1	38.5	2.9	17.4	79.6	4.15
	40~50대	865	0.0	1.7	18.6	42.0	37.7	1.7	18.6	79.7	4.16
	60대 이상	556	0.4	4.0	23.7	50.0	21.9	4.3	23.7	71.9	3.89
예술분야	문학	381	0.3	5.0	23.1	49.6	22.0	5.2	23.1	71.7	3.88
	미술	695	0.1	2.2	21.2	44.2	32.4	2.3	21.2	76.5	4.06
	음악	393	0.0	2.0	16.3	42.2	39.4	2.0	16.3	81.7	4.19
	무용	104	0.0	1.9	17.3	33.7	47.1	1.9	17.3	80.8	4.26
	연극	132	1.5	3.0	19.7	36.4	39.4	4.5	19.7	75.8	4.09
	영화	52	0.0	1.9	19.2	42.3	36.5	1.9	19.2	78.8	4.13
	연예	28	0.0	0.0	14.3	53.6	32.1	0.0	14.3	85.7	4.18
	국악	133	0.0	1.5	11.3	45.9	41.4	1.5	11.3	87.2	4.27
	사진	47	2.1	0.0	21.3	38.3	38.3	2.1	21.3	76.6	4.11
	건축	25	0.0	0.0	40.0	52.0	8.0	0.0	40.0	60.0	3.68
	만화	10	0.0	0.0	20.0	50.0	30.0	0.0	20.0	80.0	4.10
국민연금	가입	1,008	0.4	2.4	16.2	45.3	35.7	2.8	16.2	81.1	4.14
	미가입	992	0.1	2.7	23.3	42.5	31.4	2.8	23.3	73.9	4.02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0.1	2.8	20.8	42.6	33.8	2.9	20.8	76.4	4.07
	겸업 예술인	913	0.4	2.3	18.4	45.6	33.3	2.7	18.4	78.9	4.09
예술활동명	완료	795	0.4	3.0	17.2	44.9	34.5	3.4	17.2	79.4	4.10
	미완료	1,205	0.2	2.2	21.3	43.3	32.9	2.4	21.3	76.3	4.07
주거형태	자가	1,206	0.2	2.7	21.0	45.2	30.9	2.9	21.0	76.1	4.04
	전월세	653	0.2	2.3	17.3	42.6	37.7	2.5	17.3	80.2	4.15
	기타	141	0.7	2.8	19.9	39.7	36.9	3.5	19.9	76.6	4.09
결혼상태	기혼	1,257	0.3	2.7	21.6	44.9	30.4	3.0	21.6	75.3	4.02
	미혼	545	0.0	1.8	16.3	42.4	39.4	1.8	16.3	81.8	4.19
	기타	198	0.5	3.5	16.7	41.9	37.4	4.0	16.7	79.3	4.12
거주지	동부산	747	0.0	2.4	18.9	45.4	33.3	2.4	18.9	78.7	4.10
	중부산	795	0.6	2.4	21.0	42.9	33.1	3.0	21.0	76.0	4.05
	서부산	284	0.0	2.5	18.7	45.1	33.8	2.5	18.7	78.9	4.10
	부산 외	174	0.0	4.0	19.0	40.8	36.2	4.0	19.0	77.0	4.09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예와 국악 분야 예술인은 타 분야에 비해 예술인의 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응답자별 특성 - 4)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지원

		응답자 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3분류			5점 평균 (점)
								낮음 (1+2점)	보통	높음 (4+5점)	
전체		2,000	0.8	3.9	22.7	45.0	27.8	4.6	22.7	72.8	3.95
성별	남자	925	1.2	5.7	26.1	43.2	23.8	6.9	26.1	67.0	3.83
	여자	1,075	0.4	2.2	19.7	46.5	31.2	2.6	19.7	77.7	4.06
연령	30대 이하	579	1.2	4.3	22.8	38.7	33.0	5.5	22.8	71.7	3.98
	40~50대	865	0.7	2.3	21.5	45.5	29.9	3.0	21.5	75.5	4.02
	60대 이상	556	0.4	5.8	24.3	50.7	18.9	6.1	24.3	69.6	3.82
예술분야	문학	381	0.5	4.7	22.6	48.8	23.4	5.2	22.6	72.2	3.90
	미술	695	0.3	4.5	24.9	43.3	27.1	4.7	24.9	70.4	3.92
	음악	393	1.5	2.8	20.9	44.3	30.5	4.3	20.9	74.8	3.99
	무용	104	1.0	1.0	13.5	42.3	42.3	1.9	13.5	84.6	4.24
	연극	132	1.5	4.5	20.5	43.9	29.5	6.1	20.5	73.5	3.95
	영화	52	0.0	0.0	40.4	34.6	25.0	0.0	40.4	59.6	3.85
	연예	28	0.0	3.6	25.0	46.4	25.0	3.6	25.0	71.4	3.93
	국악	133	0.0	3.8	21.1	48.9	26.3	3.8	21.1	75.2	3.98
	사진	47	2.1	2.1	17.0	48.9	29.8	4.3	17.0	78.7	4.02
	건축	25	4.0	8.0	12.0	64.0	12.0	12.0	12.0	76.0	3.72
	만화	10	0.0	10.0	40.0	20.0	30.0	10.0	40.0	50.0	3.70
국민연금	가입	1,008	0.8	3.9	22.2	46.2	26.9	4.7	22.2	73.1	3.95
	미가입	992	0.7	3.8	23.1	43.8	28.6	4.5	23.1	72.4	3.96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0.7	3.4	22.8	45.8	27.2	4.1	22.8	73.0	3.95
	겸업 예술인	913	0.8	4.4	22.5	44.0	28.4	5.1	22.5	72.4	3.95
예술활동명	완료	795	1.1	4.5	23.1	43.8	27.4	5.7	23.1	71.2	3.92
	미완료	1,205	0.5	3.4	22.3	45.8	28.0	3.9	22.3	73.8	3.97
주거형태	자가	1,206	0.5	3.6	22.4	47.3	26.2	4.1	22.4	73.5	3.95
	전월세	653	1.1	4.0	23.7	40.7	30.5	5.1	23.7	71.2	3.96
	기타	141	1.4	5.7	19.9	44.7	28.4	7.1	19.9	73.0	3.93
결혼상태	기혼	1,257	0.6	3.9	22.4	46.6	26.5	4.5	22.4	73.1	3.94
	미혼	545	0.9	3.7	23.3	42.4	29.7	4.6	23.3	72.1	3.96
	기타	198	1.0	4.0	22.7	41.9	30.3	5.1	22.7	72.2	3.96
거주지	동부산	747	0.5	4.0	22.9	46.3	26.2	4.6	22.9	72.6	3.94
	중부산	795	1.1	3.4	22.8	43.1	29.6	4.5	22.8	72.7	3.97
	서부산	284	0.0	5.6	20.4	46.1	27.8	5.6	20.4	73.9	3.96
	부산 외	174	1.1	2.3	24.7	46.0	25.9	3.4	24.7	71.8	3.93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무용과 사진 분야 예술인은 타 분야에 비해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응답자별 특성 - 5) 창작 준비 기간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응답자 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3분류			5점 평균 (점)
								낮음 (1+2점)	보통	높음 (4+5점)	
전체		2,000	0.4	1.9	13.6	35.3	48.9	2.3	13.6	84.1	4.30
성별	남자	925	0.6	2.7	14.2	35.0	47.5	3.4	14.2	82.5	4.26
	여자	1,075	0.2	1.2	13.1	35.4	50.0	1.4	13.1	85.5	4.34
연령	30대 이하	579	0.5	1.4	12.8	28.8	56.5	1.9	12.8	85.3	4.39
	40~50대	865	0.5	1.8	13.5	34.8	49.4	2.3	13.5	84.2	4.31
	60대 이상	556	0.2	2.5	14.6	42.6	40.1	2.7	14.6	82.7	4.20
예술분야	문학	381	0.3	2.6	10.5	41.5	45.1	2.9	10.5	86.6	4.29
	미술	695	0.1	1.7	14.1	32.2	51.8	1.9	14.1	84.0	4.34
	음악	393	0.8	1.3	16.3	37.2	44.5	2.0	16.3	81.7	4.23
	무용	104	0.0	0.0	11.5	32.7	55.8	0.0	11.5	88.5	4.44
	연극	132	0.0	3.0	9.1	23.5	64.4	3.0	9.1	87.9	4.49
	영화	52	0.0	0.0	11.5	36.5	51.9	0.0	11.5	88.5	4.40
	연예	28	0.0	3.6	10.7	39.3	46.4	3.6	10.7	85.7	4.29
	국악	133	0.8	3.8	15.8	39.8	39.8	4.5	15.8	79.7	4.14
	사진	47	2.1	0.0	12.8	36.2	48.9	2.1	12.8	85.1	4.30
	건축	25	4.0	4.0	28.0	40.0	24.0	8.0	28.0	64.0	3.76
	만화	10	0.0	0.0	30.0	20.0	50.0	0.0	30.0	70.0	4.20
국민연금	가입	1,008	0.4	2.4	13.8	35.4	48.0	2.8	13.8	83.4	4.28
	미가입	992	0.4	1.4	13.4	35.1	49.7	1.8	13.4	84.8	4.32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0.5	2.2	12.1	35.2	50.0	2.7	12.1	85.3	4.32
	겸업 예술인	913	0.3	1.5	15.4	35.3	47.4	1.9	15.4	82.7	4.28
예술활동명	완료	795	0.4	2.4	7.9	34.3	55.0	2.8	7.9	89.3	4.41
	미완료	1,205	0.4	1.6	17.3	35.9	44.8	2.0	17.3	80.7	4.23
주거형태	자가	1,206	0.5	1.7	16.2	37.3	44.4	2.2	16.2	81.7	4.23
	전월세	653	0.2	1.8	10.0	30.3	57.7	2.0	10.0	88.1	4.44
	기타	141	0.7	4.3	8.5	40.4	46.1	5.0	8.5	86.5	4.27
결혼상태	기혼	1,257	0.5	2.3	14.7	36.4	46.1	2.8	14.7	82.5	4.25
	미혼	545	0.2	0.9	11.9	31.0	56.0	1.1	11.9	87.0	4.42
	기타	198	0.5	2.0	11.1	39.4	47.0	2.5	11.1	86.4	4.30
거주지	동부산	747	0.4	2.8	12.3	37.5	47.0	3.2	12.3	84.5	4.28
	중부산	795	0.5	1.3	13.3	33.0	51.9	1.8	13.3	84.9	4.35
	서부산	284	0.0	1.4	16.9	37.3	44.4	1.4	16.9	81.7	4.25
	부산 외	174	0.6	1.7	14.9	32.8	50.0	2.3	14.9	82.8	4.30

□ 응답자별 특성 - 6) 예술인 일자리 연계/직업전환 지원 등 일자리 지원

		응답자 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3분류			5점 평균 (점)
								낮음 (1+2점)	보통	높음 (4+5점)	
전체		2,000	0.4	1.9	14.2	39.5	44.1	2.3	14.2	83.6	4.25
성별	남자	925	0.8	3.1	19.0	41.6	35.5	3.9	19.0	77.1	4.08
	여자	1,075	0.1	0.7	10.0	37.7	51.5	0.8	10.0	89.2	4.40
연령	30대 이하	579	0.5	0.9	13.3	32.8	52.5	1.4	13.3	85.3	4.36
	40~50대	865	0.2	1.5	11.6	40.5	46.2	1.7	11.6	86.7	4.31
	60대 이상	556	0.5	3.4	19.1	45.0	32.0	4.0	19.1	77.0	4.04
예술분야	문학	381	0.5	3.4	13.6	45.1	37.3	3.9	13.6	82.4	4.15
	미술	695	0.4	1.7	15.1	38.8	43.9	2.2	15.1	82.7	4.24
	음악	393	0.5	0.5	10.4	39.7	48.9	1.0	10.4	88.5	4.36
	무용	104	0.0	0.0	9.6	25.0	65.4	0.0	9.6	90.4	4.56
	연극	132	0.8	4.5	17.4	31.1	46.2	5.3	17.4	77.3	4.17
	영화	52	0.0	0.0	17.3	42.3	40.4	0.0	17.3	82.7	4.23
	연예	28	0.0	0.0	14.3	46.4	39.3	0.0	14.3	85.7	4.25
	국악	133	0.0	2.3	15.8	42.1	39.8	2.3	15.8	82.0	4.20
	사진	47	0.0	0.0	19.1	40.4	40.4	0.0	19.1	80.9	4.21
	건축	25	0.0	0.0	24.0	52.0	24.0	0.0	24.0	76.0	4.00
	만화	10	0.0	10.0	30.0	20.0	40.0	10.0	30.0	60.0	3.90
	국민연금	가입	1,008	0.5	2.0	13.0	38.4	46.1	2.5	13.0	84.5
미가입		992	0.3	1.7	15.3	40.6	42.0	2.0	15.3	82.7	4.22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0.6	2.4	13.8	38.4	44.9	2.9	13.8	83.3	4.25
	겸업 예술인	913	0.2	1.2	14.6	40.9	43.2	1.4	14.6	84.0	4.26
예술활동명	완료	795	0.3	2.6	13.7	38.7	44.7	2.9	13.7	83.4	4.25
	미완료	1,205	0.5	1.3	14.4	40.0	43.7	1.8	14.4	83.7	4.25
주거형태	자가	1,206	0.3	2.2	14.3	41.0	42.1	2.5	14.3	83.2	4.22
	전월세	653	0.5	1.4	13.9	37.8	46.4	1.8	13.9	84.2	4.28
	기타	141	0.7	1.4	13.5	34.0	50.4	2.1	13.5	84.4	4.32
결혼상태	기혼	1,257	0.2	2.1	14.3	40.7	42.6	2.3	14.3	83.4	4.23
	미혼	545	0.4	1.1	13.0	37.8	47.7	1.5	13.0	85.5	4.31
	기타	198	1.5	2.5	16.2	36.4	43.4	4.0	16.2	79.8	4.18
거주지	동부산	747	0.3	2.3	14.3	40.4	42.7	2.5	14.3	83.1	4.23
	중부산	795	0.5	1.6	13.3	39.1	45.4	2.1	13.3	84.5	4.27
	서부산	284	0.4	1.8	15.8	37.7	44.4	2.1	15.8	82.0	4.24
	부산 외	174	0.6	1.1	14.4	40.2	43.7	1.7	14.4	83.9	4.25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무용 분야 예술인은 타 분야에 비해 예술인 일자리 연계/직업전환 지원 등 일자리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응답자별 특성 - 7) 계약/저작권/법률/노무/세무회계 등 컨설팅 지원

		응답자 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3분류			5점 평균 (점)
								낮음 (1+2점)	보통	높음 (4+5점)	
전체		2,000	0.6	4.6	26.9	43.0	25.0	5.2	26.9	68.0	3.87
성별	남자	925	0.6	5.5	31.8	39.7	22.4	6.2	31.8	62.1	3.78
	여자	1,075	0.5	3.8	22.6	45.9	27.3	4.3	22.6	73.1	3.96
연령	30대 이하	579	0.2	1.4	21.6	43.2	33.7	1.6	21.6	76.9	4.09
	40~50대	865	0.6	3.6	25.4	44.0	26.4	4.2	25.4	70.4	3.92
	60대 이상	556	0.9	9.5	34.5	41.2	13.8	10.4	34.5	55.0	3.58
예술분야	문학	381	1.0	7.9	30.7	43.8	16.5	8.9	30.7	60.4	3.67
	미술	695	0.4	4.9	27.9	41.3	25.5	5.3	27.9	66.8	3.86
	음악	393	0.3	3.1	21.6	45.3	29.8	3.3	21.6	75.1	4.01
	무용	104	0.0	1.9	23.1	41.3	33.7	1.9	23.1	75.0	4.07
	연극	132	1.5	1.5	25.8	45.5	25.8	3.0	25.8	71.2	3.92
	영화	52	0.0	1.9	23.1	44.2	30.8	1.9	23.1	75.0	4.04
	연예	28	0.0	7.1	25.0	35.7	32.1	7.1	25.0	67.9	3.93
	국악	133	0.0	3.8	29.3	42.9	24.1	3.8	29.3	66.9	3.87
	사진	47	2.1	2.1	31.9	40.4	23.4	4.3	31.9	63.8	3.81
	건축	25	0.0	12.0	28.0	44.0	16.0	12.0	28.0	60.0	3.64
국민연금	가입	1,008	0.4	4.5	25.5	44.8	24.8	4.9	25.5	69.6	3.89
	미가입	992	0.7	4.7	28.2	41.1	25.2	5.4	28.2	66.3	3.85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0.5	4.9	26.8	42.6	25.3	5.3	26.8	67.9	3.87
	겸업 예술인	913	0.7	4.3	26.9	43.5	24.6	4.9	26.9	68.1	3.87
예술활동명	완료	795	0.6	5.2	24.8	43.9	25.5	5.8	24.8	69.4	3.89
	미완료	1,205	0.5	4.2	28.2	42.4	24.6	4.7	28.2	67.1	3.86
주거형태	자가	1,206	0.2	4.8	29.1	43.1	22.7	5.1	29.1	65.8	3.83
	전월세	653	0.6	4.6	24.0	41.8	28.9	5.2	24.0	70.8	3.94
	기타	141	2.8	2.8	20.6	47.5	26.2	5.7	20.6	73.8	3.91
결혼상태	기혼	1,257	0.7	4.9	28.9	42.9	22.6	5.6	28.9	65.5	3.82
	미혼	545	0.0	2.2	23.3	45.0	29.5	2.2	23.3	74.5	4.02
	기타	198	1.0	9.1	23.7	38.4	27.8	10.1	23.7	66.2	3.83
거주지	동부산	747	0.3	4.8	26.6	43.9	24.4	5.1	26.6	68.3	3.87
	중부산	795	0.8	4.3	27.2	41.0	26.8	5.0	27.2	67.8	3.89
	서부산	284	1.1	4.9	25.4	45.1	23.6	6.0	25.4	68.7	3.85
	부산 외	174	0.0	4.6	28.7	44.8	21.8	4.6	28.7	66.7	3.84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악과 무용, 영화 분야 예술인은 타 분야에 비해 계약/저작권/법률/노무/세무회계 등 컨설팅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응답자별 특성 - 8)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응답자 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3분류			5점 평균 (점)	
							낮음 (1+2점)	보통	높음 (4+5점)		
전체	2,000	0.9	5.6	29.1	39.6	24.9	6.4	29.1	64.5	3.82	
성별	남자	925	1.3	7.2	32.4	36.1	22.9	8.5	32.4	59.0	3.72
	여자	1,075	0.5	4.1	26.2	42.6	26.6	4.6	26.2	69.2	3.91
연령	30대 이하	579	0.3	1.7	22.3	37.7	38.0	2.1	22.3	75.6	4.11
	40~50대	865	0.8	3.6	27.7	42.8	25.1	4.4	27.7	67.9	3.88
	60대 이상	556	1.4	12.6	38.3	36.7	11.0	14.0	38.3	47.7	3.43
예술분야	문학	381	1.0	10.8	31.2	40.7	16.3	11.8	31.2	57.0	3.60
	미술	695	0.9	6.6	31.2	37.7	23.6	7.5	31.2	61.3	3.77
	음악	393	0.8	2.8	26.0	39.9	30.5	3.6	26.0	70.5	3.97
	무용	104	0.0	1.0	26.9	39.4	32.7	1.0	26.9	72.1	4.04
	연극	132	2.3	2.3	26.5	43.9	25.0	4.5	26.5	68.9	3.87
	영화	52	0.0	0.0	21.2	38.5	40.4	0.0	21.2	78.8	4.19
	연예	28	0.0	10.7	21.4	42.9	25.0	10.7	21.4	67.9	3.82
	국악	133	0.0	3.0	31.6	39.8	25.6	3.0	31.6	65.4	3.88
	사진	47	2.1	2.1	27.7	44.7	23.4	4.3	27.7	68.1	3.85
	건축	25	0.0	4.0	28.0	40.0	28.0	4.0	28.0	68.0	3.92
	만화	10	0.0	0.0	20.0	30.0	50.0	0.0	20.0	80.0	4.30
	국민연금	가입	1,008	0.9	5.1	28.3	40.3	25.5	6.0	28.3	65.8
미가입		992	0.8	6.0	29.9	38.9	24.3	6.9	29.9	63.2	3.80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0.8	6.3	30.9	39.3	22.6	7.2	30.9	61.9	3.77
	겸업 예술인	913	0.9	4.6	26.9	40.0	27.6	5.5	26.9	67.6	3.89
예술활동명	완료	795	0.9	6.3	28.1	39.4	25.4	7.2	28.1	64.8	3.82
	미완료	1,205	0.8	5.1	29.8	39.8	24.6	5.9	29.8	64.3	3.82
주거형태	자가	1,206	0.5	6.5	31.5	39.5	22.1	7.0	31.5	61.5	3.76
	전월세	653	1.5	4.1	25.7	39.2	29.4	5.7	25.7	68.6	3.91
	기타	141	0.7	4.3	24.1	42.6	28.4	5.0	24.1	70.9	3.94
결혼상태	기혼	1,257	0.8	6.7	31.5	39.0	22.0	7.5	31.5	61.0	3.75
	미혼	545	0.7	2.0	22.9	42.8	31.6	2.8	22.9	74.3	4.02
	기타	198	1.5	8.1	30.8	34.8	24.7	9.6	30.8	59.6	3.73
거주지	동부산	747	0.5	5.4	28.8	41.5	23.8	5.9	28.8	65.3	3.83
	중부산	795	1.3	5.4	29.4	36.2	27.7	6.7	29.4	63.9	3.84
	서부산	284	0.4	7.0	27.8	41.2	23.6	7.4	27.8	64.8	3.81
	부산 외	174	1.1	4.6	31.0	44.3	19.0	5.7	31.0	63.2	3.75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악과 무용, 영화, 만화 분야 예술인은 타 분야에 비해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응답자별 특성 - 9) 예술인 심리상담/신문고 등 예술활동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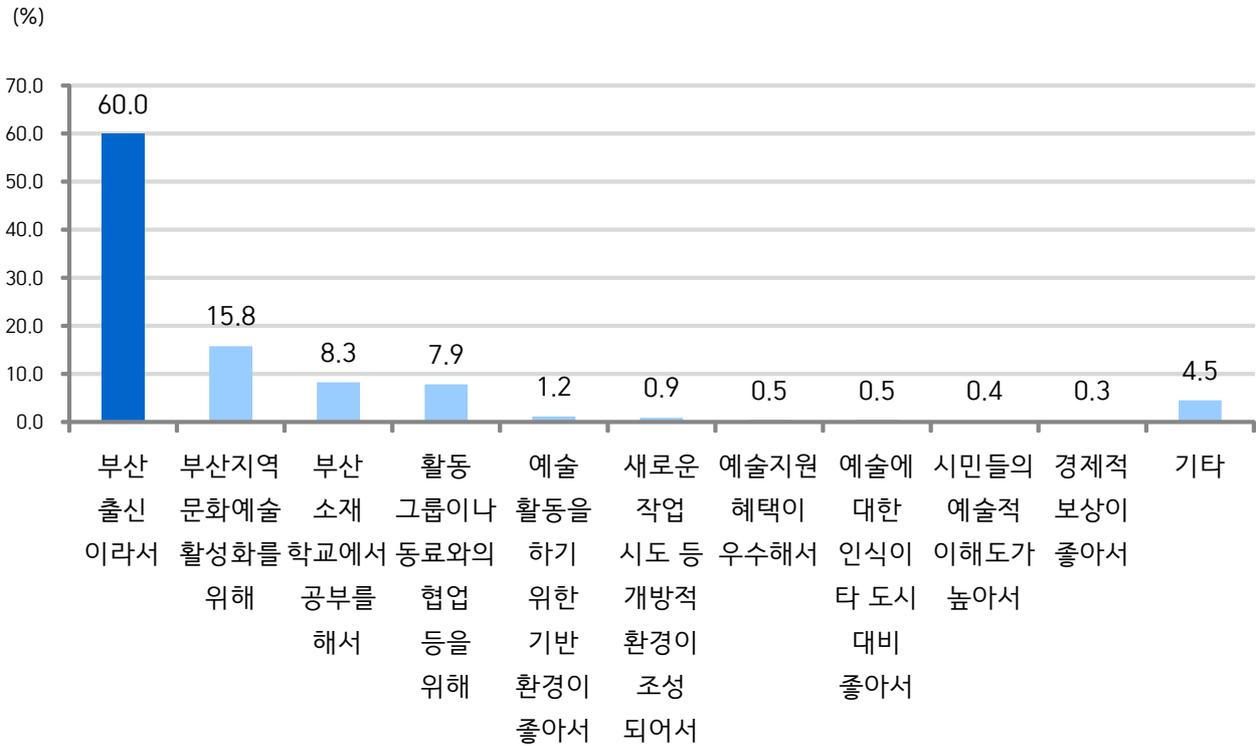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3분류			5점 평균 (점)
								낮음 (1+2점)	보통	높음 (4+5점)	
전체		2,000	0.7	5.9	28.0	41.4	24.0	6.6	28.0	65.4	3.82
성별	남자	925	1.1	7.6	31.9	40.2	19.2	8.6	31.9	59.5	3.69
	여자	1,075	0.4	4.5	24.7	42.4	28.1	4.8	24.7	70.5	3.93
연령	30대 이하	579	0.3	5.2	23.1	38.3	33.0	5.5	23.1	71.3	3.98
	40~50대	865	1.0	3.9	29.2	41.8	23.9	5.0	29.2	65.8	3.84
	60대 이상	556	0.5	9.7	31.1	43.9	14.7	10.3	31.1	58.6	3.63
예술분야	문학	381	1.0	7.6	29.9	43.8	17.6	8.7	29.9	61.4	3.69
	미술	695	0.4	7.5	28.8	39.4	23.9	7.9	28.8	63.3	3.79
	음악	393	1.0	2.8	27.0	41.2	28.0	3.8	27.0	69.2	3.92
	무용	104	0.0	1.9	21.2	41.3	35.6	1.9	21.2	76.9	4.11
	연극	132	1.5	5.3	30.3	36.4	26.5	6.8	30.3	62.9	3.81
	영화	52	0.0	3.8	30.8	40.4	25.0	3.8	30.8	65.4	3.87
	연예	28	0.0	10.7	7.1	57.1	25.0	10.7	7.1	82.1	3.96
	국악	133	0.8	5.3	26.3	44.4	23.3	6.0	26.3	67.7	3.84
	사진	47	0.0	6.4	27.7	46.8	19.1	6.4	27.7	66.0	3.79
	건축	25	0.0	8.0	40.0	44.0	8.0	8.0	40.0	52.0	3.52
국민연금	만화	10	0.0	0.0	20.0	50.0	30.0	0.0	20.0	80.0	4.10
	가입	1,008	0.9	5.0	29.1	42.2	22.9	5.9	29.1	65.1	3.81
직업구분	미가입	992	0.5	6.9	26.9	40.6	25.1	7.4	26.9	65.7	3.83
	전업 예술인	1,087	0.9	7.0	27.3	41.1	23.6	7.9	27.3	64.8	3.80
예술활동명	겸업 예술인	913	0.4	4.6	28.8	41.7	24.4	5.0	28.8	66.2	3.85
	완료	795	0.9	7.5	27.2	40.5	23.9	8.4	27.2	64.4	3.79
주거형태	미완료	1,205	0.6	4.8	28.5	42.0	24.1	5.4	28.5	66.1	3.84
	자가	1,206	0.6	5.9	29.5	41.6	22.4	6.5	29.5	64.0	3.79
	전월세	653	0.9	6.1	26.6	40.4	25.9	7.0	26.6	66.3	3.84
결혼상태	기타	141	0.7	5.0	21.3	44.0	29.1	5.7	21.3	73.0	3.96
	기혼	1,257	0.9	5.9	30.3	40.9	22.0	6.8	30.3	62.9	3.77
	미혼	545	0.4	4.8	23.3	44.2	27.3	5.1	23.3	71.6	3.93
거주지	기타	198	0.5	9.1	26.3	36.9	27.3	9.6	26.3	64.1	3.81
	동부산	747	0.5	5.4	28.9	43.1	22.1	5.9	28.9	65.2	3.81
	중부산	795	0.8	6.3	26.5	39.5	26.9	7.0	26.5	66.4	3.86
	서부산	284	0.0	5.3	29.2	40.5	25.0	5.3	29.2	65.5	3.85
	부산 외	174	2.3	7.5	28.7	44.3	17.2	9.8	28.7	61.5	3.67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무용과 연예, 만화 분야 예술인은 타 분야에 비해 예술인 심리상담/신문고 등 예술활동 개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8. 부산에서의 예술활동 이유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예술활동을 주로 부산에서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부산출신이라서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산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15.8%, 부산 소재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8.3%, 활동 그룹이나 동료와의 협업 등을 위해 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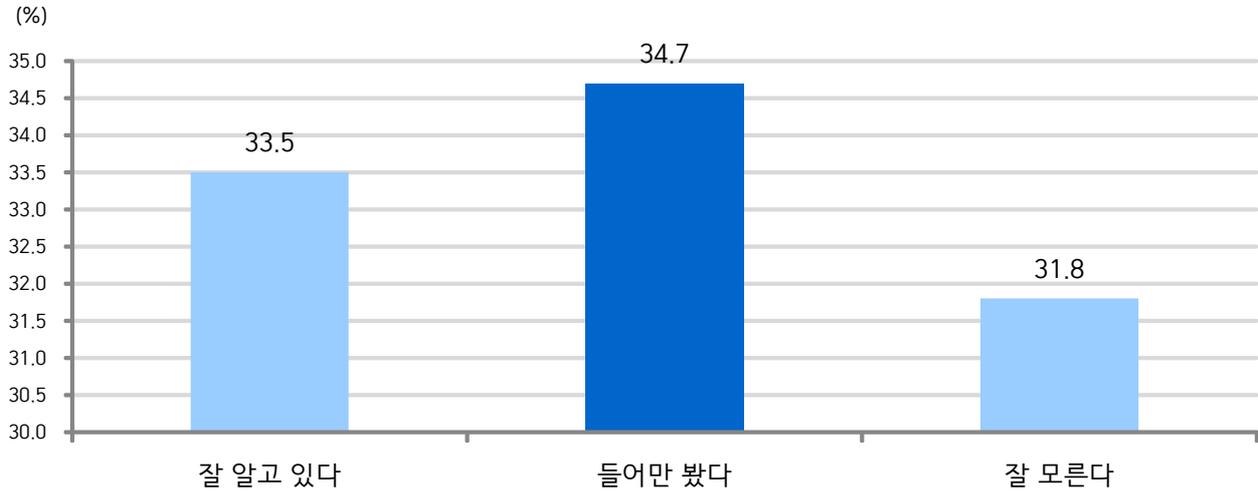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부산 출신 이라서	부산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부산 소재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활동 그룹/ 동료와의 협업을 위해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 환경이 좋아서	새로운 작업 시도 개방적 환경이 조성 되어서	예술 지원 혜택이 우수해서	예술에 대한 인식이 타 도시 대비 좋아서	시민들의 예술적 이해도가 높아서	경제적 보상이 좋아서	기타
전체		2,000	60.0	15.8	8.3	7.9	1.2	0.9	0.5	0.5	0.4	0.3	4.5
성별	남자	925	54.6	21.0	7.4	7.8	1.4	0.9	0.8	0.3	0.5	0.3	5.1
	여자	1,075	64.6	11.3	9.1	7.9	0.9	0.9	0.2	0.6	0.2	0.3	4.0
연령	30대 이하	579	65.3	11.1	11.9	5.0	1.2	0.5	0.5	0.3	0.5	0.2	3.5
	40~50대	865	58.2	17.0	8.1	8.1	0.9	1.3	0.2	0.5	0.2	0.5	5.1
	60대 이상	556	57.2	18.9	4.9	10.4	1.4	0.7	0.7	0.5	0.4	0.2	4.7
예술 분야	문학	381	66.1	14.2	4.7	7.3	2.4	1.0	0.3	0.5	0.5	0.3	2.6
	미술	695	61.4	12.8	10.2	6.0	0.4	1.2	0.9	0.3	0.3	0.4	6.0
	음악	393	60.3	15.0	9.2	8.7	0.5	0.3	0.3	1.0	0.3	0.5	4.1
	무용	104	61.5	20.2	4.8	11.5	0.0	0.0	0.0	0.0	0.0	0.0	1.9
	연극	132	45.5	28.0	8.3	11.4	1.5	0.8	0.0	0.0	0.8	0.0	3.8
	영화	52	61.5	17.3	11.5	5.8	1.9	1.9	0.0	0.0	0.0	0.0	0.0
	연예	28	46.4	25.0	0.0	7.1	10.7	0.0	0.0	3.6	3.6	0.0	3.6
	국악	133	51.9	18.8	9.8	10.5	0.8	0.8	0.0	0.0	0.0	0.0	7.5
	사진	47	61.7	12.8	6.4	10.6	2.1	2.1	2.1	0.0	0.0	0.0	2.1
	건축	25	48.0	28.0	8.0	4.0	0.0	4.0	0.0	0.0	0.0	0.0	8.0
만화	10	40.0	20.0	10.0	10.0	10.0	10.0	0.0	0.0	0.0	0.0	10.0	
국민연금	가입	1,008	61.6	15.0	8.7	7.1	1.1	1.3	0.7	0.2	0.4	0.3	3.6
	미가입	992	58.3	16.6	7.9	8.6	1.2	0.5	0.2	0.7	0.3	0.3	5.4
직업 구분	전업 예술인	1,087	57.6	17.6	8.3	8.6	0.9	0.9	0.8	0.4	0.2	0.4	4.4
	겸업 예술인	913	62.8	13.7	8.3	7.0	1.4	0.9	0.0	0.5	0.5	0.2	4.6
예술 활동 증명	완료	795	57.0	17.4	7.2	9.3	1.6	0.6	0.8	0.5	0.4	0.1	5.2
	미완료	1,205	61.9	14.8	9.0	6.9	0.8	1.1	0.2	0.4	0.3	0.4	4.1
주거 형태	자가	1,206	60.9	15.3	7.9	7.9	1.2	1.0	0.6	0.4	0.2	0.3	4.3
	전월세	653	56.8	17.9	9.5	7.8	1.1	0.8	0.2	0.5	0.5	0.2	4.9
	기타	141	66.7	10.6	6.4	7.8	0.7	0.7	0.7	0.7	0.7	0.7	4.3
결혼 상태	기혼	1,257	59.2	16.3	7.9	8.3	1.0	1.2	0.5	0.2	0.3	0.3	4.8
	미혼	545	62.8	13.8	10.8	6.2	0.9	0.6	0.4	0.6	0.6	0.2	3.3
	기타	198	57.1	18.2	4.0	9.6	2.5	0.0	0.5	1.5	0.0	0.5	6.1
거주지	동부산	747	61.4	14.6	8.0	8.3	0.8	1.1	0.4	0.3	0.1	0.4	4.6
	중부산	795	60.9	17.0	7.7	7.0	1.3	0.6	0.5	0.1	0.3	0.4	4.3
	서부산	284	64.4	16.9	7.7	3.9	0.7	0.7	0.0	0.7	0.4	0.0	4.6
	부산 외	174	42.0	13.8	13.2	16.1	2.9	1.7	1.1	2.3	1.7	0.0	5.2

- 예술 분야별로는 연극과 연예, 건축 분야는 부산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연예와 만화 분야는 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 환경이 좋아서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9. 예술활동증명 인지도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잘 알고 있다 33.5%, 들어만 봤다 34.7%, 잘 모른다 31.8%로 응답됨

☞ 전체 응답자의 68.2%가 예술활동증명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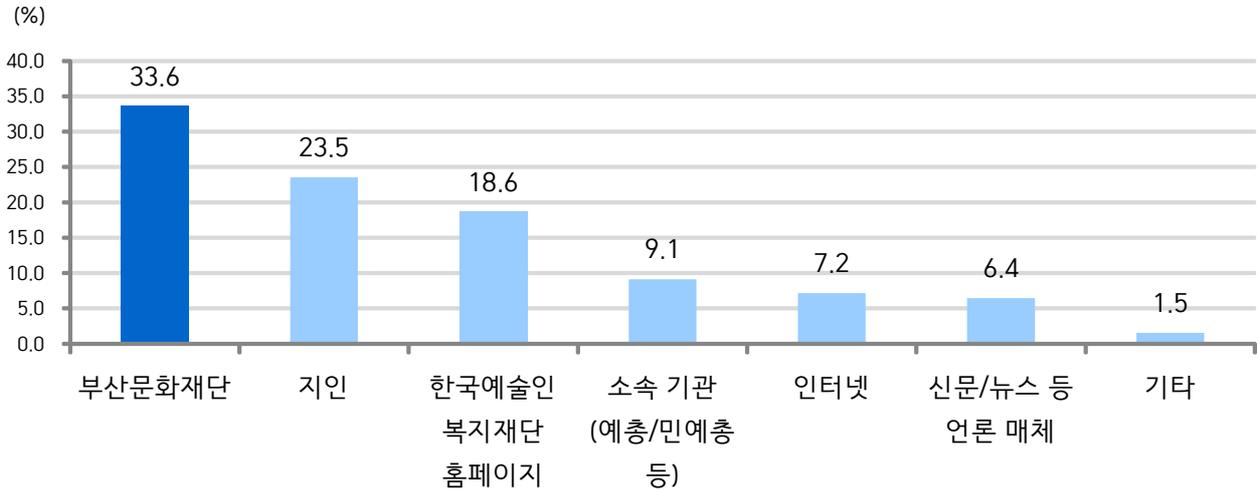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잘 알고 있다	들어만 봤다	잘 모른다
전체		2,000	33.5	34.7	31.8
성별	남자	925	34.6	35.1	30.3
	여자	1,075	32.6	34.3	33.1
연령	30대 이하	579	40.8	33.9	25.4
	40~50대	865	30.8	35.0	34.2
	60대 이상	556	30.2	35.1	34.7
예술분야	문학	381	42.3	30.7	27.0
	미술	695	32.2	31.8	36.0
	음악	393	24.2	38.9	36.9
	무용	104	30.8	41.3	27.9
	연극	132	48.5	33.3	18.2
	영화	52	36.5	48.1	15.4
	연예	28	21.4	50.0	28.6
	국악	133	34.6	37.6	27.8
	사진	47	40.4	27.7	31.9
	건축	25	8.0	36.0	56.0
	만화	10	20.0	50.0	30.0
국민연금	가입	1,008	34.7	34.8	30.5
	미가입	992	32.3	34.6	33.2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36.2	33.9	29.8
	겸업 예술인	913	30.2	35.6	34.2
예술활동증명	완료	795	67.8	25.4	6.8
	미완료	1,205	10.9	40.8	48.3
주거형태	자가	1,206	29.9	35.1	35.1
	전월세	653	40.1	34.2	25.7
	기타	141	34.0	34.0	31.9
결혼상태	기혼	1,257	30.2	35.2	34.5
	미혼	545	39.3	35.2	25.5
	기타	198	38.4	29.8	31.8
거주지	동부산	747	33.6	33.3	33.1
	중부산	795	33.7	36.2	30.1
	서부산	284	31.7	36.6	31.7
	부산 외	174	35.1	30.5	34.5

- 30대 이하는 타 연령대에 비해 예술활동증명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과 연극, 사진 분야는 예술활동증명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음악과 건축 분야는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임

9-1. 예술활동증명 인지 경로

□ 전체

[응답자 수 : 1,364명, 보기 제시, 중복응답, 단위 : %]



- 예술활동증명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부산문화재단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인 23.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18.6%, 소속 기관(예총/민예총 등) 9.1%, 인터넷 7.2%, 신문/뉴스 등 언론 매체 6.4%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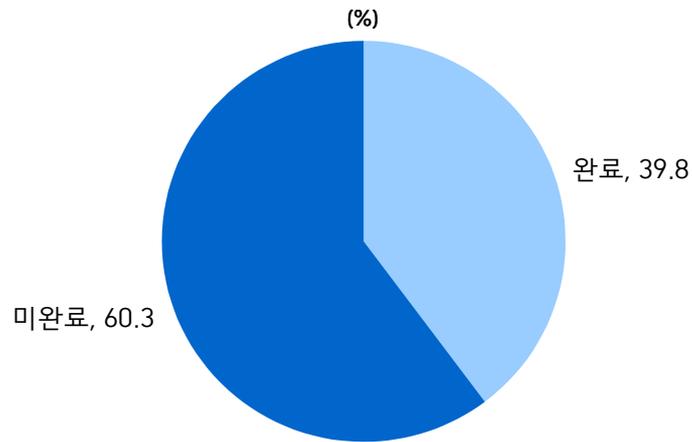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중복응답								
		부산 문화재단	지인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	소속 기관(예총/ 민예총 등)	인터넷	신문/뉴스 등 언론 매체	기타		
전체	1,364	33.6	23.5	18.6	9.1	7.2	6.4	1.5		
성별	남자	645	33.4	23.2	18.1	9.3	7.6	6.8	1.6	
	여자	719	33.7	23.8	19.1	8.9	6.8	6.2	1.4	
연령	30대 이하	432	24.1	30.8	21.1	6.3	10.9	5.5	1.2	
	40~50대	569	37.4	21.4	18.0	9.4	5.5	7.1	1.1	
	60대 이상	363	38.4	18.8	16.8	11.6	5.4	6.6	2.4	
예술 분야	문학	278	41.7	12.7	22.5	9.6	5.1	7.1	1.2	
	미술	445	31.0	30.5	17.9	5.9	6.6	5.9	2.1	
	음악	248	33.5	24.2	15.2	7.5	11.8	6.5	1.2	
	무용	75	31.7	26.9	19.2	10.6	4.8	5.8	1.0	
	연극	108	25.5	27.7	18.2	13.1	6.6	5.8	2.9	
	영화	44	26.4	26.4	15.1	13.2	9.4	7.5	1.9	
	연예	20	21.9	34.4	18.8	15.6	3.1	6.3	0.0	
	국악	96	35.6	19.7	22.7	9.8	4.5	7.6	0.0	
	사진	32	43.8	14.6	14.6	18.8	4.2	2.1	2.1	
	건축	11	7.7	7.7	0.0	46.2	15.4	23.1	0.0	
	만화	7	12.5	12.5	12.5	12.5	50.0	0.0	0.0	
	국민 연금	가입	701	34.9	23.0	19.0	9.1	6.9	5.8	1.4
		미가입	663	32.3	24.1	18.2	9.1	7.5	7.1	1.7
직업 구분	전업 예술인	763	34.8	24.4	19.3	8.9	5.8	4.9	1.9	
	겸업 예술인	601	32.1	22.5	17.8	9.4	8.8	8.4	1.1	
예술 활동 증명	완료	741	34.8	22.1	24.2	8.5	5.4	3.7	1.3	
	미완료	623	32.0	25.4	11.5	10.0	9.3	10.0	1.9	
주거 형태	자가	783	36.5	21.4	17.8	11.0	5.8	6.4	1.0	
	전월세	485	30.0	26.1	18.9	6.8	9.1	6.8	2.5	
	기타	96	28.0	28.0	24.0	5.6	8.8	4.8	0.8	
결혼 상태	기혼	823	37.0	20.2	17.9	9.9	6.0	7.4	1.6	
	미혼	406	24.9	29.9	21.5	6.9	10.2	5.2	1.5	
	기타	135	37.4	25.8	15.3	10.5	5.8	4.2	1.1	
거주지	동부산	500	36.5	24.1	16.7	9.4	6.1	6.4	0.8	
	중부산	556	31.9	23.4	19.7	9.1	7.6	6.3	2.1	
	서부산	194	34.6	22.9	18.0	9.8	6.0	7.5	1.1	
	부산 외	114	28.5	23.2	22.5	6.6	11.3	5.3	2.6	

- 예술 분야별로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문학과 사진 분야는 부산문화재단, 미술과 연예 분야는 지인, 연예와 사진, 건축 분야는 소속 기관(예총/민예총 등)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0. 예술활동증명 신청 완료 여부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전체 응답자의 39.8%가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 완료했다고 응답함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보다 미완료 상태에 있는 예술인의 비율이 더 많음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완료	미완료
전체		2,000	39.8	60.3
성별	남자	925	41.6	58.4
	여자	1,075	38.1	61.9
연령	30대 이하	579	45.3	54.7
	40~50대	865	35.8	64.2
	60대 이상	556	40.1	59.9
예술분야	문학	381	49.1	50.9
	미술	695	36.0	64.0
	음악	393	34.4	65.6
	무용	104	31.7	68.3
	연극	132	53.8	46.2
	영화	52	28.8	71.2
	연예	28	39.3	60.7
	국악	133	47.4	52.6
	사진	47	55.3	44.7
	건축	25	8.0	92.0
	만화	10	20.0	80.0
국민연금	가입	1,008	40.0	60.0
	미가입	992	39.5	60.5
직업구분	전업 예술인	1,087	44.9	55.1
	겸업 예술인	913	33.6	66.4
주거형태	자가	1,206	35.2	64.8
	전월세	653	45.8	54.2
	기타	141	50.4	49.6
결혼상태	기혼	1,257	36.8	63.2
	미혼	545	44.2	55.8
	기타	198	46.5	53.5
거주지	동부산	747	39.8	60.2
	중부산	795	40.8	59.2
	서부산	284	37.0	63.0
	부산 외	174	39.7	60.3

- 30대 이하는 타 연령대에 비해 예술활동증명 완료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과 연극, 국악, 사진 분야는 완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음악과 무용, 연예, 건축, 만화 분야는 미완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업 예술인은 겸업 예술인보다 완료 비율이 높게 나타남

제3장. 조사 결과 요약

제3장. 조사 결과 요약

1. 응답자 특성

- 응답 예술인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자 46.3%, 여자 53.8%임
 - 전체 응답 예술인의 연령대별 비율은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는 가운데,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 예술인의 평균 연령은 49.6세임
 - 주거형태별로는 자가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증금 있는 월세 18.0%, 전세 12.9%, 보증금 없는 월세 1.8%, 무상(관사/사택 등) 1.7%의 순으로 나타남
- 30대 이하의 젊은 예술인과 연극과 영화 분야 예술인은 주거형태가 자가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전세나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대와 예술 분야별로 주거형태의 특징이 드러나는 편임**

		빈도(명)	비율(%)	
전체		2,000	100.0	
성별	남자	925	46.3	
	여자	1,075	53.8	
연령	20대	205	10.3	
	30대	374	18.7	
	40대	398	19.9	
	50대	467	23.4	
	60대	361	18.1	
	70대 이상	195	9.8	
	[평균 : 49.6세]			
	결혼 상태	기혼	1,257	62.9
미혼		545	27.3	
기타		198	9.9	
거주 형태	자가	1,206	60.3	
	전세	258	12.9	
	보증금 있는 월세	359	18.0	
	보증금 없는 월세	36	1.8	
	무상(관사/사택 등)	33	1.7	
	기타	108	5.4	
거주지	부산	1,826	91.3	
	부산 외 지역	174	8.7	

2. 예술활동 분야

- 전체 응답자의 예술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술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는 음악 19.7%, 문학 19.1%, 국악 6.7%, 연극 6.6%, 무용 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0대 이하는 음악과 연극, 60대 이상은 문학과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수 (명)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전체			2,000	19.1	34.8	19.7	5.2	6.6	2.6	1.4	6.7	2.4	1.3	0.5
성별	남자		925	17.2	33.6	21.8	2.2	7.6	3.2	1.7	5.9	4.0	2.3	0.4
	여자		1,075	20.7	35.7	17.8	7.8	5.8	2.0	1.1	7.3	0.9	0.4	0.6
연령	30대 이하		579	4.3	30.2	25.2	9.0	12.8	6.0	0.9	8.3	2.1	0.2	1.0
	40~50대		865	15.8	35.7	23.4	5.0	6.2	1.5	1.0	7.2	1.8	1.8	0.5
	60대 이상		556	39.4	37.9	8.1	1.6	0.7	0.7	2.5	4.1	3.4	1.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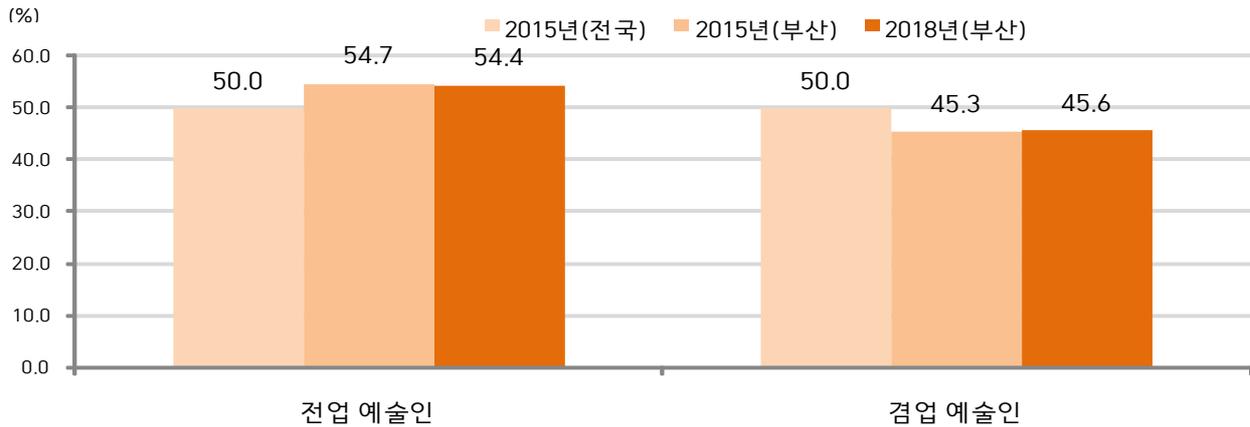
- 예술활동 분야 첫 활동(데뷔) 방식으로는 단체입단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는 공모 28.2%, 개인추천 25.8%, 취업 6.4% 등의 순임
단체입단과 공모, 개인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술활동 분야에 첫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 주 활동 분야 활동 기간을 살펴보면, 5년 미만 14.2%, 5년~10년 미만 21.2%, 10년~15년 미만 16.5%, 15년~20년 미만 14.4%, 20년~30년 미만 18.0%, 30년 이상 15.9%로 응답됨
예술 분야 활동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51.8%, 15년 이상 48.2%로 기간별로 고른 분포를 보임
- 응답 예술인 10명 중 6명 정도는 창작/발표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3년 간 예술활동 평균 발표 횟수는 14.9회인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악 분야 예술인은 평균 20.1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악 19.1회, 연예 16.6회, 연극 15.2회, 문학 15.1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회)	전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발표 횟수	14.9	15.1	13.8	19.1	10.0	15.2	4.1	16.6	20.1	8.8	6.4	4.1

3. 고용형태 및 근로 환경

[고용형태]

- 전체 응답자의 54.4%가 전업 예술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겸업 예술인이 45.6%로 나타남
2015년 응답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며,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전국 평균에 비해 전업 예술인의 비율이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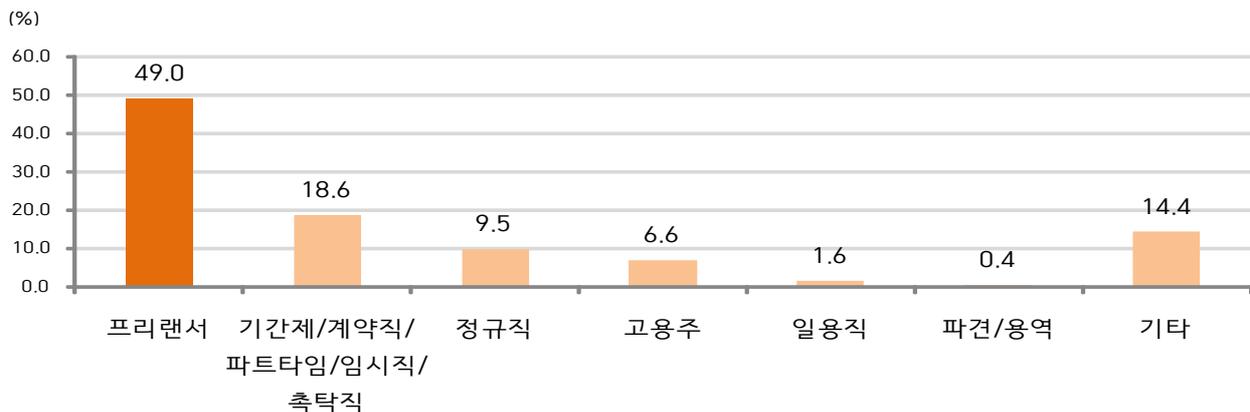


- 예술 분야별로는 음악과 무용, 연극, 연예, 국악 분야는 전업 예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문학과 영화, 사진 분야는 예술활동 외 다른 일자리를 겸업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편임

(%)	전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전업 예술인	54.4	47.0	52.2	60.3	61.5	62.1	19.2	60.7	72.9	40.4	56.0	50.0
겸업 예술인	45.7	53.0	47.8	39.7	38.5	37.9	80.8	39.3	27.1	59.6	44.0	50.0

- 전업 예술인 2명 중 1명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정규직 비율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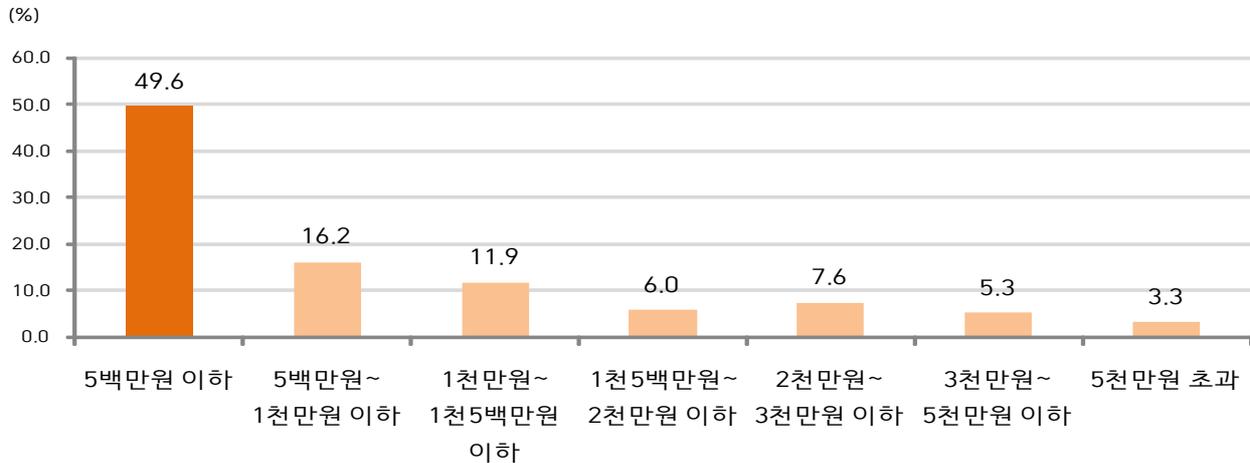
[응답자 수 : 1,087명, 보기 제시, 단위 : %]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 최근 3년 간 예술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급여가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출연료 16.7%, 원고료 11.3%, 저작권 수입 2.7%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전체 응답자의 29.8%가 최근 3년 간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없다고 응답함
- 최근 3년 간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는 예술인의 65.8%는 연간 평균 수입이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8.7%에 불과함
예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과 사진 분야는 5백만원 이하, 건축 분야는 5천만원 초과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수 : 1,404명, 보기 제시, 단위 : %]



- 연간 수입액 중 예술활동 수입액 평균 비중은 41.6%임
예술 분야별로는 만화가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악 60.9%, 건축 57.0%, 연극 55.2%, 무용 52.2% 등의 순임

(%)	전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예술활동 수입액 비중	41.6	15.6	42.9	44.7	52.2	55.2	34.5	51.0	60.9	41.5	57.0	78.0

[계약 체결 관련]

- 전체 응답자의 47.4%가 예술활동 시 계약 체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계약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구두 계약 12.4%, 서면 계약 87.6%로 나타남
-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7.3%가 계약은 성실하게 잘 이행이 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계약 분쟁 발생 유형으로는 대금 미수령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금 지급 지연이 26.9%로 그 뒤를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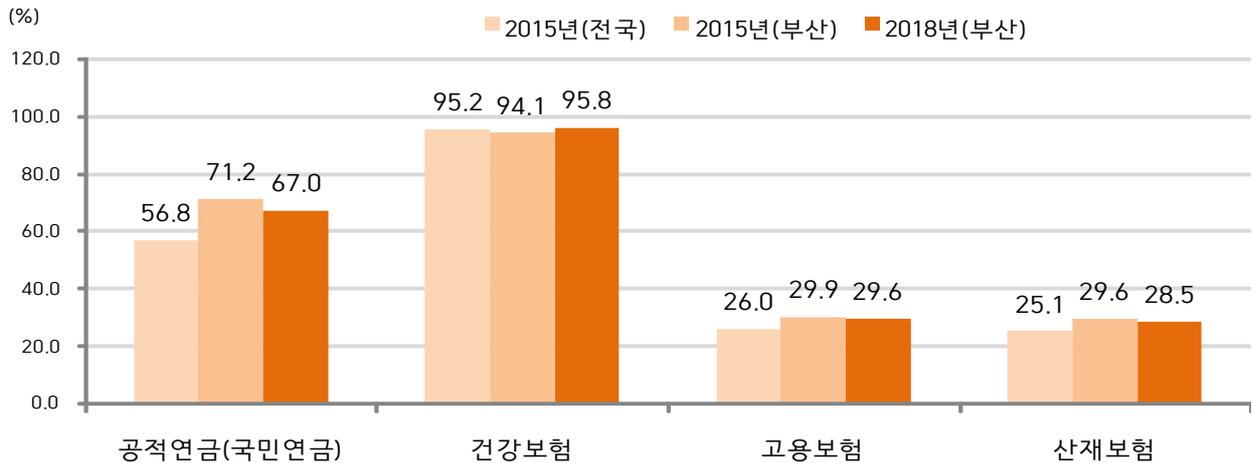
-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 응답자의 24.1%가 유형 혹은 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예술 분야별로는 연극, 건축의 예술인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불공정 계약 강요당한 경험 비율	24.1	24.1	24.4	26.0	28.2	31.3	15.6	5.9	15.1	28.6	37.5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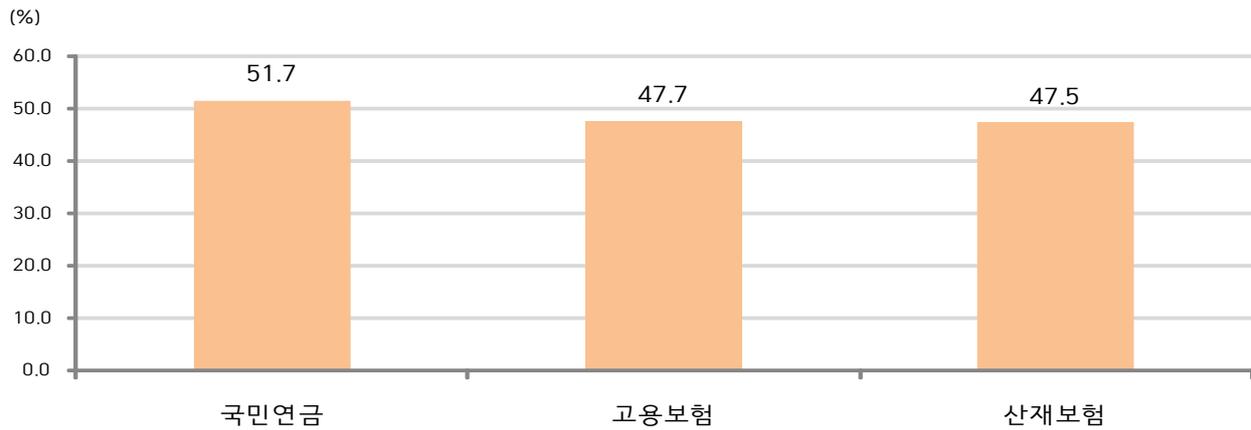
4. 생활 및 복지

[4대보험 관련]

- 4대보험의 가입율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9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67.0%, 고용보험 29.6%, 산재보험 28.5%의 순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율은 2015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연금(국민연금) 가입율은 감소, 건강보험 가입율은 증가함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전국 기준 가입율과 비교하면, 부산지역의 4대보험 가입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 4대보험 미가입 이유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해당자가 아니어서 54.3%, 연금액 납부가 부담이 되어서 32.6%로 응답하였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장이 없어서가 각각 54.0%, 47.2%로 응답됨
- 납부액 일부 지원 시 4대보험 가입 의향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51.7%, 고용보험 47.7%, 산재보험 47.5%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4대보험 미가입자 2명 중 1명은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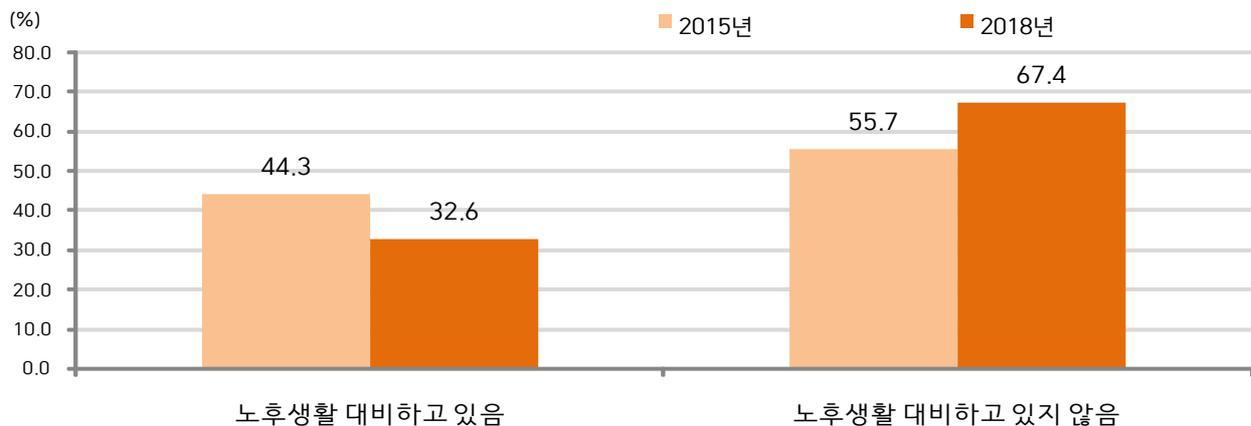


- 전체 응답자의 15.4%가 업무상 재해 발생하는 편이라고 응답함
- 실업급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 비율은 17.4%로 2015년 전국 평균 경험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수혜 횟수는 3.2회, 수혜금액은 평균 91만원으로 2015년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임

	실업급여 수혜 경험율(%)	실업급여 수혜 횟수(회)	실업급여 수혜금액(만원)
2018년(부산)	17.4	3.2	91
2015년(전국)	7.2	1.5	87

[노후 대비]

- 전체 응답자의 32.6%가 노후생활을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15년(44.3%) 대비 노후생활 대비를 하고 있는 응답 비율이 낮아짐



- 노후생활 대비 방법을 살펴보면, 저축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연금 가입 22.7%, 특수직역연금 가입 19.0%, 민간 연금보험 가입 12.7%, 예술활동 외 수익사업 8.3%, 부동산 투자 6.1%, 주식/펀드 4.8%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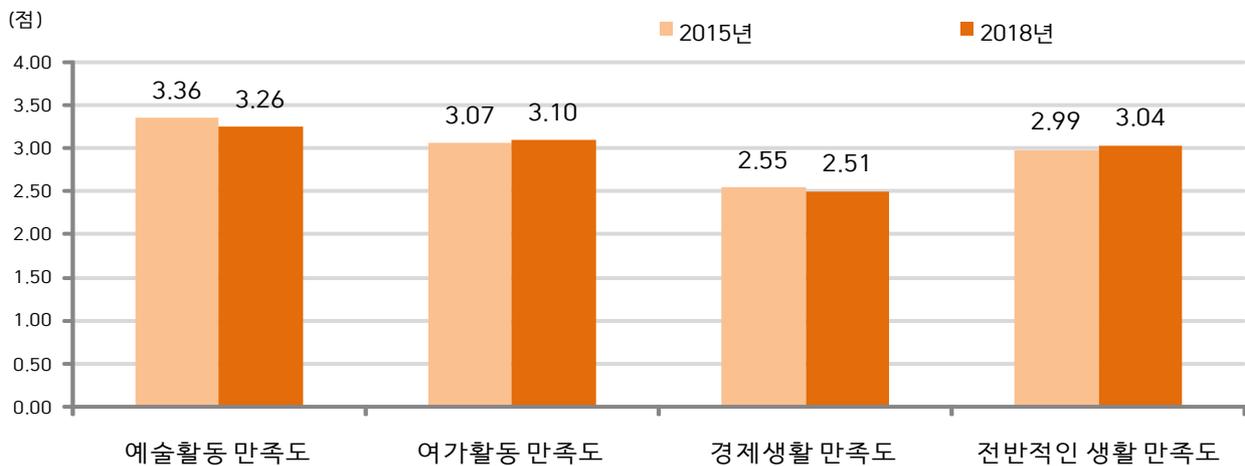
5. 예술 정책 및 만족도

[생활 만족도]

- 생활 만족도를 5점 평균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술활동 만족도가 3.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가활동 만족도 3.10점,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3.04점, 경제생활 만족도 2.51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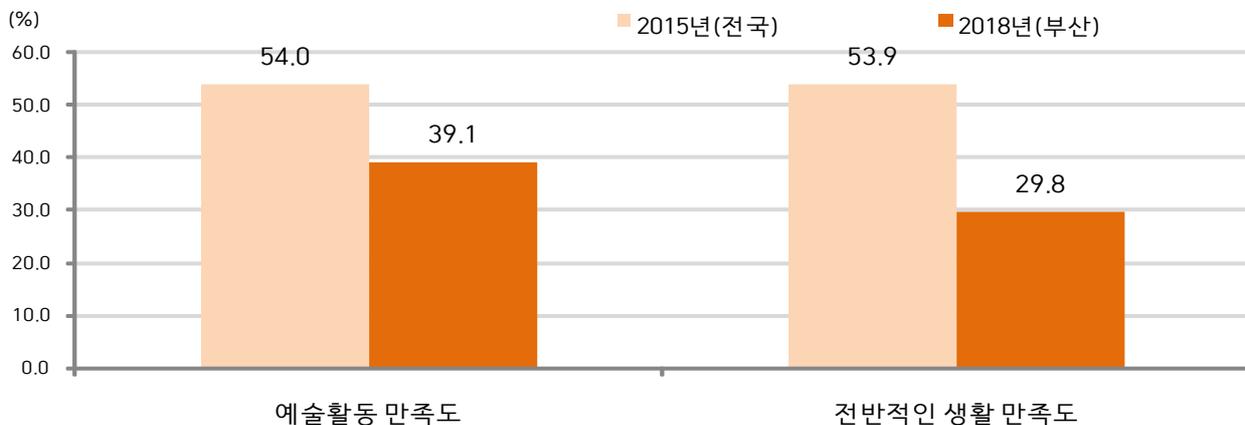
예술활동과 여가활동, 전반적 생활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비율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생활은 불만족 응답 비율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남

- 2015년 결과 대비, 예술활동 및 경제생활 만족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여가활동과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소폭 상승함



-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전국 기준 결과 대비 예술활동과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매우 낮음

[긍정응답비율 기준]



- 예술 분야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무용과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예술활동에 만족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학과 건축, 만화 분야 예술인은 여가활동과 경제생활, 전반적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긍정응답비율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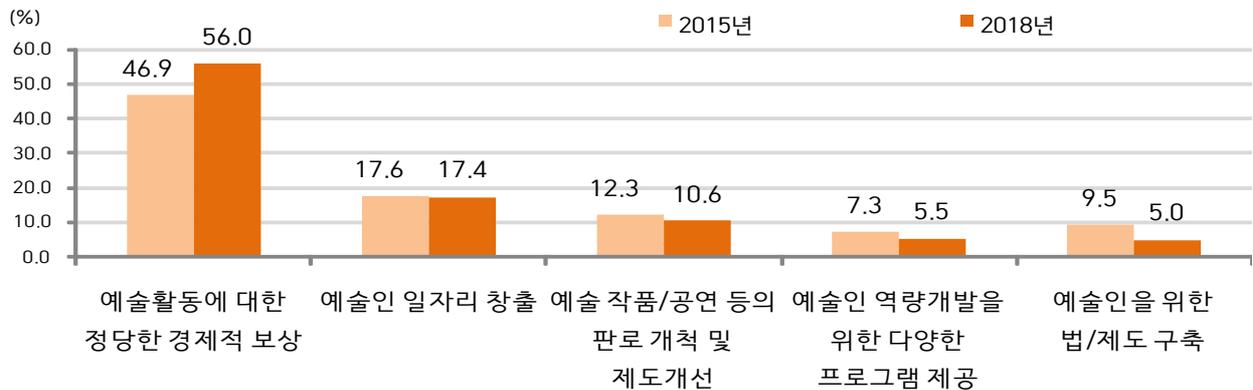
	만족도 평가			
	예술활동	여가활동	경제생활	전반적 생활
전체	39.1	33.0	13.6	29.8
문학	36.7	40.7	19.4	34.9
미술	39.1	31.2	11.2	27.6
음악	34.4	29.5	13.5	27.0
무용	45.2	33.7	15.4	36.5
연극	50.8	28.0	5.3	28.0
영화	28.8	28.8	11.5	26.9
연예	32.1	25.0	7.1	17.9
국악	45.1	36.8	15.8	33.1
사진	48.9	42.6	12.8	25.5
건축	48.0	20.0	24.0	36.0
만화	20.0	40.0	20.0	50.0

- 예술창작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살펴보면, 경제적 보상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인 자신의 의지/역량 24.6%, 정책적/재정적 지원 2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훌륭한 예술창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경제적 보상과 예술인 자신의 의지/역량, 정책적/재정적 지원 3가지 요소에 대해서 고른 비율로 응답됨

[예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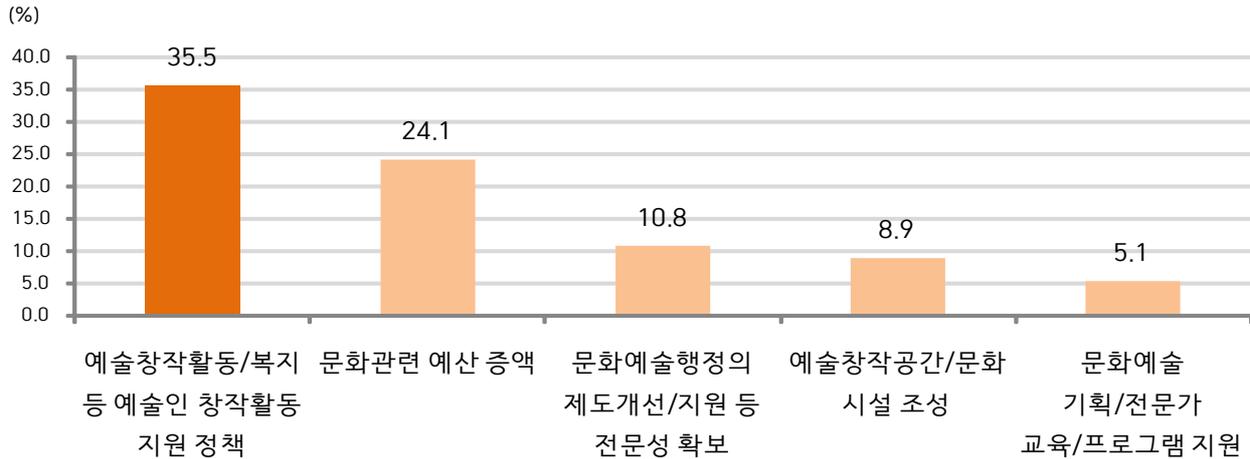
-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56.0%)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결과 대비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짐

[5% 이상 응답 보기만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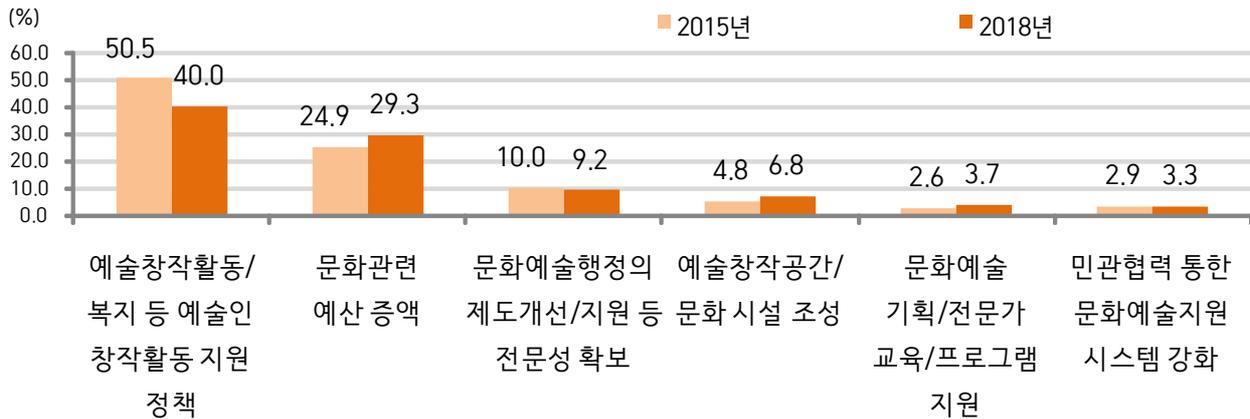
-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중점 정책을 1+2순위 가중치를 적용한 중복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술창작활동/복지 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정책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화관련 예산 증액 24.1%, 문화예술행정의 제도개선/지원 등 전문성 확보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1+2순위 가중치 응답 결과 기준, 5% 이상 보기만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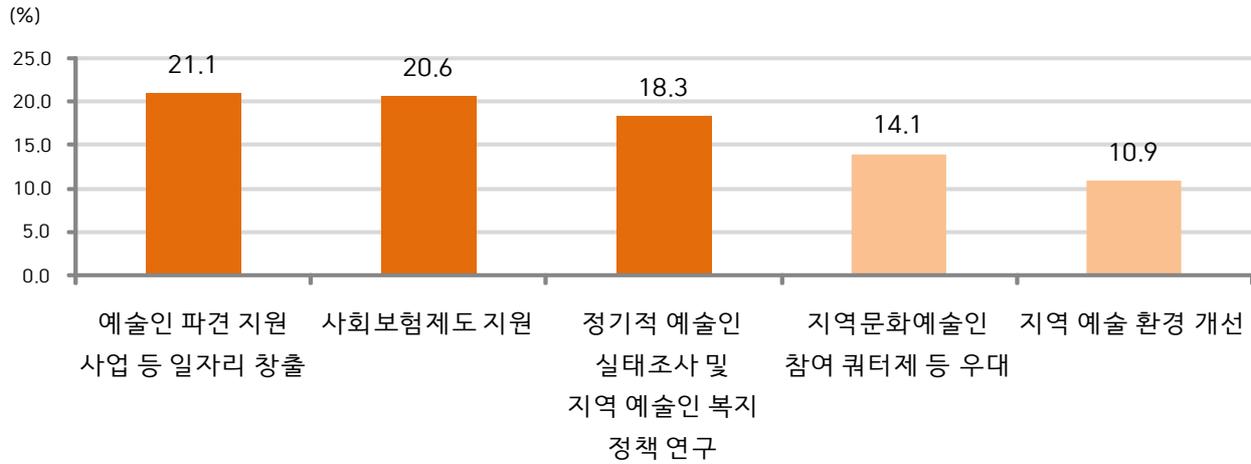
- 1순위 응답 기준으로 2015년 결과와 비교해보면, 예술창작활동/복지 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는 줄어든 반면, 문화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정책 수요는 늘어남

[1순위 응답 결과 기준, 3% 이상 응답 보기만 제시]



- 부산 예술인 관련 중요 복지 정책을 1+2순위 가중치를 적용한 중복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이 2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보험제도 지원 20.6%, 정기적 예술인 실태조사 및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 연구 18.3%, 지역문화예술인 참여 쿼터제 등 우대 14.1%, 지역 예술 환경 개선 10.9% 등의 순으로 응답됨

[1+2순위 가중치 응답 결과 기준, 10% 이상 보기만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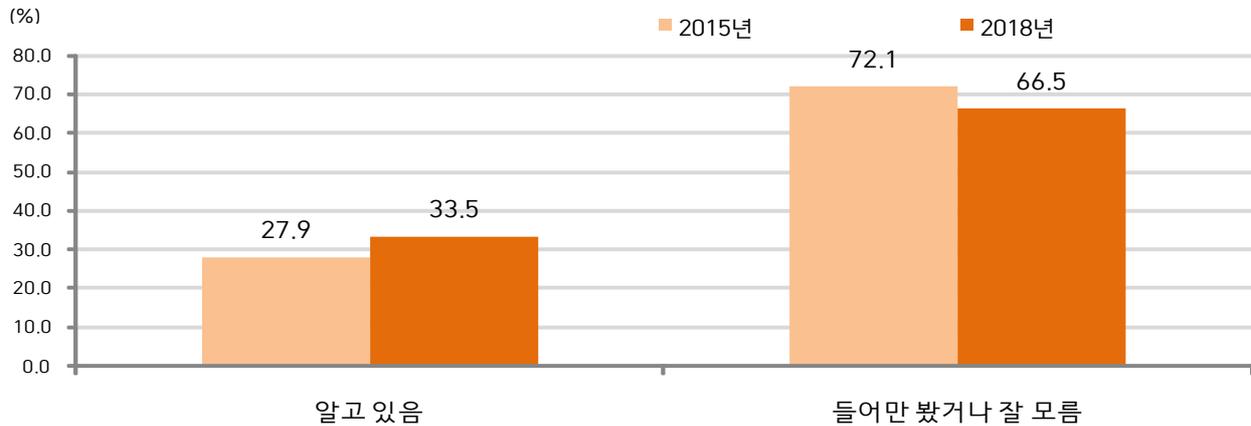
- 예술인복지법 관련 사업의 중요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창작 준비 기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4.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인 계층 지원 4.29점, 예술인 일자리 연계/직업전환 지원 등 일자리 지원 4.2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5년 대비 지역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인 계층 지원에 대한 중요도는 가장 큰 폭으로 낮아진 반면,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에 대한 중요도는 가장 큰 폭으로 높아졌으나 큰 차이는 아님

[5점 척도 평균 기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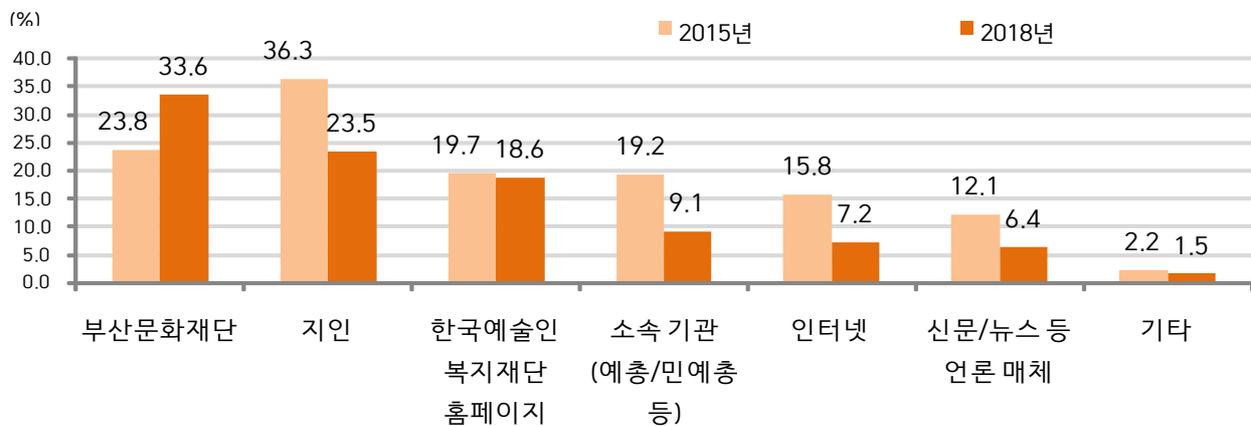
	중요도 평가		
	2015년	2018년	GAP
1) 지역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인 계층 지원	4.41	4.29	▼0.12
2) 예술인 자녀 보육 지원	3.76	3.74	▼0.02
3) 예술인의 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4.12	4.08	▼0.04
4)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지원	4.03	3.95	▼0.08
5) 창작 준비 기간에 대한 경제적 지원	4.27	4.30	△0.03
6) 예술인 일자리 연계/직업전환 지원 등 일자리 지원	4.21	4.25	△0.04
7) 계약/저작권/법률/노무/세무회계 등 컨설팅 지원	3.82	3.87	△0.05
8)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3.72	3.82	△0.10
9) 예술인 심리상담/신문고 등 예술활동 개선	3.76	3.82	△0.06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잘 알고 있다 33.5%, 들어만 봤다 34.7%, 잘 모른다 31.8%로 응답되었으며, 예술활동증명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 비율은 2015년 대비 상승함



- 예술활동증명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부산문화재단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인 23.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1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5년 대비 부산문화재단을 통해서 예술활동증명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함



- 전체 응답자의 39.8%가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 완료했다고 응답함

별첨. 설문지

별첨.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	--	--	--	--	--

2018 부산 예술인 실태 및 복지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및 생활 실태,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부산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조사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9월

■ 연구기관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재)부산문화재단 (T. 051-745-7232)
 ■ 조사기관 : 동남리서치 (T. 051-583-8050)
 ※ 조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조사기관 담당자 (T. 051-583-805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예술활동 분야

문1. 귀하께서는 다음 어느 예술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문학 ② 미술(응용미술 포함) ③ 음악 ④ 무용 ⑤ 연극 ⑥ 영화
 ⑦ 연예 ⑧ 국악 ⑨ 사진 ⑩ 건축 ⑪ 만화

문1-1. 문1에서 표기한 활동분야 중 주 활동 분야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 문학	① 시 ⑥ 희곡	② 소설 ⑦ 번역	③ 시조 ⑧ 평론/이론	④ 수필 ⑨ 기타()	⑤ 아동문학
2) 미술 (응용미술 포함)	① 한국화 ⑥ 판화 ⑪ 전시/기획	② 서양화 ⑦ 디자인 ⑫ 기타()	③ 조각 ⑧ 설치미술	④ 공예 ⑨ 미디어아트	⑤ 서예 ⑩ 평론/이론
3) 음악	① 성악 ⑥ 오페라 ⑪ 기타()	② 건반악 ⑦ 지휘	③ 현악 ⑧ 작곡/편곡	④ 관악 ⑨ 평론/이론	⑤ 타악 ⑩ 감독/연출
4) 무용	① 한국무용 ⑥ 기타()	② 발레	③ 현대무용	④ 평론/이론	⑤ 감독/연출
5) 연극	① 연출 ⑥ 평론/이론	② 연기 ⑦ 기타()	③ 기술스태프	④ 극작	⑤ 제작/기획
6) 영화	① 감독 ⑥ 평론/이론	② 연기 ⑦ 기타()	③ 기술스태프	④ 시나리오	⑤ 제작/기획
7) 연예	① 배우 ⑥ 드라마, 예능	② 대중가수 프로그램 작가	③ 패션쇼 ⑦ 제작/기획	④ 평론/이론 ⑧ 기술스태프	⑤ 코미디/개그 ⑨ 기타()
8) 국악	① 기악 ⑥ 무궁	② 소리(성악) ⑦ 전통춤	③ 작곡 ⑧ 기타()	④ 민속극	⑤ 풍물(농악)
9) 사진	① 창작사진	② 보도사진	③ 상업사진	④ 평론/이론	⑤ 기타()
10) 건축	① 건축설계 ⑥ 기타()	② 실내설계	③ 구조설계	④ 도시환경	⑤ 평론/이론
11) 만화	① 만화작가	② 평론/이론	③ 기술지원/기획지원	④ 기타()	

문12-3. 고용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p>문12-3-1. (문12-3에서 ② 응답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직장이 없어서 ② 납부액이 부담이 되어서 ③ 잘 몰라서 ④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⑤ 고용주가 가입해주지 않아서 ⑥ 기타()</p> <p>문12-3-2. (문12-3에서 ② 응답자만) 고용보험 납부액을 일부 지원 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p>	
문12-4. 산재보험	① 직장에서 가입 ② 본인이 가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가입하고 본인이 보험료 납부 ③ 가입하지 않음
<p>문12-4-1. (문12-4에서 ③ 응답자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직장이 없어서 ② 납부액이 부담이 되어서 ③ 잘 몰라서 ④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⑤ 고용주가 가입해주지 않아서 ⑥ 기타()</p> <p>문12-4-2. (문12-4에서 ③ 응답자만) 산재보험 납부액을 일부 지원 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p> <p>문12-4-3. 본인과 같은 분야의 예술인들에게 업무상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p> <p>문12-4-4. 본인 혹은 주변 동료들이 재해를 입은 경우 적절하게 보상을 받았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⑥ 해당 없음</p>	

문13.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13-1로) ② 아니요 (☞ 문14로)

문13-1. (문13에서 ① 응답자만)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몇 번을 받았고, 그 금액은 월 얼마입니까? ※ 실업급여 수혜횟수는 월 기준으로 몇 번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수혜횟수 ()번, ■ 수혜금액 ()만원/월

문14. 예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14-1로) ② 아니요 (☞ 문15로)

문14-1. (문14에서 ① 응답자만) 업무상 상해가 발생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

V. 노후생활

문15. 귀하께서는 노후생활을 위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문15-1로) ② 아니요 (☞ 문16으로)

문20. 귀하께서는 부산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부산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보 기	① 문화관련 예산 증액 ② 예술창작활동, 복지 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정책 ③ 문화예술행정의 제도개선 및 지원 등 전문성 확보 ④ 예술창작공간 및 문화 시설 조성 ⑤ 문화예술 기획 및 전문가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⑥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⑦ 기업 메세나, 클라우드 펀딩 등 민간지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 제도 마련 ⑧ 민관협력 통한 문화예술지원 시스템 강화 ⑨ 문화예술관련 정보/홍보 서비스 지원 ⑩ 기타(_____)
----------------	--

문21. 귀하께서는 부산 예술인에 대한 복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보 기	① 정기적 예술인 실태조사와 지역의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②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지원 ③ 교통비 지원, 원로예술인 의료지원, 자녀 보육 지원 등 지역 예술 환경 개선 ④ 지역 기업과 연계한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 ⑤ 각종 보험료, 노후연금, 예식/장례 등 부산 예술인공제회 설립/운영 ⑥ 소액 생활자금 대출 서비스 등 부산형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운영 ⑦ 공공 문화시설, 축제행사 지역문화예술인 참여 쿼터제 등 지역문화예술인 우대 ⑧ 기타(_____)
----------------	---

문22. 귀하께서는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다음 사업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내용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1) 지역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인 계층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예술인 자녀 보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예술인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①	②	③	④	⑤
4)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창작을 준비하는 기간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예술인 일자리 연계, 직업전환 지원 등 일자리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계약, 저작권,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 컨설팅 지원	①	②	③	④	⑤
8)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①	②	③	④	⑤
9)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신문고 등 예술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⑤

문23. 귀하께서 예술활동을 주로 부산에서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부산출신이라서
- ② 예술지원 혜택이 우수해서
- ③ 부산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 ④ 부산 소재 학교에서 공부를
- ⑤ 경제적 보상이 좋아서
- ⑥ 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 환경이 좋아서
- ⑦ 예술에 대한 인식이 타 도시 대비 좋아서
- ⑧ 활동 그룹이나 동료와의 협업 등을 위해
- ⑨ 시민들의 예술적 이해도가 높아서
- ⑩ 새로운 작업 시도 등 개방적 환경이 조성 되어서
- ⑪ 기타()

문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예술활동증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절차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의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술 직업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1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 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잘 알고 있다 (☞ 문24-1로)
- ② 들어만 봤다 (☞ 문24-1로)
- ③ 잘 모른다

문24-1. (문24번에서 ①, ② 응답자만) 귀하께서 '예술활동증명'을 인지하신 경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 모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 ② 신문, 뉴스 등 언론 매체를 통해
- ③ 인터넷을 통해
- ④ 부산문화재단을 통해
- ⑤ 지인을 통해
- ⑥ 소속 기관(예총, 민예총 등)을 통해
- ⑦ 기타()

문25. 귀하께서는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 완료한 상태입니까?

- 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함
- ②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지 못함

VII. 개인관련 사항

문26. 귀하의 성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문27.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문28. 귀하의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사별/이혼/별거 등)

문29. 거주하는 집의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월세없음)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⑤ 무상(관사, 사택 등)
- ⑥ 기타()

문30.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8 부산 예술인 실태 및 복지만족도 조사 보고서

발 행 월 : 2018년 12월

의 퇴 기 관 :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감만동)

T: 051-744-7707

조 사 기 관 : 주식회사 동남리서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665 2층

T: 051-583-8050

2018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2018. 12

제 출 문

부산문화재단 귀중

본 보고서를
「2018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용역의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주식회사 동남리서치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09
1. 조사 목적	09
2. 조사 추진 경과	09
3. 조사 설계	10
4. 자료 처리 및 분석	11
5. 조사 내용	12
6. 응답자 특성	13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17
I. 문화예술계 성폭력 및 성평등에 대한 인식	17
1.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17
2.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폭력 심각도	21
3.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	23
4. 문화예술계 내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성차별 경험	25
5. 문화예술계 성평등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28
II.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경험	31
1.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	31
2. 문화예술계에서 직접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	33
3.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직위	35
4.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대응 방법	37
5. 성희롱/성폭력 경험 후 대응 어려운 이유	39
6.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가장 힘든 부분	41
7. 문화예술계 활동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 목격 내용	43
8. 성희롱/성폭력 목격 사건 가해자 직위	45
9. 목격 성희롱/성폭력 피해 해결 결과	47
III.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 대책	49
1.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방안	49
2.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운영 시 필요사항	51
제3장. 조사 결과 요약	55
별첨. 설문지	61

제1장. 조사 개요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피해 사례 조사를 통하여 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됨

2. 조사 추진 경과

일정	추진 내용
'18. 08. 17 ~ 08. 31	· 설문지 내용 검토 및 확정 (* 성폭력 상담소 자문 및 회의 진행)
'18. 08. 20 ~ 09. 05	· 조사대상 명부 확보
'18. 09. 06 ~ 09. 10	· 온라인 조사 화면 제작
'18. 09. 11 ~ 11. 19	· 조사 실시
'18. 11. 20 ~ 11. 25	· 데이터 처리 및 통계분석
'18. 11. 26 ~ 11. 30	· 보고서 작성

3. 조사 설계

항목	내용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부산을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예술인 및 예비예술인 - 예술인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부산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을 기본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예술인 외에 상대적으로 성폭력에 취약한 예비 예술인(청년, 대학생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함 - 예비 예술인의 경우 부산지역 소재 주요 예술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 협조 요청하였으며,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예술대학 개별 학과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SMS를 활용하여 조사 참여를 유도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대학</th> <th>학과</th> </tr> </thead> <tbody> <tr> <td>부산대학교</td> <td>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 무용학과, 미술학과, 미술학과, 조형학과, 디자인학과, 예술문화영상학과</td> </tr> <tr> <td>동아대학교</td> <td>미술학과, 음악학과</td> </tr> <tr> <td>경성대학교</td> <td>음악학부, 연극영화학부, 영상애니메이션학부, 미술학과, 공예디자인학과, 무용학과</td> </tr> <tr> <td>동의대학교</td> <td>음악학과, 디자인조형학과</td> </tr> <tr> <td>신라대학교</td> <td>창조공연예술학부(음악전공), 창조공연예술학부(무용전공)</td> </tr> </tbody> </table>	대학	학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 무용학과, 미술학과, 미술학과, 조형학과, 디자인학과, 예술문화영상학과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음악학과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연극영화학부, 영상애니메이션학부, 미술학과, 공예디자인학과, 무용학과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디자인조형학과	신라대학교	창조공연예술학부(음악전공), 창조공연예술학부(무용전공)
대학	학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 무용학과, 미술학과, 미술학과, 조형학과, 디자인학과, 예술문화영상학과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음악학과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연극영화학부, 영상애니메이션학부, 미술학과, 공예디자인학과, 무용학과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디자인조형학과												
신라대학교	창조공연예술학부(음악전공), 창조공연예술학부(무용전공)												
표본 수	· 2,000명 ¹⁾												
조사 기간	· 2018년 9월 11일 ~ 11월 19일												

1) 조사 참여인원은 총 2천명이며, 문항별 결측값이 있어 각 문항별 응답 표본 수는 다름

4. 자료처리 및 분석

1) 자료 처리

□ 자료 처리 프로세스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과정을 거쳐 SPSS 20.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함



2) 자료 분석

□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 응답자별 설문내용 빈도 및 분포표상의 개괄적인 특성 파악, 상대적 백분율, 응답누적빈도 등

□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

- 서로 다른 항목 변수의 범주를 교차시켜 교차된 집계 분석표를 통하여 두 변수간의 상호 독립성이나 관련성 또는 개연성의 정도를 분석

5. 조사 내용

□ 본 설문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세부 항목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예술 분야
문화예술계 성폭력 및 성평등에 대한 인식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폭력 심각도 ·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 · 문화예술계 내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성차별 경험 · 문화예술계 성평등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경험	·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 · 문화예술계에서 직접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직위 ·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대응 방법 · 성희롱/성폭력 경험 후 대응 어려운 이유 ·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가장 힘든 부분+ · 문화예술계 활동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 목격 내용 · 성희롱/성폭력 목격 사건 가해자 직위 · 목격 성희롱/성폭력 피해 해결 결과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 대책	·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방안 ·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운영 시 필요사항

□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제시함

피해 유형	내용
성희롱	·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개인의 성적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 음란한 전화 등
성추행	· 가슴/엉덩이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애무 등의 행위
권력형 성폭력	· 예술가의 지위나 권위를 이용하여 추행 및 성관계, 연인관계 요구
스토킹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 접근, 미행, 연락
몰래카메라	· 신체일부 또는 성행위를 몰래 촬영,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무단으로 유포, 협박하는 행위
강간 미수	·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우
강간	·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행위 (유사성행위 포함)

6. 응답자 특성

□ 전체

		빈도(명)	비율(%)
성별 [N=1,723]	남자	628	36.4
	여자	1,074	62.3
	기타	21	1.2
연령 [N=1,723]	10대	3	0.2
	20대	488	28.3
	30대	321	18.6
	40대	286	16.6
	50대	327	19.0
	60대	217	12.6
	70대 이상	81	4.7
	기타		
예술 분야 [N=1,723]	문학	220	12.8
	미술	593	34.4
	음악	380	22.1
	무용	98	5.7
	연극	111	6.4
	영화	69	4.0
	연예	15	0.9
	국악	125	7.3
	사진	26	1.5
	건축	12	0.7
	만화	25	1.5
	기타	49	2.8

- 전체 응답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자 36.4%, 여자 62.3%임
- 연령대별로는 10대 0.2%, 20대 28.3%, 30대 18.6%, 40대 16.6%, 50대 19.0%, 60대 12.6%, 70대 이상 4.7%로 나타남
- 예술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술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악 22.1%, 문학 12.8%, 국악 7.3%, 연극 6.4%, 무용 5.7% 등의 순임

□ 예술 분야별

	응답자 수 (명)	성별			연령대별							
		남자	여자	기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1,723	36.4	62.3	1.2	0.2	28.3	18.6	16.6	19.0	12.6	4.7	
예술 분야	문학	220	39.5	60.0	0.5	0.5	0.9	6.8	9.1	32.7	33.6	16.4
	미술	593	29.3	69.1	1.5	0.0	32.4	16.7	14.7	21.4	11.1	3.7
	음악	380	44.5	54.2	1.3	0.3	35.5	21.8	20.3	12.1	7.6	2.4
	무용	98	18.4	81.6	0.0	0.0	22.4	30.6	30.6	12.2	3.1	1.0
	연극	111	43.2	56.8	0.0	0.0	36.0	27.0	17.1	13.5	4.5	1.8
	영화	69	37.7	62.3	0.0	1.4	50.7	20.3	7.2	13.0	4.3	2.9
	연예	15	53.3	46.7	0.0	0.0	20.0	33.3	0.0	6.7	33.3	6.7
	국악	125	34.4	65.6	0.0	0.0	13.6	24.0	26.4	20.0	14.4	1.6
	사진	26	73.1	26.9	0.0	0.0	3.8	11.5	11.5	26.9	30.8	15.4
	건축	12	58.3	25.0	16.7	0.0	25.0	8.3	25.0	25.0	8.3	8.3
	만화	25	12.0	76.0	12.0	0.0	88.0	8.0	0.0	4.0	0.0	0.0
기타	49	53.1	44.9	2.0	0.0	32.7	18.4	18.4	18.4	10.2	2.0	

- 예술 분야별 성비를 살펴보면, 미술과 무용, 만화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여자 응답자 비율이 높은 편임
- 음악과 연극, 영화, 만화 분야는 20대, 무용과 국악 분야는 30~40대, 문학과 사진 분야는 50대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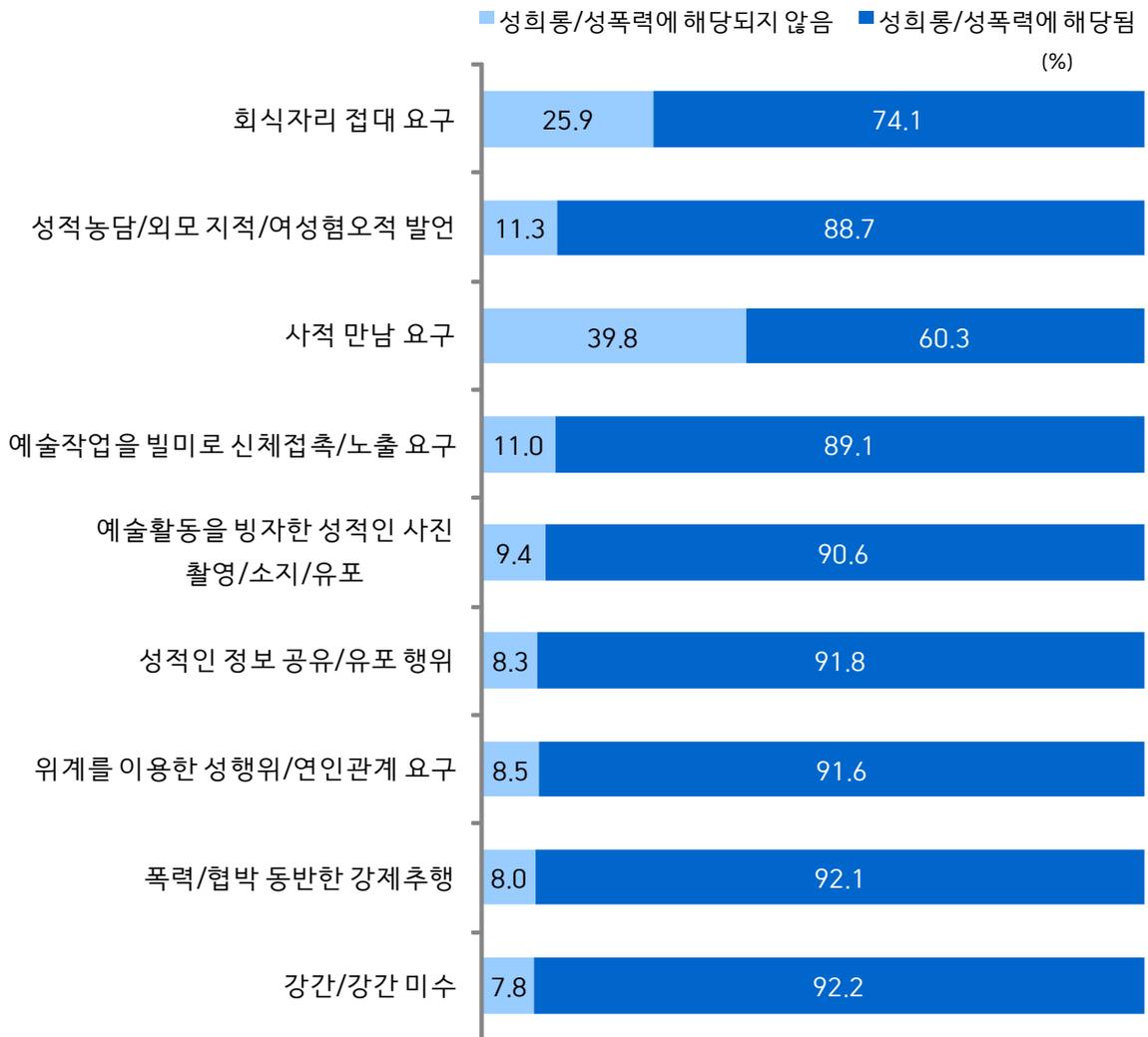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I. 문화예술계 성폭력 및 성평등에 대한 인식

1.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보기 제시, 단위 : %]



- 강간/강간 미수(92.2%)와 폭력/협박 동반한 강제추행(92.1%), 성적인 정보 공유/유포 행위(91.8%), 위계를 이용한 성행위/연인관계 요구(91.6%), 예술활동을 빙자한 성적인 사진 촬영/소지/유포(90.6%),

예술작업을 빌미로 신체접촉/노출 요구(89.1%), 성적농담/외모지적/여성혐오적 발언(88.7%)에 대해서는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술 따르기/옆에 앉히기와 같은 회식자리 접대 요구(74.1%)나 술자리/식사 등 사적 만남 요구(60.3%) 항목에 대해서는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1) 회식자리 접대 요구		2) 성적농담/외모 지적/여성혐오적 발언		3) 사적 만남 요구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음	성희롱/성폭 력에 해당됨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음	성희롱/성폭 력에 해당됨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음	성희롱/성폭 력에 해당됨	
전체	2,000	25.9	74.1	11.3	88.7	39.8	60.3	
성별	남자	628	28.2	71.8	12.6	87.4	43.2	56.8
	여자	1,074	24.1	75.9	10.4	89.6	36.6	63.4
	기타	21	19.0	81.0	9.5	90.5	47.6	52.4
연령	20대 이하	491	18.3	81.7	6.3	93.7	45.2	54.8
	30대	321	22.7	77.3	10.9	89.1	36.8	63.2
	40대	286	25.2	74.8	11.2	88.8	31.5	68.5
	50대	327	28.1	71.9	14.4	85.6	33.9	66.1
	60대 이상	298	37.9	62.1	16.1	83.9	44.6	55.4
예술 분야	문학	220	32.3	67.7	15.0	85.0	37.7	62.3
	미술	593	24.5	75.5	11.3	88.7	39.6	60.4
	음악	380	24.7	75.3	9.5	90.5	42.1	57.9
	무용	98	28.6	71.4	13.3	86.7	32.7	67.3
	연극	111	24.3	75.7	8.1	91.9	40.5	59.5
	영화	69	10.1	89.9	7.2	92.8	31.9	68.1
	연예	15	33.3	66.7	20.0	80.0	46.7	53.3
	국악	125	34.4	65.6	16.0	84.0	38.4	61.6
	사진	26	26.9	73.1	7.7	92.3	38.5	61.5
	건축	12	33.3	66.7	8.3	91.7	33.3	66.7
	만화	25	12.0	88.0	4.0	96.0	40.0	60.0
	기타	49	12.2	87.8	6.1	93.9	36.7	63.3

- 60대 이상과 문학/국악 분야 예술인은 회식자리 접대 요구 행위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 이하와 영화 분야 예술인은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 이하는 성적인 농담이나 외모 지적/여성혐오적 발언을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편, 20대 이하는 타 연령대에 비해 사적 만남 요구를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반면, 40~50대와 연극/영화 분야 예술인은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 응답자별 특성 (계속)

	응답자 수 (명)	4) 예술작업을 빌미로 신체접촉/노출 요구		5) 예술활동을 빙자한 성적인 사진 촬영/소지/유포		6) 성적인 정보 공유/유포 행위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음	성희롱/성폭 력에 해당됨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음	성희롱/성폭 력에 해당됨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음	성희롱/성폭 력에 해당됨	
전체	2,000	11.0	89.1	9.4	90.6	8.3	91.8	
성별	남자	628	11.8	88.2	9.9	90.1	8.4	91.6
	여자	1,074	10.2	89.8	9.3	90.7	8.2	91.8
	기타	21	14.3	85.7	14.3	85.7	4.8	95.2
연령	20대 이하	491	8.4	91.6	6.5	93.5	4.9	95.1
	30대	321	10.9	89.1	9.3	90.7	8.4	91.6
	40대	286	10.5	89.5	9.1	90.9	7.7	92.3
	50대	327	11.9	88.1	11.9	88.1	10.4	89.6
	60대 이상	298	14.1	85.9	12.8	87.2	11.7	88.3
예술 분야	문학	220	11.4	88.6	12.3	87.7	10.9	89.1
	미술	593	9.4	90.6	9.6	90.4	8.3	91.7
	음악	380	11.1	88.9	8.7	91.3	6.6	93.4
	무용	98	17.3	82.7	8.2	91.8	8.2	91.8
	연극	111	12.6	87.4	9.9	90.1	7.2	92.8
	영화	69	2.9	97.1	2.9	97.1	4.3	95.7
	연예	15	20.0	80.0	20.0	80.0	20.0	80.0
	국악	125	16.0	84.0	13.6	86.4	12.8	87.2
	사진	26	7.7	92.3	7.7	92.3	3.8	96.2
	건축	12	16.7	83.3	16.7	83.3	8.3	91.7
	만화	25	4.0	96.0	4.0	96.0	4.0	96.0
	기타	49	6.1	93.9	4.1	95.9	6.1	93.9

- 무용과 국악 분야 예술인은 타 예술 분야에 비해 예술작업을 빌미로 신체접촉/노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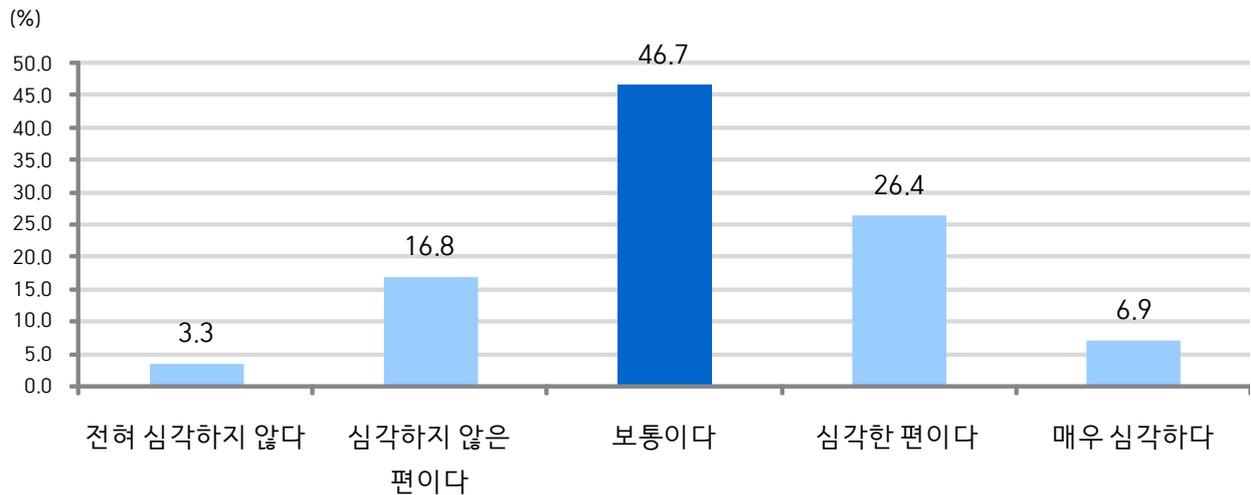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7) 위계를 이용한 성행위/연인관계 요구		8) 폭력/협박 동반한 강제추행		9) 강간/강간 미수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음	성희롱/성폭 력에 해당됨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음	성희롱/성폭 력에 해당됨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음	성희롱/성폭 력에 해당됨	
전체	2,000	8.5	91.6	8.0	92.1	7.8	92.2	
성별	남자	628	8.8	91.2	7.8	92.2	7.8	92.2
	여자	1,074	8.5	91.5	8.1	91.9	7.9	92.1
	기타	21	4.8	95.2	4.8	95.2	4.8	95.2
연령	20대 이하	491	4.9	95.1	5.1	94.9	4.9	95.1
	30대	321	9.3	90.7	8.1	91.9	7.8	92.2
	40대	286	7.7	92.3	7.7	92.3	7.7	92.3
	50대	327	10.4	89.6	9.8	90.2	9.8	90.2
	60대 이상	298	12.4	87.6	10.7	89.3	10.7	89.3
예술 분야	문학	220	12.3	87.7	10.9	89.1	10.9	89.1
	미술	593	8.4	91.6	8.1	91.9	7.8	92.2
	음악	380	6.8	93.2	6.8	93.2	6.8	93.2
	무용	98	7.1	92.9	7.1	92.9	7.1	92.9
	연극	111	7.2	92.8	7.2	92.8	7.2	92.8
	영화	69	2.9	97.1	2.9	97.1	2.9	97.1
	연예	15	20.0	80.0	20.0	80.0	20.0	80.0
	국악	125	15.2	84.8	12.0	88.0	12.0	88.0
	사진	26	0.0	100.0	0.0	100.0	0.0	100.0
	건축	12	8.3	91.7	8.3	91.7	8.3	91.7
	만화	25	4.0	96.0	4.0	96.0	4.0	96.0
기타	49	6.1	93.9	4.1	95.9	4.1	95.9	

- 국악 분야 예술인은 타 예술 분야에 비해 위계를 이용한 성행위/연인관계 요구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2.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폭력 심각도

□ 전체

[응답자 수 : 2,000명, 5점 척도 평가, 단위 : %]



-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살펴보면, 전혀 심각하지 않다 3.3%,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16.8%, 보통이다 46.7%, 심각한 편이다 26.4%, 매우 심각하다 6.9%로 응답됨
-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의 심각도는 평균 3.17점으로 나타남
- ☞ 전체 응답자의 33.3%가 부산지역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20.1%)보다 높게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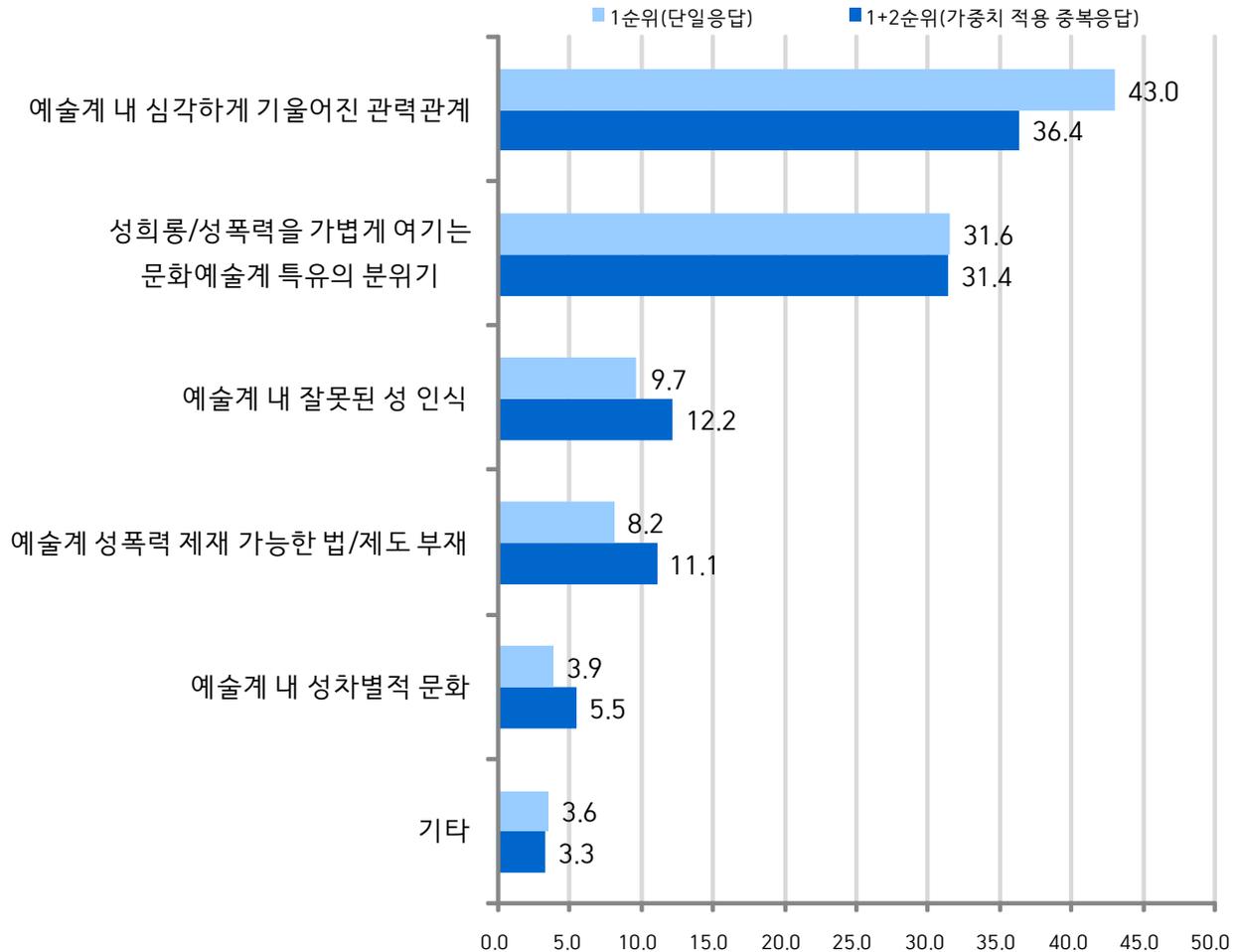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전혀 심각 하지 않다	심각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 하다	3분류			5점 척도 평균 (점)	
							심각 하지 않은 편 (1+2점)	보통	심각한 편 (4+5점)		
전체	2,000	3.3	16.8	46.7	26.4	6.9	20.1	46.7	33.3	3.17	
성별	남자	628	4.8	21.8	49.4	18.9	5.1	26.6	49.4	24.0	2.98
	여자	1,074	2.7	14.2	45.0	30.1	8.1	16.9	45.0	38.2	3.27
	기타	21	4.8	4.8	33.3	38.1	19.0	9.5	33.3	57.1	3.62
연령	20대 이하	491	2.0	7.5	42.4	37.1	11.0	9.6	42.4	48.1	3.47
	30대	321	3.4	11.5	44.5	31.2	9.3	15.0	44.5	40.5	3.31
	40대	286	2.4	16.1	49.7	25.2	6.6	18.5	49.7	31.8	3.17
	50대	327	4.3	24.5	50.8	16.8	3.7	28.7	50.8	20.5	2.91
	60대 이상	298	6.0	30.2	47.3	13.8	2.7	36.2	47.3	16.4	2.77
예술 분야	문학	220	5.5	28.6	47.3	15.5	3.2	34.1	47.3	18.6	2.82
	미술	593	3.9	14.7	40.8	31.7	8.9	18.5	40.8	40.6	3.27
	음악	380	4.5	15.3	51.6	20.5	8.2	19.7	51.6	28.7	3.13
	무용	98	2.0	19.4	50.0	23.5	5.1	21.4	50.0	28.6	3.10
	연극	111	0.9	13.5	47.7	35.1	2.7	14.4	47.7	37.8	3.25
	영화	69	0.0	4.3	36.2	46.4	13.0	4.3	36.2	59.4	3.68
	연예	15	6.7	6.7	73.3	13.3	0.0	13.3	73.3	13.3	2.93
	국악	125	2.4	22.4	52.0	18.4	4.8	24.8	52.0	23.2	3.01
	사진	26	0.0	26.9	57.7	11.5	3.8	26.9	57.7	15.4	2.92
	건축	12	8.3	8.3	50.0	16.7	16.7	16.7	50.0	33.3	3.25
	만화	25	0.0	16.0	40.0	28.0	16.0	16.0	40.0	44.0	3.44
	기타	49	0.0	8.2	49.0	38.8	4.1	8.2	49.0	42.9	3.39

- 남자는 여자에 비해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30대 이하는 타 연령대에 비해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 이상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특히, 미술과 연극, 영화 분야 예술인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

□ 전체

[응답자 수 : 1,912명, 보기 제시, 가중치 설정 비중(1순위:2순위=2:1), 단위 : %]



-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1+2순위 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술계 내 심각하게 기울어진 권력관계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 31.4%로 그 뒤를 따름
- 그 다음으로는 예술계 내 잘못된 성 인식 12.2%, 예술계 성폭력 제재 가능한 법/제도 부재 11.1%, 예술계 내 성차별적 문화 5.5%의 순으로 나타남
- ☞ 예술계 내 불균형적인 권력관계로 인해 문화예술계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특유의 분위기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인식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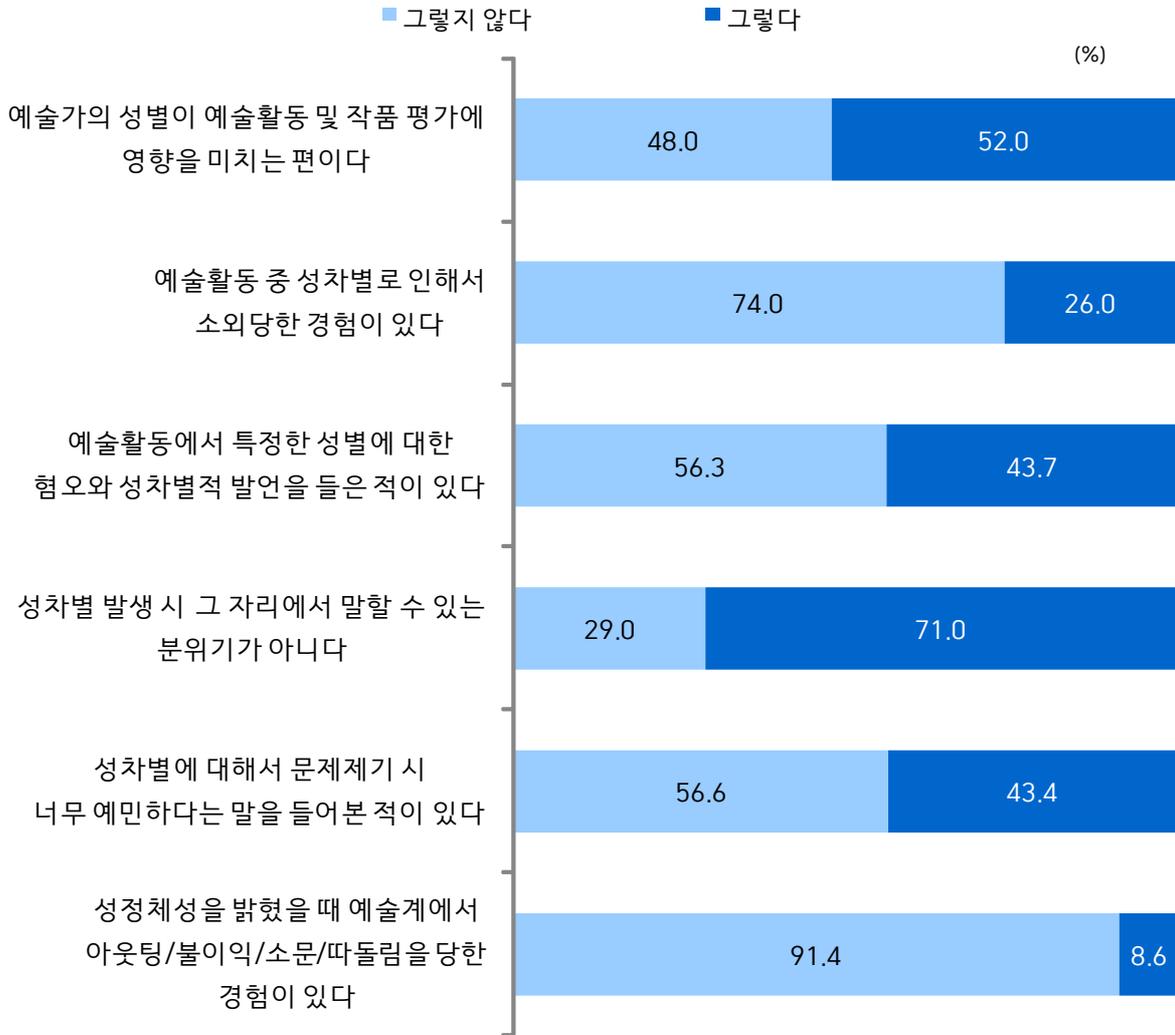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 (1순위 기준)					기타
			예술계 내 심각하게 기울어진 권력관계	성희롱/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	예술계 내 잘못된 인식	예술계 성폭력 제제 가능 법/제도 부재	예술계 내 성차별적 문화	
전체		1,912	43.0	31.6	9.7	8.2	3.9	3.6
성별	남자	628	39.0	32.2	14.0	6.1	3.3	5.4
	여자	1,074	45.1	31.7	6.6	9.7	4.5	2.5
	기타	21	38.1	33.3	9.5	9.5	4.8	4.8
연령	20대 이하	491	53.2	21.4	5.1	10.6	6.7	3.1
	30대	321	51.1	27.1	7.8	8.1	2.5	3.4
	40대	286	43.7	32.9	11.2	5.6	2.8	3.8
	50대	327	33.3	42.2	11.3	6.1	2.8	4.3
	60대 이상	298	26.2	41.9	14.1	10.1	4.0	3.7
예술분야	문학	220	30.0	48.2	10.5	4.1	3.2	4.1
	미술	593	38.6	31.0	9.6	11.5	5.2	4.0
	음악	380	53.9	21.1	8.7	9.2	3.2	3.9
	무용	98	52.0	25.5	7.1	13.3	1.0	1.0
	연극	111	40.5	36.0	9.0	5.4	3.6	5.4
	영화	69	42.0	34.8	11.6	4.3	7.2	0.0
	연예	15	40.0	40.0	20.0	0.0	0.0	0.0
	국악	125	56.0	28.0	7.2	3.2	2.4	3.2
	사진	26	26.9	42.3	23.1	3.8	0.0	3.8
	건축	12	25.0	41.7	8.3	0.0	25.0	0.0
	만화	25	32.0	40.0	16.0	4.0	8.0	0.0
	기타	49	36.7	46.9	0.0	8.2	4.1	4.1

-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예술계 내 심각하게 기울어진 권력관계, 50대 이상은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술 분야별로는 음악과 무용, 국악 분야는 예술계 내 심각하게 기울어진 권력관계, 문학과 연예 분야는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 성희롱/성폭력의 주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30대 이하 예술인은 권력관계로 인식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로 인식하고 있어 세대별로 원인에 대한 입장 차가 존재함

4. 문화예술계 내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성차별 경험

□ 전체

[응답자 수 : 1,840명, 보기 제시, 단위 : %]



-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 인식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1.0%가 성차별 발생 시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예술가의 성별이 예술활동 및 작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하는 비율은 52.0%로 나타남
- 성차별 경험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43.7%가 예술활동에서 특정한 성별에 대한 혐오와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차별에 대해서 문제제기 시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43.4%, 예술활동 중 성차별로 인해서 소외당한 경험이 있다 26.0%, 성정체성을 밝혔을 때 예술계에서 아웃팅/불이익/소문/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 8.6%의 순임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1) 예술가의 성별이 예술활동 및 작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2) 예술활동 중 성차별로 인해서 소외당한 경험이 있다		3) 예술활동에서 특정한 성별에 대한 혐오와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1,840	48.0	52.0	74.0	26.0	56.3	43.7	
성별	남자	628	61.9	38.1	86.5	13.5	65.3	34.7
	여자	1,074	40.7	59.3	66.9	33.1	51.9	48.1
	기타	21	47.6	52.4	66.7	33.3	33.3	66.7
연령	20대 이하	491	35.2	64.8	66.6	33.4	46.6	53.4
	30대	321	46.4	53.6	68.5	31.5	49.8	50.2
	40대	286	53.1	46.9	78.0	22.0	58.7	41.3
	50대	327	54.1	45.9	75.5	24.5	59.3	40.7
	60대 이상	298	62.1	37.9	86.6	13.4	74.8	25.2
예술분야	문학	220	54.1	45.9	80.5	19.5	57.7	42.3
	미술	593	48.7	51.3	73.4	26.6	54.6	45.4
	음악	380	51.1	48.9	78.7	21.3	66.8	33.2
	무용	98	37.8	62.2	57.1	42.9	59.2	40.8
	연극	111	54.1	45.9	77.5	22.5	49.5	50.5
	영화	69	34.8	65.2	56.5	43.5	34.8	65.2
	연예	15	66.7	33.3	86.7	13.3	53.3	46.7
	국악	125	45.6	54.4	71.2	28.8	57.6	42.4
	사진	26	53.8	46.2	84.6	15.4	46.2	53.8
	건축	12	58.3	41.7	66.7	33.3	50.0	50.0
	만화	25	16.0	84.0	60.0	40.0	20.0	80.0
	기타	49	42.9	57.1	73.5	26.5	59.2	40.8

- 여자와 20대 이하, 무용/영화 분야 예술인은 예술가의 성별이 예술활동 및 작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편이며, 예술활동 중 성차별로 인해서 소외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30대 이하, 연극/영화 분야 예술인은 예술활동에서 특정한 성별에 대한 혐오와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응답자별 특성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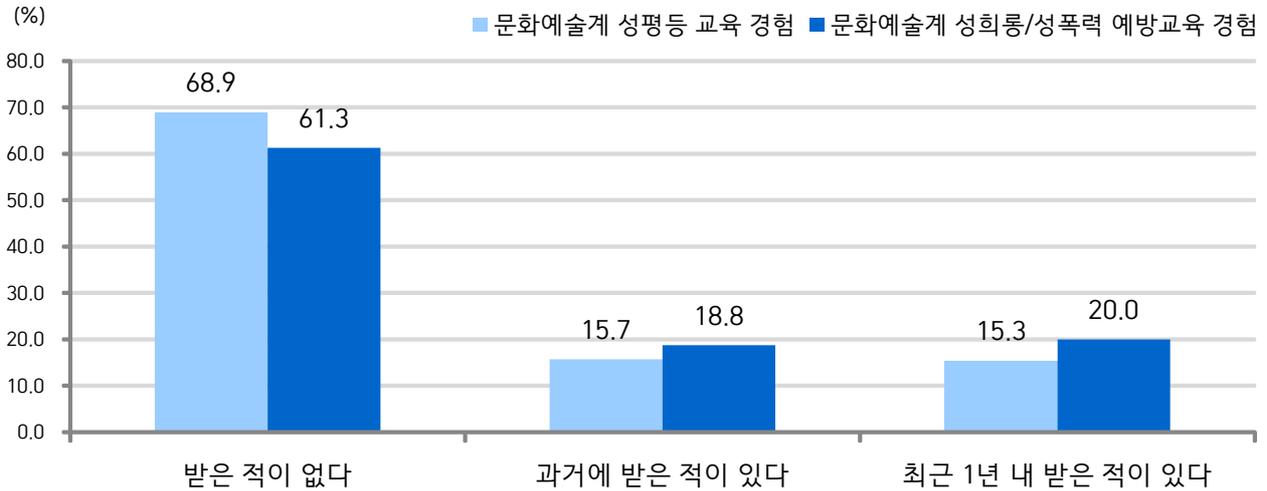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4) 성차별 발생 시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5) 성차별에 대해서 문제제기 시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6) 성적체성을 밝혔을 때 예술계에서 아웃팅/ 볼이익/소문/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1,840	29.0	71.0	56.6	43.4	91.4	8.6	
성별	남자	628	40.8	59.2	65.1	34.9	92.0	8.0
	여자	1,074	21.9	78.1	52.1	47.9	91.2	8.8
	기타	21	23.8	76.2	33.3	66.7	90.5	9.5
연령	20대 이하	491	19.1	80.9	49.9	50.1	91.2	8.8
	30대	321	19.6	80.4	51.4	48.6	92.2	7.8
	40대	286	27.3	72.7	57.7	42.3	92.7	7.3
	50대	327	36.4	63.6	60.9	39.1	89.9	10.1
	60대 이상	298	47.7	52.3	67.8	32.2	91.9	8.1
예술 분야	문학	220	42.3	57.7	61.4	38.6	91.4	8.6
	미술	593	30.4	69.6	54.8	45.2	91.4	8.6
	음악	380	25.5	74.5	62.6	37.4	91.6	8.4
	무용	98	17.3	82.7	62.2	37.8	93.9	6.1
	연극	111	27.9	72.1	46.8	53.2	94.6	5.4
	영화	69	18.8	81.2	37.7	62.3	87.0	13.0
	연예	15	40.0	60.0	60.0	40.0	100.0	0.0
	국악	125	28.0	72.0	60.8	39.2	90.4	9.6
	사진	26	19.2	80.8	53.8	46.2	80.8	19.2
	건축	12	25.0	75.0	41.7	58.3	83.3	16.7
	만화	25	16.0	84.0	48.0	52.0	92.0	8.0
	기타	49	24.5	75.5	46.9	53.1	95.9	4.1

- 여자는 남자에 비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성차별 발생 시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인식하거나 성차별에 대해서 문제제기 시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5. 문화예술계 성평등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 전체

[응답자 수 : 1,813명, 보기 제시, 단위 : %]



-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 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받은 적이 없다 68.9%,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 15.7%, 최근 1년 내 받은 적이 있다 15.3%로 나타남

-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받은 적이 없다 61.3%,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 18.8%, 최근 1년 내 받은 적이 있다 20.0%로 응답됨

☞ 성평등 교육에 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문화예술계 성평등 교육 경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받은 적이 없다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	최근 1년 내 받은 적이 있다	받은 적이 없다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	최근 1년 내 받은 적이 있다	
전체	1,813	68.9	15.7	15.3	61.3	18.8	20.0	
성별	남자	628	64.3	16.9	18.8	60.4	17.8	21.8
	여자	1,074	71.7	14.7	13.6	62.2	18.7	19.1
	기타	21	66.7	23.8	9.5	52.4	23.8	23.8
연령	20대 이하	491	65.0	21.8	13.2	51.7	27.9	20.4
	30대	321	66.7	13.7	19.6	59.5	15.9	24.6
	40대	286	65.4	13.3	21.3	58.7	13.3	28.0
	50대	327	65.4	14.7	19.9	63.9	14.7	21.4
	60대 이상	298	85.2	10.7	4.0	79.2	14.8	6.0
예술분야	문학	220	84.1	8.6	7.3	79.5	11.4	9.1
	미술	593	68.6	16.2	15.2	60.2	19.9	19.9
	음악	380	68.4	18.2	13.4	63.2	18.7	18.2
	무용	98	72.4	12.2	15.3	62.2	15.3	22.4
	연극	111	61.3	18.0	20.7	50.5	24.3	25.2
	영화	69	59.4	14.5	26.1	50.7	17.4	31.9
	연예	15	86.7	6.7	6.7	86.7	6.7	6.7
	국악	125	56.8	18.4	24.8	44.8	20.8	34.4
	사진	26	76.9	7.7	15.4	73.1	15.4	11.5
	건축	12	33.3	16.7	50.0	33.3	25.0	41.7
	만화	25	72.0	20.0	8.0	68.0	24.0	8.0
	기타	49	61.2	20.4	18.4	51.0	20.4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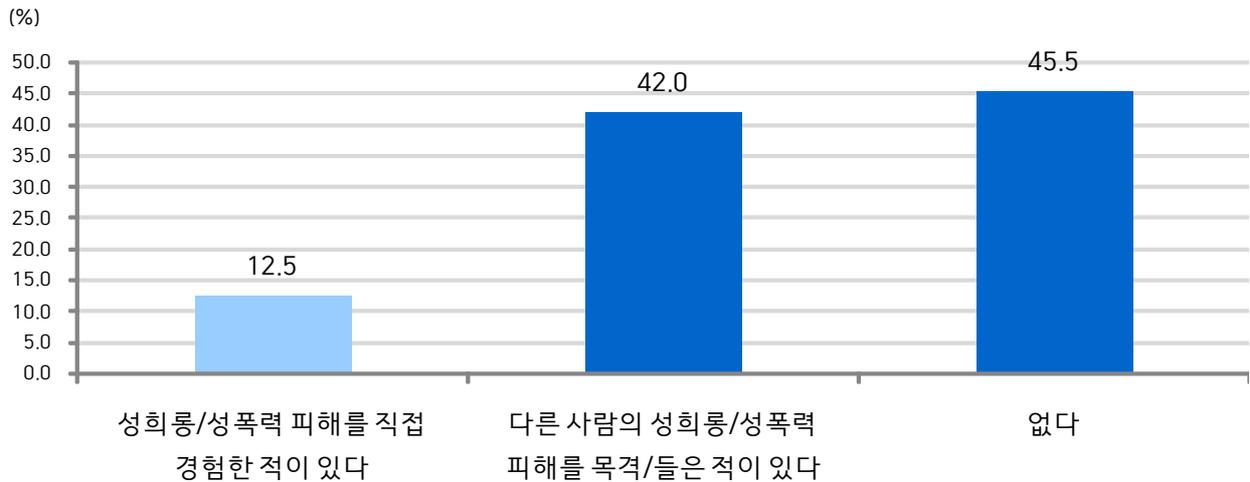
- 60대 이상과 문학 분야 예술인은 성평등 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40대와 연극/영화/국악 분야 예술인은 최근 1년 내 성평등 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Ⅱ.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경험

1.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

□ 전체

[응답자 수 : 1,803명, 보기 제시, 단위 : %]



- 전체 응답자의 12.5%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목격/들은 적이 있다 42.0%로 나타남
 - 한편,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45.5%임
- ☞ 전체 응답자 10명 중 1명 정도는 성희롱/성폭력 직접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장면을 목격하였거나 그런 사실을 전해들은 적이 있는 응답 비율은 4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임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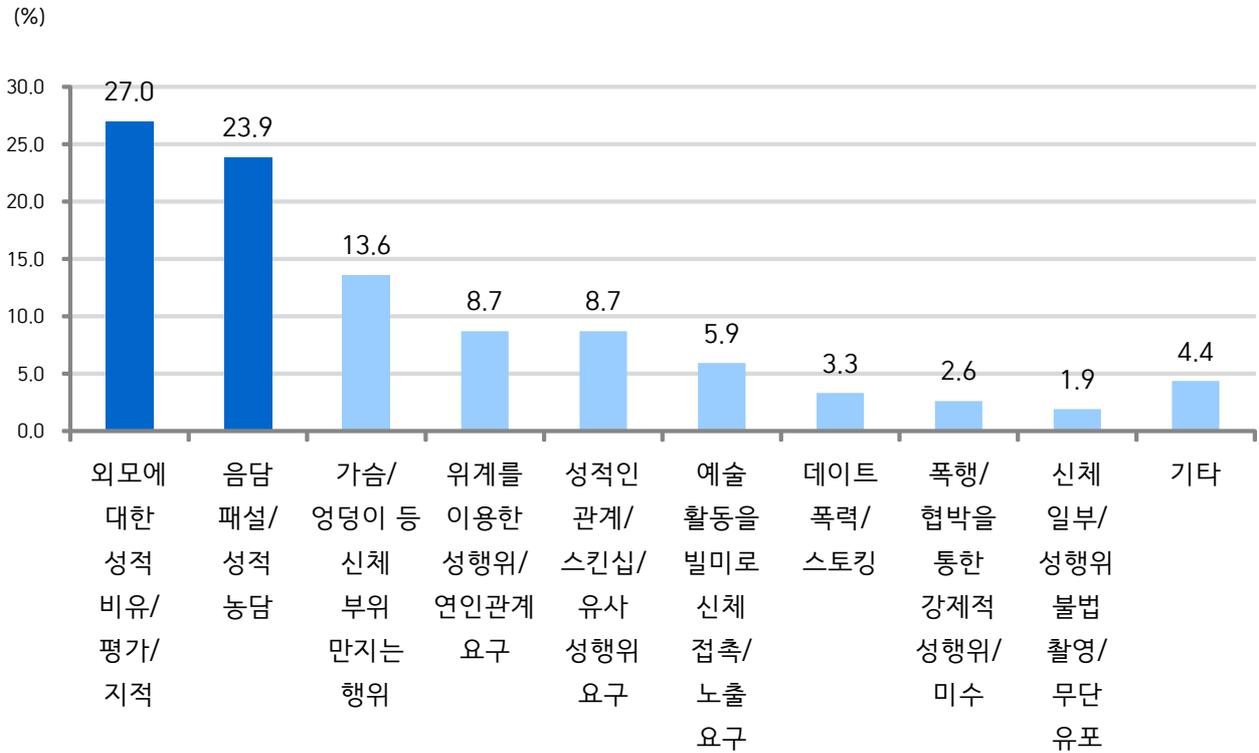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목격/들은 적이 있다	없다
전체		1,803	12.5	42.0	45.5
성별	남자	628	3.0	42.4	54.6
	여자	1,074	17.0	41.1	41.9
	기타	21	23.8	42.9	33.3
연령	20대 이하	491	14.9	42.4	42.8
	30대	321	16.5	49.5	34.0
	40대	286	16.4	47.6	36.0
	50대	327	7.3	40.1	52.6
	60대 이상	298	3.4	27.5	69.1
예술 분야	문학	220	8.2	40.9	50.9
	미술	593	12.6	40.1	47.2
	음악	380	9.7	41.1	49.2
	무용	98	20.4	43.9	35.7
	연극	111	15.3	49.5	35.1
	영화	69	15.9	49.3	34.8
	연예	15	13.3	40.0	46.7
	국악	125	12.0	36.8	51.2
	사진	26	11.5	34.6	53.8
	건축	12	16.7	25.0	58.3
	만화	25	4.0	68.0	28.0
	기타	49	12.2	38.8	49.0

- 무용 분야 예술인은 타 분야에 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임
- 30~40대와 연극/영화 분야 예술인은 다른 사람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남자와 50대 이상, 문학과 국악 분야 예술인은 성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2. 문화예술계에서 직접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

□ 전체

[응답자 수 : 222명, 보기 제시, 중복응답 기준(100% 환산), 단위 : %]



-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면서 직접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평가/지적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담패설/성적 농담 23.9%, 가슴/엉덩이 등 신체 부위 만지는 행위 13.6%, 위계를 이용한 성행위/연인관계 요구와 성적인 관계/스킨십/유사 성행위 요구가 각각 8.7%, 예술 활동을 빌미로 신체 접촉/노출 요구 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계 내 직접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은 주로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와 음담패설, 성적 농담 등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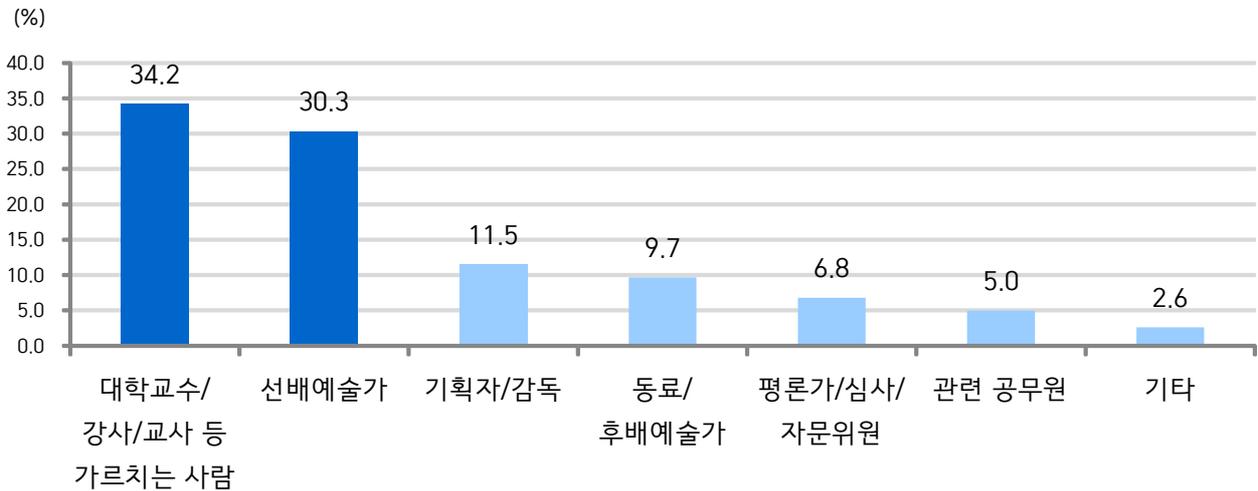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문화예술계에서 직접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평가/지적	음담 패설/성적 농담	가슴/엉덩이 등 신체 부위 만지는 행위	위계를 이용한 성행위/연인관계 요구	성적인 관계/스킨십/유사 성행위 요구	예술 활동을 빌미로 신체 접촉/노출 요구	데이트 폭력/스토킹	폭행/협박을 통한 강제적 성행위/미수	신체 일부/성행위 불법 촬영/무단 유포	기타	
전체	222	27.0	23.9	13.6	8.7	8.7	5.9	3.3	2.6	1.9	4.4	
성별	남자	19	26.2	21.4	14.3	9.5	14.3	2.4	2.4	2.4	2.4	4.8
	여자	183	26.4	24.0	13.9	9.0	8.4	6.6	3.5	2.5	2.0	3.7
	기타	5	35.7	14.3	21.4	0.0	0.0	0.0	7.1	0.0	0.0	21.4
연령	20대 이하	73	30.1	24.4	12.4	5.3	8.6	6.2	4.8	1.9	3.3	2.9
	30대	53	30.3	22.7	17.4	8.3	6.1	6.8	1.5	1.5	2.3	3.0
	40대	47	24.0	23.3	13.2	12.4	9.3	7.0	3.1	3.1	0.0	4.7
	50대	24	15.1	28.3	15.1	13.2	13.2	1.9	1.9	1.9	0.0	9.4
	60대 이상	10	14.3	9.5	14.3	14.3	9.5	4.8	9.5	9.5	4.8	9.5
예술 분야	문학	18	24.2	18.2	18.2	9.1	6.1	3.0	6.1	3.0	3.0	9.1
	미술	75	24.2	22.5	13.2	7.9	10.6	7.0	3.5	3.5	2.6	4.8
	음악	37	25.6	23.3	13.3	12.2	8.9	6.7	4.4	2.2	1.1	2.2
	무용	20	27.7	23.4	19.1	10.6	8.5	4.3	0.0	0.0	2.1	4.3
	연극	17	33.3	33.3	5.1	5.1	5.1	10.3	2.6	2.6	0.0	2.6
	영화	11	31.3	28.1	15.6	6.3	9.4	0.0	3.1	0.0	3.1	3.1
	연예	2	33.3	33.3	0.0	0.0	0.0	16.7	16.7	0.0	0.0	0.0
	국악	15	33.3	11.1	16.7	13.9	5.6	5.6	2.8	2.8	2.8	5.6
	사진	3	25.0	25.0	16.7	8.3	8.3	8.3	8.3	0.0	0.0	0.0
	건축	2	40.0	40.0	0.0	20.0	0.0	0.0	0.0	0.0	0.0	0.0
	만화	1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6	20.0	33.3	33.3	0.0	6.7	0.0	0.0	0.0	0.0	6.7

3.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직위

□ 전체

[응답자 수 : 219명, 보기 제시, 중복응답 기준(100% 환산), 단위 : %]



- 직접 성희롱/성폭력을 가한 상대의 직위를 살펴보면, 대학교수/강사/교사 등 가르치는 사람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배예술가가 30.3%로 그 뒤를 따름
- 그 다음으로는 기획자/감독 11.5%, 동료/후배예술가 9.7%, 평론가/심사/자문위원 6.8%, 관련 공무원 5.0%의 순으로 응답됨
-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직위는 주로 피해자와의 권력관계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대면 가능성이 높은 교수/강사/교사 및 선배예술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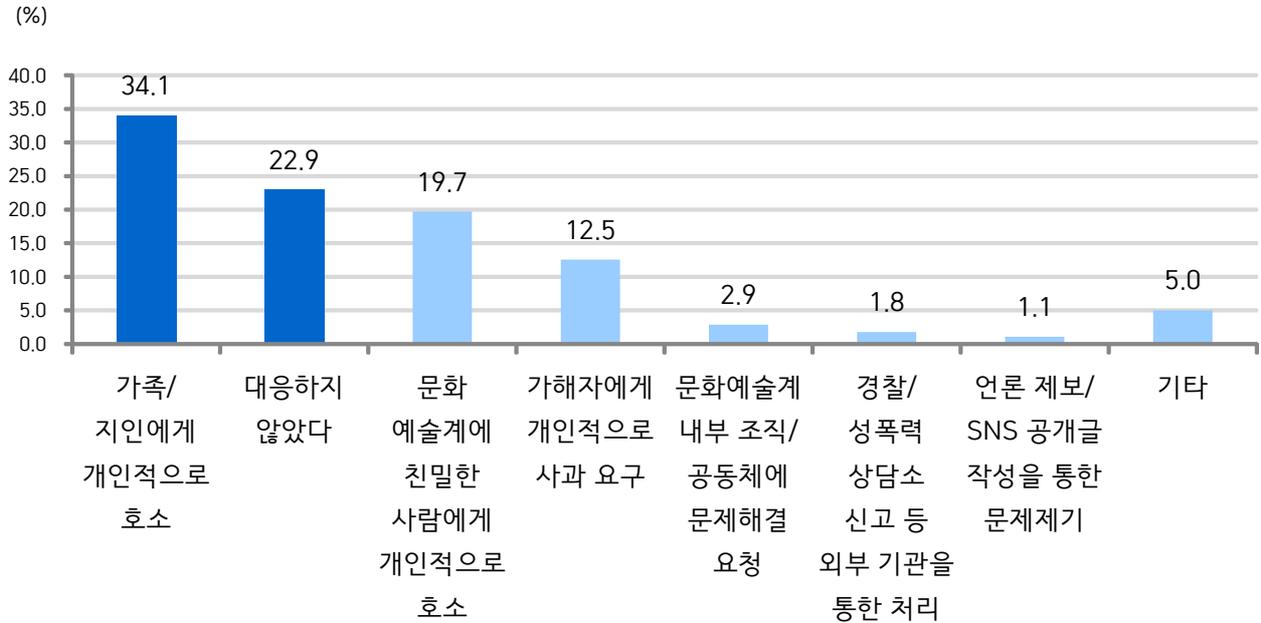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직위						
			대학교수/강사/교사 등 가르치는 사람	선배예술가	기획자/감독	동료/후배예술가	평론가/심사/자문위원	관련 공무원	기타
전체		219	34.2	30.3	11.5	9.7	6.8	5.0	2.6
성별	남자	19	34.5	20.7	17.2	10.3	6.9	6.9	3.4
	여자	183	34.6	30.9	10.8	9.9	6.5	4.6	2.8
	기타	5	50.0	25.0	12.5	0.0	12.5	0.0	0.0
연령	20대 이하	73	38.4	33.6	6.4	12.0	4.0	3.2	2.4
	30대	53	30.7	27.7	19.8	5.0	9.9	4.0	3.0
	40대	47	36.9	28.6	8.3	6.0	7.1	10.7	2.4
	50대	24	30.0	30.0	12.5	17.5	7.5	0.0	2.5
	60대 이상	10	36.4	18.2	9.1	27.3	0.0	0.0	9.1
예술분야	문학	18	28.0	32.0	0.0	16.0	16.0	0.0	8.0
	미술	75	38.8	31.3	8.2	7.5	5.2	5.2	3.7
	음악	37	39.4	24.2	16.7	7.6	4.5	4.5	3.0
	무용	20	41.7	16.7	13.9	11.1	11.1	5.6	0.0
	연극	17	20.7	44.8	17.2	10.3	3.4	0.0	3.4
	영화	11	22.7	36.4	4.5	18.2	13.6	4.5	0.0
	연예	2	25.0	50.0	0.0	25.0	0.0	0.0	0.0
	국악	15	29.2	33.3	20.8	4.2	4.2	8.3	0.0
	사진	3	11.1	22.2	22.2	22.2	11.1	11.1	0.0
	건축	2	25.0	50.0	0.0	25.0	0.0	0.0	0.0
	만화	1	100.0	0.0	0.0	0.0	0.0	0.0	0.0
기타	6	57.1	14.3	14.3	0.0	0.0	14.3	0.0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는 기획자/감독, 40대는 관련 공무원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4.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대응 방법

□ 전체

[응답자 수 : 215명, 보기 제시, 중복응답 기준(100% 환산), 단위 : %]



-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에 대응 방법을 살펴보면, 가족/지인에게 개인적으로 호소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응하지 않았다 22.9%, 문화예술계에 친밀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호소 19.7%,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요구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에 대응방법으로는 가족/지인 혹은 문화예술계 내 친밀한 사람 등 제3자에게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비율도 높게 나타남
한편, 외부 기관 및 언론/SNS 등 대외적인 창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임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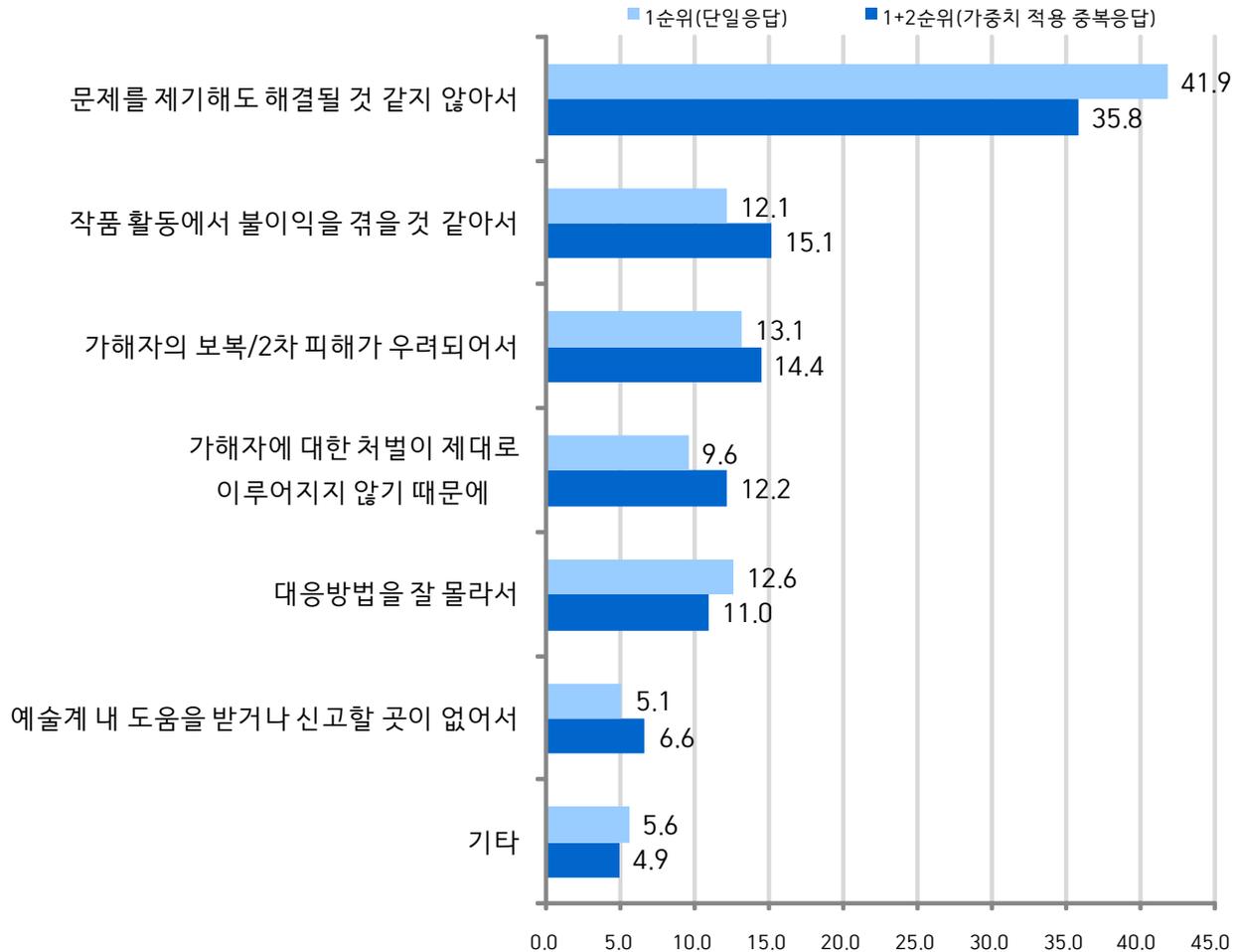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대응 방법								
		가족/지인에게 개인적으로 호소	대응하지 않았다	문화 예술계에 친밀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호소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요구	문화 예술계 내부/공동체에 문제해결 요청	경찰/성폭력 상담소 신고 등 외부 기관을 통한 처리	언론 제보/SNS 공개글 작성을 통한 문제제기	기타	
전체	215	34.1	22.9	19.7	12.5	2.9	1.8	1.1	5.0	
성별	남자	19	18.5	33.3	22.2	7.4	7.4	3.7	3.7	3.7
	여자	183	36.2	22.1	19.6	13.6	2.1	1.3	0.9	4.3
	기타	5	37.5	0.0	12.5	12.5	12.5	0.0	0.0	25.0
연령	20대 이하	73	44.0	12.0	23.0	10.0	3.0	4.0	1.0	3.0
	30대	53	31.5	24.7	23.3	12.3	4.1	0.0	1.4	2.7
	40대	47	27.9	21.3	18.0	23.0	3.3	0.0	1.6	4.9
	50대	24	34.6	46.2	7.7	0.0	0.0	0.0	0.0	11.5
	60대 이상	10	0.0	60.0	0.0	20.0	0.0	0.0	0.0	20.0
예술 분야	문학	18	10.0	60.0	0.0	20.0	5.0	0.0	0.0	5.0
	미술	75	35.7	21.4	22.4	13.3	0.0	2.0	1.0	4.1
	음악	37	38.3	23.4	25.5	6.4	2.1	2.1	0.0	2.1
	무용	20	44.0	16.0	24.0	8.0	0.0	4.0	0.0	4.0
	연극	17	47.6	9.5	23.8	14.3	4.8	0.0	0.0	0.0
	영화	11	35.0	15.0	15.0	15.0	10.0	0.0	5.0	5.0
	연예	2	50.0	50.0	0.0	0.0	0.0	0.0	0.0	0.0
	국악	15	19.0	19.0	19.0	14.3	4.8	0.0	4.8	19.0
	사진	3	16.7	16.7	16.7	33.3	16.7	0.0	0.0	0.0
	건축	2	50.0	0.0	0.0	50.0	0.0	0.0	0.0	0.0
	만화	1	0.0	100.0	0.0	0.0	0.0	0.0	0.0	0.0
기타	6	42.9	14.3	0.0	14.3	14.3	0.0	0.0	14.3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는 가족/지인에게 개인적으로 호소, 40대는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요구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5. 성희롱/성폭력 경험 후 대응 어려운 이유

□ 전체

[응답자 수 : 198명, 보기 제시, 가중치 설정 비중(1순위:2순위=2:1), 단위 : %]



-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작품 활동에서 불이익을 겪을 것 같아서 15.1%, 가해자의 보복/2차 피해가 우려되어서 14.4%,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2.2%, 대응방법을 잘 몰라서 11.0%, 예술계 내 도움을 받거나 신고할 곳이 없어서 6.6%의 순으로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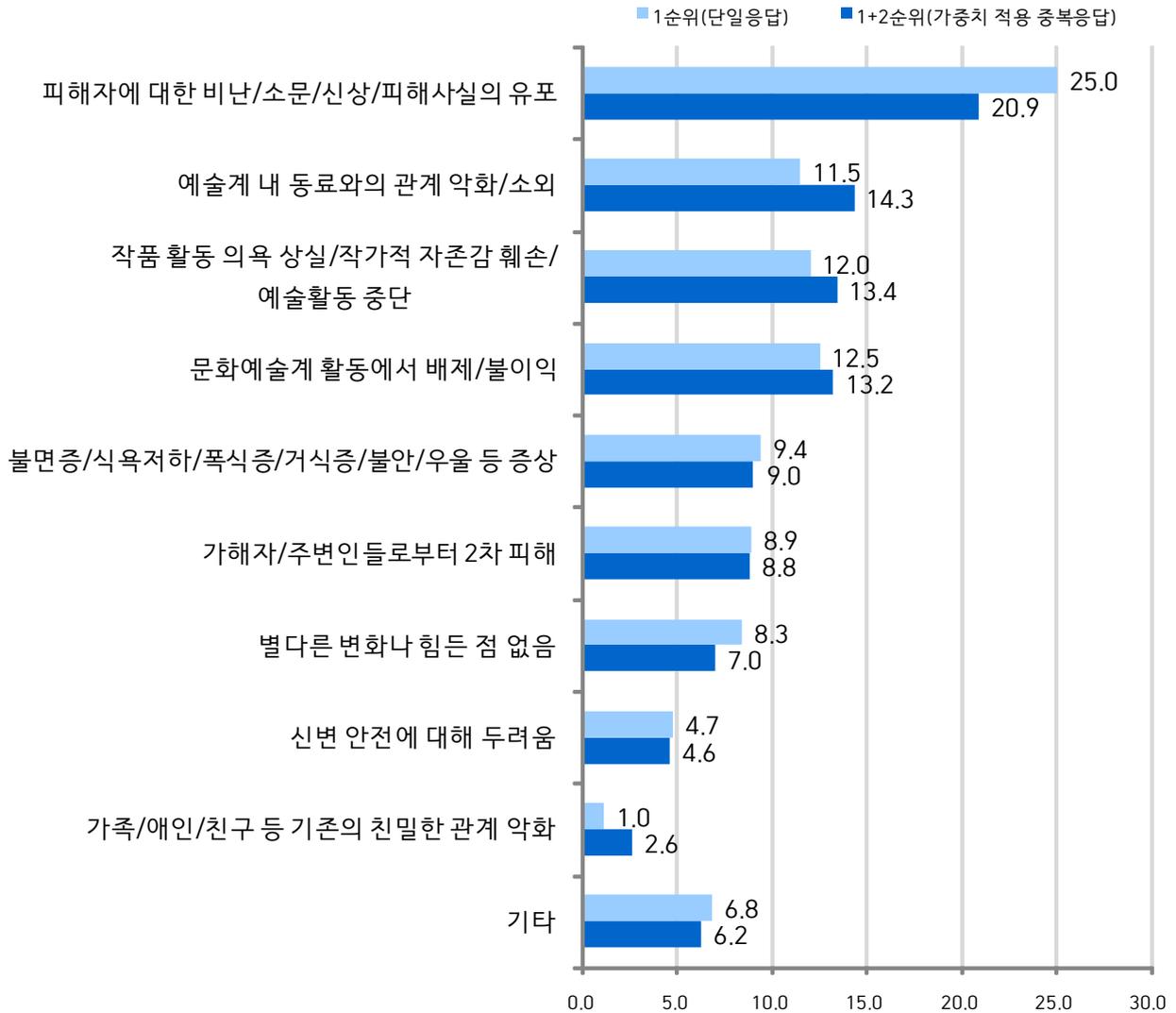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성희롱/성폭력 경험 후 대응 어려운 이유 (1순위 기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가해자의 보복/ 2차 피해가 우려되어서	대응방법을 잘 몰라서	작품 활동에서 불이익을 겪을 것 같아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술계 내 도움을 받거나 신고할 곳이 없어서	기타
전체		198	41.9	13.1	12.6	12.1	9.6	5.1	5.6
성별	남자	18	16.7	11.1	44.4	16.7	5.6	0.0	5.6
	여자	168	45.8	12.5	9.5	12.5	9.5	4.8	5.4
	기타	5	20.0	40.0	0.0	0.0	0.0	20.0	20.0
연령	20대 이하	71	40.8	26.8	7.0	9.9	11.3	2.8	1.4
	30대	50	46.0	2.0	18.0	16.0	4.0	6.0	8.0
	40대	38	44.7	7.9	13.2	2.6	18.4	7.9	5.3
	50대	24	41.7	4.2	12.5	29.2	0.0	4.2	8.3
	60대 이상	8	25.0	12.5	25.0	12.5	0.0	0.0	25.0
예술 분야	문학	15	33.3	6.7	13.3	20.0	6.7	6.7	13.3
	미술	71	36.6	12.7	15.5	11.3	12.7	4.2	7.0
	음악	36	47.2	13.9	8.3	19.4	2.8	5.6	2.8
	무용	19	52.6	5.3	26.3	10.5	5.3	0.0	0.0
	연극	16	56.3	25.0	0.0	6.3	6.3	0.0	6.3
	영화	10	30.0	40.0	10.0	10.0	10.0	0.0	0.0
	연예	2	50.0	0.0	0.0	50.0	0.0	0.0	0.0
	국악	13	38.5	0.0	7.7	7.7	23.1	15.4	7.7
	사진	2	50.0	0.0	0.0	0.0	0.0	50.0	0.0
	건축	1	0.0	100.0	0.0	0.0	0.0	0.0	0.0
	만화	1	100.0	0.0	0.0	0.0	0.0	0.0	0.0
	기타	5	60.0	0.0	20.0	0.0	0.0	0.0	20.0

6.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가장 힘든 부분

□ 전체

[응답자 수 : 192명, 보기 제시, 가중치 설정 비중(1순위:2순위=2:1), 단위 : %]



- 성희롱/성폭력 이후 힘든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비난/소문/신상/피해사실의 유포가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계 내 동료와의 관계 악화/소외 14.3%, 작품활동 의욕 상실/작가적 자존감 훼손/예술활동 중단 13.4%, 문화예술계 활동에서 배제/불이익 13.2%, 불면증/식욕저하/폭식증/거식증/불안/우울 등 증상 9.0%, 가해자/주변인들로부터 2차 피해 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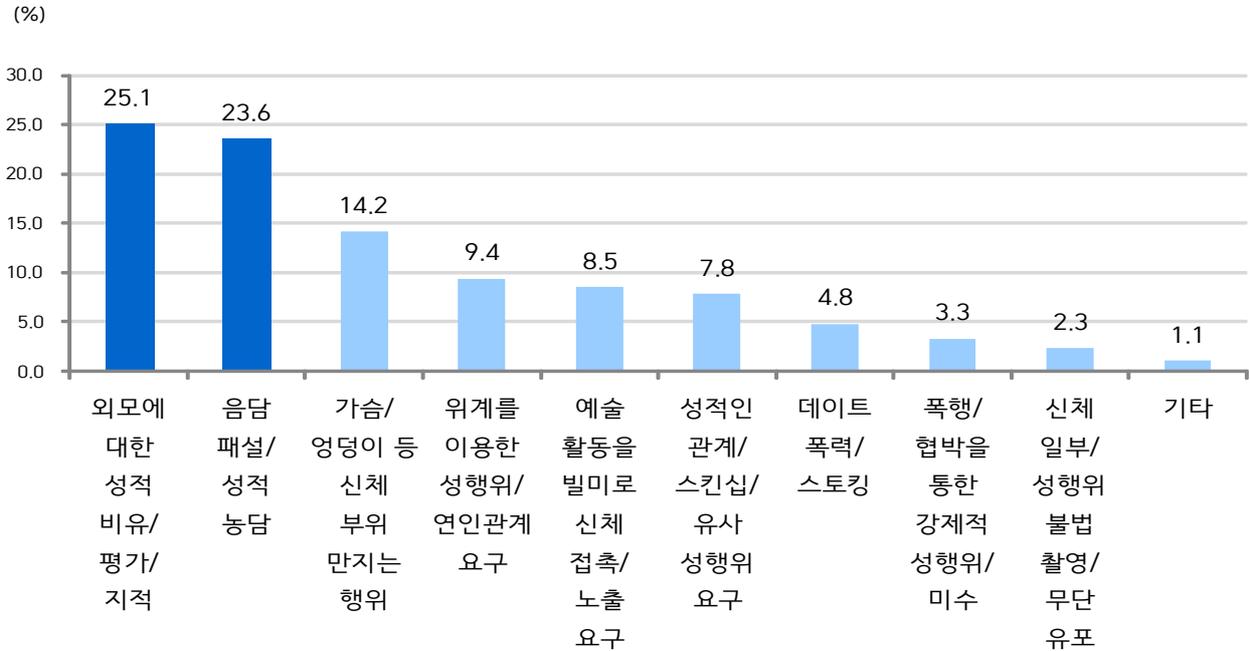
□ 응답자별 특성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가장 힘든 부분 (1순위 기준)										
		응답자 수 (명)	피해자에 대한 비난/소문/피해 사실의 유포	문화 예술계에서 배제/불이익	작품 활동 의욕 상실/작가적 자존감 훼손/예술 활동 중단	예술계 내 동료와의 관계 악화/소외	불면증/식욕 저하/폭식증/거식증/불안/우울 등 증상	가해자/주변인들로 부터 2차 피해	별다른 변화나 힘든 점 없음	신변 안전에 대해 두려움	가족/애인/친구 등 기존의 친밀한 관계 악화	기타
전체		192	25.0	12.5	12.0	11.5	9.4	8.9	8.3	4.7	1.0	6.8
성별	남자	18	33.3	11.1	5.6	33.3	11.1	0.0	0.0	0.0	0.0	5.6
	여자	168	23.8	13.1	13.1	8.3	9.5	9.5	9.5	5.4	1.2	6.5
	기타	5	40.0	0.0	0.0	20.0	0.0	20.0	0.0	0.0	0.0	20.0
연령	20대 이하	71	26.8	8.5	12.7	9.9	8.5	14.1	5.6	7.0	0.0	7.0
	30대	50	32.0	10.0	6.0	10.0	12.0	6.0	12.0	6.0	0.0	6.0
	40대	38	23.7	18.4	15.8	10.5	7.9	10.5	10.5	0.0	2.6	0.0
	50대	24	8.3	20.8	20.8	12.5	12.5	0.0	4.2	4.2	4.2	12.5
	60대 이상	8	25.0	12.5	0.0	25.0	0.0	0.0	12.5	0.0	0.0	25.0
예술 분야	문학	15	33.3	0.0	20.0	20.0	0.0	6.7	20.0	0.0	0.0	0.0
	미술	71	25.4	18.3	14.1	7.0	9.9	8.5	5.6	4.2	0.0	7.0
	음악	36	19.4	13.9	8.3	8.3	11.1	11.1	13.9	5.6	0.0	8.3
	무용	19	47.4	15.8	5.3	10.5	10.5	0.0	0.0	5.3	5.3	0.0
	연극	16	6.3	6.3	25.0	18.8	18.8	6.3	0.0	12.5	0.0	6.3
	영화	10	30.0	0.0	10.0	20.0	0.0	20.0	20.0	0.0	0.0	0.0
	연예	2	5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국악	13	15.4	15.4	0.0	15.4	7.7	15.4	7.7	0.0	7.7	15.4
	사진	2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건축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만화	1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기타	5	20.0	0.0	0.0	0.0	20.0	0.0	20.0	0.0	0.0	40.0

7. 문화예술계 활동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 목격 내용

□ 전체

[응답자 수 : 741명, 보기 제시, 중복응답 기준(100% 환산), 단위 : %]



- 문화예술계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경우 내용을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비유/평가/지적이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담패설/성적 농담 23.6%, 가슴/엉덩이 등 신체 부위 만지는 행위 14.2%, 위계를 이용한 성행위/연인관계 요구 9.4%, 예술 활동을 빌미로 신체접촉/노출 8.5%, 성적인 관계/스킨십/유사 성행위 요구 7.8% 등의 순으로 응답됨

☞ 성희롱/성폭력 피해 목격 내용은 직접 피해 경험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성희롱 유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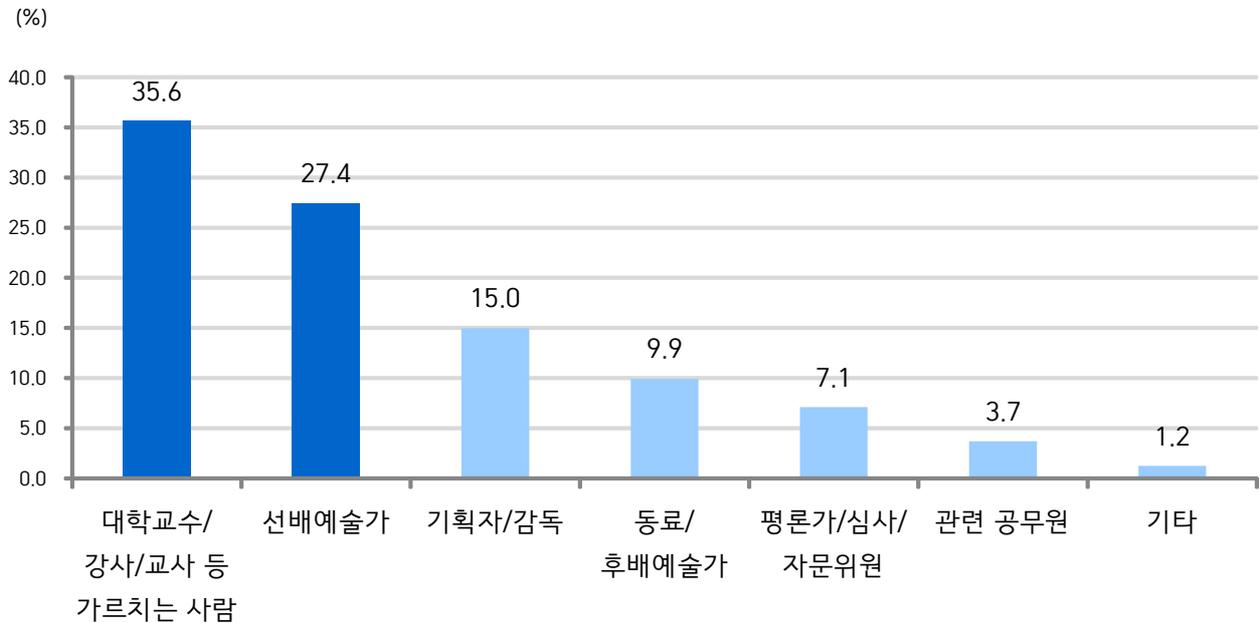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문화예술계 활동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 목적 내용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평가/지적	음담 패설/성적 농담	가슴/엉덩이 등 신체 부위 만지는 행위	위계를 이용한 성행위/연인관계 요구	예술 활동을 빌미로 신체 접촉/노출 요구	성적인 관계/스킨십/유사 성행위 요구	데이트 폭력/스토킹	폭행/협박을 통한 강제적 성행위/미수	신체 일부/성행위 불법 촬영/무단 유포	기타	
전체	741	25.1	23.6	14.2	9.4	8.5	7.8	4.8	3.3	2.3	1.1	
성별	남자	263	22.2	22.9	13.9	11.4	8.7	9.4	5.0	3.1	2.2	1.2
	여자	440	27.1	24.5	14.3	8.2	8.0	7.0	4.3	3.4	2.2	1.1
	기타	9	17.9	17.9	10.3	12.8	7.7	7.7	10.3	7.7	7.7	0.0
연령	20대 이하	208	26.6	20.5	14.2	7.0	8.1	6.7	7.3	4.9	4.4	0.2
	30대	159	25.9	23.0	14.8	11.3	7.1	9.3	4.0	2.4	1.3	0.9
	40대	135	23.3	26.8	15.3	10.6	9.4	8.3	2.4	2.1	0.3	1.5
	50대	129	24.4	25.9	12.2	9.8	8.3	7.7	4.2	3.6	1.8	2.1
	60대 이상	81	21.8	27.4	12.8	11.2	9.5	8.4	2.2	2.2	1.7	2.8
예술 분야	문학	89	20.9	27.6	14.2	7.6	7.1	8.4	5.3	3.1	2.7	3.1
	미술	237	26.1	22.3	13.8	9.1	8.4	9.3	4.3	2.9	2.6	1.2
	음악	156	23.3	24.4	15.3	11.2	7.5	8.4	4.3	3.0	1.4	1.1
	무용	43	26.6	26.6	12.8	16.0	9.6	4.3	1.1	2.1	0.0	1.1
	연극	55	26.2	24.8	16.6	4.8	11.0	4.8	4.1	4.8	2.8	0.0
	영화	34	25.4	21.3	11.5	7.4	9.0	6.6	8.2	5.7	4.9	0.0
	연예	6	26.7	20.0	26.7	13.3	6.7	6.7	0.0	0.0	0.0	0.0
	국악	45	31.3	20.5	15.2	9.8	8.9	6.3	3.6	2.7	0.9	0.9
	사진	9	33.3	26.7	6.7	6.7	6.7	13.3	6.7	0.0	0.0	0.0
	건축	2	25.0	50.0	0.0	25.0	0.0	0.0	0.0	0.0	0.0	0.0
	만화	17	21.1	19.7	11.8	9.2	9.2	7.9	7.9	6.6	6.6	0.0
	기타	19	26.8	26.8	8.9	12.5	5.4	5.4	8.9	5.4	0.0	0.0

8. 성희롱/성폭력 목격 사건 가해자 직위

□ 전체

[응답자 수 : 728명, 보기 제시, 중복응답 기준(100% 환산), 단위 : %]



- 성희롱/성폭력 목격 사건 가해자 직위는 대학교수/강사/교사 등 가르치는 사람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선배예술가 27.4%, 기획자/감독 15.0%, 동료/후배예술가 9.9%, 평론가/심사/자문위원 7.1%, 관련 공무원 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희롱/성폭력 목격 사건 가해자의 직위는 교수/강사/교사 및 선배예술가 등 직접 피해자의 가해자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편임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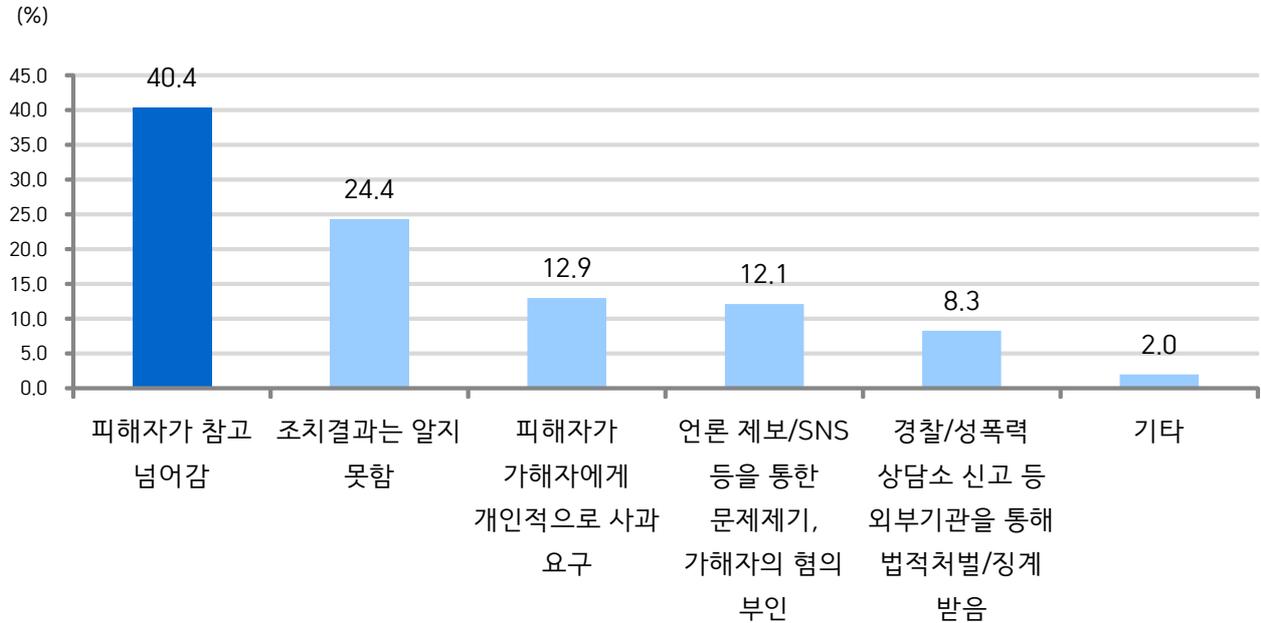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성희롱/성폭력 목격 사건 가해자 직위						
			대학교수/강사/교사 등 가르치는 사람	선배예술가	기획자/감독	동료/후배예술가	평론가/심사/자문위원	관련 공무원	기타
전체		728	35.6	27.4	15.0	9.9	7.1	3.7	1.2
성별	남자	263	33.5	27.0	17.7	9.9	7.5	3.6	0.8
	여자	440	37.2	27.8	13.4	10.0	6.7	3.6	1.2
	기타	9	33.3	19.0	14.3	14.3	14.3	4.8	0.0
연령	20대 이하	208	38.1	28.4	12.8	13.0	5.0	2.1	0.7
	30대	159	36.7	26.5	16.9	7.7	8.0	3.8	0.3
	40대	135	36.3	23.6	17.2	9.4	6.4	5.6	1.5
	50대	129	31.3	33.0	14.2	7.3	8.2	4.3	1.7
	60대 이상	81	32.8	23.5	14.3	12.6	12.6	2.5	1.7
예술분야	문학	89	30.0	34.0	10.0	6.0	15.3	2.7	2.0
	미술	237	42.0	22.9	12.8	11.7	6.7	3.2	0.6
	음악	156	40.8	25.4	13.9	10.5	5.2	2.8	1.4
	무용	43	31.3	33.8	20.0	1.3	8.8	3.8	1.3
	연극	55	23.1	31.5	26.9	8.3	5.6	2.8	1.9
	영화	34	29.3	25.0	20.7	15.2	5.4	4.3	0.0
	연예	6	30.0	20.0	30.0	10.0	10.0	0.0	0.0
	국악	45	26.3	37.5	12.5	12.5	6.3	3.8	1.3
	사진	9	42.9	28.6	14.3	0.0	7.1	7.1	0.0
	건축	2	66.7	0.0	0.0	0.0	0.0	33.3	0.0
	만화	17	31.3	28.1	15.6	15.6	3.1	6.3	0.0
	기타	19	27.0	32.4	13.5	8.1	5.4	13.5	0.0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50대는 선배예술가, 60대 이상은 평론가/심사/자문위원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술 분야별로는 미술과 음악 분야는 대학교수/강사/교사 등 가르치는 사람, 문학과 무용, 국악 분야는 선배예술가, 무용/연극/영화는 기획자/감독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9. 목격 성희롱/성폭력 피해 해결 결과

□ 전체

[응답자 수 : 723명, 보기 제시, 중복응답 기준(100% 환산), 단위 : %]



- 목격하거나 들었던 성희롱/성폭력 피해 해결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참고 넘어감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조치결과는 알지 못함 24.4%,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요구 12.9%, 언론 제보/SNS 등을 통한 문제제기, 가해자의 혐의 부인 12.1%, 경찰/성폭력 상담소 신고 등 외부기관을 통해 법적처벌/징계 받음 8.3%의 순으로 나타남

☞ 목격 성희롱/성폭력 피해 해결 결과는 피해자가 참고 넘어가거나 조치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임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목격 성희롱/성폭력 피해 해결 결과					기타
			피해자가 참고 넘어감	조치결과는 알지 못함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요구	언론 제보/SNS 등을 통한 문제제기, 가해자의 혐의 부인	경찰/성폭력 상담소 신고 등 외부기관을 통해 법적처벌/징계 받음	
전체		723	40.4	24.4	12.9	12.1	8.3	2.0
성별	남자	263	36.2	25.7	13.8	11.7	10.8	1.8
	여자	440	43.7	23.4	12.5	12.1	6.4	2.0
	기타	9	23.5	17.6	23.5	23.5	5.9	5.9
연령	20대 이하	208	37.0	23.1	12.0	17.8	7.7	2.4
	30대	159	40.1	24.8	14.2	13.9	6.2	0.7
	40대	135	39.4	25.3	13.6	9.0	10.9	1.8
	50대	129	45.3	24.9	10.5	7.2	11.0	1.1
	60대 이상	81	49.1	22.6	17.9	1.9	2.8	5.7
예술 분야	문학	89	50.0	24.2	16.1	5.6	0.8	3.2
	미술	237	35.2	25.3	12.9	13.9	10.9	1.8
	음악	156	44.4	21.8	14.8	8.2	8.9	1.9
	무용	43	41.5	26.2	10.8	10.8	7.7	3.1
	연극	55	38.9	25.6	11.1	12.2	12.2	0.0
	영화	34	37.7	21.7	11.6	20.3	7.2	1.4
	연예	6	30.0	20.0	30.0	20.0	0.0	0.0
	국악	45	47.0	27.3	9.1	12.1	3.0	1.5
	사진	9	46.2	15.4	15.4	15.4	7.7	0.0
	건축	2	100.0	0.0	0.0	0.0	0.0	0.0
	만화	17	33.3	25.6	12.8	23.1	2.6	2.6
기타	19	42.9	25.0	7.1	14.3	3.6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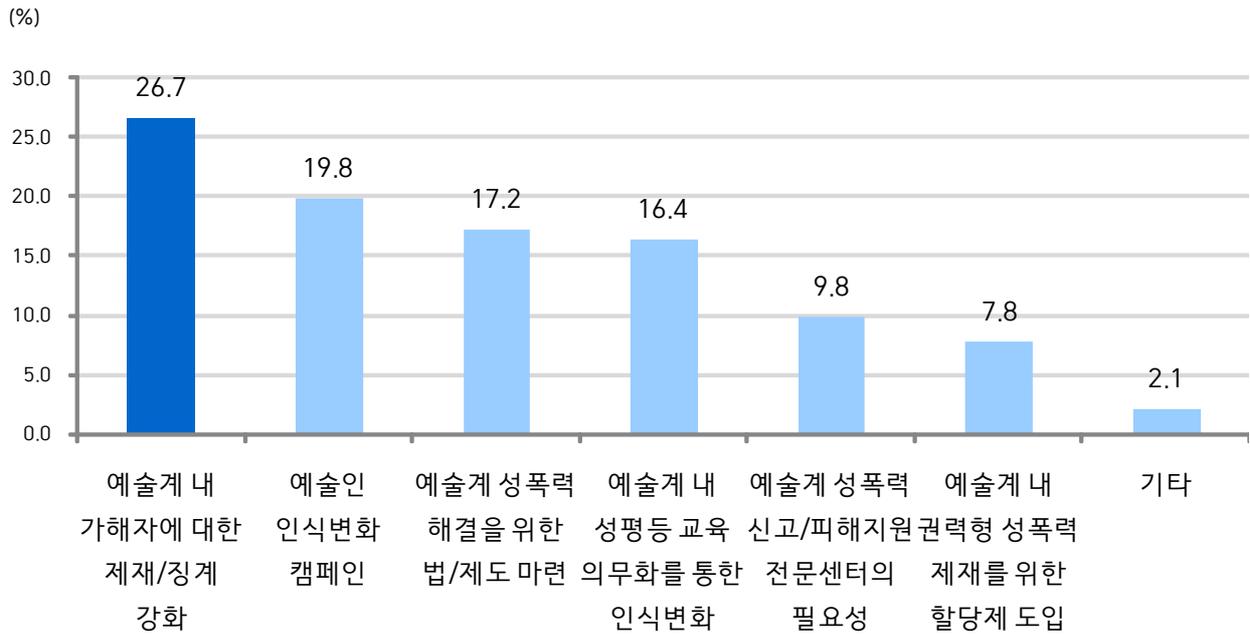
- 60대 이상과 문학/국악 분야 예술인은 목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대 이하와 영화 분야 예술인은 언론 제보/SNS 등을 통한 문제제기, 가해자의 혐의 부인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Ⅲ.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 대책

1.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방안

□ 전체

[응답자 수 : 1,734명, 보기 제시, 단위 : %]



-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예술계 내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 강화가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인 인식변화 캠페인 19.8%, 예술계 성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 17.2%, 예술계 내 성평등 교육 의무화를 통한 인식변화 16.4%, 예술계 성폭력 신고/피해지원 전문센터의 필요성 9.8%, 예술계 내 권력형 성폭력 제재를 위한 할당제 도입 7.8%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징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식변화 캠페인 및 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인식함

□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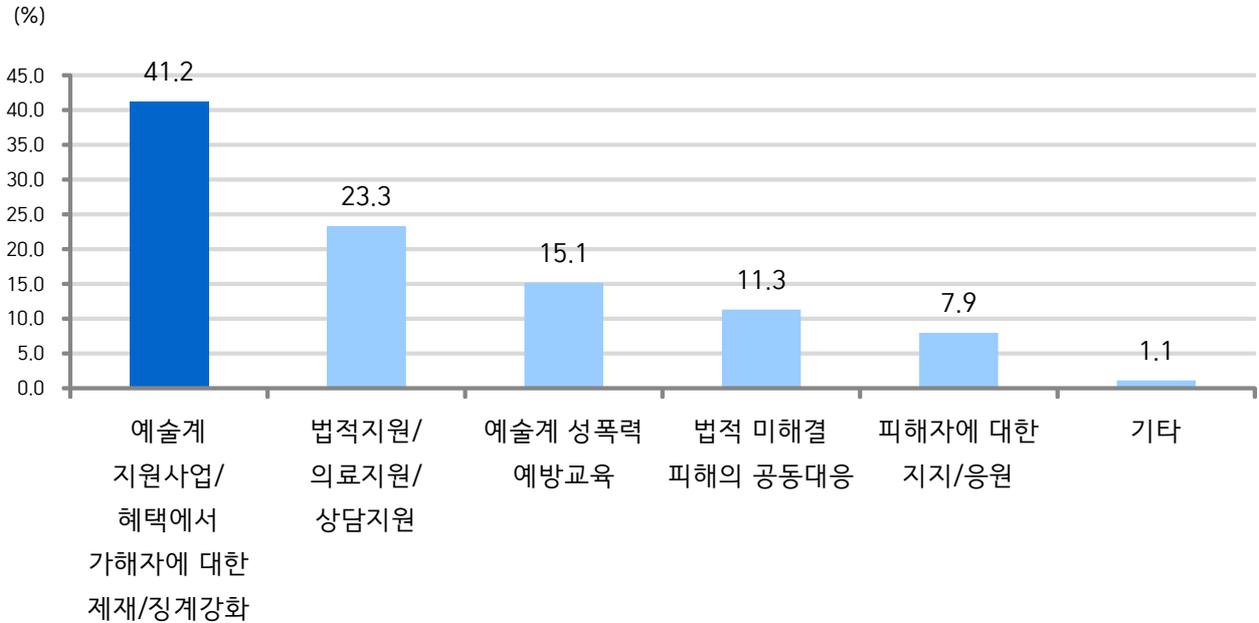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예술계 내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 강화	예술인 인식변화 캠페인	예술계 성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	예술계 내 성평등 교육 의무화를 통한 인식변화	예술계 성폭력 신고/피해지원 전문센터의 필요성	예술계 내 권력형 성폭력 제재를 위한 할당제 도입	기타	
전체	1,734	26.7	19.8	17.2	16.4	9.8	7.8	2.1	
성별	남자	628	21.0	25.5	13.7	20.5	11.0	5.9	2.4
	여자	1,074	29.9	16.7	19.3	14.2	9.0	8.9	2.0
	기타	21	42.9	14.3	9.5	9.5	4.8	14.3	4.8
연령	20대 이하	491	43.4	6.7	17.1	11.2	8.1	10.6	2.9
	30대	321	28.7	14.6	20.6	13.1	12.5	9.3	1.2
	40대	286	26.6	19.9	14.7	20.3	10.1	5.9	2.4
	50대	327	15.6	30.6	15.9	19.9	10.7	5.2	2.1
	60대 이상	298	10.1	35.2	17.1	21.5	7.7	6.7	1.7
예술 분야	문학	220	14.5	30.0	14.5	21.4	10.5	7.3	1.8
	미술	593	25.5	19.1	19.2	17.0	8.9	8.6	1.7
	음악	380	33.2	16.8	15.8	12.9	11.1	7.1	3.2
	무용	98	22.4	17.3	25.5	16.3	11.2	6.1	1.0
	연극	111	29.7	18.9	17.1	19.8	5.4	6.3	2.7
	영화	69	30.4	17.4	11.6	17.4	8.7	14.5	0.0
	연예	15	33.3	13.3	13.3	6.7	13.3	20.0	0.0
	국악	125	28.8	19.2	12.8	19.2	10.4	7.2	2.4
	사진	26	19.2	34.6	15.4	7.7	15.4	7.7	0.0
	건축	12	16.7	41.7	8.3	0.0	8.3	16.7	8.3
	만화	25	60.0	8.0	8.0	12.0	4.0	4.0	4.0
기타	49	28.6	14.3	24.5	14.3	10.2	4.1	4.1	

- 남자와 50대 이상 예술인은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예술인 인식변화 캠페인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20대 이하는 예술계 내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함
- 음악 분야는 예술계 내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 강화, 문학 분야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예술인 인식변화 캠페인, 무용 분야는 예술계 성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 영화 분야는 예술계 내 권력형 성폭력 제재를 위한 할당제 도입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2.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운영 시 필요사항

□ 전체

[응답자 수 : 1,725명, 보기 제시, 단위 : %]



-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운영 시 필요한 사항으로는 예술계 지원사업/혜택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강화가 4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법적지원/의료지원/상담지원 23.3%, 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15.1%, 법적 미해결 피해의 공동대응 11.3%, 피해자에 대한 지지/응원 7.9%의 순으로 나타남

☞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징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응답함

□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 수 (명)	예술계 지원사업/혜택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강화	법적지원/의료지원/상담지원	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법적 미해결 피해의 공동대응	피해자에 대한 지지/응원	기타	
전체	1,725	41.2	23.3	15.1	11.3	7.9	1.1	
성별	남자	628	35.2	23.1	21.0	9.1	10.5	1.1
	여자	1,074	44.5	23.6	11.8	12.8	6.4	0.8
	기타	21	57.1	9.5	4.8	4.8	9.5	14.3
연령	20대 이하	491	47.5	24.6	5.9	13.4	6.9	1.6
	30대	321	42.1	26.5	8.1	16.5	6.2	0.6
	40대	286	41.6	24.8	14.0	9.4	9.1	1.0
	50대	327	37.0	21.7	23.9	8.3	8.0	1.2
	60대 이상	298	34.6	17.8	29.2	7.4	10.4	0.7
예술분야	문학	220	33.6	22.3	24.1	9.1	10.0	0.9
	미술	593	41.5	22.8	13.0	13.3	7.9	1.5
	음악	380	41.3	26.1	15.8	8.4	7.6	0.8
	무용	98	39.8	32.7	11.2	9.2	7.1	0.0
	연극	111	52.3	14.4	9.0	16.2	8.1	0.0
	영화	69	34.8	30.4	11.6	15.9	5.8	1.4
	연예	15	53.3	13.3	20.0	13.3	0.0	0.0
	국악	125	48.8	20.8	13.6	7.2	8.8	0.8
	사진	26	30.8	23.1	30.8	11.5	3.8	0.0
	건축	12	58.3	0.0	25.0	8.3	8.3	0.0
	만화	25	52.0	20.0	8.0	16.0	4.0	0.0
	기타	49	32.7	20.4	16.3	14.3	10.2	6.1

- 성폭력 대응센터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와 50대 이상, 문학 분야 예술인은 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20대 이하와 연극/국악 분야 예술인은 예술계 지원사업/혜택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강화, 30대는 법적 미해결 피해의 공동대응, 무용과 영화 분야 예술인은 법적지원/의료지원/상담지원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제3장. 조사 결과 요약

제3장. 조사 결과 요약

1. 문화예술계 성폭력 및 성평등에 대한 인식

- 술 따르기/옆에 앉히기와 같은 회식자리 접대 요구(74.1%)나 술자리/식사 등 사적 만남 요구(60.3%) 항목에 대해서는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응답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임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

- 강간/강간 미수(92.2%)
- 폭력/협박 동반한 강제추행(92.1%)
- 성적인 정보 공유/유포행위(91.8%)
- 위계를 이용한 성행위/연인관계 요구(91.6%)
- 예술활동을 빙자한 성적인 사진 촬영/소지/유포(90.6%)
- 예술작업을 빌미로 신체접촉/노출 요구(89.1%)
- 성적농담/외모지적/여성혐오적 발언(88.7%)
- **술 따르기/옆에 앉히기와 같은 회식자리 접대 요구(74.1%)**
- **술자리/식사 등 사적 만남 요구(60.3%)**

- 전체 응답자의 33.3%가 부산지역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20.1%)보다 높게 나타남
남자는 여자에 비해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이하는 타 연령대에 비해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 이상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수 (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3분류			5점 척도 평균
						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	심각한 편	
2,000	3.3%	16.8%	46.7%	26.4%	6.9%	20.1%	46.7%	33.3%	3.17점

- 예술계 내 불균형적인 권력관계로 인해 문화예술계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비율(36.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특유의 분위기도 큰 비중(31.4%)을 차지한다고 인식함
성희롱/성폭력의 주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30대 이하 예술인은 권력관계로 인식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로 인식하고 있어 세대별로 원인에 대한 입장 차가 존재함

- 전체 응답자의 71.0%가 성차별 발생 시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인식함
성차별 경험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3.7%가 예술활동에서 특정한 성별에 대한 혐오와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차별에 대해서 문제제기 시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43.4%로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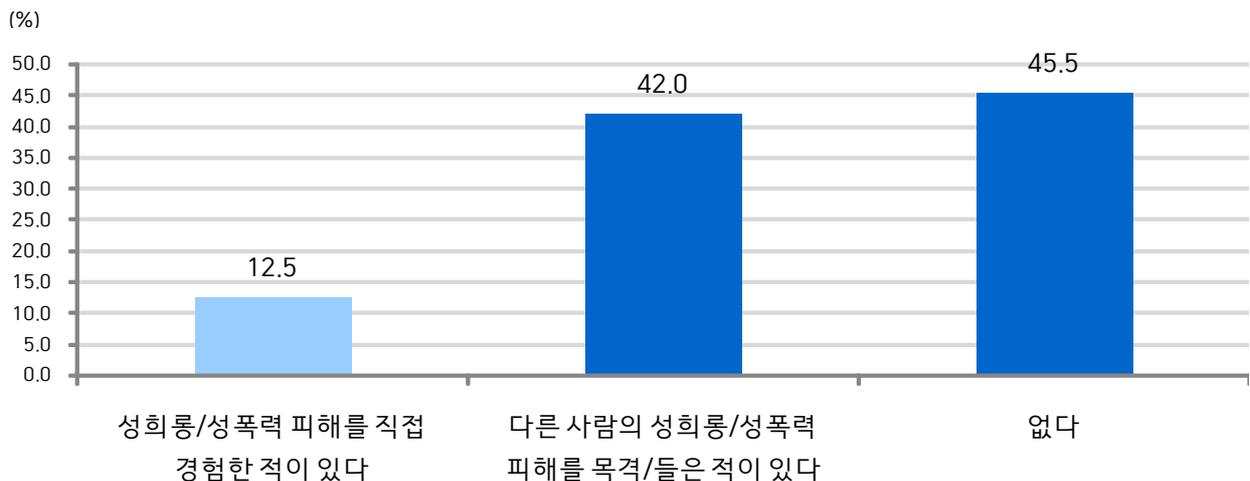
구분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성차별 경험 (그렇다 비율)
성평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차별 발생 시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71.0%) 예술가의 성별이 예술활동 및 작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52.0%)
성차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활동에서 특정한 성별에 대한 혐오와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43.7%) 성차별에 대해서 문제제기 시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43.4%) 예술활동 중 성차별로 인해서 소외당한 경험이 있다(26.0%) 성정체성을 밝혔을 때 예술계에서 아웃팅/불이익/소문/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8.6%)

-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 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받은 적이 없다 68.9%,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 15.7%, 최근 1년 내 받은 적이 있다 15.3%로 나타남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의 경우, 받은 적이 없다 61.3%,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 18.8%, 최근 1년 내 받은 적이 있다 20.0%로 응답됨

2.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경험

- 전체 응답자 10명 중 1명 정도는 성희롱/성폭력 직접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장면을 목격하였거나 그런 사실을 전해들은 적이 있는 응답 비율은 4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임

[응답자 수 : 1,803명, 보기 제시, 단위 : %]



[성희롱/성폭력 직접 피해 경험]

- 무용 분야 예술인은 타 분야에 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며, 30~40대와 연극/영화 분야 예술인은 다른 사람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남자와 50대 이상, 문학과 국악 분야 예술인은 성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문화예술계 내 직접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은 주로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와 음담패설, 성적 농담 등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인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직위는 주로 피해자와의 권력관계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대면 가능성이 높은 교수/강사/교사 및 선배예술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에 대응방법으로는 가족/지인 혹은 문화예술계 내 친밀한 사람 등 제3자에게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비율도 높게 나타남
한편, 외부 기관 및 언론/SNS 등 대외적인 창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임

성희롱/성폭력 직접 피해 경험			
	피해 유형	가해자 직위	피해 후 대응방법
1순위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평가/지적(27.0%)	대학교수/강사/교사 등 가르치는 사람(34.2%)	가족/지인에게 개인적으로 호소(34.1%)
2순위	음담패설/성적 농담(23.9%)	선배예술가(30.3%)	대응하지 않았다(22.9%)
3순위	가슴/엉덩이 등 신체 부위 만지는 행위(13.6%)	기획자/감독(11.5%)	문화예술계에 친밀한 사람 에게 개인적으로 호소(19.7%)

-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희롱/성폭력 이후 힘든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비난/소문/신상/피해사실의 유포가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계 내 동료와의 관계 악화/소외 14.3%, 작품활동 의욕 상실/작가적 자존감 훼손/예술활동 중단 13.4%, 문화예술계 활동에서 배제/불이익 13.2% 등의 순으로 응답됨

[성희롱/성폭력 목격 경험]

- 성희롱/성폭력 피해 목격 내용은 직접 피해 경험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성희롱 유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성희롱/성폭력 목격 사건 가해자의 직위는 교수/강사/교사 및 선배예술가 등 직접 피해자의 가해자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편임
- 목격 성희롱/성폭력 피해 해결 결과는 피해자가 참고 넘어가거나 조치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임

성희롱/성폭력 목격 경험			
	피해 유형	가해자 직위	사건 해결 결과
1순위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평가/지적(25.1%)	대학교수/강사/교사 등 가르치는 사람(35.6%)	피해자가 참고 넘어감 (40.4%)
2순위	음담패설/성적 농담(23.6%)	선배예술가(27.4%)	조치결과는 알지 못함 (24.4%)
3순위	가슴/영덩이 등 신체 부위 만지는 행위(14.2%)	기획자/감독(15.0%)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개인적 으로 사과 요구(12.9%)

3.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방안

-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예술계 내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 강화가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인 인식변화 캠페인 19.8%, 예술계 성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 17.2% 등의 순으로 응답됨
-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운영 시 필요한 사항으로는 예술계 지원사업/혜택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강화가 4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법적지원/의료지원/상담지원 23.3%, 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1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징계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폭력 대응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함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방안	성폭력 대응센터 운영 필요사항
1순위	예술계 내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 강화 (26.7%)	예술계 지원사업/혜택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징계강화(41.2%)
2순위	예술인 인식변화 캠페인(19.8%)	법적지원/의료지원/상담지원(23.3%)
3순위	예술계 성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 (17.2%)	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15.1%)

별첨. 설문지

문4. 다음은 문화예술계 내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성차별 경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항 내용을 읽어보고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예술가의 성별이 예술활동이나 작품에 대한 반응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①	②
2) 예술활동 중 성차별로 인해서 소외당한 경험이 있다	①	②
3) 예술활동에서 특정한 성별에 대한 혐오와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4) 성차별 발생 시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①	②
5) 성차별에 대해서 문제제기 시,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6)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혔을 때 해당 예술계에서 아웃팅(*), 불이익이나 소문,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 (* 아웃팅은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를 말함)	①	②

문5. 귀하는 문화예술계에서 성평등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육 경험		
	받은 적이 없다	최근 1년 내에 받은 적은 없지만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	최근 1년 내에 받은 적이 있다
1) 성평등 교육	①	②	③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②	③

※ 문6에 응답하기 전 아래의 내용을 잘 읽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p>◎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개인의 성적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 음란한 전화 등 - 성추행 : 가슴/엉덩이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애무 등의 행위 - 권력형 성폭력 : 예술가의 지위나 권위를 이용하여 추행 및 성관계, 연인관계 요구 - 스토킹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 접근, 미행, 연락 - 몰래카메라 : 신체일부 또는 성행위를 몰래 촬영, 동의하에 촬영했다라도 무단으로 유포, 협박하는 행위 - 강간 미수 :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우 - 강간 :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행위 (유사성행위 포함)

문6. 귀하는 지금까지 문화예술계에서 위와 같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듣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 문7로 이동
- ② 다른 사람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 ⇨ 문12로 이동
- ③ 없다 ⇨ 문15로 이동

문7. (문6에서 ① 응답자만) 귀하가 지금까지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면서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다면 어떤 유형이었던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및 지적
- ② 음담패설 및 성적인 농담(전화, 문자 및 SNS포함)
- ③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④ 예술활동을 빌미로 신체 접촉 및 노출을 요구하는 행위
- ⑤ 성적인 관계 및 스킨십,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⑥ 위계를 이용하여 성행위 또는 연인관계를 요구

- ⑦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 ⑧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제적 성행위, 미수에 그친 행위
- ⑨ 신체일부 혹은 성행위의 불법 촬영 및 동의했더라도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
- ⑩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문8. (문6에서 ① 응답자만) 당시 귀하에게 직접 성희롱·성폭력을 가한 상대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대학교수, 강사, 교사 등 가르치는 사람
- ② 기획자 및 감독
- ③ 선배예술가
- ④ 동료 및 후배예술가
- ⑤ 평론가, 심사 및 자문위원
- ⑥ 관련 공무원
- ⑦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문9. (문6에서 ① 응답자만) 귀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대응을 하지 않았다
- ② 가족, 지인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호소
- ③ 문화예술계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호소
- ④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구
- ⑤ 문화예술계 내부 조직이나 공동체에 문제해결 요청
- ⑥ 경찰 및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 등 외부 기관을 통한 처리
- ⑦ 언론 제보, SNS 공개글 작성 등 외부적으로 문제제기
- ⑧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문10. (문6에서 ① 응답자만)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이후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응방법을 잘 몰라서 ②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③ 섭외나 청탁, 의뢰, 협업 등 작품 활동에서 불이익을 겪을 것 같아서 ④ 가해자의 보복 또는 2차 피해가 우려되어서 ⑤ 예술계 내에서 도움을 받거나 신고할 곳이 없어서 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⑦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	---

문11. (문6에서 ① 응답자만) 귀하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해자에 대한 비난, 소문, 신상과 피해사실이 주변에 공공연하게 알려짐 ② 문화예술계 활동에서 배제, 불이익을 겪음 ③ 가해자 및 주변인들로부터 2차 피해 ④ 신변 안전에 대해 두려움 ⑤ 가족, 애인, 친구 등 기존의 친밀한 관계의 악화 ⑥ 예술계 내의 동료와의 관계가 악화, 소외 ⑦ 불면증, 식욕저하, 폭식증, 거식증, 불안, 우울 등의 증상 ⑧ 작품 활동 의욕이 상실되고 작가적 자존감이 훼손, 예술활동 중단 ⑨ 별다른 변화나 힘든 점이 없음 ⑩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	--

문12. (문6에서 ②응답자만) 귀하가 지금까지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목격하였거나 전해들은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및 지적
- ② 음담패설 및 성적인 농담(전화, 문자 및 SNS포함)
- ③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④ 예술활동을 빌미로 신체 접촉 및 노출을 요구하는 행위
- ⑤ 성적인 관계 및 스킨십,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⑥ 위계를 이용하여 성행위 또는 연인관계를 요구
- ⑦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 ⑧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제적 성행위, 미수에 그친 행위
- ⑨ 신체일부 혹은 성행위의 불법 촬영 및 동의했더라도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
- ⑩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문13. (문6에서 ②응답자만) 귀하가 목격하거나 들었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대학교수, 강사, 교사 등 가르치는 사람
- ② 기획자 및 감독
- ③ 선배예술가
- ④ 동료 및 후배예술가
- ⑤ 평론가, 심사 및 자문위원
- ⑥ 관련 공무원
- ⑦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문14. (문6에서 ②응답자만) 귀하가 목격하거나 들었던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피해자가 참고 넘어감
- ②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구함
- ③ 경찰 및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 등 외부 기관을 통해 가해자는 법적처벌 및 징계를 받음
- ④ 피해자가 언론 제보, SNS 공개글 작성 등 외부적으로 문제제기했지만 가해자는 성폭력혐의 부인함
- ⑤ 조치결과는 알지 못함
- ⑥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문15.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예술계 내 성평등 교육 의무화를 통한 인식변화
- ② 예술계 성폭력 신고 및 피해지원 할 수 있는 전문센터의 필요성
- ③ 예술계 성폭력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
- ④ 예술인들 인식변화를 위한 캠페인
- ⑤ 예술계 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징계 강화
- ⑥ 예술계 내 권력형 성폭력을 제재하기 위한 할당제 도입
(특정한 사람, 성별에 역할과 지휘가 치우치지 않도록 몫을 나누고 배분하는 제도)
- ⑦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문16. 귀하는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가 상시 운영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응원
- ② 법적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등
- ③ 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 ④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피해의 경우 공동대응
- ⑤ 예술계 지원사업 및 혜택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징계강화
- ⑥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응답자 특성				
SQ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③ 기타	
SQ2. 연령대	① 10대 ④ 40대	② 20대 ⑤ 50대	③ 3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SQ3. 활동 예술분야	① 문학 ⑤ 연극 ⑨ 사진	② 미술(응용미술 포함) ⑥ 영화 ⑩ 건축	③ 음악 ⑦ 연예 ⑪ 만화	④ 무용 ⑧ 국악 ⑫ 기타()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대응센터를 2018년 7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제보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1-558-8858)

2018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발 행 월 : 2018년 12월

의 퇴 기 관 :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감만동)

T: 051-744-7707

조 사 기 관 : 주식회사 동남리서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665 2층

T: 051-583-8050

예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예술인 실태 및 예술인복지 만족도 조사

발행처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연구기관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주식회사 동남리서치
발행일 2018년 12월

예술인복지정책 수립연구

책임연구 이승욱(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공동연구 송교성(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지식공유실장)
연구보조 정민정(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기획경영실장)
최예송(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지식공유실 연구원)
배미래(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지식공유실 연구원)

예술인 실태 및 예술인복지 만족도 ·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책임연구 최동일(주식회사 동남리서치 대표)
공동연구 임미향(주식회사 동남리서치 선임연구원)
연구보조 김연주(주식회사 동남리서치 연구원)
최영진(주식회사 동남리서치 연구원)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 예술지원팀(예술인복지지원센터)

담당자 조형수(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양주원(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이아름(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051-744-7707